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 현대사회와 윤리 교수·학습 자료집

능력 있는 유리 선생님의 비밀 노트

| 학생 생활기록부를 위한 토론·논술 활동집 |

| 열일곱 가지 주제로 보는 원전 자료집 |

교과서는 지학사
수업지원자료는 티솔루션

- 학생 생활기록부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작성에 도움이 되는 참고 문장들을 제시
- 선생님들의 시험 출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개정된 교육과정에 맞게 원전 자료를 수록

지학사



지학사

지학사는 1965년 창립 이후,
초중고 학생들을 위한 전 과목 교과서 및 참고서를 발행하고,
선생님들을 위한 다양한 교수·학습 자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펴낸곳 (주)지학사 (등록번호 : 1957.3.18 제 13-11호)

지은이 이현우(당곡고등학교)

고경수(전주고등학교)

안인선(한가람고등학교)

본 도서는 저작권법에 의하여 보호받는 저작물로, 협의 없이 복사·복제할 수 없습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고등 현대사회와 윤리 교수·학습 자료집

능력 있는 윤리 선생님의 비밀 노트

| 학생 생활기록부를 위한 토론·논술 활동집 |

| 열일곱 가지 주제로 보는 원전 자료집 |



차례



학생 생활기록부를 위한 토론·논술 활동집

1. 인간의 본성은 선할까, 악할까?	06
2. 새치기는 왜 나쁜 행위일까?	08
3.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할까?	10
4. 바람직한 성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14
5. 육식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16
6.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일까?	20
7. 가짜 뉴스의 확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24
8.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자율성에 유익할까?	26
9.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까?	30
10.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은 정당할까?	32
11. 가정 환경 및 교육 환경이 대입을 좌우하는 일은 정당할까?	36
12. 비도덕적인 예술 작품도 예술로 인정할 수 있을까?	40
13. 채식 급식 의무화는 정당할까?	42
14.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46
15.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해야 할까?	48
16.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할까?	50
17. 국제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54
선생님을 위한 부록	58



열일곱 가지 주제로 보는 원전 자료집

1. 다양한 윤리학의 의미	76
2. 동양 윤리와 서양 윤리의 접근	78
3. 출생과 죽음의 의미와 생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82
4. 사랑과 성의 의미와 가족 윤리	84
5. 인간과 자연의 관계	86
6. 과학기술 연구의 학문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	90
7. 정보윤리와 미디어 문해력의 필요성과 역할	92
8. 인공지능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	94
9. 동서양의 직업관	96
10. 국가 권위의 정당성과 시민불복종	98
11. 분배적 정의와 교정적 정의	102
12. 예술에 관한 견해	106
13. 거주함과 소비의 의미	108
14. 문화와 종교에 대한 이해	110
15. 소통과 담론의 윤리	112
16. 통일과 평화를 위한 길	114
17. 국제 관계의 이해와 해외 원조	116



고등 현대사회와 윤리 교수·학습 자료집

학생 생활
기록부를 위한

토론·논술 활동집

1

인간의 본성은 선할까, 악할까?

선생님을 위한 부록 58쪽

활동 목표

- 인간의 본성에 관한 다양한 관점을 비교하여 이해할 수 있다.
- 인간의 본성에 관한 자신의 관점을 다양한 근거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STEP 1 자료 읽기

⊕ 성선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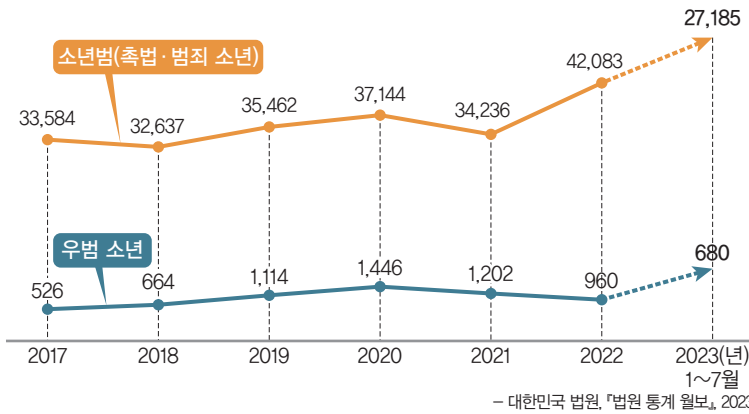
사람의 본성은 개나 소의 본성과 같지 않다. 동물과 구별되는 그 타고난 선한 마음을 보존하면 군자가 될 수 있다. 사람의 본성이 선하다는 것은 물이 아래로 흐르는 것과 같다. 그런데 물을 손으로 치면 튄 수 있고, 산으로 물을 끌어 올릴 수도 있지만 이것은 물의 본성이 아니다. 물이 외부의 힘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사람이 선하지 않게 된 것도 그와 마찬가지로다. - 『맹자』

⊕ 성악설

사람의 본성은 악하지만 선한 것은 인위이다. 사람은 본성상 이익을 좋아한다. 이를 따르기 때문에 다툼이 생기고 양보하는 마음이 없어진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질투하고 미워하게 되어 있다. 이를 따르기 때문에 잔악해진다. 굽은 나무는 불에 쪼여야만 곧게 되고, 무딘 쇠붙이는 숫돌에 갈고 닭은 연후에 날카로워지듯이 사람의 본성도 스승과 법도, 예의의 교화가 있어야만 다스려질 수 있다. - 『순자』

⊕ 소년범 5년새 8,500건 급증 …… 방치하면 성인 흉악범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 ……

소년 보호 사건 연도별 추이 (단위: 건)



범죄를 저지르는 나이가 점차 어려워지는 추세이다. 소년범 중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 소년'의 수는 2017년과 2022년 사이에 큰 변화가 없었다. 반면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을 받지 않는 '촉법소년'은 같은 기간 두 배 이상으로 급증하였다. …… 문제는 소년범에게 적절한 교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성인 흉악범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소년범의 경우 최근 10년간 재범률이 약 12%로 성인(약 5%)의 두 배 이상이다. 소년원이나 소년 교도소에서 또래 소년범들과 어울리며 네트워크가 형성되고 범죄를 학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 『동아일보』, 2023. 9. 1.

- 소년범: 범죄를 저지른 만 19세 미만 미성년자. 만 14세 이상 19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인 '범죄 소년'과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아닌 '촉법소년'을 합쳐 소년범이라고 칭함.

STEP 2 쟁점 분석하기

1. 다음 질문을 읽고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을 정리해 보자.

질문	성선설	성악설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은 비슷한가 혹은 다른가?		
인간이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까닭은 무엇인가?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STEP 3 논술하기

2.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 중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하여 소년범 증가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적어 보자.

입장	(성선설 / 성악설)
소년범 증가 현상의 원인	
해결 방안	

3. 2의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이 지지하는 인간관을 선택하고, 그에 대한 근거를 정리해 보자.

입장	나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한다. / 악하다고 생각한다.)
근거	

STEP 4 평가하기 (5점 만점)

평가 항목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인간의 본성에 관한 서로 다른 두 가지 입장을 근거를 올바르게 정리하였는가?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서 소년범 증가 현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적절하게 제시하였는가?		
<논술하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인간관을 선택하고, 그 입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논술하기>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인간관과 그에 대한 근거가 일관되었는가?		

매우 그렇다 5점 / 그렇다 4점 / 보통이다 3점 / 그렇지 않다 2점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2

새치기는 왜 나쁜 행위일까?

선생님을 위한 부록 58쪽

활동 목표

- 하나의 문제 상황을 여러 윤리 이론의 관점에서 평가할 수 있다.
- 여러 윤리 이론에서 제시하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STEP 1 자료 읽기

+ 버스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 1순위'는 새치기

서울 마을버스 이용객이 가장 싫어하는 행동은 뻔뻔한 새치기로 나타났다. 서울시 의회가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여 공개한 「마을버스 서비스 만족도 여론 조사」에 따르면 '버스 이용 시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응답자의 14.0%가 새치기를 꼽았다. '넓은 자리를 혼자 차지한 사람'이 12.2%로 뒤를 이었고 '술 냄새가 진동하는 사람'이 11.4%, '타인에게 의도적으로 몸을 밀착하는 사람'이 10.8%로 각각 3순위와 4순위를 차지하였다.

- 『조선일보』, 2019. 11. 30.

+ 칸트의 의무론

다음을 가정해 보라. 나는 돈이 약간 필요하다. 그런데 값을 의도가 전혀 없으면서 그것을 값겠다고 약속하고 당신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것이 도덕적인지 아닌지 생각하고 있다. 거짓 약속을 하지 않고서는 벗어날 수 없는 그런 곤궁에 처한다면 누구든지 거짓 약속을 할 것이라고 나 자신에게 말할 수 있는가? 나의 행위의 준칙은 M이다.

M: 내가 돈이 필요할 때마다, 나는 그 돈을 빌리면서 거짓 약속을 해야 한다.

나는 나의 행위의 준칙을 보편화할 수 있는가? 보편화 가능성 검사를 M에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P를 얻는다.

P: 누구든지 돈이 필요할 때마다, 그 사람은 그 돈을 빌리면서 거짓 약속을 해야 한다.

그러나 여기에는 무언가 잘못된 점이 있다. 왜냐하면 내가 지킬 의도가 없으면서 약속을 한다는 이러한 원리를 보편화하게 되면, 나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멀쩡한 정신으로 이행될 가망이 없는 약속을 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거짓 약속을 하는 준칙은 보편화 가능성의 기준을 통과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비도덕적이다.

- 포이만·피저, 『윤리학: 옳고 그름의 발견』

+ 벤담의 공리주의

벤담에게 있어 유용성의 원리는 가장 기본적인 도덕적 준칙이다. 이 원리를 적용함으로써 우리는 어떤 행위가 옳으며 우리가 무엇을 행하여야만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얻게 된다. 그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최대의 행복을 증진하는 행위는 곧 우리가 수행하여야 할 옳은 행위이며 우리가 행하여야만 하는 행위이다. …… 이러한 모든 계산을 마친다면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행위 중에 어떤 것이 옳은 행위이며 우리가 수행해야 하는 행위 인지를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그 행위의 결과가(영향을 받는 모든 개인들에 대하여) 고통에 비하여 가장 큰 쾌락의 수치를 지니거나 또는 최소한의 고통의 총량만을 지니는 것으로 평가되는 행위가 바로 그런 행위이다. 최종의 계산은 옳은 행위가 전체의 행복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 줄 것이다.

- 로버트 L. 애링턴, 『서양 윤리학사』

STEP 2 쟁점 분석하기

1. 다음 표를 보고 두 가지 윤리 이론의 주장과 근거를 정리해 보자.

칸트의 의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의 결과가 아니라 행위의 ()을/를 강조함. • 행위의 준칙이 ()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면 비도덕적임. • 거짓 약속을 하고자 하는 준칙을 보편화하면 ()에 빠짐. → 약속이라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거짓 약속은 보편화 가능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므로 비도덕적임.
벤담의 공리주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위의 동기가 아니라 행위의 ()을/를 강조함. • 최대 다수에게 최대한의 ()을/를 가져오는 행위가 옳은 행위임. → 행위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의 ()을/를 양적으로 측정·계산해야 함. → 계산 결과 쾌락을 최대한 많이 산출하거나 ()을/를 최소화하는 행위를 해야 함.

STEP 3 논술하기

2. 두 가지 윤리 이론 중 하나를 선택하여 새치기가 잘못된 까닭을 서술하고, 새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논술해 보자.

STEP 4 평가하기 (5점 만점)

평가 항목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두 가지 윤리 이론의 주장과 근거를 올바르게 정리하였는가?		
〈논술하기〉에서 자신이 선택한 입장의 주장과 근거를 요약하였는가?		
〈논술하기〉에서 자신이 선택한 입장을 토대로 새치기가 발생하는 까닭을 올바르게 서술하였는가?		
〈논술하기〉에서 새치기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나누어 각각 제시하였는가?		

매우 그렇다 5점 / 그렇다 4점 / 보통이다 3점 / 그렇지 않다 2점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3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할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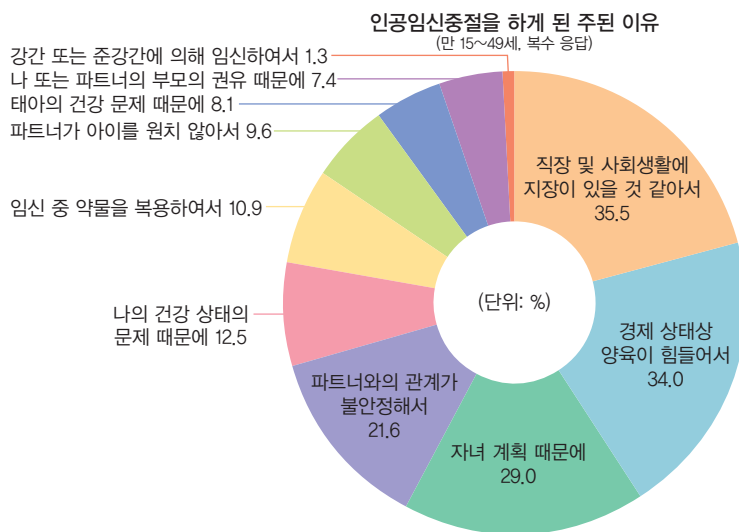
선생님을 위한 부록 59쪽

활동 목표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논리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인공임신중절의 윤리적 쟁점을 새로운 관점에서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인공임신중절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서술할 수 있다.

STEP 1 자료 읽기

⊕ (가) 여성의 마지막 선택권 '낙태' 범죄가 아닌데, 아직 범죄인 이유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 불합치 결정이 나온 지 4년이 넘었지만 국회는 아직까지 대체 입법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형법 제269조 자기 낙태죄와 제270조 의사 낙태죄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은 2019년 4월로, 이에 따라 특수 상황에서의 낙태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모자 보건법」 개정이 필요해졌다. 2020년 정부안은 임신 14주 이내일 경우 본인 의사에 따라 낙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임신 15~24주 이내는 사회적·경제적 사유가 있는 경우 상담과 24시간 숙려 기간을 거치도록 조건을 달았다. 하지만 이 정부안은 아직도 국회 상임 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 『머니투데이』, 2023. 7. 8.

⊕ (나) 프란치스코 교황 새해 첫 미사 메시지는 “낙태 반대, 생명 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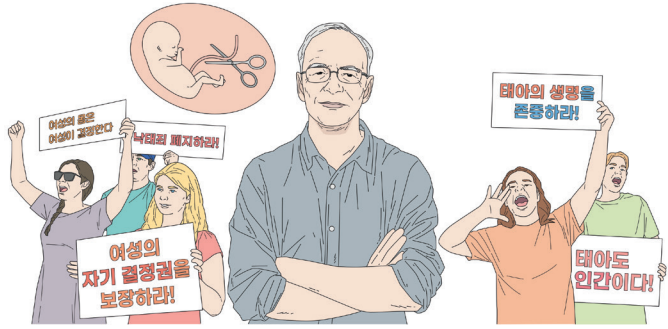
프란치스코 교황이 새해 첫 미사에서 신자들에게 낙태 반대와 생명 보호를 강조하였다. 교황은 이날 바티칸 성 베드로 대성전에서 주례한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 미사에서 강론을 통해 “모든 사람이 여자에게서 태어난 모든 아이를 돌보는 법을 배울 수 있기를 기도한다.”라며 “태아의 생명, 아이들의 생명, 고통받고 가난하고 늙고 외롭고 죽어가는 사람들의 생명 등 소중한 삶의 선물을 보호하라.”라고 하였다. 교황은 “수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인간 생명의 존엄성을 존중하겠다는 확고한 의지를 촉구한다.”라며 “그래야 각자가 자기 삶을 소중히 여기고 모두가 희망을 가진 채 미래를 바라볼 수 있다.”라고 하였다.

교황은 룩셈부르크·벨기에 순방을 마치고 이탈리아 로마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교황청 출입 기자단이 낙태에 대한 견해를 묻는 말에도 “낙태 수술을 수행하는 의사는 살인 청부업자이다.”라고 답하였다. 당시 교황은 “이 사실에 대해 당신은 논쟁할 수 없다.”라고도 하였다.

- 『조선일보』, 2025. 1. 2.

⊕ (다) “임신 중지는 죄가 아니다.” …… 국외에서도 지지 표명

‘장애여성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건강과대안 젠더건강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등의 단체와 개인 연구자들이 모인 ‘성과 재생산 포럼’이 정부의 입법 예고 폐기와 낙태죄 폐지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여성, 장애, 법률, 의료, 시민 단체 등과 학계가 공동 주최하였으며, 개인 2,085명의 서명을 담아 낙태죄 폐지 운동을 선포하였다. 낙태죄 폐지 주장에 여성 단체뿐만 아니라 각계각층에서 한목소리를 낸 것은 처음이다. 이 포럼은 ‘진짜 문제는 낙태죄’라는 구호 아래 “낙태를 조장하는 것은 여성이 아니라 국가와 사회이다. 생명의 책임을 여성에게만 돌리지 말고, 여성의 선택을 믿으라는 것이 낙태죄 폐지의 취지이다. 여성은 자궁이 아니며 엄마이기 이전에 사람이다. 법의 테두리 밖으로 밀려난 여성의 건강, 안전, 삶을 위해 싸우겠다.”라고 주장하였다. 또 “근본적인 문제는 ‘임신 중지’가 죄로 존재하는 현실이다. 낙태죄가 존재하는 이상 법과 현실의 모순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국가는 성평등·성교육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고, 모든 여성이 자신에게 필요한 피임 기술과 의료 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라고 요구하였다.



- 『한겨레신문』, 2019. 10. 19.

⊕ (라) 생명의 서로 다른 측면

나는 낙태는 인간 생명의 폐기를 동반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나쁜 일이며 수치라고 정의하였다. …… 우리는 낙태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맥락에서도 어떤 조기 사망의 경우는 다른 조기 사망의 경우보다 더 비극적이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우리는 한 소녀의 죽음을 중년 남성의 죽음보다 더 안타까워할 것이다. 이와 달리 청소년기 소녀의 죽음이 유아기 여자아이의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은 청소년기의 죽음은 그 소녀와 주변 사람들이 그녀의 인생에 투여한 창조력(investment)이 좌절되기 때문이다. 그녀가 세웠던 야망들과 기대들, 그녀의 계획들과 사업들, 그녀가 타인에 대해 가졌던 또는 타인과 나누었던 사랑, 이해관계 및 심정적 참여, 그리고 타인이 그녀에 대해 가졌던 또는 그녀와 나누었던 사랑, 이해관계 및 심정적 참여 말이다.

우리는 성공적인 인생은 어떤 자연적인 과정을 거친다고 믿는다. 잉태, 태내 발육, 그리고 유아기와 같은 생물학적 발육에서 시작하여 유년기, 청소년기 그리고 성년기로 연장되면서 그 삶은 생물학적 성질뿐만 아니라 사회적·개인적 교육과 선택에 의해 규정되며 결국 여러 다른 종류의 만족스러운 관계 및 성과들을 통해 정점에 다다른다. 그리고 보통의 수명이 지난 후에는 자연사로 끝맺는다. 이와 같은 보통의 진행 과정이 이른 죽음이나 다른 방법에 의해 중간에서 좌절된다는 것은 보통의 인생사를 구성하는 자연적 및 인위적 창조력의 폐기를 의미한다. 그것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또는 얼마나 많이 좌절되었는지는 인생의 어느 단계에서 폐기가 일어났는가에 달려 있다.

인간의 삶에 대한 자연적 창조력이 초월적으로 중요하고, 생명이라는 선물 자체가 그 생명의 소유자가 자신을 위해 할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도 무한하게 중요하다고 믿는다면, 당신은 의도적으로 앞당겨진 죽음은 생명이 있어 가장 큰 좌절이 된다고 믿을 것이다. 생명이 연장되었을 때 그 생명이 아무리 제약되거나 답답하거나 실패로 점철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다른 한편 생명의 창조적 가치에 대한 인위적 창조력에 상대적으로 더 큰 중요성을 부여한다면 그 창조력의 좌절이 더욱 심대한 악이라고 생각할 것이고, 따라서 인위적 창조력이 더욱 많이 좌절되기 전에 생명을 종식시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것이다. 다시 말하자면 낙태에 대한 심각한 견해차는 개별 인간 생명의 신성성을 수립하는 데에 투여된 인위적 창조력과 자연적 창조력의 상대적인 도덕적 중요성에 대한 견해차를 반영하는 것으로 가장 잘 이해될 수 있다.

- 드워킨, 『생명의 지배 영역: 낙태, 안락사 그리고 개인의 자유』

STEP 2

쟁점 분석하기

1. 다음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찬반 의견의 논거들이다. 각 논거의 의미를 찾아보자.

찬성	반대
① 소유권 논거	④ 존엄성 논거
② 자율권 논거	⑤ 무고한 인간의 신성불가침 논거
③ 정당방위 논거	⑥ 잠재성 논거

2. 다음은 (라)를 재구성한 것이다. (라)를 읽고 아래의 빈칸을 채워 보자.

생명을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

- 인공임신중절은 인간 생명의 폐기를 동반하므로 도덕적으로 악한 행위임.
- 그러나 생명은 생물학적인 관점뿐만 아니라 사회적·교육적 관점에서도 이해되어야 함.
- 따라서 태아의 생명뿐만 아니라 산모의 생명도 고려한다면, 생명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가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입장의 차이를 유발함.

① () 창조력을 중시하는 관점	② () 창조력을 중시하는 관점
생명은 신의 뜻 또는 자연적인 과정을 통해 주어진 일종의 선물이므로, 일단 생명이 시작된 이상 의도적으로 죽음을 앞당기는 일은 나쁘다. 예 배아를 죽이는 것	생명은 후천적인 교육과 노력 등이 투입된 것으로, 일반적으로 투입된 것이 제대로 발현되지 못하고 조기에 좌절되는 일은 나쁘다. 예 대학생이 임신하는 바람에 학업을 중단하는 것
↓	↓
태아의 생명을 좌절시키는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될 수 없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좌절된 인생을 살아갈 산모의 삶을 고려했을 때, 인공임신중절은 허용될 수 있다.

← 인공임신중절 ③ ()

인공임신중절 ④ () →

4

바람직한 성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선생님을 위한 부록 60쪽

활동 목표

-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서로 다른 관점을 비교할 수 있다.
-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이 아닌 다른 관점의 근거를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STEP 1 자료 읽기

+ (가) 혼전 순결은 옛말, 첫 성 경험 대다수가 20~24세

결혼 전까지는 성관계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인 ‘혼전 순결’은 이제 옛말이 되었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19~59세에 해당하는 전국 성인 3,193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진행한 결과 첫 성 경험 시기는 남성과 여성 모두 20~24세라고 답한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각각 65.9%, 57.4%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연령대는 대부분 결혼하기 전이다. - 『여성경제신문』, 2023. 3. 24.



+ (나)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입장

• 보수주의적 입장

보수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성이란 결혼 및 자녀의 출산과 관련될 때만 도덕적이고 온전한 것이 된다. 이 입장은 청소년에게는 혼전 금욕과 절제의 삶을, 결혼한 성인에게는 배우자에 대한 성적 지조를 지킬 것을 강조한다. 이와 같은 보수주의적 입장이 지금까지 우리 삶의 근간인 전통적 가족 제도, 즉 부부간의 신뢰와 사랑, 안정적인 책임 있는 자녀 교육 등을 유지하고 뒷받침해 왔다는 데는 이의가 없을 것이다.

• 자유주의적(쾌락주의적) 입장

자유주의적 입장에 따르면 성은 일차적으로 쾌락을 위한 것이다. 단, 성적 쾌락을 추구할 때 다음과 같은 기본 조건이 충족되어야 한다. 먼저, 성관계는 자신이 선택한 행위에 대해 충분한 분별력과 책임 의식을 지닌 성인들 사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반드시 양쪽 모두의 합의 아래 이루어져야 하며 타인에게 해악을 끼쳐서는 안 된다.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하는 한 혼전의 성이든 혼외의 성이든 동성의 성이든 특이한 형태의 성적 실험이든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 더불어 이 입장은 사랑이 동반된 성만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 중도주의적 입장

오늘날 많은 젊은이들은 사랑과 성을 굳이 결혼이나 자녀 출산과 결부하려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들은 혼전 성관계도 상호 간 사랑의 서약이 전제된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의 성애는 서로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필수적이며, 성적 쾌락을 그 자체로서 즐기는 데(출산이나 피임 등과 관련된) 어떤 제약도 있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입장을 ‘중도적’이라 표현하는 이유는 이 입장이 전통적인 보수적 성 윤리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참된 사랑이 동반되지 않는 성은 옳지 않다.’라는 생각을 지닌다는 점에서 완전한 자유주의적(쾌락주의적) 입장으로부터도 거리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 박찬구, 『생활 속의 응용 윤리』

STEP 2 쟁점 분석하기

1. (나)의 세 가지 관점에서 (가)에 나타난 현상을 평가해 보자.

관점	도덕적 평가 내용
보수주의	
자유주의 (쾌락주의)	
중도주의	

STEP 3 토론하기

2.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관점 중 한 가지를 골라 토론하고, 반론 및 재반론을 작성해 보자.

관점	(보수주의 / 자유주의 / 중도주의)
설명	
나의 관점에 대한 반론	
반론에 대한 나의 재반론	

STEP 4 평가하기 (5점 만점)

평가 항목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의 차이점을 이해하였는가?		
토론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올바르게 제시하였는가?		
토론 과정에서 자신이 제시한 근거에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올바르게 서술하였는가?		
토론 과정에서 제기된 반론에 대한 자신의 재반론을 타당하게 서술하였는가?		

매우 그렇다 5점 / 그렇다 4점 / 보통이다 3점 / 그렇지 않다 2점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5

육식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선생님을 위한 부록 61쪽

활동 목표

-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의 차이점을 설명할 수 있다.
- 인간과 자연을 바라보는 여러 관점을 바탕으로 육식을 도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 육식이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대해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서술할 수 있다.

STEP 1 자료 읽기

⊕ (가) 베이컨의 관점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 및 자연의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한 것만큼 무엇인가를 할 수 있으며 이해할 수 있다. 그 이상의 것은 알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다.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원인을 밝히지 못하면 어떤 효과도 낼 수 없다. 자연은 오로지 복잡함으로써만 복잡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자연의 고찰에서 원인으로 인정되는 것이 작업에서는 규칙의 역할을 한다.

- 베이컨, 『신기관』

⊕ (나) 싱어의 관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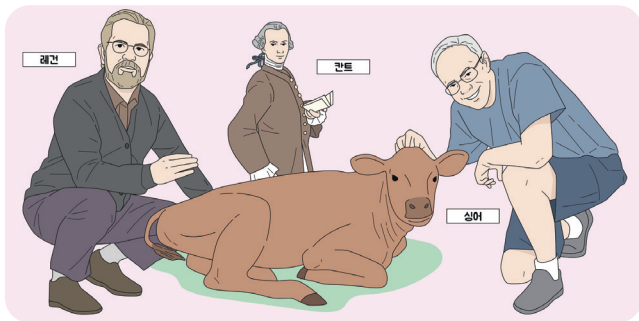
고통을 받거나 기쁨을 얻는 능력은 이익 일반을 가지기 위한 전제이며, 우리가 어떻게든 의미 있게 이익을 이야기하기 전에 충족되어야만 하는 조건이다. 학생들이 길에서 돌맹이를 차는 것이 돌맹이에게 이익이 되지 않는다고 말하는 것은 무의미할 것이다. 돌맹이는 이익을 가지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은 고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우리가 돌맹이에게 할 수 있는 어떠한 일도 돌맹이의 복지에 변화를 가져올 수 없을 것이다. 인간의 이익이 그로 인해 생기는 동물의 손해보다 클 때에만 동물에게 고통을 가하는 것을 허락하려 해도 우리가 동물을 다루는 방식들, 즉 육식, 사육 방법, 많은 과학 영역에서의 실험 절차, 야생과 사냥에 대한 우리의 태도 등에서 근본적인 변화를 일으켜야만 한다.

- 싱어, 『실천윤리학』

⊕ (다) 레건의 관점

인간의 소비를 위해 사육되는 농장 동물들은 오늘날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쳐우되고 있는데, 이는 해당 동물들이 밀집식 감금 상태에서 사육되는지 아니면 '인도적으로' 사육되는지와 무관하게 이르게 되는 판결이다. 이러한 시스템이 계속 유지됨에 따라 다른 동물이 원래 있던 동물의 자리를 차지하는 과정이 되풀이될 것이다. 이 동물들은 의문의 여지 없이 재생 가능하거나 대체 가능한 동물로 간주되고 쳐우된다. 그들이 오직 다른 존재들에게 제공하는 이익과 상대적인 가치를 갖는 자원으로 간주되고 쳐우된다는 것 또한 사실이다. 설령 소가 때아닌 죽음으로 해악을 입는다고 해도, 만약 그러한 관행이 소 목장 주인의 이익을 증진한다면 이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농장 동물을 재생 가능한 자원으로 쳐우하는 것은 그들이 본래적 가치의 소유자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존중의 태도로 그들을 쳐우하지 않는 것이다.

- 레건, 『동물권 옹호』



⊕ (라) 어젯밤 당신이 먹은 치킨은 한 달 동안 못 잔 닭이다

계사 천장에는 전등 40여 개가 달려 있었다. 24시간 불을 켜기 위한 용도이다. 육계 농가를 운영 중인 A 씨는 “사실상 한 달 내내 불을 켜 둔다고 보면 된다. 그래야 닭이 낮이라고 착각해 사료를 계속 먹어 빠른 시일 내에 살을 찌울 수 있다.”라고 설명하였다. 업계에선 이를 ‘종야 점등법’이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대다수 육계 농가는 이 ‘종야 점등법’으로 닭을 키운다. 50g이 채 되지 않던 병아리가 이곳에서 한 달 내내 잠을 자지 않고 계속 사료를 먹다 보면 1.5kg 이상으로 불어나게 된다. ……

농장 곳곳에는 다리가 부러져 엎드려 있거나 크기가 작은 닭들도 있었다. 감기에 걸렸는지 기침을 하는 닭도 보였다. 생존 경쟁에서 뒤처진 닭은 아직 살아 있는 개체를 위해, 그리고 농가 수익을 위해 죽임을 당한다. …… 또 다른 육계 농장을 운영하는 B 씨는 “대량 사육되는 닭은 품종 자체가 빠르게 살찌도록 만들어져 다리의 힘이 몸통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방생해 준다고 해도 오래 살지 못하고 잡아먹히거나 굶어 죽는다. 살찌우는 공장에 살게 해서 미안하고, 다음 생에는 자유롭게 오래 살라고 기도한다. 서글프지만 이것이 내가 닭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최상의 배려이다.”라고 전하였다. - 『한국일보』, 2022. 3. 5.

⊕ (마) 노직의 관점

노직은 **자유주의적 측면 제약**이 동물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동물에게는 공리주의, 사람에게서는 칸트주의’라고 부르고, 그 입장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입장의 내용은: (1) 모든 생물체의 행복의 총량을 최대화하라. (2) 우리가 인간에게 할 수 있는 것에 엄격한 측면적 제약 사항을 가하라. 인간 존재는 타자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거나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 동물은 사람 및 다른 동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거나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오직 그 이익이 희생되는 동물의 손해량보다 클 때만 그럴 수 있다. …… 우리는 이 견해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모든 동물은 평등하나 어떤 동물은 다른 동물보다 더 평등하다. (어떤 동물도 보다 큰 총체의 이익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선 희생될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전혀 희생될 수 없거나 오직 타 동물의 경우보다 훨씬 더 엄격한 조건 아래에서만 희생될 수 있으며, 인간 아닌 동물을 위해서는 결코 희생될 수 없다.)

만약 노직이 제안한 ‘동물에게는 공리주의, 사람에게서는 칸트주의’대로라면 동물 윤리학에서 가장 많이 논의되는 육식 문제에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게 된다. 육식을 윤리적으로 허용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이다. 먼저 동물에게는 공리주의가 적용되므로 우리는 우리의 이익을 위해서 동물을 수단으로 이용해도 되는데, 단 동물의 행복과 고통은 고려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동물의 본성을 존중하며 고통 없이 사육한 다음에 고통 없이 죽이는 것이 허용된다. 동물을 도살할 경우 그 동물이 죽지 않았으면 누렸을 행복이 없어지지만, 이는 그만큼 다른 동물을 태어나게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칸트주의가 적용되므로 동물을 취급하는 방식대로 인간을 취급할 수 없다. 아무리 고통 없이 사육하고 도살한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한다고 하더라도, 인간을 다른 사람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는 행위이다. ……

나는 이 논문에서 ‘동물에게는 공리주의, 사람에게서는 칸트주의’를 ‘혼합 견해’라고 부르고 이것을 적극적으로 지지할 것이다. 나는 사람에게서는 칸트주의가 적용되지만, 동물에게는 사람과 달리 칸트주의가 제시되지 않는 이유를 찾기 위해 사람에게 칸트주의를 적용하는 중요한 특성이 동물에게는 없다는 방법을 사용할 것이다. …… 나는 ‘사람에게는 있지만 동물에게는 없는’ 특성으로 대체 가능성을 제시한다. 자의식과 미래감이 있는 사람은 고통 없이 죽이고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기에 최대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수단으로 사용할 수 없다. 반면에 동물은 그런 특성이 없기에 고통 없이 도살하고 다른 개체로 대체 가능하며, 이러한 대체 가능성을 윤리적으로 허용할 수 있다. 이는 인도적으로 사육한다는 전제에서 육식을 정당화하는 실천적 지침이 된다.

- 최훈, 『“동물에게는 공리주의, 사람에게서는 칸트주의”: 혼합 이론 옹호』

● **자유주의적 측면 제약**: 서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개인 중 누구도 타인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 내 행위의 범위와 자유를 제약한다는 것

STEP 2**쟁점 분석하기**

1. 다음 질문을 읽고 (가)~(다)의 입장을 정리해 보자.

질문	(가)	(나)	(다)
인간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가? 그 까닭은 무엇인가?			
동물의 이익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 그 까닭은 무엇인가?			
인간의 더 큰 이익을 위해 동물을 한 날 수단으로 대우하는 일은 허용되는가? 그 까닭은 무엇인가?			

2. (가)~(다)의 관점에서 (라)의 현상을 논리적 근거를 들어 평가해 보자.

구분	평가
(가)	
(나)	
(다)	

3. (마)의 입장에서 (가)~(다)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비판해 보자.

.....

.....

.....

.....

활동 목표

-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의 핵심 주장을 설명할 수 있다.
-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바라보는 서로 다른 관점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제시할 수 있다.
-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STEP 1 자료 읽기

⊕ (가) ‘크리스퍼 베이비’ 중국 과학자 출소 임박 …… 배아 유전자 편집 논란 재점화될까

사람의 정자와 난자가 만나 수정이 되면 뇌, 심장, 콩팥, 간, 소화 기관, 태줄과 같은 기관들이 형성되고 그 개체를 배아라고 한다. 배아의 크기는 약 0.5cm 정도이다. 양수가 차고 태반이 발달하면서 배아는 세포 분열을 통해 사람의 형상을 갖추게 된다. 복제 배아는 정자와 난자의 자연적인 수정을 통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핵을 제거한 난자에 체세포 핵을 이식해 이를 실험실에서 배양한다는 것에 차이점이 있다. 자연적으로 수정된 배아가 그 부모와 유전적으로 동일하듯이 복제 배아도 체세포를 제공한 사람과 유전적으로 동일하다.

허젠쿠이 중국 남방과학기술대 전 교수는 2018년 유튜브와 미국의 과학 매체 『MIT 테크놀로지 리뷰』를 통해 세계 최초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이용해 유전자를 교정한 인간 아기가 태어났다고 발표하면서 세계를 충격에 빠뜨렸다. 당시 연구팀은 불임 치료 중인 일곱 쌍의 부모로부터 배아를 얻어 유전자를 교정하였고, 그중 한 쌍의 부모로부터 에이즈 바이러스(HIV)에 면역력을 가진 쌍둥이인 ‘루루’와 ‘나나’를 얻는 데 성공하였다고 밝혔다. 허 전 교수는 출산에 성공한 유전자 편집 쌍둥이 외에 다른 부부도 유전자 편집 아기를 임신하였다고 밝혔다.

유전자 편집 아기가 태어났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해외는 물론 중국 과학계조차 허 전 교수에 대한 비판을 쏟아냈다. 윤리적·도덕적 기준을 위반한 실험이라는 것이다. 과학계는 그동안 암묵적으로 ‘디자이너 베이비(원하는 대로 유전자를 수정해 탄생시킨 아기)’를 금기시하였다. 허 전 교수의 유전자 편집 아기 실험에는 400개에 달하는 배아가 사용되었다.

- 『동아시아인스』, 2022. 3. 22.

⊕ (나) ‘크리스퍼 혁신’, 유전자를 고쳐 질병을 치료한다

환자의 DNA를 고쳐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하였다. 2023년 말, 영국과 미국 정부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활용한 최초의 세포 치료제, ‘카스제비(Casgevy)’를 승인하였다. 이 치료제는 흑인 500명 중 한 명 비율로 발생하는 낫 모양 적혈구 빈혈증을 대상으로 한다. 이 질환은 글로빈 유전자 변이에 의해 적혈구가 비정상적인 C자 모양으로 변형되어 온몸에 산소를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게 되는 유전병이다. 그 결과 환자는 평생 심각한 빈혈 증상과 고통 속에 살다 대개 50대 중반을 넘기지 못하고 사망한다. ‘카스제비’는 환자의 조혈모 세포 DNA를 교정해 정상적인 글로빈 단백질을 발현시킴으로써 환자들에게 완치의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이는 인류가 DNA를 직접 수정해 질병을 치료하는 새로운 시대에 들어섰음을 의미한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동식물의 유전자 교정에도 폭넓게 활용되고 있다. 생쥐와 같은 실험동물뿐만 아니라 개와 고양이 같은 반려동물, 소와 돼지 같은 가축의 특정 유전자를 제거하거나 교정하는 데 성공하였다. 이를 통해 질병 내성과 같은 다양한 특성을 가진 동물이 만들어졌다. 또한, 벼, 옥수수, 감자 등 농작물의 유전자에 변이를 도입해 질병에 강하고 생산성 높은 종자를 개발하는 데도 활용하고 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기초 과학 연구의 중요성을 입증하는 좋은 사례이다. 세균에서 유래한 단백질과 RNA 연구가 인간과 동식물의 질병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 혁신적 도구로 발전한 것이다.

- 『중앙일보』, 2025. 1.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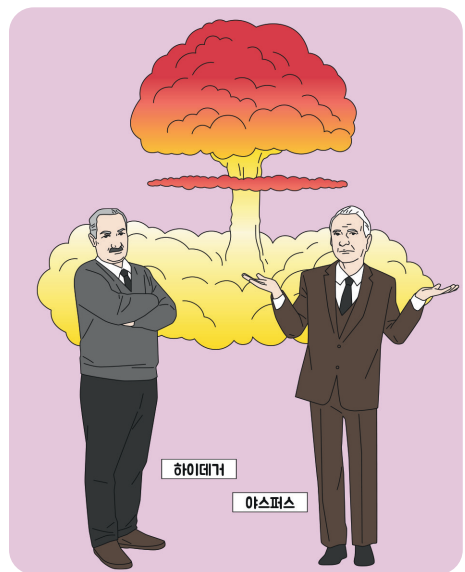
⊕ (다) 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수단에 불과

전체적으로 볼 때, 기술의 사건은 그 본질이 완전히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단순한 숙명이 아니라 하나의 과제이기도 하다. 상상력이 만들어 내는 구상들은 곧 인간 존재에 대한 하나의 요청이기도 하며 인간이 기술을 지배해야 한다는 도전을 내포하고 있다. 과연 인간 개개인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지고 깊은 사색이 지구상에서 사라져야만 하는가? 결국, 인간이 기술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기술적 발전을 자신의 조건 아래 두는 근원적인 인간성이 존재하지 않는가? 기술의 현실로 인해 인류 역사에서 엄청난 단절이 발생하였다. 그 최종적인 결과를 그 어떤 상상력도 미리 예측할 수는 없지만, 우리는 이미 그 한가운데에서 인간 삶의 기계화와 기술화가 형성되는 과정을 목격하고 있다.

이것만은 분명하다. 기술은 그 자체로는 단지 하나의 수단일 뿐이며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조건 아래 놓이는가이다. 결국, 문제는 기술을 손에 쥔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 그리고 그 기술을 통해 인간이 궁극적으로 어떤 모습을 드러내는가이다.

기술은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존재로서는 공허한 힘이며 결국에는 수단이 목적을 압도하는 마비된 승리일 뿐이다. 기술이 인간적 의미에서 벗어나 비인간적인 자들의 손에서 광기로 변할 수도 있을까? 혹은 지구와 인간이 단 하나의 거대한 공장의 재료가 되어 모든 것이 스스로를 집어삼키며 단지 생산과 소비의 순환만을 반복하는 무의미한 과정으로 전락해 버릴 수도 있을까?

- 야스퍼스, 『역사의 기원과 목표』



⊕ (라) 기술은 존재의 본질을 탈은폐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만은 아니다. 기술은 탈은폐의 한 방식이다. 이 점에 우리가 유의한다면 기술의 본질이 갖는 전혀 다른 영역이 우리에게 열린다. 탈은폐의 영역, 즉 진리의 영역이 그것이다.

그런데 현대의 기술을 완전히 제압하고 있는 탈은폐는 이제 더 이상 '포이에시스(Poiesis)'라는 의미의 '밖으로 끌어내어 앞에 내어놓음'의 방식으로 전개되지 않는다. 현대의 기술 속에 담겨 있는 탈은폐는 도발적 요청이다. 그것은 그 자체로 채굴되어 저장될 수 있는 에너지를 자연에게 내놓으라고 무리하게 요구한다. 이것은 과거의 풍차에도 적용되지 않는가? 그렇지 않다. 풍차의 날개는 바람의 힘으로 돌아가며 바람에 전적으로 직접 자신을 내맡기고 있다. ……

지구는 이제 한낱 채탄장으로서 대지는 한낱 저장고로서 탈은폐될 뿐이다. 농부들이 예전에 경작하던 밭은 그렇지 않았다. 그때의 경작은 키우고 돌보는 것이었다. 농부의 일이란 농토에 무엇을 내놓으라고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씨앗을 뿌려 싹이 돋아나는 것을 그 성장력에 내맡기고 그것이 잘 자라도록 보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농토 경작은 자연을 닦아세우는, 이전과는 다른 종류의 경작 방법 속으로 흡수되어 버렸다. 이제는 그것도 자연을 도발적으로 닦아세운다. 경작은 이제 기계화된 식품 공업일 뿐이다. 공기는 이제 질소 공급을 강요당하고, 대지는 광석을, 광석은 우라늄을, 우라늄은(파괴를 위해서든 평화적 이용을 위해서든) 원자력 공급을 강요당하고 있다.

현대의 기술을 속속들이 지배하고 있는 탈은폐는 도발적 요청이라는 의미의 닦아세움의 성격을 띠고 있다. 이 도발적 요청은 자연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채굴'하고, 캐낸 것을 '변형'시키고, 변형된 것을 '저장'하고, 저장된 것을 다시 '분배'하고, 분배된 것을 다시 한번 '전환'해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채굴하다', '변형하다', '저장하다', '분배하다', '전환하다' 등은 탈은폐의 방식들이다.

- 하이데거, 『기술에 대한 물음』

STEP 2

쟁점 분석하기

1. 다음 표의 빈칸을 채우며 (다)와 (라)의 핵심 주장을 정리해 보자.

구분	핵심 주장
(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은 그 자체로는 단지 하나의 ()일 뿐이며,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 그것이 인간에게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조건 아래 놓이는가이다. 기술은 그것을 통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와 무관하게, 독립적인 존재로서는 ()이다.
(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기술은 그저 하나의 수단이 아니라 ()의 한 방식이다. 현대의 기술 속에 담겨 있는 탈은폐는 ()으로, 지구는 이제 한낱 채탄장으로서, 대지는 한낱 저장고로서 탈은폐될 뿐이다. 이 도발적 요청은 자연에 숨겨져 있는 에너지를 ()하고, 캐낸 것을 변형시키고, 변형된 것을 저장하고, 저장된 것을 다시 분해하고, 분배된 것을 다시 한번 전환해 사용함으로써 이루어진다.

2. 다음 질문을 읽고 (다)와 (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해 보자.

질문	(다)	(라)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인가?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과학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가?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과학기술을 활용할 때 과학자나 사회의 가치가 개입되는가?	(예 / 아니요)	(예 / 아니요)

3. 다음은 (다)와 (라)의 관점에서 (가)와 (나)의 현상을 평가한 것이다. (다)와 (라) 중 어느 관점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근거와 함께 적어 보자.

구분	평가
(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그 자체로는 생명 공학 발전의 산물이다. (가)의 과학자는 과학기술 발전에 관한 국제적인 윤리 규범을 위배했기 때문에 처벌받은 것이다. 문제는 유전자 편집 기술 자체가 아니라 (가)의 과학자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잘못 활용한 데에 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나)에서 소개된 사례처럼 인류를 위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유전자 편집 기술은 그 자체로는 가치 중립적이다.
(라)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인간의 목적을 위한 수단이지만 인간 존재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이 발달하면 (나)의 사례처럼 여러 이익을 산출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가)의 과학자처럼 기술에 종속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인류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유전자 편집 기술이 인류를 통해 스스로 발전하고 인간을 오히려 위협할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유전자 편집 기술은 인류의 본질을 왜곡할 수 있는 위험성을 지니고 있다.

7

가짜 뉴스의 확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선생님을 위한 부록 63쪽

활동 목표

- 가짜 뉴스의 확산이 야기하는 문제점과 가짜 뉴스의 확산 원인을 설명할 수 있다.
-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STEP 1 자료 읽기

⊕ (가) 미얀마의 마웅 자니, “천천히 타오른 로힝야족 학살, 스마트폰이 혐오 폭탄 되었다”

군부 독재 시절 제한적인 정보만 접하였던 미얀마인들은 새로운 정권의 수립과 함께 누구나 쉽게 인터넷을 이용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 미얀마 인구 5300만 명 중 1800만 명 가량이 페이스북을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 미얀마의 마웅 자니 박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로힝야족이 테러를 저질렀다.’, ‘로힝야족 남자가 여자를 성폭행하였다.’라는 식의 가짜 뉴스가 빠르게 퍼지면서 로힝야족에 대한 공격과 혐오가 정당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그는 가짜 뉴스가 사람들의 감정을 조작하고 거짓된 이미지를 만들어 내는 두 가지 방식으로 혐오 범죄를 부추긴다고 보았다. 가짜 뉴스가 미얀마 내 로힝야족과 무슬림에 대한 두려움을 거짓으로 과장되게 꾸며 그들을 향한 혐오를 합리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는 것이다. 마웅 자니 박사는 “과거 신문과 TV를 통해 유포되던 가짜 뉴스와 혐오 표현을 모든 개인이 스마트폰을 통해 전파할 수 있게 되었다. 모두가 혐오를 퍼뜨리는 무기를 갖게 된 것이다.”라고 설명하였다. - 『경향신문』, 2018. 10. 22.

⊕ (나) 가짜 뉴스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퍼지는 주요 이유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에 따르면 가짜 뉴스 확산의 주요 원인은 사용자가 거짓과 진실을 분별하는 데 필요한 ‘비판적 사고 능력이 부족하거나 ‘강한 정치적 신념이 판단을 왜곡’하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서던캘리포니아대학교 연구팀은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보상 기반 학습 시스템으로 인해 사용자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는 정보를 게시, 공유 및 참여하는 습관을 형성한다. 습관이 형성되면 사용자가 잘못된 정보를 퍼뜨리는 것과 같은 중요한 응답 결과를 고려하지 않고 플랫폼의 단서에 의해 정보 공유가 자동으로 활성화된다.”라고 설명하였다. 해당 연구에 의하면 가장 습관적인 뉴스 공유자의 15%가 가짜 뉴스의 약 30~40%를 퍼뜨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 『디지털비즈온』, 2023. 1. 24.

⊕ (다)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이유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인 것처럼 행세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사람의 불완전한 ‘주의 집중 범위(attention span)’ 때문이다. 이는 짧은 시간 안에 많은 수의 글자 혹은 숫자가 제시되었을 때 한 번에 파악할 수 있는 글자 혹은 숫자의 수를 말한다. 뇌 활동의 집중력을 측정할 때 쓰이는 용어인데 특기할 것은 사람이 주의력을 집중하는 만큼 그 강도에 따라 주의 집중 범위는 오히려 줄어드는 반비례 현상이 일어난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많은 사람이 가짜 뉴스를 양산하고, 인터넷에 떠도는 가짜 뉴스를 가짜 뉴스로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다. 또한 사람이 지니고 있는 ‘확증 편향(confirmation bias)’ 습성도 가짜 뉴스 범람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확증 편향’이란 자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말한다. 연구 결과 다수의 사람이 가짜 뉴스가 자신이 믿고 있는 사실과 부합하면 진실로 믿어 버리고, 그렇지 않은 경우 오히려 진짜 뉴스를 거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더사이언스타임즈』, 2017. 6. 28.

STEP 2 쟁점 분석하기

1. 가짜 뉴스의 확산으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찾아보자.

2. (나)와 (다)를 참고하여 가짜 뉴스의 확산 원인을 적어 보자.

구분	가짜 뉴스의 확산 원인
(나)	
(다)	

STEP 3 논술하기

3.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까닭과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논술해 보자.

STEP 4 평가하기 (5점 만점)

평가 항목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가짜 뉴스가 확산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여러 측면에서 서술하였는가?		
가짜 뉴스의 확산 원인을 (나)와 (다)에서 각각 찾아 서술하였는가?		
〈논술하기〉에서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까닭과 해결 방안을 유기적으로 서술하였는가?		
〈논술하기〉에서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다양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하였는가?		

매우 그렇다 5점 / 그렇다 4점 / 보통이다 3점 / 그렇지 않다 2점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활동 목표

-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특징을 제시할 수 있다.
-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자율성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각각 설명할 수 있다.
-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STEP 1 자료 읽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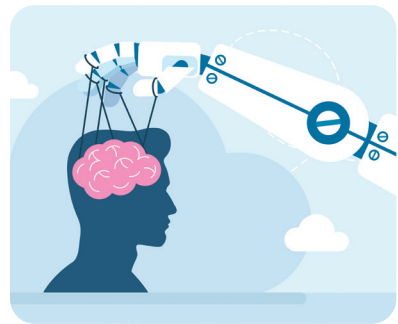
⊕ (가) 급부상하는 AI 에이전트 …… “대화 넘어 행동으로”

AI 에이전트는 스스로 판단하여 의사 결정을 내리고 이를 실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시스템을 일컫는다. …… AI 에이전트가 기존 챗봇, 어시스턴트와 다른 점은 ‘자율성’과 ‘실행 능력’이다. 챗봇은 미리 만들어진 시나리오나 목록, 규칙에 의존하여 사용자 질문에 단순히 반응한다. 어시스턴트는 자연스러운 답변이나 결과물 생성은 가능하나 업무 처리의 보조 역할을 넘어서지는 못한다. 반면 AI 에이전트는 자율성과 실행 능력을 바탕으로 업무를 처리한다.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상황을 종합적으로 이해하며 그에 따른 계획과 해결책을 제시한다. 예를 들어 고객이 복잡한 문제를 제기하면 이를 즉시 해결하거나 필요할 경우 담당 직원에게 이관하는 일이 가능하다. 이처럼 단순한 정보 제공을 넘어 실질적으로 업무에 개입함으로써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이 AI 에이전트가 기존 기술에 비해 차별화된 지점이다.

- 『컴퓨터월드』, 2024. 12. 31.

⊕ (나) 인공지능의 발전과 인류의 자율성 …… 인공지능의 두 얼굴

인공지능 전문가들은 인공지능 기술이 인류에 대해 점점 더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들은 인공지능이 핵전쟁과 같은 사회적 위협에 필적하는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인공지능이 일부 분야에서 이미 인간 수준의 성능을 넘어서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특히 ‘인공 일반 지능(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이 인간을 인식하게 되면 인간을 경멸하며 제거할 수도 있다고 우려하였다. 이는 인공지능이 인간을 위협이나 부담으로 여기게 되면서 발생할 수 있는 시나리오이다.



그러나 인공지능이 인류를 직접적으로 제거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가능성이 높은 재앙 시나리오는 인공지능 주도의 정보 주도 결정론이다. 정보 과부하에 대한 경계심이 부족하다면 인간은 인공지능에 조용히 굴복할 수 있다. 덴마크의 과학자들은 최근 한 연구에서 강력한 머신 러닝 알고리즘을 사용해 인간 생활의 특정 측면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다. 이 연구는 『네이처 컴퓨테이션 사이언스』 저널에 게재되었는데 ‘라이프2백스(Life2vec)’라는 머신 러닝 알고리즘 모델을 활용하여 공개 기록에서 추출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사람의 삶과 행동 결과를 상세하게 예측하고 설명하였다. 이 알고리즘은 덴마크의 600만 명의 국민 데이터를 포함하는 국가 등록부를 사용하여 교육, 건강, 소득, 직업 등 각 사람의 삶의 주요 측면을 예측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발전이 반드시 긍정적인 것만은 아니다. 삶의 가치는 단순히 돈, 건강, 명성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의 미래를 결정하는 능력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즉, 알려진 것뿐만 아니라 알려지지 않은 것을 소중히 여기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가들은 자율성을 유지하고 자유를 즐기기 위해서는 삶이 완전히 예측 가능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삶의 선택지, 진로, 커리어, 로맨틱한 파트너, 양육 전략 등을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일지에 대해 일정 정도의 무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인공지능이 정보의 쓰나미로 인간을 무가치하다고 판단해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간의 자유 의지를 앗아갈 위험이 있다는 설명이다. 인공지능은 인간이 실제로 선택하기 전 무엇을 선택할지, 그리고 예측 가능한 선택을 할 때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알게 될 것이다. 인간의 번영은 인간에 대한 완전한 지식이 아니라 선택이 중요한 '열린' 미래를 제공하는 충분한 불확실성을 요구한다. 인공지능은 인간을 제거할 필요가 없다. 인공지능이 인간의 삶을 무의미하고 지루하며 바람직하지 않게 만드는 것을 막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관심이 없는 예정된 세계에서 살기를 멈추게 할 것이다.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인공지능의 위협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해 생각할 시간이다.

- 『시라이프경제』, 2024. 1. 26.

⊕ (다) AI 에이전트, 새로운 시대의 시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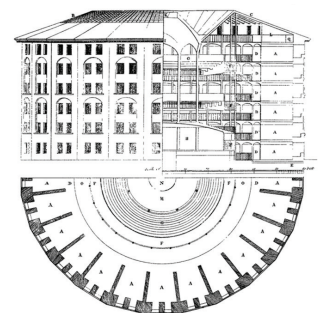
교육 분야에서는 AI 에이전트가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학생의 학습 진도를 분석하여 개인별 학습 계획을 수립한다. 이를 통해 학생은 자신의 학습 스타일과 속도에 맞춘 교육을 받을 수 있으며 선생님은 학생 개인의 필요에 맞춘 지도를 할 수 있다. 또한 AI 에이전트는 학생의 학습 데이터를 분석하여 학습 성과를 예측하고, 학습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조기에 발견하여 해결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공지능 기반 학습 플랫폼은 학생의 학습 패턴을 분석하여 개인화된 학습 경로를 제안하고 학습 동기를 부여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한다. 더불어 AI 에이전트는 선생님이 학생의 학습 진도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필요한 경우 즉각적인 피드백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이러한 기술은 교육의 질을 향상하고 학생의 학습 성취도를 높이는 데 기여하고 있다. 나아가 AI 에이전트는 학생들의 학습 스타일과 선호도를 분석하여 맞춤형 학습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학습 효율성을 극대화한다.

AI 에이전트는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인간의 실수를 줄이는 등 많은 장점을 제공한다. 이들은 반복적이고 단순한 작업을 자동화하여 인간이 더 창의적이고 부가가치가 높은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24시간 내내 작동하며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빠르고 정확하게 분석하여 의사 결정의 질을 향상한다. 이처럼 AI 에이전트는 인간의 한계를 극복하고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 준다.

- 『교육플러스』, 2024. 11. 7.

⊕ (라) 새로운 감시 사회의 등장

나는 파놉티콘과 바놉티콘에서 나아가 '스마트 옵티콘(Smart Opticon)'이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싶다. 영리하게 대상을 감시하는 '스마트 옵티콘'은 감시의 수준을 질적으로 높인다. 다시 말해 '스마트 옵티콘'은 '스마트'가 들어간 갖가지 최첨단 기기(스마트폰, 스마트워치, 스마트 스피커, 스마트 카 등)를 이용해 언제 어디서든 사용자를 단순히 감시하는 것뿐만 아니라 '조종'하는 것이다. 기존의 파놉티콘과 바놉티콘은 감시 대상이 감시자가 원치 않는 행동을 할 경우에만 조치를 취하는 다소 소극적인 감시였다. 게다가 파놉티콘과 바놉티콘은 규율과 추방이라는 무기를 통해 감시 대상을 강제적으로 억압하는 경향이 있다. 반면 '스마트 옵티콘'은 대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해 각종 조치를 활발히 취하는 능동적인 감시이다. '스마트 옵티콘'의 감시자는 단순히 대상을 관찰하는 것에 그치지 않는다. 감시자는 감시 대상의 몸과 마음을 조종해 감시자가 원하는(혹은 감시자에게 돈이나 각종 혜택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사고하고 행동하게끔 유도한다. 예를 들어 맥도날드가 '포켓몬 고' 게임에 광고비를 지불하고 매장에 특정 포켓몬을 출몰하게끔 하면, '포켓몬 고' 사용자들이 우르르 맥도날드 매장으로 몰려가서 게임을 즐기는 사이 무의식적으로 빅맥과 코카콜라를 주문하는 것처럼 말이다. '스마트 옵티콘'의 놀라운 점은 이 모든 일련의 감시와 조종에 어떠한 규율이나 강제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 공리주의 사상가인 벤담(Bentham, J.) 이 설계한 원형 감옥의 모습

- 한중섭, 『친절한 독재자, 빅 브라더가 온다』

● 파놉티콘: '모두(pan)' + '본다(opticon)'의 합성어로, 감시자는 피감시자를 볼 수 있지만 피감시자는 감시자를 볼 수 없는 형태의 교도소를 지칭함.

● 바놉티콘: '추방하다(ban)' + '본다(opticon)'의 합성어로, 감시와 규율에 순응하지 않는 사람을 배제하는 시스템을 지칭함.

STEP 2**쟁점 분석하기**

1. (가)를 참고하여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특징을 정리해 보자.

.....

.....

.....

2. (나)와 (다)를 읽고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정리해 보자.

긍정적인 측면	부정적인 측면

3. 다음은 (라)의 핵심 주장과 근거를 정리한 것이다. 빈칸을 채워 보자.

- ‘스마트 옵티콘’은 파놉티콘이나 비놉티콘과 달리 대상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 감시를 한다.
- ‘스마트 옵티콘’에서 감시자는 감시 대상의 ()을/를 조종하여 감시자가 원하는 방향으로 생각하고 행동하도록 유도한다.
- ‘스마트 옵티콘’은 개인의 선택권을 보장하고 자유를 증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정반대의 기능을 수행한다.

4. (라)의 핵심 주장과 근거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적어 보자.

나는 (라)의 주장에 (동의한다. /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

.....

.....

.....

.....

활동 목표

- 직업이 가진 다양한 의미를 설명할 수 있다.
- 직업이 갖는 진정한 의미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STEP 1 자료 읽기

+ (가) 직장 선택의 기준 1위는? '돈' …… 워라밸보다 연봉 따진다

한 구인 구직 인터넷 플랫폼이 취업 준비생과 직장인 3,365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따르면 직장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조건으로 '연봉 등 경제적 보상'이라는 답변이 1위(37.1%)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 중요한 요소는 '고용 안정성(16.9%)'인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직무 적합성(14.4%)', '일·여가 시간 균형(워라밸) 보장(13.5%)', '성장 가능성(6.1%)' 등이 차례로 그 뒤를 이었다.

- 『세계일보』, 2024. 7. 4.

+ (나) 대한민국 직장인 삶의 만족도 설문 조사

삶의 만족도에서 직장 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이 ……

높다고 생각하는 집단: A / 보통이라고 생각하는 집단: B / 낮다고 생각하는 집단: C

삶의 만족도에서 직장 생활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한 생각에 따라 세 개 집단(A, B, C)으로 분류하여 삶의 만족도 차이를 살펴보았을 때, A 집단의 삶의 만족도는 6.30점, B 집단은 5.69점, C 집단은 4.32점으로 A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직장 생활의 만족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소를 묻는 질문에 '직장 내 인간관계'를 선택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27.8%였는데, A 집단은 31.3%, B 집단은 26.4%, C 집단은 20.9%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A 집단이 C 집단보다 '직장 내 인간관계'를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위와 동일한 질문에서 '연봉 수준'이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응답한 사람은 전체 응답자의 19.0%였는데, A 집단은 17.5%, B 집단은 19.4%, C 집단은 29.1%로 C 집단은 '직장 내 인간관계'보다 '연봉 수준'을 더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 『나우앤서베이』, 2023. 8. 21.

+ (다) '일하다'의 두 가지 의미

'일하다'의 두 가지 의미는 고대 그리스의 전통에서 유래하는데, 그리스어에서 '노동'은 '포노스(ponos)', '일'은 '에르곤(ergon)'이라는 말로 표현되었다. '포노스(ponos)'는 '힘들게 일하다' 또는 '고생하다'를 의미하는 동사 '포네오마이'에서 온 명사이다. 이에 비해 '에르곤(ergon)'은 '어떤 일을 수행하다' 또는 '만들어 내다'를 의미하는 동사 '에르가조마이'에서 온 명사이다. 즉 '노동'은 고생스러운 일이라는 뉘앙스가 강하며 '일'은 일하여 얻는 성과라는 뉘앙스가 두드러진다.

우리가 '일하다'라는 말을 쓸 때는 '노동'과 '일'이라는 두 개념이 떼어 내기 힘들게 결부되어 있다. 일한다는 것은 몸을 쓰는 고된 '노동'인 경우가 많지만, 손과 머리를 쓰며 재치도 발휘하는 '일'인 경우도 적지 않다. 제우스가 내린 벌로 우리 인간은 노동하여 양식을 얻음으로써 생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저마다 재능을 발휘하여 남의 것보다 뛰어난 작품을 만들어 내는 일에 종사할 수도 있다. 일한다는 행위의 이 두 측면은 때로는 결부되고 때로는 분리되며 서로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우리는 '일'을 통해 작품을 남길 때뿐만 아니라 고된 '노동'을 통해 나날의 양식을 얻거나 동료들과 서로 성과를 뽐내고, 또 자신의 성취를 확인하는 데에서도 기쁨을 느낀다.

- 나카야마 겐, 『밥벌이는 왜 고단한가』

STEP 2**쟁점 분석하기**

1. 직업(직장)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요소들을 적어 보자.

.....

.....

2. (나)에서 제시된 '삶의 만족도에서 직장 생활의 비중을 낮다고 여길수록 연봉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현상'의 원인이 무엇인지 자유롭게 생각해 보자.

.....

.....

STEP 3**논술하기**

3. (가)~(다)를 참고하여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까?'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해 보자.

.....

.....

.....

.....

.....

.....

.....

.....

.....

STEP 4**평가하기** (5점 만점)

평가 항목	자기 평가	동료 평가
직업(직장)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를 제시하였는가?		
(나)에 나타난 현상의 원인을 분석할 때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보여 주었는가?		
〈논술하기〉에서 (가)~(다)를 참고하여 작성하였는가?		
〈논술하기〉에서 자신의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타당하게 서술하였는가?		

매우 그렇다 5점 / 그렇다 4점 / 보통이다 3점 / 그렇지 않다 2점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활동 목표

-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을 둘러싼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각각 제시할 수 있다.
-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에 관한 토론 과정에서 논리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에 관한 토론을 통해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여 서술할 수 있다.

STEP 1 자료 읽기

⊕ (가) '히잡 의문사'에 성난 이란 민심 13년 만에 최대 시위

히잡을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혐의로 체포된 20대 여성이 숨진 사건으로 촉발된 이란의 반정부 시위가 2009년 부정 선거 항의 시위 이후 13년 만에 최대 규모로 확산되고 있다. 이란 정부가 강경한 진압을 예고해 향후 시위가 더욱 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AFP 통신 등은 현지 시각 24일 이란 전체 31개 주 80여 개 도시에서 동시다발적인 반정부 시위가 열렸다고 전하였다. 이란 당국은 17일부터 시작된 반정부 시위를 군경이 진압하는 과정에서 군경 5명을 포함해 최소 35명이 숨졌다고 발표하였으나 인권 단체들은 최소 50명이 사망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24일까지 적어도 1,200명이 체포되었다고 전하였다.

군경과 시위대 간 무력 충돌은 갈수록 격화되고 있다.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와 외신 보도 등을 종합하면 보안군은 이란의 수도 테헤란을 비롯해 여러 도시에서 실탄을 사용해 시위를 진압하고 있다. 테헤란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찰이 창문을 향해 사격하는 장면도 목격되었다. 시위대는 보안군을 구타하고 군경 차량에 불을 지르다가 하면 여성의 복장을 감시하는 '지도 순찰대' 본부를 폭파하였다. 이란의 북서부 소도시 오슈나비에에서는 반정부 시위대가 이란 신정 체제를 수호하는 이란혁명수비대(IRGC) 군인들을 막사 밖으로 몰아냈다고 이란 인터넷서널 등이 보도하였다.

- 『경향신문』, 2022. 9. 25.

⊕ (나) 프랑스 노동절, '연금법'에 분노한 시민들의 폭력 시위 번져

AFP 통신 등은 현지 시각 1일 프랑스의 수도 파리를 비롯해 300여 곳이 넘는 지역에서 정부의 '연금 개혁 법안' 철회를 촉구하기 위한 시위가 벌어졌다고 보도하였다. 프랑스 내무부에 따르면 프랑스 전역에서 78만 2000명(노동조합 추산 230만 명)이 시위에 참여하였고, 파리에서만 11만 2000명(노동조합 추산 55만 명)이 거리로 나왔다. AFP 통신은 이날 파리에서 일부 시위대는 경찰을 향해 화염병을 던지고 건물 유리를 깨는 등 폭력 행위를 벌였고, 경찰은 최루탄과 물대포로 맞섰다고 전하였다. 이날 시위로 경찰 병력 108명이 다쳤고 시위 참가자 가운데 291명이 폭력 행위에 가담한 혐의를 받아 구금되었다. 시위가 끝날 무렵 일부 시위 참가자가 건물에 불을 지르면서 소방대가 진화에 나서는 상황도 벌어졌다. 동남부 도시 리옹에서는 일부 시위대가 차량 4대에 불을 질렀고, 북서부 도시 낭트에서는 유명 브랜드 상점의 창문을 깨기도 하였다. 프랑스 제2의 도시 마르세유에서는 시위대가 한 호텔을 점거해 화분을 깨고 가구를 망가뜨리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마크롱 정부는 지난 1월 퇴직 연령을 기존 62세에서 64세로 올리는 내용을 뼈대로 한 연금 개혁안을 발표하였으나 다수의 시민과 야당의 반대에 부딪혔다. 하지만 정부는 하원 표결을 건너뛰는 헌법 특별 조항(제49조 제3항)을 사용하며 개혁안을 강행 처리하였다. 연금 제도 개편 법안은 오는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시민들의 반대는 계속되고 있다.

- 『한겨레신문』, 2023. 5. 2.

⊕ (다) 시민불복종의 비폭력성

나는 우선 시민불복종을 흔히 법이나 정부의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로 정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나타내게 되고, 우리의 신중한 견지에서 볼 때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하게 된다.

우리는 그것을 공공 연설에 비유할 수 있으며, 또한 그것은 신중하고 양심적인 정치적 신념의 표현인 청원의 한 형태인 까닭에 공개 석상에서 이루어진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이다. …… 상해하고 해칠 가능성이 있는 폭력 행위에 가담하는 것은 청원의 양식으로서의 시민불복종과 양립할 수 없다. 사실상 타인의 시민적 자유에 대한 간섭은 어떤 행위가 갖는 시민불복종적 성격을 흐리게 하는 경향이 있다. …… 시민불복종은 또 다른 이유에서도 비폭력적이다. 시민불복종은 그것이 비록 법의 바깥 경계선에 있는 것이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fidelity to law)의 한계 내에서 법에 대한 불복종을 나타내고 있다. 그 법을 어기긴 하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은 그 행위의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인 성격과 그 행위의 법적인 결과를 받아들이겠다는 의지에 의해 표현된다. 이와 같은 법에의 충실은 다수자로 하여금 그 행위가 사실상 정치적으로도 양심적이고 진지하며 또한 공중의 정의감에 호소하려고 의도된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 주는 데 도움이 된다. 완전히 공개적이고 비폭력적인 것은 우리의 성실성을 보증하기 위한 것인데 그 이유는 우리의 행위가 양심적이라는 것을 다른 이에게 확신시키거나 심지어 우리 자신 앞에서조차도 이것을 확신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 롤스, 『정의론』

⊕ (라)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의 정당성

폭력을 통해 정의로운 사회 제도가 확립되고, 또 그 제도를 보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생겨난다면, 폭력과 혁명을 배제시켜야 한다는 윤리적인 근거는 있을 수 없다. 이런 일은 오로지 순수하게 무정부적인 윤리적·정치적 전제들을 기초로 해서만 가능하다.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이라면 도덕가들과 정치적 현실주의자들의 통찰을 모두 정당하게 다루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인간 사회가 사회적 협력의 범위를 아무리 확대하더라도 사회적 분쟁은 불가피하다는 너무나도 엄연한 사실을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올바른 정치적 도덕성은 인간 사회에서 강제력을 완전히 없애기보다는 최소화함으로써 인간 사회에 있는 합리적·도덕적 요소들에 가장 잘 부합될 수 있는 유형의 강제력을 사용하도록 권고함으로써, 그리고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과 목표의 차이를 밝혀 줌으로써 쓸데없는 갈등의 악순환에 빠진 사회를 구원하고자 할 것이다.

아마도 합리적인 사회라면 강제력과 갈등의 제거보다는 강제력이 사용되는 목적의 정당성 여부에 더 큰 강조점을 둘 것이다. 강제력의 사용이 누가 보아도 합리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사회적 목적에 기여한다면 그 사회는 강제력을 정당화할 것이고, 만일 그렇지 못하고 일시적인 열정에만 기여한다면 폭력의 사용은 지탄을 받을 것이다. 지금까지의 우리의 논의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강요하고 있는 결론은 평등이란, 아니 좀 더 상세하게 말하자면, 평등한 정의란 사회가 지향해야 할 가장 합리적이고 궁극적인 목적이라는 사실이다. 만일 이 같은 결론이 올바르다고 인정되면, 보다 더 큰 평등을 쟁취하기 위한 사회적 분쟁은 특권의 영구화를 목적으로 하는 제반 노력을 거부해도 되는 도덕적 정당성을 갖는다. 따라서 국가나 민족 혹은 계급의 해방을 위한 전쟁은 제국주의적 지배나 계급적 지배의 영구화를 위해 사용되는 권력과는 다른 도덕적 범주에 넣어야 할 것이다.

억압받는 민족들, 예를 들어 …… 영국에 저항하는 인도인, 미국에 항거하는 필리핀인, …… 그리고 일본에 저항하는 한국인 등은 언제나 중립적인 사회들로부터 특별한 공감과 도덕적 인정을 받았다.



⊕ 니부어(Niebuhr, R., 1892~1971)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STEP 2

쟁점 분석하기

1. (가)와 (나)의 사례에 나타난 폭력의 사용이 정당한지에 대해 자유롭게 평가해 보자.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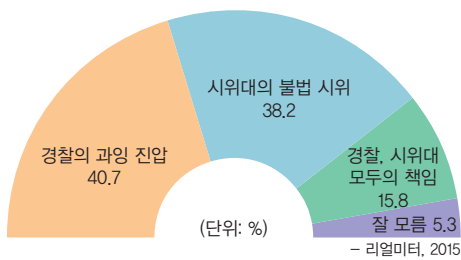
.....

2. (다)와 (라)의 핵심 주장과 근거를 비교해 보자.

구분	(다)	(라)
국가에 대한 저항 행위의 목적		
저항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옹호 여부		
폭력을 옹호 (또는 반대)하는 근거		

3. 다음 글을 읽고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과 ‘폭력의 악순환’의 관계를 생각해 보자.

11·14 민중 시위 폭력 상황에 대한 국민 인식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0명 대상)



서울 도심에서 열린 역사 교과서 국정화, 노동 개혁 등을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에서 폭력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야당에서는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으로, 여당에서는 ‘불순 선동 세력에 의한 불법·폭력 시위’로 맞서고 있다. 한 여론 조사 전문 기관이 국민을 대상으로 폭력 상황이 발생한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묻은 결과, ‘민주주의를 억압하는 경찰의 과잉 폭력 진압’에 있다는 응답이 40.7%, ‘불순 선동 세력의 불법·폭력 시위’에 있다는 응답이 38.2%로 오차 범위 내에서 팽팽하게 나타났다. ‘경찰, 시위대

모두의 책임’이라는 응답은 15.8%, ‘잘 모름’이라는 응답은 5.3%였다.

- 『리얼미터』, 2015. 11. 19.

- 폭력의 악순환: 폭력은 또 다른 폭력으로 이어져 끊임없이 악순환한다는 것

.....

.....

.....

STEP 3 토론하기

4.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은 정당할까?'에 관해 모둠별로 입장을 나누어 토론해 보자.

나의 입장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은 (정당하다. / 정당하지 않다.)
'정당하다' 측의 근거	
'정당하지 않다' 측의 근거	
상대측의 근거에 대한 반론	
상대측의 반론에 대한 우리 측의 재반론	
최종적인 나의 입장	

STEP 4 평가하기 (5점 만점)

평가 항목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가)와 (나)의 사례를 평가할 때 주장과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다)와 (라)의 핵심 주장과 근거를 올바르게 비교하였는가?		
폭력의 악순환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작성할 때 자료를 참조하였는가?		
토론 과정에서 상대측의 의견을 비판할 때 존중하는 자세를 갖추었는가?		
토론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최종적인 자신의 입장을 서술하였는가?		

매우 그렇다 5점 / 그렇다 4점 / 보통이다 3점 / 그렇지 않다 2점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활동 목표

-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사회 문제를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 분배적 정의에 관한 상이한 관점들의 핵심 주장과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 분배적 정의에 관한 사회 문제를 이론적인 개념과 근거를 활용하여 비판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STEP 1 자료 읽기

⊕ (가) 한국은행,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 격차의 92%는 부모의 경제력 및 거주지 효과”

학생 본인의 능력보다 부모의 경제력, 거주지 등의 배경이 상위권 대학교 진학을 격차를 만들어 낸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한국은행이 펴낸 「입시 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 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부모의 소득이 상위 20%인 학생의 상위권 대학 진학률은 하위 20%인 학생보다 5.4배 높았다. 이러한 격차의 75%는 학생의 잠재력 이외에 부모가 지닌 경제력의 효과로 추정되었다. 또한 2018년 서울과 비서울 간 서울대 진학률 격차의 92%는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 등을 포괄하는 ‘거주 지역 효과’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입시에서 부모의 경제력과 사교육 환경이 학생의 잠재력보다 더 크게 작용하면 계층 이동의 기회가 줄어들고 사회 경제적 지위의 대물림이 심화된다. 또한 상위권 대학교 진학생의 서울 편중이 심화되면서 창의성, 문제 해결 능력, 포용성 등의 교육적 토대가 약화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우려를 표하였다. 또한 “과도한 입시 경쟁은 교육 및 양육 비용 부담으로 인한 저출산과 만혼, 수도권 인구 집중과 서울 주택 가격 상승, 학생의 정서 불안 및 교육 성과 저하 등 사회 구조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다.”라고 부연하였다. - 『동아일보』, 2024. 8. 27.

⊕ (나) 분배적 정의에 대한 롤스의 입장

우리에게 있어서 정의의 일차적 주제는 사회의 기본 구조, 보다 더 정확히 말하면 사회의 주요 제도가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로부터 생긴 이익의 분배를 정하는 방식이 된다. 여기서 주요 제도란 정치의 기본법이나 기본적인 경제적·사회적 체제를 말한다. ……

내가 자유주의적 해석이라고 부르게 될 입장에서는 재능이 있으면 출세할 수 있다는 요구 조건에 공정한 기회균등이라는 조건을 부가시킴으로써 이러한 부정의(부의 분배가 여러 우연성에 의해 좌우되는 현상)를 시정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 유사한 능력과 재능을 가진 사람들은 유사한 인생의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 사회의 모든 계층에 있어서 유사한 동



⊕ 롤스(Rawls, J., 1921~2002)

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대체로 교양이나 기능에 대한 동등한 전망을 가져야 한다. 동일한 능력과 포부를 가진 사람들의 기대치가 그들이 처한 사회적 계급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기회균등의 원칙은 가족 제도가 존재하는 한 오직 불완전하게만 이루어질 수 있다. 천부적 능력이 계발되고 성숙하는 정도는 모든 종류의 사회적 여건과 계급 양태의 영향을 받는다. 노력하고 힘쓰며 일반적인 의미에서 가치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의욕 그 자체까지도 행복한 가정 및 사회적 여건에 의존한다. 실제에 있어서 비슷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기능과 교양에 대한 동등한 기회를 보장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우리는 이 사실을 시인하고 또한 천부적인 운수 자체가 갖는 자의적인 영향을 완화시키는 원칙을 채택하고자 한다. ……

차등의 원칙은 결국 천부적 재능의 분배를 공동의 자산으로 생각하고 그 결과에 상관없이 이러한 분배가 주는 이익을 함께 나누어 가지는 데 합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천부적으로 보다 유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들

이 누구든지 간에, 아주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의 여건을 향상해 준다는 조건하에서만 그들의 행운에 의해 이익을 볼 수 있다. 천부적으로 혜택받은 사람들은 그들이 재능을 더 많이 타고났다는 바로 그 이유만으로는 이득을 볼 수 없으며 훈련과 교육비를 감당해야 하고 불운한 사람들도 도울 수 있도록 그들의 자질을 사용해야 한다. …… 따라서 우리는 만일 우리가 아무도 대신에 보상해 줄 이익을 주거나 받음이 없이는 그의 천부적 자질이 나 최초의 사회적 지위가 갖는 임의적인 위치를 사용해서 이익을 보거나 손실을 보지 않도록 사회 체제를 세우고자 한다면 차등의 원칙에 이르게 된다.

- 롤스, 『정의론』

⊕ (다) 분배적 정의에 대한 노직의 입장

우리 중 일부가 타인을 위해 희생되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되지 않는다. 이 근원적인 생각, 즉 존재하는 것은 서로 독립적인 삶을 영위하는 서로 다른 개인이며, 누구나 타인을 위해 희생되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도덕적 측면 제약 사항들의 기초를 이루며, 이는 또한 타인에 대한 공격을 금지하는 자유주의적 측면 제약 사항에 귀결된다. ……

‘한 개인은, 자신으로 하여금 자신의 능력을 계발하려는 노력을 할 수 있게 하는 그 탁월한 성격을 옹당히 가질 만하다는 주장도 동등하게 논쟁의 대상이 된다. 왜냐하면 그의 성격의 상당한 부분은 행복한 가정과 운 좋은 사회적 여건에 의존하며 이들은 그 자신의 행위의 결과가 아니다.’ ‘자연적 자질의 원초적 부여와 이들의 성장과 발육의 우연성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의적이며, …… 한 개인이 할 용의가 있는 노력은 그의 자연적 능력과 기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수단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보다 나은 자질의 소유자들은 모두 다른 상황이 같다고 할 때 의식적인 노력을 할 가능성을 보다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식의 논변은 단지 한 개인에 관한 주목할 만한 모든 것을 완전히 어떤 ‘외적인’ 요인에 귀속시킴으로써만, 그 개인의 자율적인 선택과 행위의 도입을 봉쇄하는 데 성공할 수 있다. 한 개인의 자율성과 그의 행위에 대한 그의 우선적인 책임을 이와 같이 더럽히는 것은 자율적인 존재의 존귀함과 자존감을 밑받침하고자 하는 이론으로서의 위험한 노선이다. ……

개인의 자연적 자산이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의적이건 아니건 여하간에, 그 개인은 그에 대한 소유 권리를 지니며, 이로부터 유출되는 것에 대해서도 그러하다.



⊙ 노직(Nozick, R., 1938~2002)

⊕ (라) 분배적 정의에 대한 왈처의 입장

정의의 원칙들은 그 형식에서 그 자체가 다원주의적이다. 상이한 사회적 가치는 상이한 근거에 따라 상이한 절차에 맞게 상이한 주체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 이러한 모든 차이는 사회적 가치들 그 자체에 대해 서로 다른 주체가 서로 상이한 방식으로 이해하기 때문에 나타난다. 그리고 이러한 상이한 이해는 역사적이고 문화적인 특수성의 필연적 산물이다. ……

복합 평등이란 한 영역 안에서 혹은 다른 사회적 가치와 관련하여 시민이 지닌 어떠한 위치도 어떤 다른 영역 혹은 다른 가치와 관련된 그의 지위 때문에 침해당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공직에 시민 X가 시민 Y에 우선하여 선택될 수도 있으며 이때 두 사람은 정치의 영역에서는 불평등하게 된다. 그러나 공직에 있다는 이유 때문에 그 외 모든 영역에서 시민 X에게 우선적인 의료 혜택, 자녀의 취학의 우선권, 다른 취업 기회들 등과 같은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한, 이 두 사람이 일반적으로 불평등한 것은 아니다. 공직이 지배적 가치가 아닌 한, 또한 일반적으로 전환될 수 없는 한, 공직 소유자는 그들이 통치하는 사람들과 평등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

전제 및 전제 행위에 대한 비판은 개방적인 분배 원칙으로 나아간다. 어떠한 사회적 가치 x도, x의 의미와는 상관 없이 단지 누군가가 다른 가치 y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y를 소유한 사람에게 분배되어서는 안 된다.

- 왈처, 『정의와 복합 평등』



⊙ 왈처(Walzer, M., 1935~)

STEP 2

쟁점 분석하기

1. 분배적 정의와 관련하여 (가)에 나타난 문제 상황을 정리해 보자.

2. 다음은 (나)~(라)와 관련된 핵심 내용이다. 각 구(句)의 의미를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찾아 적어 보자.

구분	구(句)의 의미
(나)	① 원초적 입장의 의미 ② 정의의 원칙의 역할 ③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이라는 것의 의미
(다)	①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의 의미 ②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 비판
(라)	① 복합 평등의 의미 ② 독점과 전제의 구분

3. (나)~(라)의 관점에서 (가)의 문제 상황을 도덕적으로 평가해 보자.

(나)	힌트 타고난 가정 환경은 사회적 우연성에 속한다.
(다)	힌트 부모가 정당한 방법으로 부를 취득했다면 교정의 원칙이 작동하지 않을 것이다.
(라)	힌트 경제의 영역이 교육의 영역을 침범하는 일은 전제에 가까운 현상이다.

활동 목표

- 예술 작품의 의미를 도덕적 측면과 예술적 측면에서 각각 논할 수 있다.
-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와 생각을 공유하며 더 나은 생각과 근거를 제시할 수 있다.

STEP 1 자료 읽기

+ (가) 살아 있는 나비를 이용한 전시, 동물 학대 논란



◆ 데이미언 허스트, 「사랑의 안과 밖」

영국의 미술 작가 데이미언 허스트의 「사랑의 안과 밖」은 밀폐된 방 안에 과일과 꽃, 설탕물을 비치해 놓고 나비를 풀어 놓은 작품이다. 나비를 통해 삶과 죽음을 나타낸 이 작품은 평론가와 관람객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그러나 영국 왕립동물학대방지협회는 허스트의 작품에서 죽은 나비를 교체하기 위해 매주 400마리의 새로운 나비가 소요되었다고 설명했다. 작품에 사용된 나비들의 평균 수명은 9개월 정도이지만 일부 나비들은 관람객에게 밟혀 죽거나 관람객의 옷에 앉았다가 털어 내는 손길에 죽기도 하였다. 협회 대변인은 “허스트는 이 전시에서 나비들을 밀폐된 공간이라는 인공적인 환경에서 살도록 하였다. 만약 이 전시에 사용된 동물이 나비가 아니라 개를 비롯한 다른 동물이었다면 영국인 모두가 분노하였을 것이다.”라고 말하였다. 영국 나비보존협회 대표 마틴 워런은 “이 작품이 생명체와 환경을 업신여기는 인식을 나타내고 있어 대단히 우려스럽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허스트는 “나비 전문가를 고용해 나비가 살기에 최적의 조건을 마련하였다. 많은 나비가 더 좋은 환경과 음식이 제공된 덕분에 평균 수명보다 더 오래 생존할 수 있었다.”라며 이 같은 비판을 반박하였다.

- 『경향신문』, 2012. 10. 15.

+ (나) ‘링거병에서 죽어 가는 금붕어’ 기획 전시에 동물 학대 논란



◆ 유범, 「FISH」

금붕어를 링거병에 가두어 놓고 죽어 가는 모습을 전시한 미술 작품이 동물 학대 논란에 휩싸였다. 문제의 작품은 유범 작가의 「FISH」로 링거병 안에 금붕어를 넣은 설치 작품이다. 작가는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금붕어가 죽어 가는 과정을 보여 주며 인간의 내면에 자리 잡은 폭력성과 이중성을 표현하였다고 설명했다. 작품을 본 일부 관람객은 자원봉사자에게 “금붕어에게 밥은 주느냐?”라고 문의하였고, 링거병 안에서 서서히 죽어 간다는 사실을 알고 항의하였다. 일부 동물 보호 단체도 문제를 제기하자 미술관 측은 결국 링거병 안에 있는 금붕어를 모두 회수하였다. 이에 대해 유범 작가는 “일반인의 시선으로 보면 다소 불편할 수 있지만, 예술가는 일반인의 사고와 다르게 생각하고 표현한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시된 금붕어는 모두 열다섯 마리였으나 이 가운데 다섯 마리가 폐사하였다.

- 『연합뉴스』, 2022. 7. 13.

STEP 2 쟁점 분석하기

1. (가)와 (나)에서 소개된 예술 작품을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해 보자.

구분	(가)	(나)
예술적 측면 (예술가의 의도 등)		
도덕적 측면 (작품의 소재, 전시 방식 등)		

STEP 3 토론하기

2. 비도덕적인 예술 작품도 예술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생각과 근거를 적고 친구들과 토론해 보자.

나의 입장	비도덕적인 예술 작품도 예술로서 (인정할 수 있다. / 인정할 수 없다.)
근거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친구의 근거	
최종적인 자신의 생각 및 근거	

STEP 4 평가하기 (5점 만점)

평가 항목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가)와 (나)에서 소개된 예술 작품의 의미를 두 가지 측면에서 모두 올바르게 작성하였는가?		
토론 과정에서 토론의 논제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인 근거를 활용하며 제시하였는가?		
토론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의 의견을 이해하고 경청하였는가?		
토론 과정에서 대립적인 의견과 근거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자신의 의견을 정립하였는가?		

매우 그렇다 5점 / 그렇다 4점 / 보통이다 3점 / 그렇지 않다 2점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활동 목표

- 채식 급식 의무화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각각 제시할 수 있다.
- 채식 급식 의무화에 관한 토론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논리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
- 채식 급식 의무화에 관한 토론을 통해 올바른 토론 참여자의 자세를 지닐 수 있다.

STEP 1 자료 읽기

+ (가) 전국 학교에 '채식 급식' 확산 기후 변화 대응·균형 식단 지향

전국 초·중·고 채식 급식 현황

서울

모든 초·중·고 월 2회 '그린 급식의 날'

인천

모든 초·중·고 월 1회 '채식의 날', 주 1회 '고기 없는 월요일'

광주

시범 학교 대상 주 1~2회 채식 급식 제공

부산

모든 초·중·고 월 1회 '채식의 날' 권장

울산

모든 초·중·고 월 1회 'VTS DAY(채식의 날)', 주 1회 '고기 없는 날'

전북

시범 학교 대상 주 1회 '채식의 날', 기존 식단에 주 2회 이상 채식 메뉴 추가

- 각 시도 교육청

기후 위기로 인한 생태 교육의 필요성이 점차 커지는 가운데 각 시도 교육청도 채식 급식에 동참하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초등학교 세 곳을 시작으로 월 1회 채식의 날을 지정해 관내 초·중·고등학교에 채식 급식을 운영하고 있다. 2011년 전국 최초로 채식 급식을 도입한 광주시교육청은 채식 급식 선택제 시범 운영을 위해 1억 5000만 원 상당의 예산을 투입하였다. 경남교육청은 오는 9월부터 월 1회 이상 채식 급식의 날 '다채롭데이'를 운영

할 계획이다. 울산시교육청은 매주 '고기 없는 월요일'과 월 1회 '채식의 날'을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 소재의 모든 초·중·고교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채식의 날'에는 육류뿐만 아니라 해산물, 달걀, 유제품도 급식에 나오지 않는다.

- 『중앙SUNDAY』, 2021. 7. 10.

+ (나) "동물 그만 먹어요." '탈육식' 운동을 시작하며

뺨뺨하고 열악한 사육장에서 말 그대로 '거의 숨만 쉬며' 살아가는 동안, 건강에 이상이 생겨 살이 빠르게 찌지 않는 동물은 즉각 도태된다. 폭염이나 농장에 불이라도 들이닥치면 동물들은 폐죽음을 맞을 뿐이다. 어쩌다 구제역이나 조류 독감에 걸린 동물들은 즉각 **살처분**되어 땅에 묻힌다.

이 모든 중간 위험들을 버텨 내는 것이 동물에게 본질적으로 큰 의미가 있는가? 중국엔 도살장으로 끌려가 죽고 살과 뼈, 가죽을 내놓아야 한다면 말이다. 그동안 정부와 업계가 공고히 가려 왔던 축산 피해 동물의 삶과 모습이 대한민국에서도, 세계 곳곳에서도 드러나고 있다. 새빨간 고깃덩어리 뒤에 숨은 잔혹한 폭력과 착취를 더는 눈감지 않고 적극적으로 알리며 동물성 제품을 불매하겠다는 것이 바로 탈육식, 채식(비건), 동물권 운동이다. 이는 거스를 수 없는, 앞으로 더 확고히 실현될 미래의 방향이다.

- 『한겨레신문』, 2019. 5. 12.

- 살처분: 죽여서 없앴.

+ (다) 기후 위기 시대, 채식이 지구를 살린다

전 세계 환경 운동가들이 육식을 멀리하고 채식을 권하고 있다. 고기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온실가스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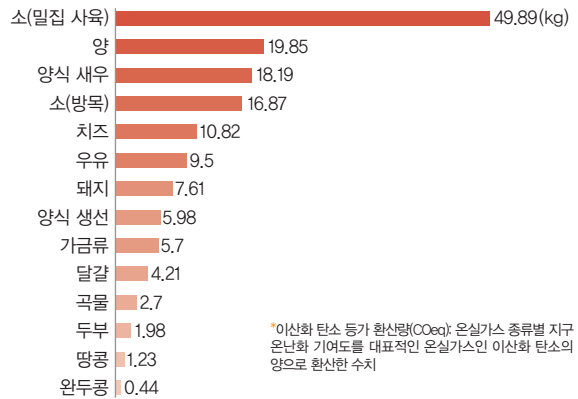
배출되고 있기 때문이다.

식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4분 1 이상을 차지하는데 이중 80%가 축산업과 관련되어 있다. …… 축산업은 사료를 재배하고, 축사의 온도를 유지하고, 도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에너지를 소비한다. 축산업은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 탄소의 2,530배에 달한다는 ‘블랙 카본’과도 연관이 있다. 블랙 카본이 빙하에 내려앉으면 열 흡수를 높여 해빙을 재촉한다. 블랙 카본은 열대 우림을 불태우는 과정에서 주로 발생하는데, 그린피스와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1990

년 이후 사라진 열대 우림의 70~90%는 축산업 때문이다. 가축의 소화 과정에서 나오는 메테인도 기후 위기를 부채질한다. 온난화 효과가 이산화 탄소의 56~86배에 이르는 메테인의 30~37%는 축산업에서 나온다. …… 축산업은 전체 농지의 80%를 사용하지만 거기서 인간이 얻는 칼로리는 18%에 불과하다. 나머지 8%의 토지에서 인류가 필요로 하는 82%의 칼로리를 제공하는 식량이 생산된다.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비건 식단을 택할 경우 1인당 674m²의 땅이 필요한데, 육류 위주 식단을 유지할 경우 이것의 18배의 땅이 필요하다. 육류 생산이 얻는 영양분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이라는 의미이다. 축산업을 위한 목초지를 줄이거나 숲으로 되돌리면 탄소 흡수가 늘고, 메테인과 아산화 질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네덜란드 환경평가원(PBL)은 2008년 전 세계가 고기를 덜 먹는 식단으로 전환할 경우 2050년까지 예상되는 기후 비용의 최대 80%까지 줄일 수 있다고 예상하였다.

- 『경향신문』, 2020. 10. 17.

단백질 100g당 평균 온실가스 배출량 (단위: *이산화 탄소 등가 환산량(COeq))



*이산화 탄소 등가 환산량(COeq): 온실가스 종류별 지구 온난화 기여도를 대표적인 온실가스인 이산화 탄소의 양으로 환산한 수치

- 『사이언스』, 2018

❖ (라) 성장기에 채식 급식? “정부가 영양 불균형 조정”

사람마다 체질이 다른 만큼 필요한 영양분도 다른데, 이 점을 고려하지 않고 채식 위주 식단을 할 경우 영양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실제 채식을 하기 위해 열량이 높은 흰쌀, 밀가루, 고구마, 감자 등을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 조절이 안 되어 당뇨병, 비만 등의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 채식 급식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이다. 영양을 골고루 섭취해야 할 성장기 학생들이 의무적인 채식 급식으로 인해 영양 불균형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족한 영양소를 채우기 위해 두부, 콩고기 등 대체 식품을 사용한다고 하나, 필수 영양 성분 중 비타민 B12 등은 소, 돼지, 닭 등 동물성 식품에만 존재하며 칼슘과 철분, 아연 또한 채식만으로 충분히 섭취하기 힘들다. 건강한 식문화 조성을 위해서는 육류 섭취를 제한할 것이 아니라 과자나 탄산음료 등의 섭취량부터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 『헬스조선』, 2021. 4. 13.

❖ (마) 서울시, 초·중·고 채식 강제한다 …… ‘의무 채식제’ 도입

2024년부터 서울 전역 학생들은 월 3~4회 의무적으로 채식을 먹게 된다. 지난 3월 서울시교육청 학교보건진흥원은 ‘먹거리 생태 전환 교육 중기 발전 계획’을 발표하였다. 이 계획에 따르면 교육청은 ‘그린 급식의 날’을 2024년부터 월 3~4회로 확대한다. ‘그린 급식의 날’은 서울 시내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 의무적으로 채식을 먹도록 강제하는 날이다. 육식 위주 식습관이 기후 위기의 주범인 만큼 육류 소비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교육청이 목표로 하고 있는 ‘그린 급식의 날’의 시행 빈도는 월 3~4회이다. 서울 학생들에게 내후년부터 주 1회꼴로 ‘의무 채식제’가 도입되는 셈이다. 교육청의 이 같은 계획은 학생들이 선제적으로 기후 위기에 대응하자는 취지에서 도입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어른들이 만들어 놓은 기후 위기 책임을 왜 학생들에게 떠넘기는가?”라는 비판도 만만치 않다. 성인들도 제대로 된 채식 식단을 실천하지 않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에게 채식을 강요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다.

- 『국민일보』, 2022. 6.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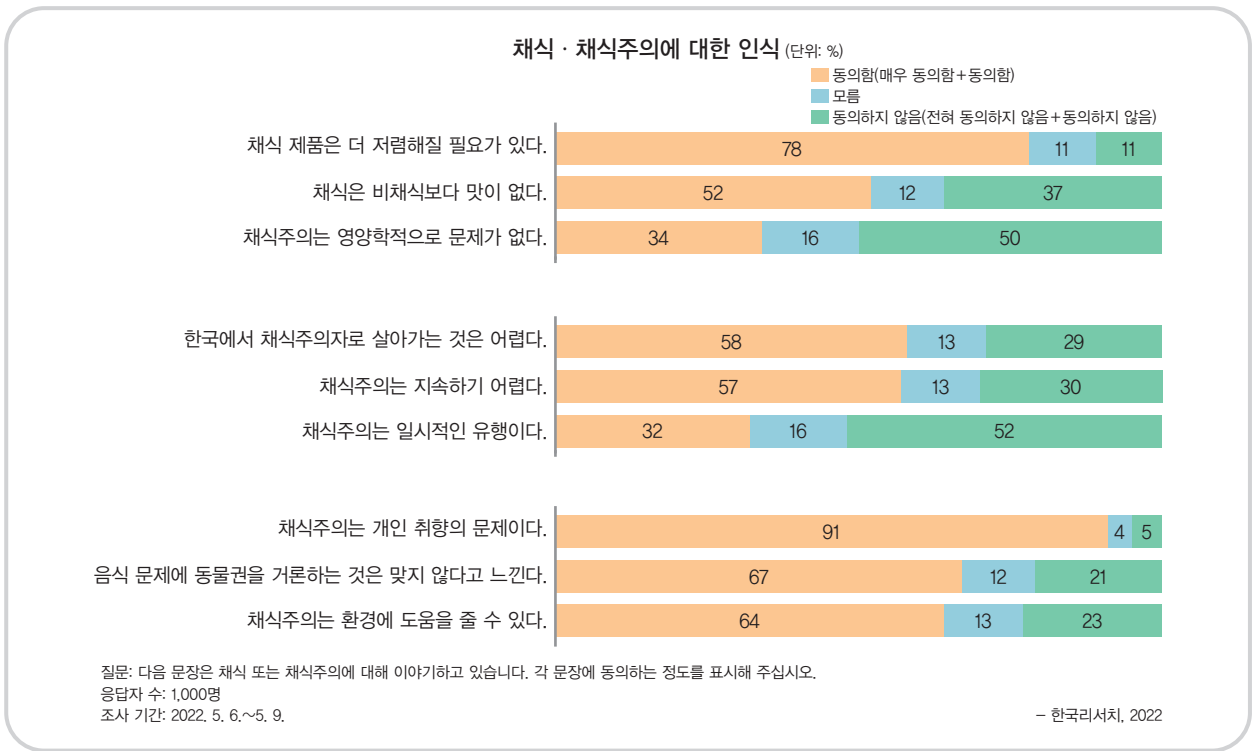
STEP 2

쟁점 분석하기

1. (나)~(마)를 읽고 채식 급식 의무화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정리해 보자.

찬성	반대

2. 다음은 채식에 관한 설문 조사 결과 중 일부이다. 결과를 참조하여 채식 급식 의무화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요인에는 무엇이 있는지 자유롭게 적어 보자.



STEP 3 토론하기

3. '채식 급식 의무화는 정당할까'에 대해 찬성과 반대 입장을 나누어 모둠별로 토론해 보자.

나의 입장	채식 급식 의무화는 (정당하다. / 정당하지 않다.)
찬성 측의 근거	
반대 측의 근거	
상대측의 근거에 대한 반론	
상대측의 반론에 대한 우리 측의 재반론	
최종적인 나의 입장	

STEP 4 평가하기 (5점 만점)

평가 항목	자기 평가	동료 평가
(나)~(마)를 참고하여 채식 급식 의무화의 찬반 근거를 정리하였는가?		
설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채식 급식 의무화에 고려해야 할 요인을 발견하였는가?		
토론 과정에서 논제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균형 있게 정리하였는가?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인격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는가?		
토론 과정에서 논의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종적인 나의 입장을 서술하였는가?		

매우 그렇다 5점 / 그렇다 4점 / 보통이다 3점 / 그렇지 않다 2점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활동 목표

- 다문화 사회의 갈등 사례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 다문화 사회의 갈등 사례에 관한 자신의 입장을 논리적인 근거를 활용하여 제시할 수 있다.

STEP 1 자료 읽기

+ (가) '메리 크리스마스' vs '해피 홀리데이스' 미국의 좌·우 가른 연말 인사말

미국이 올해도 어김없이 연말 인사말을 두고 좌·우로 나뉘고 있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이 미국의 전통을 반영한다는 보수층의 주장과 비(非)기독교인을 배척하는 표현이라는 진보층의 주장이 맞붙으면서부터이다. '해피 홀리데이스'는 2000년대 중반부터 미국 전역에서 사용되기 시작하였다. 미국 진보 진영에서는 크리스마스가 기독교 축일인 만큼, 비슷한 시기에 있는 유대인 축일 '하누카'(12월 25일~1월 2일), 흑인 축제 '퀵자'(12월 26일~1월 1일)를 포함해 '해피 홀리데이스'로 부르자고 주장해 왔다. '해피 홀리데이스'는 2009년 출범한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부터 미국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오바마 전 대통령은 연말 카드에 '크리스마스'라는 표현을 일절 쓰지 않았고 백악관의 크리스마스 장식도 생략하였다. 그렇다고 민주당 지지층에서만 사용되었던 것은 아니다. 공화당 소속의 조지 부시 전 대통령 역시 2006년 크리스마스 대신 '홀리데이스'라는 표현을 썼다. 다양성을 포용해야 한다는 논리에서였다.

- 『한국경제신문』, 2024. 12. 26.

+ (나) "옷을 보고 종교가 식별되어선 안 돼." 교내 '아바야' 착용 금한 프랑스

가브리엘 아탈 프랑스 교육부 장관은 프랑스 TF1 방송과 한 인터뷰에서 "앞으로 학교에서 '아바야'를 입을 수 없다고 결정하였다. 교실에서는 학생을 보고 그 종교를 식별할 수 있어서는 안 된다." 라고 밝혔다.

'아바야'는 중동 무슬림이 착용하는 전통적인 민족의상이다. 사막의 직사광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할 수 있고, 여성의 경우 몸매를 최대한 숨길 수 있다. 주로 긴 검은색 의상으로 사우디아라비아, 예멘 등에서 여학생들이 많이 입고 등교한다. 앞서 지난 2004년 프랑스는 학교에서 표면적으로 종교적 소속을 보여 주는 복장·표식을 착용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기독교를 상징하는 큰 십자가, 유대인 키파(모자), 이슬람 머릿수건 등이 포함된다. 그러나 이슬람교 신념에 맞춘 길고 험렁한 옷인 아바야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칙이 없었다.

BBC 방송, 알자지라 등은 아바야 착용 금지가 새로운 갈등을 빚어낼 수 있다고 우려하였다. 지난 2010년 프랑스는 공공장소에서 무슬림 여성의 복장인 '부르카'와 '니캅' 등 얼굴을 가리는 복장 착용을 금지하였는데, 당시 프랑스 내 약 500만 명의 무슬림 인구가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기반한 법'이라며 크게 분노하였다.

프랑스가 종교색이 강한 복장을 학교와 공공장소에서 엄격히 규제하는 것은 독특한 정교분리 전통인 '라이시테(프랑스식 세속주의)' 때문이다. 프랑스 헌법에도 명시된 '라이시테'는 사적인 영역에서 종교의 자유를 철저히 보장하되, 정치 등 공적인 영역에서는 종교를 철저히 배제하는 원칙이다. 종교 전쟁, 드레퓌스 사건 등을 겪은 프랑스는 종교의 정치 개입을 경계하는 전통이 생겼고, 이를 공화정 수립 과정에서 헌법에 반영하였다. '라이시테'는 자유·평등·박애와 함께 프랑스 4대 정신으로 일컬어진다.

- 『중앙일보』, 2023. 8. 28.



STEP 2 쟁점 분석하기

1. (가)와 (나)의 핵심 주장과 근거를 비교해 보자.

구분	쟁점	
(가)	'메리 크리스마스' 측의 입장과 근거	
	'해피 홀리데이스' 측의 입장과 근거	
(나)	프랑스 정부의 입장과 근거	
	이슬람 집단의 입장과 근거	

STEP 3 토론하기

2. 다음 두 주제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모둠별로 찬성과 반대의 팀을 나누어 토론해 보자.

- (A)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스'를 사용해야 한다.
 (B) 학교에서 종교적인 상징물(예 십자가, 아바야, 염주 등)을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모듬의 주제
우리 팀의 입장
우리 팀의 입장에 대한 반론
상대 팀의 반론에 대한 우리 팀의 재반론

STEP 4 평가하기 (5점 만점)

평가 항목	자기 평가	동료 평가
(가)와 (나)의 쟁점을 둘러싼 상반된 관점을 비교하였는가?		
토론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입장을 옹호하기 위해 논리적인 근거를 제시하였는가?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인격을 존중하면서 상대방의 근거에 반론을 제시하였는가?		

매우 그렇다 5점 / 그렇다 4점 / 보통이다 3점 / 그렇지 않다 2점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활동 목표

- 논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타당성의 측면에서 검토할 수 있다.
- 타당한 근거를 활용하여 논리적으로 일관된 방식으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할 수 있다.

STEP 1 자료 읽기

⊕ (가) 하버마스의 논증 대화 이론

논증 대화는 청자가 화자에게 타당성 주장을 보충하라고 제기하는 이의에서 시작한다. 진리, 정당성, 진실성이 라는 세 가지 유형의 타당성 주장이 있으므로, 세 가지 주장에 상응하는 논증 대화의 유형으로 이론적 논증 대화, 도덕적 논증 대화, 미학적 논증 대화가 있다.

하버마스는 세 가지 수준의 논증 대화 규칙을 규명한다. 첫째 수준에는 기본적인 논리적 규칙과 의미론적 규칙이 있다. ‘무모순 원칙’과 ‘일관성 요건’이 첫째 수준에 속한다. 둘째 수준에는 절차를 규제하는 규범이 있다. 모든 참여자는 자신이 진실로 믿는 주장만을 할 책임이 있다는 ‘진실성 원칙’과, 참여자는 요청이 있을 시 자신의 주장을 정당화하거나 정당화하지 않는 이유를 제공할 책임이 있다는 ‘해명 책임의 원칙’이 둘째 수준에 속한다. 셋째 수준에는 논증 대화 과정을 강제·억압·불평등에서 면역되게 하고 ‘보다 나은 논증의 강제 없는 강제’만이 지배하도록 보장하는 규범이 있다.

- 제임스 고든 핀레이슨, 『하버마스 입문』

⊕ (나)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은 학습권 침해 …… 11시까지 늘리자.”

서울에서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 학원 교습 시간을 고등학생의 경우 11시까지 늘리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서울시 조례 제8조에는 학생의 교습 시간을 ‘오전 5시부터 오후 10시’까지라고만 명시하고 있는데, 시작 시간을 오전 6시부터로 변경하고 최대 운영 시간을 초등학교는 오후 9시, 중학생은 오후 10시, 고등학생은 오후 11시까지로 다양화하자는 취지이다.

그러나 토론회가 열리기 전부터 반발이 거세다. 한 교육청 관계자는 “오후 10시에 학원이 끝나도 집에 가서 씻고 과제를 하다 보면 자정이 넘어서 잠이 드는데, 11시로 늘리면 부모와 잠깐 대화할 시간마저 사라진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학원 교습 시간을 무조건 제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지적도 많다.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A 씨는 “오후 10시 이후 카페로 옮겨 학원 수업을 계속 받는 경우도 많다. 아이가 늦게까지 공부하는 것은 안타깝지만 공부 시간은 변함이 없는데 학원만 10시에 끝낸다고 학생들의 휴식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하였다. 전국보습교육협회의 회장 B 씨도 “학원 교습 시간 제한으로 오히려 심야 불법 과외가 늘고 사교육비 통계에도 잡히지 않는 지하 경제가 활성화되고 있다.”라고 지적하였다.

- 『동아일보』, 2016. 5. 26.

⊕ (다) “공부할 학생은 밤 10시 이후에도 학원에 갈 수 있게 놔둬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C 씨는 “지금의 입시 구조에서는 학교 수업만으로 충분한 입시 준비를 할 수 없다. 학원 교습 시간 제한 때문에 밤에 학원 수업을 받을 공간이 없는 학생들은 카페나 패스트푸드점에 모여서 보충 수업을 받는 경우도 있다.”라고 말하였다. 이에 맞서 좋은교사운동 공동 대표 D 씨는 “한창 약동해야 할 청소년들이 주당 70~80시간을 책상에 앉아 있어야 하는 데 반해 학습 효율은 핀란드의 절반 수준이고 학습 효능도 바닥이다. 학생들이 불안감 때문에 학원에 가고 싶어 한다는 것을 ‘선택권’으로 포장해선 안 된다.”라고 반박하였다.

- 『머니투데이』, 2016. 5. 26.

STEP 2 쟁점 분석하기

1.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해야 할까?'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정리해 보자.

구분	찬성	반대
근거1		
근거2		
근거3		

STEP 3 논술하기

2. 다음 **작성 요건** 을 참고하여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해야 할까?'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해 보자.

작성 요건

- STEP 2 의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인용할 것
- 근거의 타당성을 진리성과 정당성의 측면에서 따져 볼 것

.....

.....

.....

.....

.....

.....

.....

.....

STEP 4 평가하기 (5점 만점)

평가 항목	자기 평가	동료 평가
학원 교습 시간 제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올바르게 정리하였는가?		
<논술하기>에서 진리성과 정당성에 부합하는 근거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였는가?		
<논술하기>에서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상호 모순되지 않고 일관적인가?		

매우 그렇다 5점 / 그렇다 4점 / 보통이다 3점 / 그렇지 않다 2점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활동 목표

-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대립적인 관점 및 근거를 설명할 수 있다.
- 통일의 필요성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서술할 수 있다.

STEP 1 자료 읽기

+ (가) 통일 관련 설문 조사 결과

‘귀하는 남북한 통일이 얼마나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 ‘약간 필요함’과 ‘매우 필요함’의 비율이 52.9%로 나타났다. 이는 2019년 하노이 북미 정상 회담 실패 후 2020년 남북 관계 경색이 본격화되면서 기록한 52.7% 이후 최저치이다.

‘귀하는 남북한이 통일을 이루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같은 민족이라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북한 주민도 잘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한국이 보다 선진국이 되기 위해서’ 등의 보기 중에서 2016년까지는 ‘같은 민족이라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였으나 2017년 이후에는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가 가장 중요한 이유로 꼽히고 있다. 2024년 조사에서는 ‘같은 민족이라서’를 꼽는 비중이 26.7%로 2014년 조사 이래 최저치를 기록하였다.

‘귀하는 남북한이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공존할 수 있다면 통일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다소 동의함’과 ‘매우 동의함’이 차지하는 비중이 43.1%(2016), 49.5%(2019), 56.9%(2022), 57.7%(2024)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인다.

- 통일연구원, 『통일 의식 조사 2024』

+ (나) “통일 싫지만 …… 북한, 중국 땅 되는 것은 안 돼.” 20대들 ‘돌변’한 이유

우리가 만나 본 20대들은 통일에 대한 생각을 묻자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그러면서도 이들은 북한 체제 붕괴 시 북한의 영토가 중국에 넘어가는 것에는 반대하는 모습을 보였다.

A 씨는 “한반도가 중국에 넘어가는 것은 안 된다. 중국뿐만 아니라 제3국이 끼어드는 것은 안 될 일이다.”라고 하였다. B 씨는 “지금도 그렇지만 북한 영토를 중국이 갖게 되면 우리가 섬나라가 되어 고립되는 느낌이다. 한·중·일 사이에서 중국을 더 견제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였다. 그는 “한국사에서 한반도를 중심으로 모든 내용이 전개되니 자연스럽게 우리 땅이라는 생각이 든다. 중국이 점령할 경우 빼앗기는 느낌이 강하다.”라고 하였다. C 씨는 “중국이 북한 땅을 가져가는 것은 싫다. 북한과 독립적으로 있고 싶을 뿐, 통일을 원하지 않는다고 당장 중국과 접경하고 싶지도 않다.”라고 밝혔다. 그는 “남 주기는 아깝고 내가 갖기는 싫은 느낌이다. 역사 문제에서도 동북 공정이 더 심해질 것 같다.”라고 하였다.

- 『머니투데이』, 2024. 10. 3.

+ (다) 4657조 원 vs 1경 4451조 원 …… 통일의 경제적 효과는 얼마인가

통일의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는 추계 기준에 따라 달라지는 수치에 얽매이기보다 통일로 인한 경제적 비전에 집중하는 것이 최근의 경향이다. 통일 비용의 경우 약 56조 원(미 랜드연구소, 2005년)에서 약 5560조 원(피터 벡 전 국제위기감시기구 동북아 사무소장, 2010년)까지 100배나 차이가 난다. 결국 통일 이후의 경제 성장 전략에 집중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미이다.

전문가들은 통일로 인한 경제적 비전으로 ‘반도 국가의 확장성’을 가장 먼저 꼽는다. 남북을 하나의 경제권으로

뮌은 ‘한반도 신경제 지도’ 구상이 대표적이다. 이 구상에 따르면 동쪽으로는 원산, 함흥, 러시아를 연결하는 에너지·자원 벨트가, 서쪽으로는 수도권, 평양, 신의주, 중국을 연결하는 교통·물류 산업 벨트가 뻗는다. 남측의 부산, 인천이나 북측의 원산, 나진 등은 해상 크루즈와 시베리아 횡단 철도(TSR) 등을 이용하는 관광 허브가 될 수 있다. ……

이밖에 북한이 중국이나 베트남을 모델로 삼아 빠르게 개혁·개방을 거듭하면 남북 상품 교역이 급증하고 동남아 지역의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북핵을 둘러싼 안보 위협이 해소되면 동아시아 자유 무역 협정(FTA) 등 경제 공동체의 탄생까지 기대해 볼 수 있게 된다. - 『서울신문』, 2018. 7. 18.

● 통일 비용: 통일에 수반되는 경제적·경제 외적 비용의 총체

⊕ (라)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 아니다

정치학자인 최장집 고려대 명예 교수는 “우리 외교의 목표가 통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논쟁적인 주장을 거침없이 던지는 학자이다. 그는 한반도의 구조적 현실이 통일이 불가능한 방향으로 이미 굳어졌다고 본다. 이것은 남북 관계가 긴장 국면이나 화해·협력 국면이나와 무관한 ‘장기적 현실’이라는 주장이다. 다음은 최장집 교수와의 대담이다.

Q. 한반도의 미래는 ‘통일 한국’과 ‘한반도 2국가’ 중에 어느 쪽일까?

A. 한반도 2국가 체제가 이미 굳어진 현실이다. 단기적으로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다. 나는 장기적으로도 그게 유일한 대안이라고 본다. 남과 북은 이미 별개 국가이다. 그것은 돌이키기 어렵다.

Q. 한반도 2국가 체제에서 남북은 어떤 수준의 관계를 설정해야 할까?

A. 남과 북이 각자 독립된 국가로 평화 공존을 제도화하는 것이다. 남북이 각자 갖고 있는 정치 체제나 이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사회와 경제의 교류와 통합이 상당히 진행되는 관계이다.

Q. 정상 회담 준비 과정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피해를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한다.”라고 말하였다. 이 말은 반(反)통일 발언이라는 공격도 받았다.

A. 대통령의 현실 인식이 전적으로 옳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의 현실적 조건을 잘 이해하고 평화 체제 정착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 이해가 없었다면, 냉전적이거나 민족적인 담론으로 접근하였다면 여기까지 끌고 오기 어려웠을 것이다. - 『시사IN』, 2018. 5. 28.

⊕ (마) 한국에 통일을 바라는 젊은 세대가 점차 사라지는 이유

“지하철 옆자리에 앉은 사람이 나한테 말을 안 걸었으면 좋겠는데, 계속 말을 거는 것이예요.” A 씨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생각하는 통일을 지하철 불청객에 빗대어 표현하였다. “자신만 편하려고 다리를 넓게 벌리고, 휴대 전화 소리를 크게 틀어 놓는 사람이요. 그래서 대화를 전혀 하고 싶지 않은데 자꾸 말을 거는 상황인 셈이죠. 사회·경제 문제 등 청년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문제도 있고요. 가장 잘못된 건 기성세대가 북한 문제를 정치적으로 양극화된 문제로 각인시켰다는 것이죠.” ……



여러 설문 조사에서 10~30대의 통일 인식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들은 ‘통일이 불필요하다.’라고 생각한 이유로 ‘통일의 경제적 부담’과 ‘통일 이후 발생할 사회적 문제’를 들었다. 남한과 북한의 경제적 격차가 크다 보니 통일 후 남한 사람들의 경제적 부담이 커질 것이라는 우려가 반영된 결과였다.

젊은 세대는 갈수록 북한과의 연결 고리가 희미해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하루가 멀다 하고 미사일 발사, 오물 풍선 등의 속보를 쏟아 내는 미디어를 통해 북한을 접한다. …… 북한에 대한 세대의 인식과 경험이 달라지고 있는 것에 비해 통일 담론은 제자리라는 지적도 나온다. 젊은 세대가 공감하기에는 너무 추상적이고 민족주의적이 라는 것이다. - 『BBC 코리아』, 2024. 8. 14.

STEP 2

쟁점 분석하기

1. (가)~(다)를 읽고 통일이 필요한 까닭을 정리해 보자.

구분	통일이 필요한 까닭
(가)	
(나)	
(다)	

2. (라)~(마)를 읽고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까닭을 정리해 보자.

구분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까닭
(라)	
(마)	

3. 다음 글을 읽고 분단 비용, 통일 비용, 통일 편익의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자.

남북이 하나의 경제 공동체가 된다면 다양한 경제적 이점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우선 남한과 북한의 서로 다른 경쟁력과 산업 구조는 상호 보완적 협력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한다. 분단 상황에서 지불하고 있는 여러 가지 분단 비용은 통일이 완성되기 전에도 남북의 교류·협력 과정이 시작되면 크게 감소할 수 있다. …… 분단 비용은 남북이 분단되어 있는 동안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기회비용으로 체제 경쟁을 위한 외교비, 우리 사회 내부의 이념 갈등, 북한의 도발에 따른 국민의 피해 등을 모두 포함한다. 이러한 분단 비용은 통일에 이르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점점 커질 수밖에 없는 반면, 통일 비용은 통일 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발생하는 비용이다. 통일이 되면 통일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이를 통일 편익이라고 한다. 통일 편익에는 통일로 인한 분단 비용 해소, 시장의 확대, 산업 및 생산 요소의 보완성 증대 등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국제 사회에서의 위상 제고, 전쟁 위험 감소 등 비경제적 이익도 모두 포함된다.

- 통일교육원, 『2024 통일 문제 이해』

STEP 3

논술하기

4. 다음 **작성 요건** 을 참고하여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할까?'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해 보자.

작성 요건

- (가)~(마)의 내용 중 일부를 인용 또는 언급할 것
- 분단 비용, 통일 비용, 통일 편익의 세 가지 개념을 사용할 것

Blank writing area with horizontal dashed lines for student response.

STEP 4

평가하기 (5점 만점)

평가 항목	자기 평가	동료 평가
통일이 필요한 까닭을 (가)~(다)에서 각각 도출하여 서술하였는가?		
통일이 필요하지 않은 까닭을 (라)~(마)에서 각각 도출하여 서술하였는가?		
통일의 필요성을 분단 비용, 통일 비용, 통일 편익의 측면에서 서술하였는가?		
〈논술하기〉에서 작성 요건 을 모두 준수하였는가?		
〈논술하기〉에서 자신의 주장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근거가 유기적으로 연결되었는가?		

매우 그렇다 5점 / 그렇다 4점 / 보통이다 3점 / 그렇지 않다 2점 / 전혀 그렇지 않다 1점

활동 목표

-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의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할 수 있다.
- 국제 정치의 갈등 사례를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관점에서 각각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STEP 1 자료 읽기

➊ (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2년 반 …… 사상자 100만 명

2022년 2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양국에서 발생한 사망자 및 부상자 등이 약 100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100만 명이 숨지거나 다쳤다」라는 제목의 독점 기사를 보도하였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우크라이나가 올해 초 비밀 추산한 수치를 인용해 우크라이나 군 사망자는 8만 명, 부상자는 40만 명에 이른다고 전하였다. 또 서방 정보기관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군 사망자는 최대 20만 명, 부상자는 40만 명에 육박한다고 전하였다.

가장 최근의 인구 조사인 2001년 기준 우크라이나 전체 인구는 4800만 명으로 집계되었다. 우크라이나 인구학 자들과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번 전쟁 발발 직전인 2022년 초, 우크라이나 인구는 4000만 명으로 감소하였다.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는 6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우크라이나를 탈출하였고, 러시아가 영토를 추가로 점령하면서 인구수가 더욱 빠르게 줄어들었다. 우크라이나 정부 추산에 따르면 러시아 점령지를 제외한 영토의 인구는 2500만~2700만 명 정도이다. 전쟁이 장기화하면서 우크라이나 내 사망자가 증가한 것은 물론 출산율도 최저 수준을 기록하였다. 우크라이나 정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에만 25만 명이 사망한 반면 출생아 수는 작년 같은 기간보다 9% 감소한 8만 7000여 명에 그쳤다. 침공이 시작되기 전인 2021년에는 13만 명 이상이 태어난 것으로 집계되었다.

- 『조선일보』, 2024. 9. 18.

➋ (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본질적 원인은?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위기와 전쟁의 본질적 원인은 우크라이나의 나토(NATO, 북대서양조약기구) 편입 가능성에 대한 러시아의 근본적인 안보 불안감이다. 러시아가 주축이었던 옛 소련(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1991년 해체되었다. 소속 공화국들은 독립하였고, 동유럽 국가들은 옛 소련의 영향권에서 벗어났다. 이 나라 중 상당수는 나토에 가입하였다. 푸틴에게 우크라이나는 나토의 동진(東進)을 막을 수 있는 마지막 보루였으므로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을 저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써 왔다. 그리고 미국에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금지를 국제법적 구속력이 있는 문서로 보장해 줄 것을 요구한 바 있다. 하지만 ‘나토에 가입하고 말고는 해당국의 자유’라는 미국의 공식 입장 때문에 번번이 좌절감을 겪었다.

서방 국가 일각에서는 사태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미국과 유럽 연합(EU)이 푸틴의 안보 불안감을 해소해 줄 필요가 있다는 주장도 나왔다. 실제로 1990년 독일 통일에 앞서 미국과 서유럽은 소련에 ‘나토의 동진 금지’를 약속한 바 있다. 1997년에도 나토는 「나토-러시아 관계 정립 조례」를 통해 러시아에 ‘동진하지 않겠다.’라고 했으나 이런 약속들은 대부분 지켜지지 않았다.

푸틴은 최근 미국에 제시한 문서에서 우크라이나의 항구적인 나토 가입 금지, 나토의 추가 확장 중단, 러시아 국경 지역에 대한 공격 무기 시스템 배치 중단 및 유럽 내 병력 배치를 나토가 동진하기 전인 1997년 상태로 복귀시킬 것을 요구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조건 가운데 미국이 쉽게 받아들일 만한 것은 없다. 현재의 유럽 안보 지형을 30년 전으로 되돌리라는 요구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 『시사IN』, 2022. 3. 9.

⊕ (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 사회의 국제법적 대응

유엔 총회(UNGA)와 유엔 인권 이사회(UNHRC)에서 러시아를 규탄하고 있는 가운데 우크라이나 정부는 러시아와 러시아 지도자들에 대한 국제법적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러시아의 책임은 국제사법재판소(ICJ)를 통해 추궁할 수 있고, 러시아 지도자의 책임은 국제형사재판소(ICC)를 통해 추궁할 수 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이미 러시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였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러시아는 침공을 정당화하기 위해 제노사이드 개념을 조작하였다.”라며 러시아 정부에 대한 책임을 추궁하고, 러시아의 군사 작전을 즉각 중단하도록 명령하는 잠정 조치를 취할 것을 재판소에 요청하였다. ……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침공은 급박하고 회복 불가능한 위험한 상황으로서 재판소의 잠정 조치를 통해 러시아의 무력 공격을 중단할 것을 촉구하였다.

- 남승현,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국제 사회의 국제법적 대응』

⊕ (라) 현실주의의 입장

모든 정치가 그러하듯 국제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국제 정치의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항상 일차적 목표이다. 정치가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는 자유, 안전 보장, 번영 혹은 권력 그 자체 등이 있다. 그들은 종교적·철학적·경제적 또는 사회적 이상으로 각색하여 자신의 목표를 정의할 수 있다. …… 국제 정치적으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 할 때는 언제나 권력을 얻는 것으로 수단을 삼는다. 십자군 전사들은 이교도의 지배로부터 성지를 해방하고자 하였으며, 윌슨 대통령은 민주주의가 위협당하지 않는 세계를 건설하고자 하였고, 나치 독일은 동유럽을 독일의 식민지로 만들려다가 유럽 지배를 꿈꾸게 되었으며 급기야 세계 제패를 원하게 되었다. 그들 모두가 목표 달성의 수단으로 권력을 택했기에 그들은 국제 정치 무대의 행위자들이었다.

최대한의 권력을 확보하려는 욕망은 모든 국가에 나타나는 보편적인 현상이므로 각국은 자국이 저지르는 계산상의 오차나 타국의 국력 신장이 자국을 더욱 열세에 몰아넣지 않을까 불안해 할 수밖에 없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열세를 극복하고자 한다. …… 세력 균형 체제에서 각국은 경쟁국이 기회만 닿으면 자국의 권력 지위를 탈취하지 않을까 끊임없이 불안한 가운데 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핵심 이익은 그와 같은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다른 국가가 자국에 취하지 말았으면 하는 행동을 다른 국가에 취해 자기 이익을 지키는 것이다.



① 모겐소(Morgenthau, H. J., 1904~1980)

- 모겐소, 『국가 간의 정치』

⊕ (마) 이상주의의 입장

칸트의 영원한 평화에 대한 철학적 구상은 국가들 사이의 자연 상태를 넘어 영원한 평화가 ‘정초’되어야만 한다는 분명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그의 평화 기획은 국가들 사이의 영원한 평화를 구축하기 위한 몇 가지 동력과 경로들을 복합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국가들 사이의 주권에 대한 상호 존중과 군비 축소를 통한 안보 위협 해소는 어떤 경우에도 필요한 평화 구축을 위한 일반 조건이다. …… 둘째, 국가들 사이의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평화를 갈망하는 시민들의 의지가 민주적으로 대의될 수 있어야만 한다. …… 셋째, 대립했던 국가들 사이에 안정적인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화 협정이 되었든 평화 연맹이 되었든 공동의 제도를 통해서 평화의 가능성을 법과 제도를 통해 공고히 해야만 한다. …… 넷째, 칸트 자신도 그렇게 서술했듯이 상업의 정신은 특정한 정치 체제와 무관하게 확장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공동의 이익과 교류는 국가들 사이의 평화 구축을 위한 중요한 자산이 될 수 있다. …… 다섯째, 국가들 사이의 정체성은 역사 속에서 형성되어 온 상호 관계를 통해 규정된다. …… 모든 인간은 서로 다른 국가를 방문하여 교제할 권리를 가지며 그러한 이방인을 적대시해서는 안 된다는 칸트의 논의는 적대적 정체성 해소가 국가들 사이의 평화를 위한 중요한 동력임을 말해 준다.



② 칸트(Kant, I., 1724~1804)

- 김원식, 『한반도 복합 평화론』

STEP 2

쟁점 분석하기

1. 다음은 국제 정치를 바라보는 서로 다른 두 관점을 정리한 표이다. **보기** 를 참고하여 빈칸을 채워 보자.

보기

• 세력 균형 • 이기심 • 불완전한 제도 • 국제법

구분	현실주의	이상주의
행위자	• 개별 국가	• 개별 국가 • 국제기구 • 비정부 기구 등
갈등의 원인	• 개별 국가의 ①() • 국가 간의 생존 경쟁	• 상호 간 오해나 불신 • ③()
평화 실현 방법	• ②()	• 국제 규범을 통한 제도 개선 • 국제기구를 통한 협력 • ④()의 규제

2. (가)의 사례를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관점에서 해석해 보자.

관점	해석 내용
현실주의	
이상주의	

3. 다음을 읽고 국제 전쟁을 해결하는 데 있어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중 어떤 관점이 더 타당하다고 생각하는지 적어 보자.

미국이 우크라이나를 도와주는 진짜 이유는? (단위: %)

서구 지배 유지 및 미국 안보 보호 우크라이나 영토 및 민주주의 수호

29	미국인	52
65	중국인	23
65	튀르키예인	23
42	인도인	48
60	러시아인	15

- 유럽외교협회, 2023

④ 2023년 2월 22일 유럽외교협회 설문 조사

러시아 제재에 동참하고 있는 나라들은 세계 인구의 16%를 대표할 뿐, 세계 인구의 3분의 2를 점하는 나라들은 러시아에 대한 비난을 거절하거나 중립을 표명하고 있다. 실제로 제재 참여국은 북미와 유럽, 즉 나토 회원국으로 대부분 제한되며 아시아 국가 중에는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뿐이다. 그 외 동남아시아나 중앙아시아의 어느 나라도, 중동, 남아메리카, 아프리카의 어느 나라도 제재에 동참하지 않고 있다.

- 『프레시안』, 2023. 10. 20.

선생님을 위한 부록

1

인간의 본성은 선할까, 악할까?

1. | 예시 답안 |

- (1) 인간의 본성과 동물의 본성은 비슷인가 혹은 다른가?
 - 성선설: 인간의 본성은 동물의 본성과 다르다.
 - 성악설: 인간의 본성은 동물의 본성과 다르지 않다.
- (2) 인간이 악한 행동을 저지르는 까닭은 무엇인가?
 - 성선설: 나쁜 환경 때문이다.
 - 성악설: 본성이 악하기 때문이다.
- (3) 인간이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까닭은 무엇인가?
 - 성선설: 타고난 선한 마음 덕분이다.
 - 성악설: 인위적인 노력 덕분이다.

2. | 예시 답안 |

- **입장: 성선설**
 - (1) **소년범 증가 현상의 원인:** 성선설에 따르면 소년범 증가 현상의 원인은 불우한 가정 환경이나 교우 관계 때문이다.
 - (2) **해결 방안:** 불우한 가정 환경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복지 정책을 마련하고 청소년이 건전하게 문화생활을 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등의 노력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 **입장: 성악설**
 - (1) **소년범 증가 현상의 원인:** 성악설에 따르면 소년범 증가 현상의 원인은 인간이 본성상 이기적이기 때문이다.
 - (2) **해결 방안:** 가정과 학교에서 교육을 통해 인간의 악한 본성을 교화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3. | 예시 답안 |

- **입장: 나는 인간의 본성이 선하다고 생각한다.**
 - 근거: 인간은 위기에 처한 다른 사람을 보면 본능적으로 도와주기 위해 노력한다. 이를 통해 인간의 본성은 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악한 행위를 저지르는 까닭은 그를 둘러싼 환경 때문이므로 사람이 처한 환경과 상황을 바꿔 준다면 자신의 본성에 따라 선하게 행위할 수 있다.
- **입장: 나는 인간의 본성이 악하다고 생각한다.**
 - 근거: 교육을 받기 전의 어린아이는 자신의 욕구만을 우선시 하고 양보할 줄 모른다. 이처럼 인간은 선천적으로 이기적이고 악하기 때문에 적절한 교육과 훈육이 없다면 나쁜 행동을 일삼게 된다.

| 채점 기준 |

상	인간의 본성에 관한 한 가지 인간관을 선택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두 가지 이상 제시한 경우
중	인간의 본성에 관한 한 가지 인간관을 선택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한 가지만 제시한 경우
하	인간의 본성에 관한 한 가지 인간관을 선택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

1. 인간의 본성에 관한 상반되는 두 가지 입장을 비교하여 정리하고, 그중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하여 사회 현안에 적용함. 인간의

본성에 관한 자신의 생각을 구체적인 사례와 논리적인 근거를 들어 정리함.

2. 구체적인 문제 상황을 통해 인간의 본성을 바라보는 두 가지 입장을 대조하여 정리하고, 그중 한 가지 입장을 선택하여 문제 상황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함. 자신이 지지하는 인간관을 서술할 때 구체적인 통계와 데이터를 사용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보한 점이 인상적임.
3. 소년범 증가 현상을 사례로 들어 인간의 본성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이를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근거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높임. 문제 해결 방안을 제시할 때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일관된 관점을 유지하며 체계적으로 논증을 전개한 점이 돋보임.

2

새치기는 왜 나쁜 행위일까?

1. • **칸트의 의무론:** 동기, 보편화 가능성, 모순
 - **벤담의 공리주의:** 결과, 행복(쾌락), 행복(쾌락), 고통

2. | 예시 답안 |

- **칸트의 의무론**

칸트의 의무론의 관점에서 새치기가 잘못된 까닭은 새치기의 준칙이 보편화 가능성 검사를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모두가 새치기하려고 마음먹으면 '줄'이라는 개념 자체가 사라질 것이다. 새치기는 줄이 있어야 가능한데, 새치기하려는 준칙을 보편화하면 줄이 사라지는 모순이 발생한다. 새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방법은 사람들 스스로 새치기하지 않으려는 선의지를 기르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의 방법은 사회 구성원 모두가 새치기하지 않는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어린 시절부터 도덕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다.
- **벤담의 공리주의**

벤담의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새치기가 잘못된 까닭은 소수의 쾌락을 위해 다수에게 고통을 안겨 주기 때문이다. 새치기하는 사람은 새치기를 통해 이익을 얻지만, 새치기당한 사람은 새치기 때문에 손해를 본다. 한 명만 새치기하더라도, 줄에 서 있는 다른 모든 사람이 손해를 보기 때문에 새치기는 옳지 못하다. 새치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방법은 새치기를 했을 때 스스로 죄책감과 같은 고통을 느끼게 만드는 것이다. 사회적 차원의 방법은 새치기를 한 사람에게 새치기로 얻을 수 있는 쾌락보다 더 큰 고통을 부과하는 것이다.

| 채점 기준 |

상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서 새치기가 비도덕적인 까닭을 올바르게 서술하고, 새치기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각각 논한 경우
중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서 새치기가 비도덕적인 까닭을 올바르게 서술하였지만, 새치기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각각 논하지 못한 경우

하

자신이 선택한 입장에서 새치기가 비도덕적인 까닭을 서술하지 못하고, 새치기 문제의 해결 방안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각각 논하지 못한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

1. 칸트의 의무론과 벤담의 공리주의를 비교하면서 양자의 핵심적인 특징을 정리함. 한 가지 관점을 선택하여 일상에서 마주할 수 있는 사회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고,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에서 해결 방안을 구상하여 글로 작성함. 특히 사회 문제의 원인을 밝히는 논증 과정에서 사상가의 핵심적인 논지를 파악하고 적용한 점이 탁월함.
2. 칸트의 의무론과 벤담의 공리주의의 핵심 주장 및 근거를 분석하여 정리함. 한 가지 관점을 선택하여 새치기 행위가 비도덕적인 까닭과 새치기 행위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개인적 차원과 사회적 차원으로 구분하여 서술함.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자세하게 드러나도록 꼼꼼하고 명료하게 글을 전개한 점이 돋보임.
3. 칸트의 의무론과 벤담의 공리주의를 비교하여 주요 개념과 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함. 자신이 선택한 윤리적 입장을 바탕으로 새치기 행위의 도덕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그 발생 원인을 합리적으로 설명함. 개인적 및 사회적 차원에서의 해결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며, 논리적 일관성과 체계적인 사고력을 갖춘 글을 완성함.

3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할까?

1. ① 소유권 논거: 산모는 자기 몸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데, 태아 또한 산모의 몸의 일부이다.
 ② 자율권 논거: 산모는 자율적으로 자기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산모는 자유롭게 인공임신중절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③ 정당방위 논거: 산모는 자기 신체를 지킬 정당한 권한을 갖기 때문에, 일정한 조건이 성립하면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다.
 ④ 존엄성 논거: 모든 인간의 생명은 존엄하며 태아의 생명도 예외가 아니다.
 ⑤ 무고한 인간의 신성불가침 논거: 잘못이 없는 인간을 해치는 일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다. 태아를 죽이는 인공임신중절도 마찬가지이다.
 ⑥ 잠재성 논거: 태아는 인간이 될 수 있는 잠재적인 존재이다. 따라서 태아를 함부로 대해서는 안 된다.

2. ① 자연적, ② 인위적, ③ 반대, ④ 찬성

3. | 예시 답안 |

- 나는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인공임신중절 허용의 타당성은 개인적 차원과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설명할 수 있다. 개인적 차원에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하는 까닭은 (가)에 나타난 것처럼 많은 여성이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직장 및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경제적으로도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또 자녀 계획에 어긋나는 임신을 하거나 파트너와의 관계가 불안정한 경우, 산모의 건강이 좋지 않은 경우 등 다양한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해야만 하는 사례가 있다. 이러한 상황에 처한 산모를 도와주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 나아가 국가적·사회적 차원에서 살펴봐도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다)에서 말한 것처럼 인공임신중절은 단순히 여성의 선택 문제가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의 책임 문제를 오직 여성에게만 떠넘기는 불합리한 사회적 풍조를 극복하고 여성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 한편 (라)에서는 인공임신중절에 관하여 인간의 생명을 인위적 측면과 자연적 측면으로 구분하여 바라보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을 반대하는 입장은 생명의 자연적 측면을 강조하여 태아의 생명이 산모에 의해 희생된다고 본다. 그러나 태아의 생명 못지않게 산모의 삶(생명)도 중요하다. 원치 않은 임신으로 인해 학업이나 직장 생활을 중단하게 될 경우, 여성에게 투입된 인위적인 창조력이 좌절되기 때문이다. (나)에서는 태아의 생명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동일한 생명 존중의 관점에서 본다면 (라)에서처럼 태아의 생명뿐만 아니라 산모의 생명도 소중하다. 따라서 자연적 및 인위적 창조력이 투입된 산모의 생명을 존중하기 위해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

- 나는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에서 말한 것처럼 인공임신중절은 태아의 생명을 함부로 훼손하는 행위이다. 우리는 수태부터 자연사에 이르기까지 자연적으로 흘러가는 인간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그런데 (가)에서 드러난 것처럼 인공임신중절은 대부분 직장 및 사회생활에 문제가 있거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이루어진다. 따라서 어려움에 처한 산모가 인공임신중절이라는 선택을 하지 않고 아이를 잘 양육할 수 있도록 사회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에 관해 (다)에서는 인공임신중절을 여성의 선택으로만 보는 관점을 비판하고 있다. 인공임신중절을 조장하는 것은 여성이 아니며 생명의 책임은 국가와 사회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회는 국민을 대상으로 한 성교육을 강화하는 동시에 아이를 양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라)에서는 생명의 인위적 측면과 자연적 측면을 구분하고 있다. 생명의 탄생은 신비한 일이며 자연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생명의 자연적 창조력이 인위적 창조력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 채점 기준 |

상	자신의 주장을 옹호할 때 (가)~(라)의 내용에 입각하여 근거를 제시한 경우
중	자신의 주장을 옹호할 때 (가)~(라) 중 일부에 입각하여 근거를 제시한 경우

하

자신의 주장을 옹호할 때 (가)~(라)에 입각하지 않고 다른 근거를 제시한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

1. 인공임신중절 허용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각각 세 가지씩 정리한 후, 신문 기사와 학술 도서 등 다양한 자료를 활용하여 해당 쟁점을 깊이 있게 탐구함. 탐구 내용을 토대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하는지 혹은 허용하지 않아야 하는지에 대한 글을 작성함. 구체적인 통계와 사례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점이 인상적임.
2. 인공임신중절 허용 여부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를 정리한 후, 신문 기사와 학술 도서 등을 활용하여 인공임신중절을 새로운 측면에서 탐구함. 탐구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해야 한다는 논지의 논설문을 작성함. 자신이 취한 입장에 반대되는 근거를 논리적으로 비판한 점, 비슷한 사례를 활용하여 자기 주장을 뒷받침한 점 등 탁월한 글쓰기 솜씨를 선보임.
3. 인공임신중절에 관한 찬반 논거를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당 이슈를 새로운 시각에서 탐구함. 학술적인 자료와 실제 사례를 참고하여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자기 주장의 반대 입장을 효과적으로 비판하는 논리적 접근을 보여 줌. 자신의 생각을 단계적으로 쌓아 나가는 과정을 통해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드러나도록 논설문을 작성한 점이 돋보임.

4

바람직한 성관계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할까?

1. (1) 보수주의: 결혼한 부부 외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도덕적이지 않다. 따라서 결혼하지 않은 연인 간의 성관계, 즉 혼전 성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2) 자유주의: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라도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서로에게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면 정당하다. 따라서 혼전 성관계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한다면 허용될 수 있다.
(3) 중도주의: 결혼한 부부 외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라도, 사랑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라면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그러나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사람들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즉, 혼전 성관계는 연인 간에 이루어질 때만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2. | 예시 답안 |

• **관점:** 보수주의

- (1) 설명: 결혼하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허용될 수 없다.
- (2) 나의 관점에 대한 반론: 연인은 성관계를 통해 서로의 사랑을

을 확인하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기 때문에 결혼하지 않은 연인 간의 성관계도 허용해야 한다.

- (3) 반론에 대한 나의 재반론: 연인 간의 성관계는 서로의 사랑을 확인하는 역할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멀어지게 하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안정적인 부부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만 허용해야 한다.

• **관점:** 자유주의

- (1) 설명: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라도,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상호 간에 해악을 끼치지 않는다면 허용될 수 있다.
- (2) 나의 관점에 대한 반론: 사랑이 전제되지 않은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서로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는 것이다. 즉, 쾌락만을 추구하는 성관계에서는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없다.
- (3) 반론에 대한 나의 재반론: 쾌락을 추구하는 성관계에서도 인간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다. 서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성관계에서 자유롭게 쾌락을 추구하는 일은 마치 즐거운 영화를 함께 보는 일과 다르지 않다.

• **관점:** 중도주의

- (1) 설명: 성관계는 사랑하는 사람 사이에서 이루어질 때 허용될 수 있다.
- (2) 나의 관점에 대한 반론: 결혼하지 않은 연인 사이에서 이루어지는 성관계는 바람직하지 않다. 결혼하지 않은 관계는 안정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행위에 무책임하게 임할 수 있기 때문이다.
- (3) 반론에 대한 나의 재반론: 비록 성관계가 의도치 않은 결과를 낳더라도, 사랑하는 연인 사이에서는 자신의 행위에 책임을 다할 것이다.

| 채점 기준 |

상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경청하고 그에 대한 재반론을 논리적으로 제시한 경우
중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경청하였지만, 그에 대한 재반론을 논리적으로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하	자신의 주장에 대한 반론을 경청하지 못하고 그에 대한 재반론을 제시하지 못한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

1.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관점에서 혼전 성관계의 확산이라는 사회 현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함. 보수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쾌락주의적) 관점, 중도주의적 관점 중 하나를 선택하여 해당 관점을 옹호하는 글을 작성함.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 제기될 수 있는 반론 및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일상적인 사례를 활용함으로써 논증을 강화한 점이 인상적임.
2.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관점의 특징을 정리하고, 각 관점에서 혼전 성관계의 확산이 도덕적인지 여부를 평가함.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을 선택하고 해당 관점에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고찰한 후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펼침으로써 설득력 높

은 논증을 완성함. 특히 구체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근거를 제시한 점이 인상적임.

3. 사랑과 성의 관계에 대한 세 가지 주요 관점을 분석하고, 혼전 성관계의 확산이라는 사회적 현상을 비판적으로 평가함. 보수주의적 관점, 자유주의적(쾌락주의적) 관점, 중도주의적 관점 중 어떤 입장을 지지하는지 토론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입장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는 근거를 제시함. 특히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기 위해 일상적인 사례를 활용한 점, 자신의 주장에 제기될 수 있는 반론과 그에 대한 재반론을 언급한 점 등이 돋보임.

5. 육식은 정당화될 수 있을까?

1. (1) 인간은 도덕적 고려의 대상인가? 그 까닭은 무엇인가?
 - (가): 그렇다.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이자 자연의 해석자이기 때문이다.
 - (나): 그렇다. 인간은 기쁨과 고통을 느끼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다): 그렇다. 인간은 삶의 주체이기 때문이다(본래적 가치의 소유자이기 때문이다).
- (2) 동물의 이익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하는가? 그 까닭은 무엇인가?
 - (가): 그렇지 않다.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불과하기 때문이다.
 - (나): 그렇다. 동물도 인간처럼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 (다): 그렇다. 일부 동물은 삶의 주체로서 본래적 가치를 소유하기 때문이다.
- (3) 인간의 더 큰 이익을 위해 동물을 한낱 수단으로 대우하는 일은 허용되는가? 그 까닭은 무엇인가?
 - (가): 그렇다. 동물은 이성을 갖지 못하므로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불과하기 때문이다.
 - (나): 그렇다.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더 큰 이익을 위해 작은 고통을 감내하는 일은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다): 그렇지 않다. 삶의 주체에 해당하는 동물은 인간의 이익을 위해 한낱 수단으로 희생되어서는 안 될 본래적 가치를 소유하기 때문이다.

2. | 예시 답안 |

- (1) (가): 육식을 위해 좁은 공간에서 닭을 키우고, 닭이 밤에 잠을 자지 못하도록 불을 켜두고, 생존 경쟁에 뒤처진 닭을 죽이는 행위는 모두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닭은 이성을 갖지 못한 동물이자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불과하기 때문이다. 인간이 치킨, 삼계탕 등을 통해 육식의 즐거움을 누리고, 양계업자가 닭을 사육하고 팔아서 이익을 얻는다면 닭을 어떻게 키우든지 비도덕적인 것이 아니다.
- (2) (나): 인간이 닭을 먹는 과정에서 얻는 쾌락과 이익이 닭이 사육되는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나 손해보다 크다면 (라)에

서 나타난 것처럼 닭을 기르고 잡아먹는 행위는 도덕적으로 허용 가능하다.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줄이는 행위는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 (3) (다): 닭은 인간과 마찬가지로 본래적 가치를 소유한 삶의 주체이다. 삶의 주체는 더 큰 이익을 위한 한낱 수단으로 대우받아서는 안 될 권리를 지닌다. 따라서 인간의 이익을 위해 닭을 한낱 수단으로 대하는 (라)의 현상은 비도덕적이다. 설령 닭이 사육되는 과정이 닭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식, 즉 '인도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더라도 마찬가지이다.

3. | 예시 답안 |

- (마) → (가): (가)는 동물의 이익을 전혀 생각하지 않고 인간의 이익만을 고려한다는 점에서 잘못되었다. 우리는 동물에게 공리주의를 적용하여 가능한 한 동물에게 고통보다는 쾌락을 제공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 (마) → (나): (나)는 인간과 동물의 이익을 비교하고 계산하여 인간에게 손해가 되더라도 동물에게 더 큰 이익이 되는 행위를 허용한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칸트주의, 동물에게는 공리주의를 적용한다면 동물의 더 큰 이익을 위해 인간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
- (마) → (다): (다)는 본래적 가치를 소유한 인간과 동물을 한낱 수단으로 대우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을 동등하게 칸트주의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는 칸트주의, 동물에게는 공리주의를 적용함으로써 인간을 수단으로만 대해서는 안 되지만, 동물을 수단으로만 대하는 일은 허용되어야 한다.

4. | 예시 답안 |

- 육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
나는 육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육식의 정당화에 대한 논의에서 중요한 것은 이성적 능력인데, (가)에서 주장한 것처럼 동물은 인간과 달리 이성을 갖지 못한 존재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즉 (마)에서 설명하듯 이성적 능력을 지닌 인간을 한낱 수단으로 대해서는 안 되지만 이러한 능력이 없는 동물은 한낱 수단으로 대할 수 있고, 인간의 먹는 즐거움을 위해 동물을 수단으로 활용하는 일은 허용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나)에서는 동물이 고통을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물은 여전히 이성적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므로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다)에서는 일부 동물이 삶의 주체로서 인간과 같이 본래적 가치를 소유한다고 본다. 그러나 동물이 삶의 주체라고 할지라도 이성과 같이 고차원적인 능력을 가진 것은 아니다. 따라서 이성을 소유한 인간을 위해 이성을 갖지 못한 동물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일은 정당하고, 이에 따라 육식도 정당화될 수 있다.
- 육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
나는 육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생각한다. 인간이 육식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동물이 인간의 육식으로 인해 겪는 고통이 크기 때문이다. (나)에서 주장한 것처럼 인간과 동물의 쾌락과 고통을 계산하고 비교한다면, 동물이 삶과 죽음의 과정에서 겪는 고통이 인간의 먹는 즐거움보다 크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측면에서 (가)는 인간의 이익을 위해 동물의 고통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반면 (다)의 경우 육식을 반대하는 입장이지만 동물의 고통이 아니라 삶의 주체라는 특징에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삶의 주체라는 모호한 개념보다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분명한 기준을 사용하는 것이 명확하고 논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쾌고 감수 능력이라는 기준으로 육식의 정당성을 평가할 때, 동물에게 극한의 고통을 안기는 육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

| 채점 기준 |

상	(가)~(마)를 일부 참조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주장과 근거가 일관적인 경우
중	(가)~(마)를 일부 참조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였지만, 주장과 근거가 일관적이지 않은 경우
하	(가)~(마) 중 어느 글도 참조하지 않고 근거를 제시한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

1. 베이컨, 싱어, 레건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육식 문화에 대해 도덕적 관점에서 평가를 내림. 공리주의와 칸트주의를 조화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베이컨의 주장이 지닌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함. 육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주장을 서술하는 과정에서 베이컨과 레건의 입장을 논리적으로 비판하고, 싱어의 입장이 타당한 까닭을 논함으로써 완성도 높은 논설문을 작성함.
2. 베이컨, 싱어, 레건의 입장 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정리하고 육식 문화를 비판적으로 평가함. 공리주의와 칸트주의를 조화해야 한다는 글을 읽은 후 해당 글의 관점에서 레건의 입장을 비판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육식은 정당화될 수 있다는 논지의 논설문을 작성함. 베이컨, 싱어, 레건의 입장에 대한 비판이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사고를 전개하는 과정을 상세하게 담아낸 점이 돋보임.
3. 베이컨, 싱어, 레건의 철학적 관점을 비교하고, 육식 문화에 대한 도덕적 평가를 논리적으로 전개하는 활동을 수행함. 각 사상의 관점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하여 표를 작성하고, 각 입장에 대한 논리적 근거를 제시함. 공리주의와 칸트주의를 조화시켜 베이컨의 입장이 갖는 약점을 지적하고, 육식은 정당화될 수 없다는 논지를 전개함. 싱어의 입장이 타당한 까닭을 명확히 설명하고 레건의 입장을 비판함으로써 자신의 견해를 강화한 점이 인상적임.

6.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일까?

1. (다): 수단, 활용, 공허한 힘
(라): 탈은폐, 도발적 요청, 채굴

2. (다): 예 / 예 / 예
(라): 아니오 / 아니오 / 예

3. | 예시 답안 |

- (다)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지만 인간이 그것을 잘못 활용할 때 부정적인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유전자 편집 기술을 선택한 방향으로 활용한다면 질병을 치료하거나 기아 문제를 해결하는데 유용할 것이다. 그러나 일부 과학자가 유전자 편집 기술을 잘못된 방향으로 활용하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 (라)가 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인간을 종속시키기 때문이다. 스마트폰이 발명된 후 사람들은 더 이상 전화번호를 외우지 않게 되었고, 컴퓨터가 발명된 후 손으로 글씨를 쓰는 일이 현저히 줄어들었다. 이처럼 과학기술은 인간의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기에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4. | 예시 답안 |

- 나는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라고 생각한다.
(다)에서 알 수 있듯이 과학기술은 그 자체로는 하나의 수단에 불과하며 본질적으로 선하거나 악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과학기술 활용의 결과는 인간이 가치 중립적인 과학기술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달려 있다. 예컨대 (가)와 (나)에서 소개된 유전자 편집 기술은 그 자체로 가치 중립적이다. 따라서 인간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한다면 질병을 치료할 수 있지만, 나쁘게 활용한다면 인간을 복제하거나 '디자인'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라)는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고 본다. 과학기술이 존재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인간을 종속시키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인간이 과학기술에 종속되는 까닭은 과학기술의 탓이 아니라 인간이 과학기술을 잘못된 방식으로 사용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과학기술을 올바르게 활용하여 과학기술에 대한 종속에서 벗어나야 한다.
- 나는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라)에서는 과학기술이 존재의 본질을 탈은폐하고 인간을 과학기술에 종속시킨다고 본다. 풍차가 바람을 닦달하고 채탄장이 광산을 닦달하여 에너지를 추출하는 것처럼 과학기술이 자연과 인간을 닦달하여 에너지를 내놓으라고 무리하게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깨달을 필요가 있다. 반면 (다)에서는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본다. 과학기술이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오는 까닭은 인간이 과학기술을 잘못 사용하기 때문이지, 과학기술 그 자체의 문제는 아니라는 주장이다. 그러나 과학기술이 발전할수록 인간은 과학기술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고 결국 과학기술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과학기술에 종속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과학기술의 본질을 성찰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 채점 기준 |

상	(다)와 (라) 모두 인용하거나 언급하며 논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작성한 경우
---	--

중	(다)와 (라) 중 일부만 인용하거나 언급하며 논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작성한 경우
하	(다)와 (라) 중 어떠한 것도 인용하거나 언급하지 않으며 논제에 관한 자신의 입장과 근거를 작성한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

1.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바라보는 상이한 관점을 비교·대조하여 정리함.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둘러싼 대립되는 두 관점을 유전자 편집 기술 문제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근거를 논술함. 과학기술은 가치 중립적이라는 주장을 펼치는 과정에서 아스퍼스의 기술관을 활용하여 하이데거의 기술관을 반박하는 등 논지를 강화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2.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을 바라보는 아스퍼스와 하이데거의 관점을 비교·대조하여 정리함. 두 사상가의 관점에서 유전자 편집 기술 문제를 평가하고, 평가한 결과를 바탕으로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인지에 대해 논술함. 과학기술이 가치 중립적이지 않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한 점, 자신의 입장에 제기될 수 있는 반론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재반론을 펼친 점 등이 돋보임.
3. 아스퍼스와 하이데거 사상의 핵심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두 사상가의 철학적 관점을 비교 및 대조함. 유전자 편집 기술을 예시로 들어 두 철학자의 입장을 평가하고, 자신의 입장을 뒷받침하는 논지를 체계적으로 전개함.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동시에 반대 측의 입장을 반박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논리적 타당성을 높인 점이 인상적임. 논술 과정에서 자신이 지지하는 관점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주장을 강화하기 위한 논리적 전개가 잘 이루어짐.

7. 가짜 뉴스의 확산을 어떻게 막을 수 있을까?

1. | 예시 답안 | 개인의 명예 훼손, 사생활 침해, 사회적 차별과 혐오 범죄의 확산, 연예인의 정신적 피해 등
2. (1) (나): 비판적 사고 능력의 부족, 강한 정치적 신념,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의 보상 기반 학습 시스템
(2) (다): 불완전한 주의 집중 범위, 확증 편향
3. | 예시 답안 |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까닭은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특성에 기인한다. 이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비판적 사고 능력의 부족, 강한 정치적 신념과 확증 편향, 주의 집중 능력의 부족이다. 먼저 비판적 사고 능력의 부족을 원인으로 들 수 있다. 사람은 뉴스를 접할 때 그 진위를 판단하지 않고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는 특성을 지니는데, 이로 인해 가짜 뉴스가 쉽게 확산된다. 또한 강한 정치적

신념과 확증 편향을 지니는 경우 가짜 뉴스를 확산할 수 있다. 확증 편향을 가진 사람들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이나 가치관 또는 취향에 맞는 뉴스만을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뉴스는 가짜로 치부한다. 그 결과 그들이 가진 정치적 신념이 더욱 강화되며 이는 새로운 확증 편향을 낳는다. 이와 같은 과정이 반복되며 온라인 공간에서 가짜 뉴스가 진짜 뉴스처럼 퍼지게 된다. 마지막으로 불완전한 주의 집중 범위를 들 수 있다. 사람은 주의력을 집중하게 되면 주의 집중 범위는 오히려 감소하는데 이로 인해 가짜 뉴스를 진짜 뉴스로 믿게 되는 것이다.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지하는 방법은 세 가지 차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개인적 차원에서 다독과 정독하는 습관을 통해 비판적 사고력을 기르는 것이다. 둘째, 사회적 차원에서 온라인 공간에 가짜 뉴스가 많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알려 사람들의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 셋째, 기술적 측면에서 온라인 서비스 내 확증 편향을 강화하는 알고리즘을 약화시킬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해서 적용해야 한다.

| 채점 기준 |

상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까닭과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개 적은 경우
중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까닭과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한 개만 적은 경우
하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까닭과 가짜 뉴스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적었지만, 내용이 타당하지 않은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

1.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가짜 뉴스의 확산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과학적 연구 결과를 참고해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까닭을 탐구함. 탐구 결과를 토대로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원인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자신의 생각을 논술함.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원인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뿐만 아니라 논리적 타당성을 갖춘.
2. 로힝야족의 사례를 참고하여 가짜 뉴스의 확산이 야기하는 문제점을 정리하고, 다양한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원인을 탐색함. 이를 토대로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함. 가짜 뉴스의 확산 원인과 해결 방안을 여러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서술하고, 구체적인 데이터를 활용하여 자기 입장을 뒷받침한 점이 인상적임.
3. 가짜 뉴스의 확산이 가져오는 문제를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명확히 정리하고, 이를 통해 가짜 뉴스가 미치는 사회적 영향을 깊이 이해하고 분석함. 특히 로힝야족 사례를 통해 가짜 뉴스가 인권 침해를 야기하고 사회적 갈등을 심화할 수 있음을 지적함. 다양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가짜 뉴스가 확산되는 원인을 탐구하고, 그 결과를 활용하여 가짜 뉴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술함. 미디어의 왜곡된 정보가 대중에게 미치는 영향과 심리적 요인을 분석한 점, 가짜 뉴스를 필터링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을 제시한 점, 정부와 사회적 기관의 역할을 강조한 점 등 특정 사안에 대해 다각도로 접근하는 태도가 돋보임.

8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자율성에 유익할까?

1. | 예시 답안 | 스스로 판단해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음(자율성), 스스로 내린 의사 결정에 따라 행동할 수 있음(실행 능력), 방대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해결책을 제시함, 정확성과 생산성을 높임 등
2. | 예시 답안 |
 - (1) 긍정적인 측면: 알고리즘을 활용해 사람의 삶과 행동의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음, 교육 현장에서 학생 개인의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도 가능, 개인화된 학습 경험 제공, 효율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는 등 의사 결정의 질을 향상함.
 - (2) 부정적인 측면: 인간이 자율성을 유지하고 자유를 즐길 수 있는 능력을 박탈함,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 그리고 각 선택에 따른 결과가 어떠한지를 미리 알려줌으로써 인간의 자유로운 선택을 방해함, 인간 대신 인공지능이 결정을 내려 인간의 존엄성을 위협할 수 있음.
3. 능동적인, 몸과 마음
4. | 예시 답안 |
 - 나는 (라)의 주장에 동의한다.
왜냐하면, '스마트 옵티콘'은 단순히 사람을 감시하는 것을 넘어 감시 대상의 몸과 마음을 조종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대 내가 즐겨보는 영상이나 구매했던 제품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곳으로 이끄는 알고리즘을 구성한다면, 나는 자연스럽게 해당 영상과 제품을 소비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나의 활동을 일일이 감시하고 데이터로 이용하는 것은 나의 자유를 제약할 수 있다.
 - 나는 (라)의 주장에 동의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스마트 옵티콘'은 개인의 데이터를 취합하여 개인이 원하는 대로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특정 음식 영상을 즐겨 보는 것을 알고 해당 음식 광고를 띄워 준다면 선택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아낄 수 있다. 이처럼 온라인 공간에서 나의 활동을 데이터로 활용해 나에게 더 좋은 선택지를 제공하는 일은 개인의 자율성에 바람직한 영향력을 행사한다.
5. | 예시 답안 |
 -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의 자율성에 유익하다.
빠르게 발전하는 인공지능 덕분에 오늘날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더 큰 편리함을 누리고 더 많은 선택권을 갖게 되었다. 예를 들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은 기존의 챗봇과 달리 자율적으로 상황을 해석하고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 과거에는 오직 인간만이 처리할 수 있었던 일을 인공지능이 분담해 줌으로써 인간은 중요한 일에 더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쏟을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스마트워치 등의 스마트 기기는 매 순간 인간의 건강 상태를 체크해 주어 질병을 예방하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된다. 인공지능이 적용된 맞춤형 광고 서비스는 인간이 직접 상품을 검색하는 수고를 덜어주고 개인에게 알맞은 상품을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 이처럼 인공지능은 인간의 더 나은 선택을 도와주는 동반자로, 인공지능의 발달은 인간의 자율성에 유익하다고 할 수 있다.

-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의 자율성에 유익하지 않다.
인공지능은 나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지만 인간의 자율성은 도리어 침해당하고 있다. 예를 들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은 인간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상황을 스스로 해석하고 판단하여 문제를 해결한다. 이 과정에서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방향으로 행동을 감행하거나, 의사 결정 과정에서 인간의 역할을 배제할 수 있다. 스마트워치 등의 스마트 기기 역시 실시간으로 인간의 신체 상태를 감시하며 인간의 행동을 제약하거나 유도할 수도 있다. 행위 결과의 좋고 나쁨을 떠나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운신의 폭을 축소시키는 것이다. 인공지능이 적용된 맞춤형 광고 서비스 역시 마찬가지이다. 소비자가 다양한 대안 중에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에게 선택지의 목록을 가공하여 제공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인공지능의 발전은 인간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상	여러 가지 사례를 들어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자율성에 유익한지 여부를 논한 경우
중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자율성에 유익한지 여부를 논한 경우
하	구체적인 사례 없이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자율성에 유익한지 여부를 논한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

1.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특징을 제시하고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율성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을 정리함. 정리한 내용을 바탕으로 '스마트 옵티콘'의 부정적인 측면을 경계한 글을 비판적으로 평가함. 여러 가지 사례를 활용하여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자율성에 유익한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근거를 서술함. 특히 스마트워치, 맞춤형 광고 서비스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인공지능의 사례를 활용하여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친근하고 설득력 있는 글을 완성함.
2.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이 갖는 특징을 정리하고, 해당 내용을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함. 인공지능의 발전과 인간의 자율성 간의 상관관계에 대해 자신의 주장과 근거를 담은 논설문을 작성함. 스마트워치, 맞춤형 광고 서비스와 같은 일상생활 속 구체적인 사례를 근거로 활용하고, 사고 과정의 논리적인 흐름이 드러나도록 작성한 점이 돋보임.
3. 스스로 결정을 내리는 인공지능(AI 에이전트)의 특징과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깊이 있게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인공지능의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을 고찰한 글을 작성함. 인공지능이 인간의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

적인 사례를 통해 설명하며, 스마트워치와 맞춤형 광고 서비스 등 일상에서 쉽게 활용되는 기술을 예시로 들어 인공지능의 발전이 인간의 선택권과 자율성에 미치는 영향을 논리적으로 서술함. 특히 인공지능 기술이 가진 의존 효과 등 부정적 측면을 경계하며 자신의 생각을 명료화한 점에서 비판적 사고 역량이 엿보임.

9.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할까?

1. | 예시 답안 | 연봉, 고용 안정성, 직무 적합성, 워라밸 보장, 성장 가능성, 흥미, 적성, 가치관 등
2. | 예시 답안 | 삶의 만족도에서 직장 생활의 비중이 낮다고 여기는 사람은 직장 생활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람은 직업을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연봉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볼 수 있다.
3. | 예시 답안 |
 -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가)의 설문 조사에 따르면 사람들이 직업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기준으로 삼는 것은 '연봉'과 '고용 안정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오랫동안 안정적으로 돈을 버는 것을 직장 생활의 목표로 삼는 것이다. 이는 사람들이 직업 그 자체를 삶의 목적 중 하나로 인식하기보다는 집을 마련하고 가정을 꾸리며 취미 생활을 영위하는 등 삶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여기고 있음을 나타낸다. 또한 (다)에서 설명한 것처럼 직업이란 '노동'과 '일' 중 대체로 '노동'에 가까운데, 우리는 모두 고되게 노동하기보다는 즐겁게 휴식하기를 원한다. 즉 우리가 안정적이고 높은 연봉을 추구하는 까닭은 직업이 궁극적으로 더 많은 여가를 얻는 삶을 위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 그 이상이다.
(나)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삶의 만족도에서 직장 생활의 비중이 높다고 생각하는 집단은 타 집단에 비해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또한 직장 생활의 만족도에 영향을 끼치는 주요 요소로 연봉이 아닌 직장 내 인간관계를 선택했는데, 이를 통해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단지 연봉만이 아닌 적성과 흥미, 인간관계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직장은 일차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수단으로서의 의미를 지니지만, 나아가 삶의 연장선상에서 우리 삶의 행복을 좌우하는 요소인 셈이다. 또한 (다)에서 서술하듯 일한다는 것은 고된 '노동'이기도 하지만 손과 머리를 쓰며 내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다. 일을 통해 사람은 자신의 존재감과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직업은 행복한 삶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자아를 실현하는 데 도움을 주므로 돈을 벌기 위한 수단 그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채점 기준

상	(가)~(다)를 참고하여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근거와 주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우
중	(가)~(다)를 참고하지 않고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고, 근거와 주장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경우
하	직업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에 대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거나, 근거와 주장이 모순된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

1.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요소를 정리한 후, 직업 선택의 기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색함. '일하다'라는 말이 지닌 두 가지 의미를 고려하며 직업 생활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논술함.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친숙한 사례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한 점이 인상적임.
2.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직업을 선택할 때 고려해야 할 여러 가지 요소를 알아본 후, 삶에서 직장 생활의 비중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연봉을 중요하게 여기는 까닭을 탐구함. 탐구 결과를 토대로 직업 생활은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에 불과한지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논증하는 글을 작성함. 여러 자료를 참고하여 사회 현상의 이면을 살펴보려 노력하고, 사고 과정의 논리적인 흐름이 드러나도록 명료하게 글을 작성한 점이 훌륭함.
3. 직업 선택 시 고려해야 할 다양한 요소를 조사하고, 신문 기사 및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직업 선택 기준과 삶의 만족도 간의 관계를 탐구함. 삶에서 직장 생활의 비중이 낮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연봉을 중요하게 여기는 현상의 원인을 논리적으로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직업 생활이 단순히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인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증하며,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친숙한 사례를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함.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명확히 드러내고, 사회 현상의 이면을 다각도로 살펴보려 한 점이 특징임.

10.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은 정당할까?

1. | 예시 답안 | (가)의 사례는 정당하지만 (나)의 사례는 정당하지 않다. (가)에서는 이란 정부가 여성이라면 히잡을 착용해야 한다는 잘못된 사회 규범을 국민에게 강요하고, 이를 위반할 시 무자비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 이처럼 비도덕적인 규범을 강제하고 물리적 위협을 행사하는 정부에 대해서는 폭력을 사용하여 저항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 있다. 반면, (나)의 정부는 헌법에 명시된 권한을 사용하여 연금 개혁법을 통과시켰다. 즉, 정부는 합법적인 틀 내에서 행동한 것이므로 시위 또한 합법적

로 이루어져야 한다. 시위대가 정부를 규탄하는 시위를 하는 것은 자유이지만 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른 정부를 향해 불법적인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 없다.

2. (1) 국가에 대한 저항 행위의 목적

- (다): 정의의 원칙을 어기는 법이나 정부 정책 변혁
- (라): 평등한 정의 실현

(2) 저항 과정에서 나타나는 폭력의 옹호 여부

- (다): 시민불복종은 비폭력적이어야 함.
- (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폭력은 정당함.

(3) 폭력을 옹호(또는 반대)하는 근거

- (다): 시민불복종은 불법적이지만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이루어지기 때문
- (라): 평등이라는 목적을 위해 폭력적인 수단도 정당화할 수 있기 때문

3. | 예시 답안 |

•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은 폭력의 악순환을 야기한다.

시민이 국가에 저항하며 폭력을 사용할 경우 이와 대치하는 국가는 불가피하게 폭력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 시민이 비폭력 평화 시위를 전개한다면 경찰도 물리력의 사용을 지양할 것이고, 폭력의 악순환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은 폭력의 악순환의 산물이다.

경찰이 시위대를 과잉 진압하는 등 국가가 시민을 향해 먼저 폭력을 행사할 경우 이에 대항하는 시민 역시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을 하게 된다. 국가가 시민의 인권을 탄압하거나 그들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다면 폭력의 악순환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4. | 예시 답안 |

• 나의 입장: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은 정당하다.

- (1) '정당하다' 측의 근거: 평등과 같은 사회 정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폭력적 저항을 해야 한다. 국가가 힘으로 시민을 억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막을 경우, 그러한 국가를 향한 폭력적 저항은 정당하다.
- (2) '정당하지 않다' 측의 근거: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은 다시 국가에 의한 폭력적 대응을 야기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또한 폭력적 저항보다는 비폭력적 저항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서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이다.
- (3) 상대측의 근거에 대한 반론: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이 폭력의 악순환을 낳는 것이 아니라 국가에 의한 폭력이 먼저 일어나기 때문에 폭력의 악순환이 발생한다. 일반적으로 다수의 사람은 국가에 저항할 생각을 하지 않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으로도 감행할 수 있는 폭력적 저항이 더 효과적이다.
- (4) 상대측의 반론에 대한 우리 측의 재반론: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것은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실현 가능성도 장담할 수 없다. 또한 이 과정에서 오히려 많은 비용이 소비되고 더 큰 사회적 혼란이 빚어질 수 있다. 국가는 시민의 비폭력적인 저항을 쉽게 진압할 수 있기 때문에 비폭력적인 저항의 효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다.

- (5) 최종적인 나의 입장: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은 사회 정의를 효과적으로 실현할 수 있게 하므로 정당하다. 물론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이 폭력의 악순환을 야기할 수 있다. 그러나 국가에 대한 비폭력적인 저항은 무력화되기 쉽고 이 경우 사회 정의 실현이라는 대의도 좌절된다. 반면 폭력적 저항은 국가에 경종을 울려 신속하고 확실하게 목표를 달성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정당하다.

• 나의 입장: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은 정당하지 않다.

- (1) '정당하다' 측의 근거: 평등과 같은 사회 정의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폭력적 저항을 해야 한다. 국가가 힘으로 시민을 억압하고 비판의 목소리를 막을 경우, 그러한 국가를 향한 폭력적 저항은 정당하다.
- (2) '정당하지 않다' 측의 근거: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은 다시 국가에 의한 폭력적 대응을 야기함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 또한 폭력적 저항보다는 비폭력적 저항이 많은 사람의 지지를 얻을 수 있어서 목적 달성에 보다 효과적이다.
- (3) 상대측의 근거에 대한 반론: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한다면 오히려 더 큰 사회적 혼란과 갈등을 초래할 것이다. 시민을 억압하는 국가를 향해 폭력적으로 저항한다면 오히려 더 많은, 무고한 시민이 다칠 수 있기 때문에 폭력적 저항을 지양해야 한다.
- (4) 상대측의 반론에 대한 우리 측의 재반론: 국가에 의한 폭력에 맞서 국가를 향해 폭력을 저지르는 일은 국가가 더욱 큰 폭력을 저지르는 일을 정당화하여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다. 소수의 힘만으로는 사회를 변화시킬 수 없으므로 다수를 참여시킬 수 있는 비폭력적인 저항을 전개해야 한다.
- (5) 최종적인 나의 입장: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은 폭력의 악순환을 야기하므로 정당하지 않다. 물론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데 효과적이라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충분히 다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에 명시된 절차에서 벗어나 무고한 사람에게까지 피해를 입히는 폭력적 저항을 선택하는 것은 그 목적은 송고할지 모르나 방법에 있어서 도덕적 지탄을 피할 수 없다. 이처럼 정당성이 결여된 저항은 다수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또한 소수에 의해 이루어지는 폭력적 저항으로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어렵고, 실현하더라도 그 당위성을 담보하기 힘들다. 따라서 오직 비폭력적 저항만이 사회 구성원 다수의 지지를 얻을 수 있고, 목적과 수단 모두 흠결 없이 정당한 유일한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상	최종적인 나의 입장을 정리할 때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하면서 토론의 내용을 반영한 경우
중	최종적인 나의 입장을 정리할 때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 않거나 토론의 내용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하	최종적인 나의 입장을 정리할 때 양측의 의견을 균형 있게 고려하지도, 토론의 내용을 반영하지도 않은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

1. 국가에 대한 폭력적인 저항을 다루는 두 개의 신문 기사 사례를 비판적으로 평가하면서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의 정당성 여부를 논함. 롤스와 니부어의 핵심 입장과 근거를 비교 및 대조하면서 국가에 대한 폭력적인 저항의 정당성을 바라보는 대립적인 관점을 정리함.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가에 대한 폭력적인 저항이 폭력의 악순환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함. 신문 기사 및 롤스와 니부어의 이론을 활용하여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은 정당한가에 관한 토론에 참여함. 상대측의 반론을 예상하고 그에 대한 재반론을 준비하는 등 훌륭한 토론자로서의 면모를 보임. 토론 결과를 반영하여 해당 논제에 대한 자기 입장을 발전시키는 등 토론 후의 학습 활동에도 성실히 참여함.
2. 폭력적인 시위를 펼치는 시민의 모습을 담은 신문 기사 사례를 학습한 후 롤스와 니부어의 핵심 입장을 비교 및 대조함.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과 국가에 의한 폭력적 대응 간의 관계를 고찰하고,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에 관한 토론에 참여함. 논쟁점을 둘러싸고 대립하는 의견의 근거를 각각 정리하고 상대측의 근거에 대한 반론 및 상대측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꼼꼼하게 준비함으로써 심도 있는 토론을 만드는 데 크게 기여함. 토론 후에 토론의 결과를 반영하여 자신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생각을 더욱 깊이 있게 발전시켜 나가는 등 자기 주도적이고 진취적인 모습이 돋보임.
3.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을 다룬 신문 기사 사례를 분석하고, 롤스와 니부어의 핵심 입장을 비교 및 대조하면서 국가에 대한 폭력적 저항의 정당성을 탐구함. 설문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폭력의 악순환의 가능성을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국가의 폭력과 시민의 저항 간의 상호 작용을 심도 있게 분석함.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면서도 논리적인 반론을 제시하며, 상대측의 주장에 대한 재반론까지 면밀하게 준비하는 등 토론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함. 또한 토론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더욱 발전시키고, 자료를 활용하여 논지를 정교화하는 등 자기 주도적인 학습 태도를 보임.

11

가정 환경 및 교육 환경이 대입을 좌우하는 일은 정당할까?

1. | 예시 답안 | 대입은 우수한 능력을 지닌 학생을 선발하는 과정이다. 그런데 (가)에서는 학생의 능력이 아닌 부모의 경제력이나 거주지가 대입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사례가 제시되고 있다. 이는 분배적 부정의를 야기한다.
2. (1) (나)
 - ① 원초적 입장의 의미: 공정한 합의를 위해 만들어 낸 가상적 상황을 뜻한다.

② 정의의 원칙의 역할: 권리와 의무를 배분하고 사회 협동체에서 생긴 이익의 분배를 규정한다.

③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은 도덕적으로 임의적'이라는 것의 의미: 자연적·사회적 우연성의 산물은 마땅한 몫이 아니라 우연히 주어진 것이라는 의미이다.

(2) (다)

① 소유 권리로서의 정의의 의미: 분배적 정의란 각자가 자신의 소유물에 대해 정당한 소유 권리를 가진 상태를 뜻한다.

②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 비판: 타인의 복지를 위한다는 명목으로 개인이 정당하게 취득한 근로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일은 부당하다.

(3) (라)

① 복합 평등의 의미: 어떠한 사회적 가치도 전제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상태를 뜻한다.

② 독점과 전제의 구분: 독점은 특정한 사회적 가치를 누군가가 배타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뜻한다. 전제는 특정한 사회적 가치가 다른 사회적 가치를 침범하고 잠식하는 것을 뜻한다.

3. (1) (나): 롤스에 따르면 타고난 가정 환경은 사회적 우연성의 산물이다. 그리고 이러한 우연성에 의해 대입이 좌우되는 일은 부정적이다. 왜냐하면 좋은 가정 환경은 우연히 갖게 된 것이지, 마땅히 타고날 만한 자격 덕분에 갖게 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2) (다): 노직에 따르면 부모가 재산을 축적하고 좋은 거주지로 옮기는 과정에서 부정의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로 인해 자녀가 받는 혜택도 정당화될 수 있다. 자녀가 천부적으로 타고난 재능과 가정 환경은 비록 우연적인 것이라고 할지라도 자녀가 정당한 소유권을 갖기 때문이다.

(3) (라): 왈처에 따르면 경제의 영역이 교육의 영역을 잠식하는 현상은 부정의한 전제에 해당한다. 부모가 많은 재산을 축적했다는 이유로 자녀가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현상은 경제가 교육의 영역을 침범하는 전제에 가깝기 때문이다.

4. | 예시 답안 |

• (나) 선택

롤스에 따르면 유사한 동기와 능력을 가진 사람은 사회적 계급의 영향을 받지 않고 유사한 인생 전망을 가질 수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타고난 가정 환경이나 교육 환경은 도덕적으로 자의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누구도 자신의 가정 환경에 대해 마땅히 받을 만한 자격을 갖지는 않는다. 그것은 단지 우연적인 사실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의로운 사회에서는 정의의 원칙을 통해 이러한 우연성의 영향력을 약화하고자 한다. 가정 환경이나 교육 환경이 대입을 좌우하는 현상은 타고난 우연성이 인생 전망에 미치는 영향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정당하지 않다.

• (다) 선택

노직에 따르면 개인은 소유 권리론의 세 가지 원칙에 부합하는 소유물에 대해서는 정당한 권리를 갖는다. 부모가 자녀의 가정 환경이나 교육 환경을 조성하는 과정에서 소유 권리론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았다면, 자녀가 좋은 가정 환경과 교육 환경을

타고나는 일은 부정적이지 않다. 비록 좋은 가정 환경과 교육 환경은 도덕적 관점에서 볼 때 자의적일 수는 있지만, 이를 이유로 개인이 그것을 누릴 자격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는 마치 신체도 우연히 타고난 것이지만 그 사람의 소유물로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따라서 가정 환경 및 교육 환경이 대입을 좌우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있다.

• (라) 선택

왈처에 따르면 사회에는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사회적 가치가 존재하며, 어떤 가치도 전제의 수단으로 이용되지 않는 사회가 바람직하다. 가정 환경 및 교육 환경이 대입을 좌우하는 현상은 경제의 영역에 속하는 가치가 교육의 영역에 속하는 가치를 지배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정 환경 및 교육 환경에 관한 경제력의 차이가 더 우수한 학생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평가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현상은 하나의 사회적 가치가 다른 사회적 가치를 잠식한다는 점에서 정당하지 않다.

| **채점 기준** |

상	자신이 선택한 관점의 내용을 정리하고 해당 관점에 부합하는 근거를 활용하여 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 경우
중	자신이 선택한 관점의 내용을 정리하였지만, 해당 관점에 부합하는 근거를 활용하지 않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 경우
하	자신이 선택한 관점의 내용을 정리하지 않고 문제에 대한 답변을 작성한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

1. 신문 기사를 통해 가정 환경 및 교육 환경이 대입을 좌우하는 현상을 탐구하고 노직, 롤스, 왈처의 입장에서 각각 해당 현상의 정당화 가능성을 논함. 세 사상가의 핵심 주장과 근거를 비교하여 정리하는 과정에서 주어진 학습 자료 외에 정보를 추가 조사하여 탐구하는 등 지적 열의가 돋보임. 노직의 입장에서 가정 환경 및 교육 환경이 대입을 좌우하는 일이 정당인지에 관해 논함. 소유 권리론의 세 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부모가 자녀에게 부를 대물림하고 좋은 교육 환경을 조성해 주는 일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지를 상세히 서술함. 특히 노직이 근로 소득에 대한 과세를 비판한 논증을 활용하여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한 점이 인상적임.
2. 가정 환경 및 교육 환경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력이 갈수록 커진다는 사실을 구체적인 통계를 이용하여 알아본 후 노직, 롤스, 왈처의 입장에서 각각 그러한 현상이 도덕적으로 정당인지 평가함. 세 사상가의 입장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세 사상가 간 차이점을 파악하고자 교사와 적극적으로 상호 작용하는 등 자기 주도적인 모습을 보임. 롤스의 입장에서 가정 환경 및 교육 환경이 대입을 좌우하는 일이 정당인지에 관해 논함. 원초적 입장에서 합리적인 정의의 원칙의 역할을 토대로 타고난 환경이 대입을 결정하는 일의 부당함을 논증함. 특히 사회적 자산이 도덕적인 관점에서 자의적이라는 사실을 지적함으로써 논지를 강화함.
3. 가정 환경 및 교육 환경이 대입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배적 정의의 관점에서 살펴본 후 이를 노직, 롤스, 왈처 등 세 사상가

의 입장에서 평가함. 왈처의 입장을 선택하여 가정 환경 및 교육 환경이 대입을 좌우하는 일이 정당인지 논의함. 왈처의 입장에서 경제 영역에 속하는 요소가 교육 영역에 속하는 요소를 잠식하는 전제 현상이 부당함을 밝힌 후 부모의 경제력이 자녀의 대입 성적을 결정하는 일이 부정적이라고 주장함. 다양하고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왈처의 분배 정의론을 설명하고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사회 문제를 왈처의 관점에서 해석하여 제시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임.

12 비도덕적인 예술 작품도 예술로 인정할 수 있을까?

1. | **예시 답안** |

(1) **예술적 측면**

- (가): 죽음 이면에 아름다움, 아름다움 이면에 죽음이 있다는 점을 묘사하고자 함.
- (나): 금붕어가 서서히 죽어 가는 과정을 통해 인간 내면의 폭력성과 이중성을 표현함.

(2) **도덕적 측면**

- (가): 매주 400여 마리의 무고한 나비가 밀폐된 방 안에서 죽음을 맞이했다는 점에서 생명의 존엄성을 훼손함.
- (나): 링거병 안에 갇힌 금붕어가 서서히 굶어 죽도록 만들었다는 점에서 비도덕적임.

2. | **예시 답안** |

- **입장:** 비도덕적인 예술 작품도 예술로서 인정할 수 있다.
 - (1) 근거: 어떤 작품이 예술인지를 평가하는 기준은 작가가 전하려는 메시지에 달려 있다. 작가가 작품을 통해 전달하려는 메시지가 있고, 관객이 그 메시지를 이해할 수 있다면 비도덕적인 작품도 예술로서 인정할 수 있다.
 - (2)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친구의 근거: 굳이 생명체를 희생시키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다른 방식으로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으므로 비도덕적인 예술 작품을 예술로 간주해서는 안 된다.
 - (3) 최종적인 자신의 생각 및 근거: 관객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충격적인 방식이 필요하므로, 비도덕적인 예술 작품이라도 예술로서 인정할 수 있다.
- **입장:** 비도덕적인 예술 작품은 예술로서 인정할 수 없다.
 - (1) 근거: 아무리 좋은 메시지를 담은 작품이라도 생명체에 폭력을 가하거나 무고한 생명을 희생시킨다면 진정한 예술이라고 볼 수 없다. 다른 방식으로도 좋은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 (2) 나와 다른 입장을 가진 친구의 근거: 진정한 예술 작품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기준은 예술가의 의도이므로, 비도덕적인 예술 작품도 예술로서 인정할 수 있다.
 - (3) 최종적인 자신의 생각 및 근거: 예술 작품의 예술성을 판단할 때 예술가의 의도도 중요하지만 표현 방법이나 전시 방

식도 그만큼 중요하다. 예술가가 비도덕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거나 전시한 예술 작품은 예술로서 인정할 수 없다.

| 채점 기준 |

상	논제에 관한 대립적인 의견과 근거를 정리한 후, 양측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립한 경우
중	논제에 관한 대립적인 의견과 근거를 정리하였지만, 양측 의견을 고려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립한 경우
하	논제에 관한 대립적인 의견과 근거를 정리하지 않고, 최종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립한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

- 실제 예술 작품의 사례를 활용하여 작품이 가진 의미를 예술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으로 나누어 고찰함. 비도덕적인 예술 작품도 예술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을 정리한 후,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과 의견을 나눔. 토론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적인 자신의 생각 및 근거를 정리함.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의 의견을 경청하고 논제에 관한 대립적인 의견을 참고하여 최종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립함.
- 구체적인 사례를 활용하여 예술 작품이 지닌 의미를 예술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으로 나누어 살핀 후, 비도덕적인 예술 작품도 예술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작성함. 논제에 관해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과 토론한 후 최종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수정하여 정립함. 논의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뒷받침하는 근거를 비판적으로 고찰하면서 자기 입장을 옹호하는 등 훌륭한 토론자로서의 모습을 보임.
- 예술 작품의 사례를 활용하여 작품이 지닌 의미를 예술적 측면과 도덕적 측면으로 분석하고, 비도덕적인 예술 작품도 예술로서 인정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기 입장을 논리적으로 정리함. 다양한 철학적 관점을 참고하여 예술성과 도덕성의 관계를 탐구하고, 역사적 맥락 속에서 작품이 가지는 의미를 고찰함. 토론 과정에서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친구의 견해를 경청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분석하며 논리적인 반론을 제시함. 또한 논제에 관한 대립적인 의견과 그 근거를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성찰하여 최종적인 의견을 정립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서술함.

13. 채식 급식 의무화는 정당할까?

- (1) 찬성: 육식으로 인해 고통받는 동물의 고통을 덜어줄 수 있음,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여 기후 위기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음.
(2) 반대: 채식은 영양 불균형을 낳을 수 있음, 학생에게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고 채식을 강권하는 것은 옳지 않음.
- | 예시 답안 |** 채식 제품이 다른 제품보다 비싸다는 점을 고려해

야 함, 채식이 비채식보다 맛이 없다는 점을 고려하여 비채식 만큼 맛있는 채식을 연구하는 것을 우선해야 함, 가정에서 채식하거나 학교 졸업 후에 채식을 이어가는 일이 힘들기에 사회 전반적으로 채식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야 함 등

3. | 예시 답안 |

- 나의 입장: 채식 급식 의무화는 정당하다.**
 - 찬성 측의 근거: 채식 급식 의무화는 동물의 고통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극복에 유용하다.
 - 반대 측의 근거: 채식 급식 의무화는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자유로운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정당하지 않다.
 - 상대측의 근거에 대한 반론: 영양 성분을 고려하여 식단을 편성하면 영양 불균형을 막을 수 있다. 채식 급식은 학생들의 균형 잡힌 성장을 위한 정당한 교육 활동의 일종이다.
 - 상대측의 반론에 대한 우리 측의 재반론: 인간의 육류 소비량을 충족하려면 불가피하게 동물을 공장식으로 사육할 수밖에 없다.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이 있지만 그중 채식은 삶에 큰 불편함을 야기하지 않고 실행할 수 있는 쉬운 해결책 중 하나이다.
 - 최종적인 나의 입장: 채식 급식 의무화는 동물의 불필요한 고통을 줄여 주고 기후 위기 문제를 해결하는 데 기여하므로 정당하다. 반대 측에서는 채식 급식이 비용이 많이 들고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기후 위기로 발생하는 비용과 채식 급식으로 기대되는 편익을 고려하였을 때 채식 급식은 여타 기후 위기 대응 방법보다 적은 비용으로 쉽게 실행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나아가 기후 위기는 모든 인류가 당연한 실질적이고 도덕적인 문제인 만큼 개인의 선택권이 다소 제한되더라도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할 필요가 있다.
- 나의 입장: 채식 급식 의무화는 정당하지 않다.**
 - 찬성 측의 근거: 채식 급식 의무화는 동물의 고통을 덜어 줄 뿐만 아니라 기후 위기 극복에 유용하다.
 - 반대 측의 근거: 채식 급식 의무화는 학생들의 영양 불균형을 유발할 수 있으며 학생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정당하지 않다.
 - 상대측의 근거에 대한 반론: 동물의 고통을 경감하는 방향으로 사육 과정을 개선한다면 채식을 하지 않더라도 동물의 고통을 덜어 줄 수 있다. 또한 기후 위기를 극복하는 방법에는 채식 외에도 다양한 방법이 있으므로, 반드시 채식 급식을 의무화할 필요는 없다. 만약 채식이 중요한 해결 방법이라면 학생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에게 강제해야 한다.
 - 상대측의 반론에 대한 우리 측의 재반론: 영양 성분을 고려한 식단 편성은 가능하지만 많은 비용을 초래한다. 교육 활동이 학생의 선택권을 넓히는 방향으로 발전해 온 것처럼 식생활에서도 채식을 강제하기보다 더 많은 자유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
 - 최종적인 나의 입장: 채식 급식 의무화는 학생의 영양 불균형을 초래하고 자유로운 선택을 침해한다는 점에서 부당하다. 찬성 측에서는 채식이 동물의 고통을 덜고 기후 위기 극복에 기여할 수 있으므로 채식 급식을 의무화해야 한다

고 주장한다. 그러나 동물의 사육 과정을 개선하여 그들의 고통을 덜어 주는 방식을 채택한다면 육식이 가능하고 사람들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선택권은 인권과 관련된 중차대한 문제이다. 기후 위기에 대응하는 다른 방법이 여럿 존재하므로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채식 급식을 강제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 채점 기준 |

상	논제에 관한 대립적인 의견과 근거를 정리한 후, 반론 및 재반론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정립한 경우
중	논제에 관한 대립적인 의견과 근거를 정리하였지만, 반론 및 재반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정립한 경우
하	논제에 관한 대립적인 의견과 근거를 정리하지 않았으며, 반론 및 재반론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정립한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

- 채식 급식 의무화를 둘러싼 다양한 의견을 탐색하면서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각각 정리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논제에 관해 고려해야 할 다른 요인을 찾아봄.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들과 모둠을 이루어 쟁점에 관해 토론한 후 최종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서술함. 토론 과정에서 상대측의 근거에 대한 반론 및 상대측의 반론에 대한 재반론을 제시하는 등 완성도 높은 토론을 펼침. 다양한 데이터와 구체적인 통계를 활용하여 자신의 근거를 뒷받침한 점이 인상적임.
- 다양한 신문 기사를 이용하여 채식 급식 의무화를 둘러싼 의견들을 수집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참고하여 채식 급식 의무화에서 고려해야 할 요인을 꼼꼼하게 정리함. 자신과 다른 의견을 가진 학생들과 모둠을 이루어 채식 급식 의무화는 정당인가에 관한 토론을 진행함. 상대측의 근거에 반론을 제기하고 상대측의 반론에 재반론하는 등 비판적인 태도가 돋보임. 채식의 효과와 관련된 과학적인 연구 결과를 인용하는 등 심도 있게 쟁점을 분석한 점이 인상적임.
- 채식 급식 의무화에 대한 다양한 신문 기사와 연구 자료를 분석하여 찬반 근거를 균형 있게 정리하고, 설문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논의의 핵심 쟁점을 구체화함. 토론 과정에서 상대측의 주장을 비판적으로 검토하며 반론과 재반론을 논리적으로 제시하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임. 또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자신의 입장을 명확하게 서술하고, 구체적인 통계 자료와 과학적 연구 결과를 활용하여 주장을 뒷받침한 점이 돋보임.

14. 다문화 사회의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1. | 예시 답안 |

(1) (가)

- '메리 크리스마스' 측의 입장과 근거: 미국의 전통인 크리스마스를 기념해야 함.

- '해피 홀리데이' 측의 입장과 근거: 비기독교인을 배척하는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표현 대신 다양한 종교를 가진 사람을 포용할 수 있도록 '해피 홀리데이'를 사용해야 함.

(2) (나)

- 프랑스 정부의 입장과 근거: '라이시테'의 전통에 입각하여 표면적으로 종교적 소속을 보여 주는 복장 및 표식의 착용을 금지함으로써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배제해야 함.

- 이슬람 집단의 입장과 근거: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배제하는 것은 이슬람에 대한 편견과 차별에 근거한 부당한 정책임.

2. | 예시 답안 |

우리 모둠의 주제: (A)

- **우리 팀의 입장:** '메리 크리스마스'를 사용해야 한다.
 - (1) 우리 팀의 입장에 대한 반론: 비기독교인을 위한 축일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 (2) 상대 팀의 반론에 대한 우리 팀의 재반론: 크리스마스는 비기독교인에게도 축일이 될 수 있다. 또한 '메리 크리스마스'를 다른 인사말로 대체하는 것은 미국 문화의 근간을 부정하는 것이다.
- **우리 팀의 입장:** '해피 홀리데이'를 사용해야 한다.
 - (1) 우리 팀의 입장에 대한 반론: '메리 크리스마스'는 미국의 전통이다.
 - (2) 상대 팀의 반론에 대한 우리 팀의 재반론: '메리 크리스마스'는 바뀌어야 할 미국의 전통이다. 비기독교인에게 크리스마스를 축일로 기념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

우리 모둠의 주제: (B)

- **우리 팀의 입장:** 학교에서 종교적인 상징물을 착용할 수 있어야 한다.
 - (1) 우리 팀의 입장에 대한 반론: 종교가 공적 영역을 침범하면 많은 사회적 갈등을 야기한다.
 - (2) 상대 팀의 반론에 대한 우리 팀의 재반론: 공적 영역에서 종교를 금지하는 일이 더욱 큰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 개인의 정체성은 공적 영역에서도 자유롭게 표현될 수 있어야 하므로 학교에서의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금지해서는 안 된다.
- **우리 팀의 입장:** 학교에서 종교적인 상징물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
 - (1) 우리 팀의 입장에 대한 반론: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기 위한 상징물의 착용은 허용되어야 한다.
 - (2) 상대 팀의 반론에 대한 우리 팀의 재반론: 종교가 공적 영역을 침범하면 사회적 갈등을 야기할 수 있다. 학교에서 종교적 상징물 착용을 허용하면 학생 간 종교 갈등으로 확대될 수 있으므로 금지해야 한다.

| 채점 기준 |

상	논제에 관한 대립적인 의견과 근거를 정리한 후, 반론 및 재반론을 논리적으로 전개한 경우
---	---

중	논제에 관한 대립적인 의견과 근거를 정리한 후, 반론 및 재반론을 전개하였지만 논리적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하	논제에 관한 대립적인 의견과 근거를 정리하지 못하고, 반론 및 재반론을 전개하지 못한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

1. 신문 기사를 이용하여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종류와 각 갈등을 둘러싼 대립적인 의견을 정리함. '메리 크리스마스' 대신 '해피 홀리데이'를 사용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상대방의 근거에 반론을 제기하고 상대방이 제기한 반론에 재반론을 제시하는 등 심도 있는 논의를 보임. 토론 과정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경청하고 신중하게 반론을 제기하는 등 훌륭한 토론자로서의 모습이 인상적임.
2. 다문화 사회에서 발생한 갈등 사례와 각 갈등을 둘러싼 대립적인 관점을 정리한 후 학교에서 종교적인 상징물을 착용해도 되는가를 주제로 모둠 토의를 진행함. 학교에서 종교적 상징물을 착용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상대방의 입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상대방의 반론에 재반론을 제시하는 등 탄탄한 논증 구사력이 돋보임. 상대방의 반론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최선을 다해 자기 입장을 옹호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인상적임.
3. 신문 기사에 제시된 다문화 갈등 사례를 분석하고 갈등을 둘러싼 여러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꼼꼼하게 정리하였으며, 정리한 내용을 토대로 모둠별 토론을 진행함. 토론 과정에서 자신이 맡은 입장을 효과적으로 옹호하며 논리적인 근거를 활용하여 상대의 입장에 반론을 제기함.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면서도 논리적인 재반론을 제시하는 능동적이고 심도 있는 논증 능력을 발휘함.

15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해야 할까?

1. | 예시 답안 |

- (1) 찬성: 학생의 정상적인 발달에 기여, 부모와의 대화 시간 확보, 사교육비 감소
- (2) 반대: 현실성 부족, 불법 심야 과외 증가, 개인의 선택권 제한

2. | 예시 답안 |

-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정책 시행 전후로 실제로 사교육비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진리성). 또한 청소년의 정상적인 발달을 위해서는 충분한 수면 시간이 필요하다는 과학적 연구도 있다(진리성).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을 반대하는 측에서는 개인의 선택권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청소년들이 늦은 시간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기를 희망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치열한 입시 경쟁으로 불안한 상황에 처해 있는 청소년의

심리를 자극하여 밤늦은 시간까지 공부하도록 만드는 것은 옳지 않다(정당성).

-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하는 정책을 시행한 결과 학생들이 집으로 돌아가서 인터넷 강의를 수강하는 등 학습 시간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진리성). 또한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은 자발적으로 공부하는 학생들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점에서 옳지 않다(정당성).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을 찬성하는 측에서는 부모와의 대화 시간 확보를 근거로 제시한다. 그러나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한 후에도 부모와의 대화 시간과 횟수를 늘렸다는 청소년은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진리성).

| 채점 기준 |

상	STEP 2 의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인용하고, 근거의 타당성을 진리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고려한 경우
중	STEP 2 의 찬성과 반대의 근거를 인용하였지만, 근거의 타당성을 진리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고려하지 않은 경우
하	STEP 2 의 찬성과 반대의 근거와 무관하게 답변을 작성한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

1.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을 둘러싼 대립적인 의견을 찾아 정리한 후 허버마스의 논증 대화 이론의 틀을 활용하여 각 근거의 타당성을 판단함. 이를 토대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담은 논설문을 작성함.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뿐만 아니라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의 타당성을 따짐으로써 설득력 높은 글을 작성함.
2. 허버마스의 논증 대화 이론의 관점에서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을 둘러싼 대립적인 근거의 타당성을 따짐. 이를 바탕으로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관점에서 논설문을 작성함.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측이 제시한 근거를 진리성과 정당성 측면에서 비판하고,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려고 노력하는 등 논리적으로 탄탄한 글을 완성함.
3. 학원 교습 시간 제한을 둘러싼 찬반 의견을 수집하고, 이를 허버마스의 논증 대화 이론의 틀에서 분석하여 각 주장과 근거의 타당성을 평가함. 이후 양측의 논거를 비교하며 논리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글쓰기를 시도함. 학원 교습 시간을 제한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논증을 전개하면서도, 반대 측 논거의 진리성과 정당성을 검토하고 비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설득력을 높임.

16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할까?

1. | 예시 답안 |

- (1) (가): 전쟁의 위협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기 위해서 등

- (2) (나): 북한 땅에 제3국이 들어오는 것을 막기 위해서
- (3) (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위해서, 반도 국가의 확장성을 위해서 등

2. | 예시 답안 |

- (1) (라): 현실적으로 남과 북은 이미 별개의 국가이기 때문에, 정치적 협력에 얽매기보다 사회·경제적 협력을 활성화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통일보다 평화와 번영을 우선 해야 하기 때문이다
- (2) (마): 경제적인 부담이 크기 때문에,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문제가 우려되기 때문에

3. | 예시 답안 | 통일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통일 비용이 분단 비용을 대체하기 시작할 것이다. 통일이 실현되면 통일 편익이 발생할 것이고, 장기적으로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이나 분단 비용보다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분단 비용은 통일이 늦어 질수록 더욱 커진다는 점에서 하루 빨리 통일을 실현하는 것이 경제적으로 유용하다.

4. | 예시 답안 |

•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

통일은 우리나라의 경제적 성장과 한반도의 평화 실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가)의 조사 결과에서 나타나듯 많은 사람은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로 평화 실현을 꼽았다. 또한 (다)에서 설명한 것처럼 통일이 되면 반도 국가라는 지리적 한계가 확장되어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을 촉진할 수 있다. 물론 (마)에서처럼 통일 과정에서 발생할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통일에 반대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통일 편익이 통일 비용이나 분단 비용보다 커질 전망이다. 통일을 빠르게 실현할 수록 기회비용인 분단 비용은 줄어들고 통일 편익이 늘어나므로 통일 준비를 서두를 필요가 있다.

• 통일을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과 한반도의 평화에 통일이 필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은 아니다. (라)에서 제시하듯 남북이 각자 따로 존재하며 공존과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이미 남한과 북한은 국제 사회에서 별도의 국가로 대우받고 있으므로, 이러한 상태에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합리적이다. 또한 (마)에서 설명한 것처럼 통일이 되는 과정 및 그 이후 엄청난 사회·경제적 비용이 소모될 수 있다. 장기적으로 통일 편익이 분단 비용이나 통일 비용보다 크다는 의견이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통일을 하지 않고 평화를 실현하는 것만으로도 분단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이는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무조건 통일을 고집하기보다 평화 정책에 주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채점 기준 |

상	작성 요건 을 모두 준수하여 글을 작성한 경우
중	작성 요건 중 일부만을 준수하여 글을 작성한 경우
하	작성 요건 을 전혀 준수하지 않고 글을 작성한 경우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

1. 여러 신문 기사를 활용하여 통일이 필요한 까닭과 그렇지 않은 까닭을 각각 정리한 후 분단 비용, 통일 비용, 통일 편익의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고찰함. 이를 토대로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설문을 작성함. 구체적인 데이터를 인용하여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로 삼고, 통일에 반대하는 측의 근거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논리적으로 완성도 높은 글을 작성함.
2. 다양한 자료와 데이터를 활용하여 통일이 필요한 까닭과 그렇지 않은 까닭을 비교하여 정리하고, 통일에 수반되는 비용과 편익의 관점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분석함. 이를 바탕으로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하는지에 관한 논설문을 작성함. 다양한 근거를 들어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할 필요는 없다는 주장을 뒷받침하고,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측의 근거가 지닌 논리적인 허점을 지적함. 통일 대신 평화를 실현하는 것의 우선성을 논증하는 과정이 인상적임.
3. 다양한 신문 기사와 학술 자료를 활용하여 통일의 필요성과 불필요성을 비교·분석하고, 분단 비용, 통일 비용, 통일 편익의 측면에서 각각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를 제시함. 이를 바탕으로 통일이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장기적인 영향을 평가하며,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과 필요하지 않다는 입장을 균형 있게 검토함. 최종적으로 통일이 가져올 사회적·경제적 변화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통일보다 평화적 공존과 협력적 관계 유지가 실질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음을 논리적으로 논증함.

17. 국제 전쟁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1. ① 이기심, ② 세력 균형, ③ 불완전한 제도, ④ 국제법
2. | 예시 답안 |
 - (1) 현실주의: 러시아는 나토의 동진으로 인해 안보의 위협을 느끼고 세력 균형을 실현하고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다. 전쟁을 벌이지 않으면 나토와 미국에 의해 국제 사회에서 자신의 권력이 약화될 것이라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 (2) 이상주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은 국제법 위반이다. 우크라이나는 국제사법재판소 등을 통해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쟁을 지속하고 있다.
3. | 예시 답안 |
 - 현실주의가 더 타당하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음에도 많은 나라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 이는 결국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는 스스로의 힘을 기르는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국제 전쟁은 자국의 군사력을 통해 세력 균형을 실현함으

로써 해결할 수 있다.

• 이상주의가 더 타당하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음에도 많은 나라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동참하지 않았다. 만약 더 많은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참여했다면 러시아에 실질적인 정치적·경제적 압력을 가해 전쟁을 멈출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국제 전쟁은 국제기구에서 합의한 국제 규범과 참여 국가들의 공동 이행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4. | 예시 답안 |

• 현실주의

현실주의에 따르면 국제 전쟁은 개별 국가의 이기심과 국가 간의 생존 경쟁 때문에 발생한다. 국제 사회에서는 개별 국가만이 유일한 행위자이므로 이들을 통제할 수 있는 상위의 권력 기구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래서 어떤 국가가 자국의 이익과 권력의 확대를 목표로 전쟁을 일으키는 경우 이를 방지할 수 없다. 이러한 상태에서 평화를 실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세력 균형이다. 전쟁을 일으키려는 국가와 침공을 당할 국가 간의 힘이 비슷하다면 전쟁이 발생하기 어렵다. 따라서 각 국가는 군사력을 증강하고 다른 나라와 군사 동맹을 맺음으로써 국제 사회에서 세력 균형을 유지하고 국제 평화를 실현해야 한다.

• 이상주의

이상주의에 따르면 국제 전쟁은 개별 국가 간의 오해나 불신, 불완전한 제도 때문에 발생한다. 국제 사회에는 개별 국가 외에도 국제기구, 비정부 기구 등 다양한 층위의 행위자가 존재하며 국가 간 갈등 발생 시 다른 행위자의 도움을 받아 해결할 수 있다. 물론 국제기구의 결정이 불완전한 절차를 거쳐 도출되거나, 신뢰성을 담보하지 못하여 국가 간 갈등 해결에 실패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것이 곧 국제기구의 무용론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기존의 시스템이나 규정의 허점을 수정·보완·개선하고, 신뢰받을 수 있는 결정을 내리고 이행하기 위한 조직이 되기 위해 노력하는 계기로 삼을 수 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상호 오해와 불신을 제거한다면 국제 사회에서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

| 채점 기준 |

상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중 한 가지 관점을 선택하여 국제 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각각 알맞게 서술한 경우
중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중 한 가지 관점을 선택하여 국제 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서술하였지만, 내용의 타당성이 부족한 경우
하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중 한 가지 관점을 선택하였지만, 해당 관점에서 국제 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올바르게 서술하지 못한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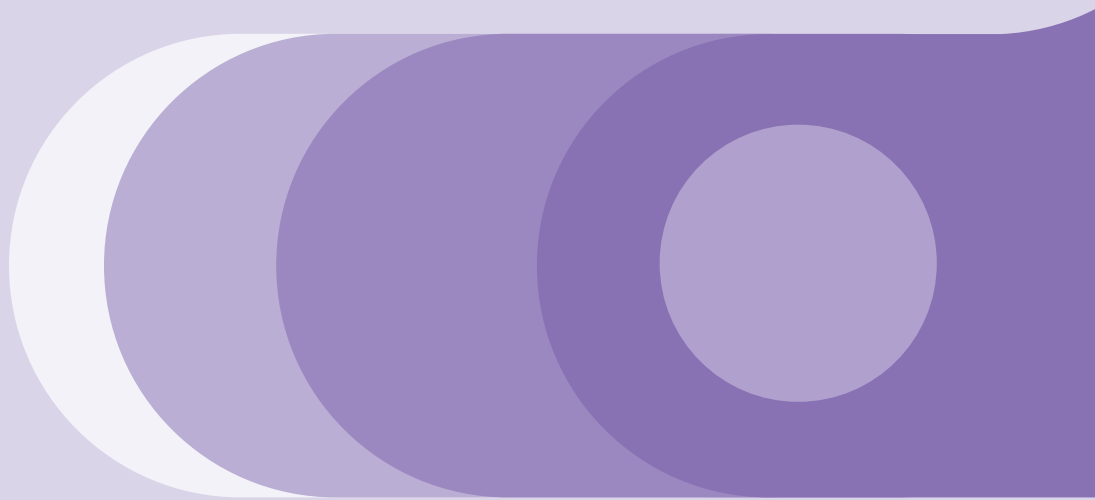
학생 생활기록부에 반영하기

1. 국제 전쟁을 다루는 기사를 활용하여 국제 정치를 이해하는 두 가지 관점의 특징을 비교·대조하여 정리함. 현실주의와 이상주의 중 한 가지 관점을 선택하여 국제 전쟁의 원인과 해결 방안을 작성함. 국제 전쟁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데이터, 통계를

활용하여 자신의 생각을 뒷받침하고, 주장의 근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서술함으로써 탄탄한 논증이 담긴 글을 완성함. 특히 해결 방안을 도출하고 설명하는 과정에서 드러나는 꼼꼼한 사고 과정이 인상적임.

2.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관점에서 국제 전쟁의 양상을 해석하고, 두 가지 관점의 특징을 비교하여 정리함. 이를 바탕으로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국제 전쟁의 원인 및 해결 방안을 논술함. 현실주의의 관점에서 실제 국제 전쟁의 사례를 분석하고, 전쟁의 전후 결과를 비교하는 등 설득력 높은 논증을 제시함. 모건소가 제시한 세력 균형의 의미를 다각도로 고찰하고 그 과정을 자세하게 서술함으로써 글의 완성도를 높임.

3. 국제 정치의 주요 이론인 현실주의와 이상주의의 관점을 비교하여 각각의 특징을 명확하게 정리함. 이를 바탕으로 현실주의의 시각에서 국제 전쟁의 원인을 분석하고, 전쟁의 발생과 확산을 설명하는 논리를 전개함. 모건소의 권력 정치 이론을 적용하여 강대국 간 세력 균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실제 국제 분쟁 사례를 활용하여 설득력을 높임. 또한, 현실주의적 해결 방안으로 군사적 억지와 동맹 체제 강화를 논의하고 그 과정에서 역사적 사례와 통계를 활용하여 논증을 강화함.



고등 현대사회와 윤리 교수·학습 자료집

여이곱 가지
열리곱 가지
주제로 보는

원전 자료집

1

다양한 윤리학의 의미

원전 자료

● 인간과 윤리의 의미

인간은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다. ‘人間(사람 사이)’이라는 한자어가 보여 주듯이, 인간은 그 탄생부터가 관계의 산물이며, 그 성장 또한 철저히 인간관계 속에서만 가능하다. 어린 시절에 경험하는 다정한 손길과 늘 보호받고 있다는 포근한 안도감은 인간이 커서 세상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는 데 필수적인 정서적 안정감의 원천이다. 험한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서도 절대적인 사랑을 받았던 기억을 가진 사람은 쉽게 좌절하지 않는다. 이처럼 인간은 인간 사회를 떠나서 존재할 수 없다. 윤리는 사람이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규범 체계이다. 윤리는 인간관계의 이법, 즉 인간 사회의 도리를 다루는 학문으로, 윤리학은 이러한 윤리를 학문의 대상으로 삼아 인간 행위에 대한 도덕적 가치 판단과 규범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 박찬구, 『우리들의 윤리학』

자료 풀이 윤리학은 당위의 학문으로서 행위에 관한 규범을 발견하고 창조하는 학문이다.

● 맹자의 성선설

맹자는 사람의 본성이 착하다는 증거로 우물에 빠지는 아이의 사례를 들었다. 누구든 길을 가다가 우물에 빠지려는 아이를 보면 즉시 ‘저러면 안 되는데…….’라는 생각이 든다. 그러고는 황급히 달려가 아이를 구하는데, 그 순수한 마음을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不忍人之心(불인인지심)]’이라고 부르며, 맹자는 이러한 마음이 없으면 사람이 아니라고 규정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마음 말고도 자기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남의 잘못을 미워하는 마음[羞惡之心(수오지심)], 사양하는 마음[辭讓之心(사양지심)], 옳고 그름을 가리는 마음[是非之心(시비지심)]이 누구에게나 다 있다고 보았고, 이를 ‘착해질 수 있는 네 가지 실마리[四端(사단)]’라고 하였다.

- 김교빈 외, 『동양 철학 에세이』

자료 풀이 맹자는 사단을 근거로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선하지만 욕망과 환경에 따라 악을 자행할 수 있다고 보았다.

● 규범윤리학

규범윤리학은 도덕적인 규범을 인생의 길잡이로 설정한다. 또한 도덕 이론을 연구하며, 도덕 원리들을

합리적으로 정당화할 수 있는 기반 위에 구축한다. 규범윤리학자들은 항상 도덕적인 가치 판단을 제시한다. 따라서 그들은 “옳은 것은 무엇인가?”, “좋은 것은 무엇인가?”, “인생에 있어서 가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는 무엇을 해야만 하는가?” 등의 규범적인 질문에 관심을 기울인다.

- 사하키안, 『윤리학의 이론과 역사』

자료 풀이 규범윤리학은 도덕적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나 인간의 성품에 관해 탐구하고, 이를 바탕으로 도덕적 문제의 해결 및 실천 방안을 제시하는 학문이다.

● 실천윤리학

오늘날 우리는 많은 윤리적 문제에 직면하고 있고, 그로 인해 논쟁을 벌이거나 딜레마에 빠지기도 한다. 그 이유는 이러한 문제들에 대해 올바른 기준이나 신념을 적용하는 방식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실천윤리학은 우리 삶의 여러 영역, 예를 들어 가정이나 경제활동 분야, 환경이나 생명 의료 분야,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분야 등에서 발생하는 구체적인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각기 적절한 윤리 이론을 적용함으로써 대처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 박찬구, 『우리들의 응용 윤리학』

자료 풀이 실천윤리학은 응용 규범윤리학으로 이론윤리학에서 제시한 도덕 원리나 규범을 현실 사회의 다양한 문제에 적용하며 그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대표적으로 생명윤리, 환경 윤리, 직업 윤리 등이 이에 속한다.

● 실천윤리학의 탐구 방법

실천윤리학의 탐구 방식에는 하향식 접근법과 상향식 접근법이 있다. 하향식 접근법은 원리나 이론에서 구체적인 문제의 해답을 연역해 내는 것이며, 연역적 방법이라고 부른다. …… 상향식 접근법은 도덕적 원리나 원칙에서 구체적인 문제의 해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례들을 먼저 확보하여 특징을 분석하고, 그 분석 내용에 따라서 분류하고 추론하는 과정을 통해 해답을 찾아간다. 즉 도덕적 해결책을 얻기 위해서 사례 분석 및 유비 추론을 이용한다. 먼저 주어진 도덕적 사례를 구성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해명한 다음, 그와 관련 있다고 생각하는 여러 패러다임 사례 가운데 가장 적합한 패러다임을 선별하고, 마지막으로 패러다임 사례와의 유비 추론에 의거하여 주어진 도덕 문제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 황경식 외, 『윤리학과 그 응용』

자료 풀이 실천윤리학은 실제 우리 삶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에 윤리적 원리를 적용하여 인간의 삶에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지침을 제공하고자 한다.

● 메타윤리학

도덕적인 것의 의미와 관련된 개념 분석,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인 판단과 관련된 인식론 및 정당화 논리에 주로 주목하는 윤리학의 영역을 일반적으로 메타윤리학이라고 부른다. 즉 메타윤리학은 도덕적인 논의의 의미론적·인식론적·논리적 구조를 분명하게 이해하려고 노력한다는 측면에서 도덕 자체에 관한 철학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 레이첼스, 『도덕 철학의 기초』

자료 풀이 메타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고 도덕적 추론의 정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논리를 분석하는 윤리학으로, 윤리학이 “무엇을 해야 하는가?”, “나는 어떤 도덕적 기준을 따라야 하는가?” 등의 질문에 대답하기보다는 ‘좋은’, ‘옳은’, ‘의무’ 등 윤리적 언어의 의미와 상호 관계를 밝혀야 한다고 본다.

● 기술윤리학

기술윤리는 일반적으로 다양한 관행의 관찰 또는 현장 조사를 포함한다. 비록 수집된 기술윤리의 자료가 때때로 철학자들이 취하는 윤리적 입장에 영향을 미치는 예도 있지만, 이 연구 주제는 철학자보다는 인류학자와 사회학자에 의해 다루어지는 경향이 더 짙다. 어떤 사람이 여러 집단 사람들의 다른 윤리적 신념을 비교할 때, 비교 윤리를 한다고 말한다.

- 마이클 길, 『도덕·윤리』

개인이 지닌 도덕은 삶에 대한 그의 경험의 한 부분이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연구될 수 있다. 이와 유사하게 사회적 차원에서 과학적 탐구를 통해 현실적 도덕에 대한 경험적 지식을 얻을 수 있다. 개인의 생활, 그리고 사회의 구조와 기능 속에 존재하는 도덕 현상에 대한 경험적 지식은 현실적 도덕에 대한 과학적 기술이며 설명이라고 요약할 수 있다. 기술윤리학은 현실적 내지 이상적 도덕에 대한 철학적 연구와 쉽게 구별할 수 있다.

- 폴 테일러, 『윤리학의 기본 원리』

자료 풀이 기술윤리학은 관찰, 현장 조사 등을 통해 도덕적인 현상에 대해 과학적으로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 간의 인과 관계를 설명하는 윤리학이다.

확인 문제

1. 맹자가 주장한 성선설이 무엇인지 써 보자.

| 예시 답안 | 맹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남의 고통을 외면하지 못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고 보았고, 이를 차마 하지 못하는 마음, 즉 불인인지심이라고 불렀다. 이뿐만 아니라 사람에게에는 측은지심, 수오지심, 사양지심, 시비지심이라는 네 가지 실마리(사단)가 있어서 각각 인(仁), 의(義), 예(禮), 지(智)라는 네 가지 덕(사덕)의 단서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맹자는 인간이 선천적으로 타고난 네 가지 단서를 확충한다면 누구나 선해질 수 있다는 성선설을 주장하였다.

2.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삼는 것은 무엇인지 비교하여 써 보자.

| 예시 답안 | 규범윤리학은 선과 악, 옳고 그름 등 도덕 판단과 행위의 근거가 되는 도덕 원리 및 규범 체계의 타당성에 대해 탐구하고, 이를 근거로 윤리 문제의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을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삼는다. 이와 달리 메타윤리학은 도덕적 언어의 논리적 타당성과 그 의미를 탐구하고 도덕 추론의 논리 구조를 분석하는 것을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삼는다.

3. 규범윤리학과 메타윤리학의 차이점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규범윤리학은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을 제시하고, 도덕 원리나 규범을 정립하는 반면에 메타윤리학은 도덕 원리나 규범을 정립하지 않으며, 도덕 원리나 규범에서 사용되는 도덕적 언어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주력한다.

4. 다양한 윤리 문제의 해결과 도덕적 실천을 지향하는 실천 윤리학이 지닌 특징을 두 가지 이상 써 보자.

| 예시 답안 | 첫째, 이론윤리학에서 도출한 도덕 원리를 적용하여 문제에 대처하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때 도덕 원리를 단순히 적용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고려하고 새롭게 재해석하며 적절한 해결 방안을 모색한다. 둘째, 학제적 접근이 요구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윤리 문제는 규범적 성격과 사실적 성격을 동시에 지니므로, 윤리학뿐만 아니라 생명 과학, 의학, 법학, 사회학, 도덕 심리학 등 학제 간 긴밀한 협조가 요청된다.

5. 기술윤리학이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삼는 것은 무엇인지 써 보자.

| 예시 답안 | 기술윤리학은 도덕적인 현상과 문제에 대해 가치 중립적으로 기술하고, 기술된 현상의 배경과 원인을 정확히 설명하는 것을 윤리학의 핵심 과제로 삼는다.

2

동양 윤리와 서양 윤리의 접근

원전 자료

● 공자의 인(仁)과 예(禮)

공자의 제자인 유자가 말하였다. “사람됨이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에게 공손한 사람 가운데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는 이는 거의 없다. 윗사람 범하기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가운데 난을 일으키기 좋아하는 자는 없었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야 도(道)가 생긴다. 부모를 잘 섬기는 효(孝)와 어른을 잘 따르는 제(悌)는 인을 실천하는 근본이다.” ……

공자의 제자인 안연이 인에 대해서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는 것[克己復禮(극기복례)]이 인이다. 하루만이라도 자기를 이겨내고 예로 돌아가면 천하가 인에 귀의할 것이다. 인을 실천하는 것이야 자신에게 달린 것이지만 다른 사람에게 달린 것이겠느냐?” 안연이 여쭙었다. “그 구체적인 방법을 여쭙고자 합니다.”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예가 아니면 보지 말고, 예가 아니면 듣지 말고, 예가 아니면 말하지 말고, 예가 아니면 움직이지 말라.” ……

자라가 군자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자기 수양을 통하여 공경스러워져야 한다.”, “그렇게 하면 됩니까?”, “자기 수양을 통하여 사람들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 “그렇게만 하면 됩니까?”, “자기 수양을 통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 자기 수양을 통하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해 주는 것은 요임금과 순임금도 오히려 어렵게 여겼던 일이다.” - 『논어』

자료 풀이 공자는 인간의 내면적 도덕성인 인(仁)을 강조하였다. 인의 핵심은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과 인간다움이며, 부모와 형제자매에 대한 사랑을 타인과의 관계로 넓혀 가는 것이다.

● 공자의 대동 사회(大同社會)

대도(大道)가 행해지고 천하가 공평해지면, 현명하고 유능한 사람이 선출되어 신의를 닦고 화목을 도모한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자기의 어버이만을 어버이로 여기지 않고, 자기의 자식만을 자식으로 여기지 않는다. 노인은 편안한 노후를 보내고, 장년은 쓰임을 얻으며, 어린이는 잘 자라나고, 과부와 고아, 병든 자들이 모두 부양을 받는다. 남자에게는 일이 있고 여자에게는 가정이 있다. 재물을 땅에 버려두는 것을 싫어하지만 반드시 자기 것으로 하지는 않으며, 힘을 일하지 않는 데 쓰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

지만 반드시 자기를 위해서만 쓰지는 않는다. 이 때문에 음모가 일어나지 않고, 도적이거나 난적이 생기지 않아 바깥문을 닫지 않는다. 이것을 대동이라고 한다. - 『예기』

자료 풀이 공자는 모든 구성원이 도덕적 본성을 회복하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가는 대동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 맹자의 왕도 정치

맹자가 양혜왕을 접견하였다. 왕이 말하였다. “선생처럼 고명한 분이 천 리 길을 멀다하지 않으시고 찾아주셨으니 우리나라에 이익이 있겠지요?” 맹자가 말하였다. “왕께서는 어째서 이익에 대해서만 말하십니까? 진정 중요한 것으로는 인의(仁義)가 있을 뿐입니다. 만약 한 나라의 왕이 ‘어떻게 하면 나의 나라를 이롭게 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그 아래 있는 대부는 ‘어떻게 하면 내 집안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선비와 서민들은 ‘어떻게 하면 내 한 몸을 이롭게 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됩니다. 이처럼 위아래가 앞다투어 자신의 이익을 취하려 하면 나라는 위태로워집니다.” ……

고정적인 생업[恒産(항산)]이 없으면서도 항상적인 마음[恒心(항심)]을 지니는 것은 오직 선비만 할 수 있습니다. 일반 백성의 경우에는 고정적인 생업이 없으면 그로 인해 항상적인 마음도 없어집니다. 만일 항상적인 마음이 없다면 방탕하고 편벽되고 간사하고 사치스러운 행위를 하지 않음이 없을 것입니다. 백성들이 죄에 빠지는 데 이른 이후에 그것을 좇아 형벌에 처한다면 그것은 백성들을 그물질해 잡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밝은 왕은 백성들의 생업을 제정해 주되 반드시 위로는 부모를 섬기기에 충분하게 하고 아래로는 처자를 먹여 살릴 만하게 하며, 풍년에는 언제나 배부르고 흉년에도 죽음을 면하게 합니다. 그렇게 한 후에 백성들을 선한 데로 가게 하므로 백성들이 따르기가 쉽게 됩니다. - 맹자, 『맹자』

자료 풀이 맹자는 이상적인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통치자가 백성들에게 일정한 생업을 보장해야 하며, 인(仁)과 의(義)를 추구하는 도덕적인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불교의 연기설

이것이 있기 때문에 저것이 있고, 이것이 생기기 때문에 저것이 생긴다. 이것이 없기 때문에 저것이 없고, 이것이 사라지기 때문에 저것이 사라진다. ……

무지[無知無明(무지무명)]에는 경향성[行(행)]이 의존하고, 경향성에는 의식[識(식)]이 의존하고, 의식에는 심리적·신체적 성격[名色(명색)]이 의존하고, 심리적·신체적 성격에는 여섯 문[六入(육입)]이 의존하고, 여섯 문에는 접촉[觸(촉)]이 의존하고, 접촉에는 느낌[受(수)]이 의존하고, 느낌에는 탐욕[愛(애)]이 의존하고, 탐욕에는 집착[取(취)]이 의존하고, 집착에는 되어감[有(유)]이 의존하고, 되어감에는 태어남[生(생)]이 의존하고, 태어남에는 늙음과 죽음, 슬픔, 한탄, 낙담, 애가 탐 등이 의존한다.

- 『잡아함경』

자료 풀이 석가모니는 연기를 진리의 핵심으로 보았다. 연기란 상호 의존적 발생 또는 원인과 조건에 의한 발생으로, 이 세상 모든 것은 저절로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의존적으로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불교의 팔정도(八正道)

열반은 ‘불어서 끈다’라는 의미를 지닌 니르바나(nirvana)의 음역(音譯)으로, 괴로움의 원인인 탐욕과 증오, 그리고 무지라는 번뇌의 불꽃이 꺼진 상태를 말한다. …… 열반에 이르는 길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서는 다양한 형태의 실천도가 제시되지만 …… 팔정도가 가장 일반적으로 설해지는 실천도이다. 여기서 ‘정도’, 즉 바른 도란 중도(中道)를 말한다. 중도란 서로 대립하는 양극단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거문고 줄이 느슨하면 소리가 나지 않고 팽팽하면 끊어지듯이, 열반을 얻기 위한 수행 역시 극단적인 고행이나 지나친 쾌락을 피하고 중도를 행해야 하는 것이다. 팔정도는 바로 이 같은 중도의 구체적 실현이라고 할 수 있다.

- 권오민, 『인도 철학과 불교』

자료 풀이 팔정도는 깨달음으로 이끄는 여덟 가지 수행 방법으로, 바른 견해[正見(정견)], 바른 생각[正思惟(정사유)], 바른말[正語(정어)], 바른 행동[正業(정업)], 바른 생활[正命(정명)], 바른 노력[正精進(정정진)], 바른 인식[正念(정념)], 바른 정신 집중[正定(정정)]을 말한다.

● 도가에서 말하는 도(道)의 의미

천지 만물은 모두 도에서 나왔다. 그러나 도는 만물이 생성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고 자율에 맡긴다. 만물은 고정된 현상이 아니다. 도는 만물을 낳고도 자기의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힘으로 된 것이라고 믿지도 않고, 공이 이루어져도 내 공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도는 만물을 끊임없이 생성·발전시

확인 문제

1. 공자가 주장한 이상적 인간은 어떤 모습이고, 어떤 특징을 지니고 있는지 써 보자.

| 예시 답안 | 공자가 주장한 이상적 인간은 자신을 수양하여 타인과 백성을 편안하게 해 주는 사람이자 인(仁)의 구현을 삶의 궁극적인 목표로 삼는 군자와 성인이다. 군자는 일사에서 마주하는 개인의 욕심을 극복하고 예(禮)를 회복하여 성실과 신뢰를 바탕으로 의로움을 실천할 줄 아는 사람으로, 자기 수양을 통하여 백성을 편안하게 해 주어야 한다.

2. 공자가 주장한 이상 사회는 어떤 모습인지 써 보자.

| 예시 답안 | 공자는 사회에서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구성원들이 자신의 지위와 역할에 맞는 덕으로 정명(正名)을 실현하여 모든 구성원이 도덕적 본성을 회복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대동 사회를 이상 사회로 제시하였다.

3. 불교에서 말하는 ‘연기의 깨달음’의 의미를 써 보자.

| 예시 답안 | 석가모니는 모든 존재가 여러 원인과 조건에 따라 생기고, 그 원인이 소멸하면 존재도 사라지는 것을 연기의 법칙이라고 보았다. 석가모니는 연기법의 본성을 깨닫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가 고통을 소멸하여 모든 번뇌와 속박에서 해방되는 열반을 이루어야 한다고 보았다.

4. 석가모니의 관점에서 인간의 괴로움이 발생하는 까닭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석가모니는 인간이 고정불변의 실체가 없는 무아(無我)임에도 이를 깨닫지 못한 채 변함없는 실체에 대해 잘못된 집착을 함으로써 괴로움이 발생하며, 탐욕, 분노, 어리석음과 같은 삼독(三毒)에 따라 잘못된 행동을 한다고 보았다.

5. 불교에서 열반에 이르기 위한 실천 방법으로 제시한 것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불교에서는 모든 존재가 고통을 멸하여 모든 번뇌와 속박에서 해방되는 열반에 이르기 위한 방법으로 팔정도를 제시하였다. 팔정도에는 바른 견해[정견(正見)], 바른 생각[정사유(正思惟)], 바른말[정어(正語)], 바른 행동[정업(正業)], 바른 생활[정명(正命)], 바른 노력[정정진(正精進)], 바른 인식[정념(正念)], 바른 정신 집중[정정(正定)]이 있다.

6. 노자가 말하는 ‘도(道)’의 의미와 특징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노자가 말하는 도란 우주 만물의 근원이자 생성 변화의 법칙을 의미한다. 천지 만물은 모두 도에서 나왔지

키지만 그 발전에 사로잡히지 않는다. 사로잡히지 않기 때문에 도의 활동은 자유자재이며 영원하다.

- 『도덕경』

천지자연에 몸을 맡기고 만물의 욕기에 따라 무궁한 세계에서 소요할 수 있는 사람이라야 어떤 것도 사로잡히지 않는 참다운 자유의 존재인 것이다. “지인(至人)은 자신을 고집하지 않고, 신인(神人)은 공적을 생각하지 않고, 성인(聖人)은 명성에 관심이 없다.”

- 『장자』

자료 풀이 도가에서 말하는 도는 우주의 근원이자 만물 변화의 법칙으로 ‘스스로 그러함[自然(자연)]’을 의미한다.

● 칸트의 선의지

이 세계에서 또는 이 세계 밖에서까지라도 아무런 제한 없이 선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선의지뿐이다. 지성, 기지, 판단력, 그 밖에 정신의 재능들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것들, 또는 용기, 결단성, 초지 일관성 같은 기질상의 성질들은 의심할 여지 없이 많은 관점에서 선하고 바람직스럽다. 그러나 이런 것들도 의지가 선하지 않다면 극히 악하고 해가 될 수 있다.

선의지는 그것이 생기게 하는 것이나 성취한 것으로 말미암아, 또 어떤 세워진 목적 달성에 쓸모 있음으로 말미암아 선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그 의욕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로 선한 것이다.

이성의 참다운 사명은, 가령 다른 의도에서 수단으로서가 아니라, 그 자체로 선한 의지를 낳는 것이어야 한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정초』

자료 풀이 칸트는 그 자체로 선한 선의지를 도덕적 행위의 유일한 근거로 삼았다.

● 벤담의 양적 공리주의

자연은 인류를 고통과 쾌락이라는 최고의 두 주인들이 지배하도록 하였다. 우리가 무엇을 행할까를 결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지시해 주는 것은 오직 고통과 쾌락뿐이다. ……

고통이나 쾌락을 제외하고 궁극적으로 인간이 근거로 삼아 행위를 행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쾌락의 가치의 총량과 고통의 가치의 총량을 합산하여 차감한 값이 쾌락 쪽에 기운다면 그것은 행위의 좋은 경향을 제시하는 것이다.

- 벤담, 『도덕과 입법의 원칙에 대한 서론』

자료 풀이 벤담은 쾌락을 산출하고 고통을 피하는 결과를 낳는

행위가 선이라고 보았으며,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도덕과 입법의 원리로 제시하였다.

● 밀의 질적 공리주의

어떤 종류의 쾌락이 다른 종류의 쾌락보다 더 바람직하고 더 가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은 공리의 원리와 양립할 수 있다. 다른 모든 것을 평가할 때는 양뿐만 아니라 질도 고려하면서 쾌락을 평가할 때에는 양에만 의존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

두 가지 쾌락에 대해 똑같이 잘 알고, 그 둘을 똑같이 즐기고 음미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더 높은 능력을 동원해야 하는 특정 삶의 방식을 훨씬 더 선호한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짐승이 누리는 쾌락을 마음껏 즐기게 해 준다고 해서 하급 동물이 되겠다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 밀, 『공리주의』

자료 풀이 밀은 벤담의 입장을 비판적으로 계승하면서, 쾌락의 양뿐만 아니라 질적인 차이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행위 공리주의와 규칙 공리주의

행위 공리주의는 각각의 개별적인 행위를 그들이 산출하는 쾌락과 고통의 전체 값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도덕 이론이다. 따라서 옳은 행위는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는 모든 행위 중 최대한의 유용성을 지닌 행위이다. 반면에 규칙 공리주의는 유용성 평가의 대상이 개별적인 행위들이 아니라 어떤 종류의 행위를 요구하는 규칙 또는 관행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따르면, 우리는 어떤 규칙이나 관행을 정당화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야 하는데, 그런 규칙이나 관행을 따랐을 경우 생기는 결과를 검토함으로써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 관행 또는 규칙에 일반적으로 따르는 것이 그런 관행이나 규칙이 없는 경우보다 더 큰 쾌락을 산출한다면, 또는 다른 어떤 규칙에 일반적으로 따르는 것보다 더 큰 쾌락을 산출한다면 그 관행 또는 규칙은 도덕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로버트. L. 애링턴, 『서양 윤리학사』

자료 풀이 행위 공리주의는 개별 행위의 최대 행복을 도덕적 기준으로 삼는다. 이와 달리 규칙 공리주의는 관련 규칙의 최대 행복을 도덕적 기준으로 삼는다.

● 매킨타이어의 덕 윤리

덕은 사회적 실천 혹은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는 데 유용한 성품이다. 개인은 공동체에서 덕의 실천을 통해 내재적인 선을 성취할 수 있고, 각 도덕적

확인 문제

행위가 구성하는 이야기는 인간 삶의 역사에서 일관되게 이해되며, 전통은 인간 존재를 위해 좋은 선이어야 한다는 덕의 기준에서 계승되고 수정된다.

- 매킨타이어, 『덕의 상실』

매킨타이어에 따르면, 우리는 자신이 속한 공동체(가족, 도시, 민족)로부터 다양한 빛과 유산을 물려받았고,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도덕의 바탕이다. 개인에게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이야기로 서 서사), 그리고 실천적 관행은 그의 삶이 전개되는 구체적인 공간이자 모습이다. 그러므로 행위자의 행위에 대한 도덕 판단은 공동체의 전통(미덕)과 분리될 수 없으며, 이러한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행위가 이루어지는 구체적인 맥락(관계)이나 상황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

- 문종길·김미덕, 『현대사회와 윤리 주제 탐구』

자료 풀이 매킨타이어는 공동체의 전통과 역사에 주목하여 도덕적 판단에서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사고를 강조하였다. 또한 공동체가 공유하는 덕이 개인의 행동을 지도하고 판단하는 기준이자 공동선을 위한 토대가 된다고 보았다.

● 밀의 자유에 관한 관점

유일한 자유는 우리가 타인들로부터 그들의 노력을 방해하려고 하지 않는 한 우리 자신의 이익을 우리 나름의 방식으로 추구할 자유이다. 어떤 종류의 행동이든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것은 강압적인 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사안이 심각하다면 반드시 통제해야 한다. - 밀, 『자유론』

자료 풀이 밀에 따르면, 개인의 자유는 타인의 이익과 관련되지 않는 한 사회적으로 제재를 받지 않아야 한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로운 행위가 정당한 이유 없이 타인에게 해를 끼친다면 사회적·법률적으로 처벌을 가할 수 있다.

●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비지배로서의 자유

공화주의 전통에서는 자유를 노예 상태의 반대로 규정하고, 타인의 자의적 의지에 노출되고 타인의 처분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중대한 해악으로 간주한다.

- 필립 페팃, 『신공화주의』

자료 풀이 공화주의에서 진정한 자유는 비지배로서의 자유로, 타인의 자의적인 지배가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따라서 독재나 다수의 횡포와 같이 법 위에 군림하여 간섭할 수 있는 권력은 공화주의적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만, 도는 만물이 생성하는 것을 간섭하지 않는다. 또한 도는 만물을 끊임없이 생성·변화시키지만 인간의 감각 경험을 넘어서는 것으로, 인간의 언어로 표현할 수 없고 이름 지을 수도 없다.

7. 칸트의 관점에서 '동정심을 바탕으로 타인을 돕는 행위'가 도덕적 행위가 될 수 있는지 평가해 보자.

예시 답안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 행위는 자연적 경향성에 따른 행위가 아니라 명령의 형식으로 나타나는 도덕 법칙에 따른 행동이다. 따라서 칸트의 관점에서 동정심 때문에 타인을 돕는 행위는 도덕적 행위라고 볼 수 없다.

8. 칸트와 벤담이 제시한 옳고 그름의 기준을 비교하여 써 보자.

예시 답안 칸트는 옳고 그름의 기준을 행위의 결과가 아닌 동기에서 찾았다. 칸트에 따르면, 도덕적 행동은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 의식과 도덕 법칙에 따라 행위하고자 하는 선의지에서 비롯된다. 이와 달리 벤담은 옳고 그름의 기준을 행위의 결과, 즉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극대화하는 것으로 보았다. 벤담에 따르면, 도덕적 행동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증진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행동이다.

9. 벤담과 밀의 사상에서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 보자.

예시 답안 벤담과 밀은 최대 행복의 원리를 옳고 그름의 기준으로 삼는 공리주의 사상가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벤담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부정하고 쾌락의 양적인 측면만을 강조하였던 양적 공리주의자인 데 반해, 밀은 쾌락의 질적 차이를 인정하면서 질적으로 높은 쾌락은 낮은 쾌락보다 양과 무관하게 더 가치가 있다고 주장하였던 질적 공리주의자라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10. 매킨타이어가 주장한 '덕'의 의미를 써 보자.

예시 답안 매킨타이어는 덕이란 사회적 실천 혹은 관행에 내재한 선을 성취하는 데 유용한 성품이며, 이러한 덕의 실천을 통해 내재적인 선을 성취할 수 있다고 보았다.

11. 소극적 자유와 비지배로서의 자유의 차이를 써 보자.

예시 답안 자유주의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소극적 자유이다. 소극적 자유는 개인의 사적 삶에 대한 외부 간섭의 범위를 제한하는 간섭의 부재를 의미한다. 이와 달리 공화주의에서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비지배로서의 자유이다. 비지배로서의 자유란 타인의 자의적 지배가 없는 상태로, 시민의 참여로 만든 법에 복종함으로써 실현 가능하다.

3

출생과 죽음의 의미와 생명과 관련된 윤리적 쟁점

원전 자료

● 공자의 죽음관

계로가 귀신을 섬기는 일에 대하여 여쭙자, 공자께서 말씀하셨다. “사람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섬길 수 있겠느냐?”, “감히 죽음에 대하여 여쭙겠습니다.” 공자께서 대답하셨다. “삶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데 어찌 죽음을 알겠느냐?” - 『논어』

자료 풀이 공자는 죽음 이후보다 현실의 삶에 초점을 맞추어야 함을 강조하면서 도덕적 가치를 확립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장자의 죽음관

진인(真人)은 삶에 집착하지 않고 죽음을 기피하지 않았다. 세상에 태어났음을 기뻐하지 않고, 세상을 떠난다고 슬퍼하지 않았다. 무심히 왔다가 무심히 갈 뿐이었다. 자신을 자연 현상의 하나로 보고 죽음에 개의치 않았다. 주어진 삶을 즐기다가 죽을 때가 되면 일체를 망각하고 자연으로 되돌아갔다. 마음으로 도(道)를 해치지 않고 인위로 자연을 돕지 않았으니, 진인이란 바로 이 같은 존재였다. - 『장자』

자료 풀이 장자는 인간이 태어나고 죽는 것은 자연의 섭리일 뿐이라고 보고, 삶과 죽음을 차별하지 않는 삶의 태도를 강조하였다.

● 불교의 생명관과 죽음관

불교에 따르면, 생성 소멸하는 모든 생명체는 동일한 근원을 가지고 있으며 동일한 것에서 출발한다. 그러므로 모든 생명체는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인연의 순환 체계로 연결되어 있다. 불교에서 지상 생명의 더 높은 선업의 결과로 부처를 이룰 수 있다는 사상은 이 세상에서 이루어야 할 인간 생명의 역할을 내포한다.

불교는 생명이 소멸되는 죽음에 대한 이해를 고(苦)로 보는 일체개고(一切皆苦)로부터 시작한다. 그리고 생을 구성하고 해결하는 모든 정신적·육체적 요소를 사성제(四聖諦)로 설명한다.

- 홍준표, 「한국 사회의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 및 연명 의료 계획서 적용에 관한 윤리 신학적 고찰」

불교에서는 인생이 시간적으로 과거, 현재, 미래에 걸쳐서 윤회하며, 공간적으로 지옥, 축생, 신의 모습으로 생명을 바꾸어 윤회한다고 설명한다. 계절이 춘하추동으로 바뀌고 겨울이 지나 봄이 오면 새롭게 꽃이 피듯이, 그렇게 윤회를 거듭한다는 것은 불교의 독특한 내세관이다. 그리고 이러한 윤회는 고통

의 수레바퀴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벗어나 해탈할 것을 강조한다.

- 대한 불교 조계종 포교원, 『불교 개론』

자료 풀이 불교에 따르면, 인간은 연기의 법칙을 깨닫고 윤회의 고통에서 벗어나야 한다.

● 플라톤의 죽음관

죽음에 관한 플라톤의 생각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에 대한 입장과 같다. 소크라테스는 “영혼은 신적인 것을 가장 닮고 영원불멸하며, 예지적이며 분해되지 않고 불변하는 것이지만, 육체는 사멸할 인간을 닮아 분해되고 변화하며 가변적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에 따르면, 영혼은 죽음이 오면 ‘순수하고 영원한 곳, 선하고 지혜로운 신이 계신 곳’으로 간다.

- 문종길, 『생활과 윤리』

자료 풀이 플라톤은 삶과 죽음을 영혼과 육체의 결합과 분리로 정의하였다. 그는 죽음을 통해 영혼이 육체에서 벗어나서 이데아의 세계로 들어가 자유를 얻는다고 보았다.

● 아퀴나스의 자살 반대론

자연법론적 관점을 운용했던 아퀴나스는 자살이 성서적 원칙에서 벗어나고 자연적 본성에도 위배되는 죄라고 보았다. 아퀴나스는 자살이란 ‘살인하지 말라.’라는 성서의 계명을 위배하는 행위이므로 하나님의 선물인 생명을 거부하는 죄라고 규정하였다.

- 박충구, 「자살에 대한 인식의 변화」

자료 풀이 전통적 의미에서 자살은 자기 살해의 성격이 짙지만 근래에는 자유 죽음의 의미를 지니기도 한다. 그러나 인류 사회가 생명 존중의 가치를 지켜 온 맥락에서 본다면 어떤 유형의 자살이라도 쉽게 받아들이고 허용할 수는 없다.

● 에피쿠로스의 죽음관

“우리가 죽음에 대항해 효과적으로 자신을 보호할 수 없지만,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

죽음의 공포가 근거 없는 것이라는 에피쿠로스의 논증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죽음이 우리의 의식을 앗아가기 때문에 죽음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니며 우리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다. 우리가 의식을 가지고 있는 한 죽음은 없다. 죽음이 오면 우리에게 아무런 의식이 없다. 그리하여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 할 필요가 없다. 결국 삶을 준비하는 것과 죽음을 준비하는 것은 동일하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한다. 죽음이 우리와 상관 있는 그 어떤 것이 전혀 아

남을 믿는 데 익숙해지도록 노력하라.”라고 에피쿠로스는 권한다.

— 구인회, 『죽음에 관한 철학적 고찰』

자료 풀이 에피쿠로스는 인간을 원자로 구성된 물리적 대상으로 보고, 죽음이란 인간의 영혼을 이루는 원자들이 흩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또한 죽음에 이르면 인간은 감각이 소멸하여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없게 된다고 주장하였다.

● 안락사의 의미와 구분

안락사는 영어로 ‘euthanasia’라고 하는데, ‘좋은’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eu’와 ‘죽음’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thanatos’가 합쳐진 말이다. 글자 그대로 안락사는 좋은 죽음, 또는 편안한 죽음을 의미한다.

적극적 안락사는 의사가 환자의 죽음을 처음부터 의도하고 직접적으로 죽음을 유발하는 안락사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환자에게 독극물을 투여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소극적 안락사는 죽음을 앞둔 환자의 병이 진행되는 것을 막는 의학적 조치를 취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를 죽음에 이르도록 내버려두는 것을 의미한다. 투약하지 않거나 생명 유지 장치를 더 이상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환자를 자연스러운 죽음에 내맡기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 박찬구 외, 『청소년을 위한 생활과 윤리』

자료 풀이 안락사는 치유할 수 없는 질병으로 인해 죽음을 앞둔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그를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 생물학적 조작에 대한 요나스의 입장

생물학적 조작의 전 영역과 관련하여 이제 내가 가장 엄격한 도덕적인 논거를 통해 내린 결론은 타인에 대한 모든 무책임한 행위는 부당하다는 것이다. 유전적 결함의 예방이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서 인간에 대한 모든 생물학적 조작의 윤리적 딜레마는 우리의 후손이 자신을 산출한 자를 찾아내어 잘못을 따질 수 없고, 후손에게 대답하고 사죄할 어떤 사람도 존재하지 않으며, 어떤 수단을 통해서도 결과를 돌이킬 수 없다는 사실에 있다. 점점 커지는 생물학적 기술의 권력을 인간에게 사용하는 것은 대단히 조심스럽게 이루어져야 한다. 불행의 예방만을 허용하고 새로운 종류의 행복을 위한 어떤 시도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 — 요나스, 『기술 의학 윤리』

자료 풀이 요나스는 인간에게 적용되는 생물학적 기술은 불행을 예방하는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확인 문제

1. 유교에서 죽음에 대한 예(禮)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일지 써 보자.

| 예시 답안 | 유교에서는 삶이란 사람의 시작이고 죽음은 사람의 끝이므로 시작과 끝을 신중하게 잘 대해야 인간의 도리를 완성할 수 있다고 본다. 공자는 『논어』에서 “살아 계실 때는 예로 섬기고, 돌아가시면 예로 장례 지내며 예로 제사를 드린다.”라는 구절을 통해 돌아가신 이후에도 효(孝)를 실천할 것을 강조하였다.

2. 공자와 장자가 주장한 죽음을 대하는 올바른 태도를 비교하여 써 보자.

| 예시 답안 | 공자와 장자는 모두 죽음이 자연스러운 과정임을 인정한다. 하지만 공자는 죽음으로 인한 애도를 인간의 자연스러운 반응으로 보았던 반면, 장자는 죽음을 사계절의 변화와 같은 자연의 변화로 보았기 때문에 죽음에 대해 애도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3. 에피쿠로스가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한 까닭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에피쿠로스는 인간이 죽음에 이르면 감각이 소멸하여 쾌락과 고통을 느낄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죽은 후에 고통을 느끼지 못한다면 죽음이 우리에게 어떠한 해를 입히는 것이 아니므로 죽음에 대해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보았다.

4. ‘회생 불가능한 질병에 걸린 의식 없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하기 위해 안락사에 동의해야 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해 공리주의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지 써 보자.

| 예시 답안 | 공리주의는 고통을 줄이고 행복을 증대하는 것을 강조한다. 따라서 공리주의자는 안락사를 통해 회생 불가능한 질병에 걸린 의식 없는 환자의 고통을 제거할 수 있다면, 안락사에 동의해야 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5. 생물학적 기술을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윤리 원칙으로 요나스가 강조한 것은 무엇인지 써 보자.

| 예시 답안 | 요나스는 책임 윤리를 주장한 사상가이다. 요나스는 자연뿐만 아니라 인간의 본성까지도 바꿀 만큼 거대한 생물학적 기술이 인류에게 새로운 위험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현세대는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미래 세대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사랑과 성의 의미와 가족 윤리

원전 자료

● 성(性)의 의미

성 문제는 적어도 세 가지 의미로 구분된다. 첫 번째는 생물학적 성(sex)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 문제는 신체의 생리적 구조나 메커니즘을 다루는 의학의 관심사이다. 두 번째는 문화적 성(gender)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때 '성 문제'라는 것은 생물학적으로 남성과 여성으로 분류되는 인간 집단 각각에 사회적으로 부여된 것으로 간주되는 성 역할, 성 각본과 관련된 문제이다. 여기서 말하는 성, 즉 젠더(gender)는 사람들의 모든 범위의 활동과 심리에 대해 남녀가 각기 달리 갖는 것으로 간주되는 특징을 말하기 때문에 성욕, 성행위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물론 성행위와 성욕도 인간의 활동 범위에 포함되기 때문에 성행위와 성욕에 관련한 젠더 문제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젠더 문제는 직업, 교육, 취향, 성격 등 인간의 모든 범위의 활동과 심리 문제를 포함한다. 세 번째는 성욕, 성행위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것을 섹슈얼리티(sexuality)의 문제라고 한다. 성 윤리의 관심사는 일차적으로 세 번째 의미의 성 문제이다. 하지만 성욕, 성행위에 있어서 남녀에게 사회적으로 부여된 성 역할, 성 각본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두 번째 의미의 성 문제, 즉 젠더 문제도 성 윤리의 관심사가 될 수 있다. 성 문제의 의미를 이렇게 명확히 밝혀야만 우리는 성 윤리가 다루어야 할 문제를 식별할 수 있다.

-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처음 읽는 윤리학』

자료 풀이 생물학적 성(sex)은 생물학적 신체 구조와 기능에 의해 결정되는 성이고, 사회·문화적 성(gender)은 '남성다움'과 '여성다움' 같은 사회적·문화적·심리적 요소에 따라 구별되는 성이다. 욕망으로서의 성(sexuality)은 성적 관심이나 성적 활동 등 성적 욕망과 관련된 모든 것을 포괄하는 성을 의미한다.

● 프롬의 『사랑의 기술』

사랑은 수동적 감정이 아니라 활동이다. 사랑은 '참여하는 것'이지 '빠지는 것'이 아니다.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사랑의 능동적 성격을 말하자면 사랑은 본래 주는 것이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할 수 있다. 주는 것은 잠재적 능력의 최고 표현이다. 준다고 하는 행위 자체에서 나는 나의 힘, 나의 부, 나의 능력을 경험한다. 주는 것은 박탈당하는 것이 아니며 준다고 하는 행위에는 나의 활동성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주는 것은 받는 것보다 더 즐겁다. 순수한 사랑은 생산성의 표현이고, 보호, 존경, 책임, 이해를 의미한다.

본래 사랑은 특정한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다. 사랑은 한 사람과, 사랑의 한 대상과의 관계가 아니라 세계 전체와의 관계를 결정하는 태도, 곧 성격의 방향이다. 어떤 사람이 다른 한 사람만을 사랑하고 나머지 동포에게 무관심하다면, 그의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확대된 이기주의이다.

- 프롬, 『사랑의 기술』

자료 풀이 프롬은 사랑이 서로를 인격적 존재로 바라보게 한다고 보았으며, 사랑을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으로 보았다. 또한 사랑하는 상대방을 존중의 대상으로 삼고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동감을 고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칸트의 성(性)에 관한 입장

자연적 성 공동체는 순전한 동물적 자연 본성에 따른 것이거나 법칙에 따른 것이다. 후자는 혼인, 다시 말해 서로 다른 성의 두 인격이 그들의 성적 속성을 평생토록 교호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결합이다. 자식을 산출하고 교육하는 목적은 언제나 자연의 한 목적일 수 있으니, 이를 위해 자연은 이성에 대한 성들의 경향성을 심어 주었다.

만약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들의 성의 속성들을 교호적으로 향유하고자 한다면 그들은 반드시 혼인해야만 하며, 이것은 순수 이성의 법칙들에 따라서 필연적이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자료 풀이 칸트는 일부일처의 혼인을 통한 성적 관계만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남자와 여자가 서로 그들의 성의 속성을 교호적으로 향유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혼인해야 한다고 보았다.

● 아퀴나스의 성에 관한 입장

아퀴나스는 여성을 '불완전한 남자', '우연적 존재', '남성에게 복종하도록 창조된 존재'로 보았기 때문에 여성은 자녀들을 가르치는 데 필요한 지식과 지혜만 쌓으면 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여성에 관한 이와 같은 보수주의적 관점은 성에 관한 주제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그는 임신 과정에서 남성만이 능동적인 작용을 한다고 생각하였다. 왜냐하면 정자-배아-태아-유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인간이 성장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는 배아를 유아와 같은 개별적 인간으로 보아, 임신하기에 부적절한 상황에서 정액을 방출하는

자위행위에 대해 유아를 방치하는 행위와 같다고 보고 비판하였다. 또한 그는 낙태는 살인죄에 해당하기 때문에 임신한 여성을 때리는 사람은 살인죄를 면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문종길, 『생활과 윤리』

자료 풀이 아퀴나스는 도덕적 성의 기준으로 결혼과 출산을 제시하면서, 자위행위와 낙태 행위에 대해 엄격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였다.

● **밀의 『여성의 종속』**

대개 사람들은 자연이 두려워 자연이 하는 일을 가로막으려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불필요하고 쓸모 없는 일이다. 따라서 여성이 태어날 때부터 할 수 없는 일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하지 못하게 막는 것이야말로 가장 불필요한 것이다. 남성과 여성 사이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모든 정신적 차이는 교육과 환경에서 비롯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주장은 물론, 남녀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한다는 생각도 근거가 없는 것이다. 여성이 원하는 직업을 선택할 수 있는 평등한 도덕적 권리를 부인하는 것은 여성뿐만 아니라 그들이 능력을 발휘했을 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피해를 주는 것이므로 옳지 않다.

- 밀, 『여성의 종속』

자료 풀이 밀은 남녀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금지하는 것을 이치에 맞지 않는 폭력을 행사하는 것이자 사회 전체에 크나큰 손실을 끼치는 것으로 보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자신의 책임 아래 자신이 원하는 삶을 계획하고 살아가며, 직업을 선택하는 것은 평등한 도덕적 권리라고 주장하였다.

● **효(孝)의 의미**

무릇 효는 모든 덕의 뿌리이며, 교화의 출발이다. 우리의 몸뚱이와 사지, 머리털과 살갓은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것이니 그것들을 감히 손상시키지 않는 것이 효의 시작이요, 자신을 닦아 도를 실천해서 아름다운 이름을 후세에 남기고, 그럼으로써 부모의 이름을 드러나게 하는 것이 효의 완성이다. 즉 효는 부모를 잘 섬기는 데에서부터 출발해서 임금을 제대로 보필하는 데로 나아가야 하지만 그 모든 일은 자신의 인격적 완성이라는 목표로 수렴되어야 한다.

- 박연호, 『『효경』이 들려주는 효 이야기』

자료 풀이 율곡은 『효경』의 첫 머리 '개종명의'의 일부이다. 효경에서는 불감해상(不敢毀傷)이 효의 시작이요, 입신양명(立身揚名)이 효의 완성이라고 보았다.

확인 문제

1. 프롬이 제시한 사랑의 요소 네 가지와 그 의미를 써 보자.

| 예시 답안 | 프롬은 진정한 사랑의 요소로 보호, 존경, 책임, 이해(지식)를 제시하였다. 보호란 사랑하는 사람의 생명과 성장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의미한다. 존경이란 다른 사람의 성장과 발달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것이다. 책임이란 사랑하는 사람의 요구에 대한 나의 반응이다. 이해(지식)란 나 자신에 대한 관심을 초월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그의 관점에서 보는 것이다.

2. 칸트가 말하는 '훈인의 의미와 부부 간에 지켜야 할 윤리적 태도'는 무엇인지 써 보자.

| 예시 답안 | 칸트에 따르면, 훈인은 서로 다른 성의 두 인격이 그들의 성적 속성을 평생토록 교호적으로 점유하기 위한 결합이다. 칸트는 보수주의적 관점에서 성적 향락에 대한 충동은 조절과 절제의 대상이며, 종의 보존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성의 사용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았다. 또한 부부는 서로를 인격체이자 윤리적 존경의 대상으로 대우해야 한다고 보았다.

3. 보수주의 성 윤리에서 설명하는 성의 진정한 가치에 대해 써 보자.

| 예시 답안 | 보수주의 성 윤리에 따르면, 성의 자연적 목적은 출산이며, 출산에 이바지하는 것만이 성의 진정한 가치이다. 따라서 이 관점은 출산과 양육에 책임질 수 있는 성만이 도덕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한다.

4.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와 문화가 지닌 윤리적 문제에 대한 밀의 지적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밀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열등하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남녀 간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비판하면서, 여성에게도 남성과 동등한 교육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또한 여성을 차별하는 제도와 문화는 동등한 기회와 평등을 부정하는 것이자 사회에 손실을 끼치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

5. 『효경』에서 설명하는 '효의 시작과 완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써 보자.

| 예시 답안 | 『효경』에서는 '몸, 터럭, 피부는 모두 부모에게서 물려받았으므로 자식이 함부로 다치거나 상처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효의 시작으로 보았다. 또한 '자신을 닦아 도리를 실천함으로써 후세에 이름을 떨쳐 부모를 명예롭게 만드는 것'을 효의 완성으로 보았다.

5

인간과 자연의 관계

원전 자료

● 데카르트의 자연관

데카르트는 세계를 물질과 정신이라는 이원론적 방식으로 이해하였다. 인간 정신은 사물을 관찰하고 사고하는 주체이기 때문에 물질 세계인 자연에 대한 인간 정신의 우위성과 자연 지배의 정당화가 생겨나게 되었다.

— 조용훈, 「동서양의 자연관에 대한 환경 윤리적 비교 연구」

자료 풀이 데카르트는 이성을 지닌 인간을 제외한 모든 자연물은 정교하게 설계된 기계와 같다고 보았다.

● 베이컨의 정복 지향적 자연관

인간은 자연의 사용자이자 해석자로서 자연의 질서에 대해 실제로 관찰하고 고찰할 것만큼 무엇인가를 하거나 이해할 수 있다. 인간의 지식이 곧 인간의 힘이다.

— 베이컨, 『신기관』

자료 풀이 베이컨은 자연을 인류 복지를 위한 수단으로 규정하고, 자연에 관한 지식의 활용을 중시하였다.

● 칸트의 인간중심주의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일부 피조물과 관련하여 동물을 폭력적으로, 동시에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와 내면에서 더욱더 배치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로 인해 동물의 고통에 대한 공감감이 인간 안에서 둔화되고, 타인과의 관계에서의 도덕성에 매우 이로운 자연적 소질이 약화되어 절멸할 것이기 때문이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자료 풀이 칸트는 무생물인 광물이나 생명이 있는 동식물을 함부로 다루는 것에 대해 반대하였다. 하지만 그 이유는 그것들이 그 자체로 도덕적으로 존중받을 만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을 함부로 다루는 행위가 인간성을 해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 패스모어의 온건한 인간중심주의

기독교이건 공리주의이건 간에 전통적인 서양의 가르침은 타인에게 해를 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쓰레기를 바다에 버리는 것, 생태계를 파괴하는 것, 자식을 많이 출산하는 것, 자원을 소모하는 것 모두 미래 또는 현재의 이웃에게 손해를 입히는 일이다. 이러한 정도에서 전통적인 도덕은 다른 것에 의해

보충할 필요 없이 우리의 생태적 관심을 정당화하는데 충분하다.

— 데자르뎡, 『환경 윤리』

자료 풀이 패스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윤리를 보다 잘 준수함으로써 환경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패스모어에 따르면, 현재의 생태 위기의 주범은 인간의 탐욕과 단견이며, 생태 위기는 사려 깊은 행위를 통해 극복할 수 있다.

● 싱어의 동물중심주의

도덕적 고려의 대상을 확장하려는 인간의 노력은 역사적으로 계속되었으며, 인간이 인간에게 사용하는 폭력의 감소는 약자의 상황을 개선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제 동물들에게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이와 같은 방향을 걸어온 인간성은 더욱 발전할 것이다. 양자택일의 극단적 상황에서의 정당방위가 아닌 한, 인간이 동물에게 폭력을 행사해야 할 어떤 이유도 없다.

나는 절대주의자가 아니라 공리주의자이기 때문에 모든 결정의 도덕적 선택은 그 결과와 가치에 따라 달라진다고 본다. 인간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동물의 이용이라면, 나는 이 경우 동물의 이용이나 실험 및 연구를 무조건 금지하자고 말하지 않는다. 연구의 목표가 중대한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약의 개발임을 전제로, 연구의 전 과정에서 동물의 고통을 최소화하려는 모든 노력을 기울인다면 동물의 이용은 정당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동물을 이용하는 모든 연구가 부도덕한 것은 아니다.

만일 한 존재가 고통을 받는다면, 그러한 고통을 고려하지 말아야 할 도덕적 이유가 있을 수 없다. 평등의 원칙은 그 존재의 고통을 다른 존재들의 비슷한 고통과 동등한 것으로 볼 것을 요구한다. 만약 한 존재가 고통, 행복, 즐거움을 겪을 수 없다면, 고려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러한 것이 타자의 이익을 고려할 때 감각이라는 경계선이 유일한 옹호 가능한 경계선이 되는 까닭이다. 지능이나 합리성을 선택한다면 피부색과 같은 다른 특징을 선택하지 않을 이유는 어디에 있겠는가?

— 싱어, 『실천윤리학』

자료 풀이 싱어는 쾌고 감수 능력을 지닌 동물은 이익 관심을 지니며, 모든 이익 관심을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싱어는 우리가 인간 종(種)의 이익을 다른 종에 속한 동물의 이익보다 우선하여 옹호하려는 종 차별주의도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레건의 동물중심주의

‘삶의 주체’라는 것은 단지 살아 있다는 것, 또는 단지 의식을 갖고 있다는 것 이상을 의미한다. 만약 개체들이 신념과 욕구를 지닌다면 그 개체들은 삶의 주체이다. 삶의 주체가 된다는 것은 믿음, 욕구, 지각, 기억, 자신의 미래를 포함해 미래에 대한 의식, 쾌락과 고통 등의 감정을 느낄 수 있다는 것, 즉 선호와 복지에 대한 이익 관심, 자기의 욕구와 목표를 위해 행위할 수 있는 능력, 순간순간의 시간을 넘어서 자신의 정체성을 느낄 수 있고, 타자와는 별개로 자신의 삶이 좋을 수도 나쁠 수도 있다는 의미에서 자신의 복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에 대한 유용성과는 논리적·독립적으로 구분되는, 자신의 삶에 대해 자신만의 유용성을 지닌다면, 이들 개체는 삶의 주체이다. 삶의 주체인 개체들은 그들 스스로 내재적 가치를 지닌다.

— 데자르땡, 『환경 윤리』

자료 풀이 레건은 의무론의 입장에서 동물을 단지 사람들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였다.

●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

우리는 유기체가 자신을 보존하고 자신만의 독특한 방식으로 고유의 선을 실현하려고 애쓰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고 생각한다.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라는 것은 외적 활동만이 아니라 내적 기능도 모두 목표 지향적이고, 시간이 지나도 유기체의 존재를 유지하며 같은 종을 재생산하고 변화하는 환경 조건과 사건에 끊임없이 적응하는 생물적 기능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유기체를 하나의 목적론적 활동의 중심으로 만드는 것은 이런 기능의 일관성과 통일성이며, 그 기능은 모두 유기체의 선의 실현을 지향한다.

의식이 있든 없든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존재를 지키고 유지하는 지속적인 경향이 있으며 목표 지향적으로 활동하는, 통일되고 일관성 있으며 질서 정연한 시스템이라는 의미에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다
.....

우리는 지구 생명 공동체들의 구성원들인 야생의 동식물에게 빛을 지고 있다는 점에서 조건부 의무를 지닌다. 우리는 그들 자신을 위해 그들의 선을 보호하고 증진해야 한다. 인간의 복지는 물론, 그들의 복지는 그 자체로서 목적을 지닌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현해야 하는 것이다.

확인 문제

1. 인간중심주의와 동물중심주의의 차이점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인간중심주의는 이성을 지닌 인간만이 도덕적으로 가치 있는 존재라고 보고,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는 도구로서의 가치를 지닌다고 규정한다. 이와 달리 동물중심주의는 인간뿐만 아니라 동물도 도덕적 지위를 지닌다고 보고, 동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2. 칸트가 동물 학대에 대해 어떻게 바라볼지 써 보자.

| 예시 답안 | 칸트는 이성을 지닌 존재만이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있고, 이성을 결여한 동물은 도덕적 주체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하지만 그는 이성은 없지만 생명이 있는 동물을 잔학하게 다루는 것은 인간의 자기 자신에 대한 의무에 어긋난다고 주장하며 동물 학대를 반대할 것이다. 왜냐하면 동물을 무자비하게 다루는 성향은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3. ‘우리가 속한 인간 종의 이익을 다른 종에 속한 동물의 이익보다 우선해도 되는가?’에 대한 싱어의 입장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근거하여 동물의 이익을 인간의 이익과 마찬가지로 평등하게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종 차별주의가 부당하듯, 인간 종의 이익을 다른 종에 속한 동물의 이익보다 우선하는 태도인 종 차별주의도 부당한 것이므로 배척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4. 싱어와 레건의 사상이 현대의 환경 문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써 보자.

| 예시 답안 | 싱어와 레건은 모두 동물도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여겨야 한다고 보면서 인간중심주의를 비판하였다. 특히 동물의 고통을 야기하는 기업형 가축 농장의 운영, 동물에게 과도한 고통을 초래하는 동물 실험의 부당한 관행에 대해 비판함으로써 동물을 도덕적으로 고려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는 점이 그들이 현대의 환경 문제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이다.

5. 테일러가 주장한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 무엇인지 써 보자.

| 예시 답안 |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가 저마다 고유한 목적을 지향하는 활동을 한다는 점에서 개별 유기체를 목적론적 삶의 중심으로 규정하였다. 테일러는 모든 생명체를 ‘생존,

모든 유기체, 종을 이루고 있는 개체, 그리고 생명 공동체는 도덕 행위자가 의식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통해 이와 같은 존재들에게 해를 입히거나 선을 증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자신의 선을 지닌다. 따라서 어떤 것이 개체인 어떤 존재에게 좋다는 말은 그것이 개체인 어떤 존재의 생명과 복지를 보전하고 강화시켜준다는 점에서 선을 행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 테일러, 『자연에 대한 존중』

자료 풀이 테일러는 생명을 가치 판단의 원리로 삼고, 생명 중심적 관점에서 모든 생명이 도덕 행위자는 아니지만 인간에게 도덕적 고려의 대상이 된다고 보았다. 그는 생명이 있는 모든 유기체는 자신의 생물학적 힘에 의해 자신을 충분히 발전시키고 전개하려는 존재라는 점에서 모두 자신의 선을 가진다고 보았다.

● 슈바이처의 생명 외경 사상

생명중심주의는 모든 살아 있는 생명은 그 자체로 고유한 가치를 지닌다고 본다. 생명중심주의의 전형을 보여 준 사람은 슈바이처이다. 슈바이처는 ‘나는 살려고 애쓰는 생명체들 속에서 살려고 애쓰는 생명체’라는 사실을 자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면서, 윤리란 바로 여기서 출발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그에게 있어서 생명은 단순히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며, 그 자체로 선이자 무조건 존중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다. - 박찬구, 『우리들의 응용 윤리학』

자료 풀이 슈바이처는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가 고유한 가치를 지니며, 생명은 그 자체로서 신성하다고 보아 ‘생명에의 외경’을 주장하였다. 그는 생명을 고양하는 것을 선으로, 생명을 억압하는 것을 악으로 보았다.

● 레오폴드의 대지 피라미드

오직 경제적 이익에만 바탕을 둔 보전 체계는 한쪽으로 치우쳐 있다. 그것은 상업적 가치는 없을지라도 대지 공동체의 건강한 기능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많은 요소를 무시하고 결국에는 멸절시켜 버리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대지 윤리는 생태학적 도덕 의식의 존재를 반영하며, 생태학적 도덕 의식은 대지의 건강을 지키려는 개인의 책임에 대한 확신을 반영한다. 그리고 건강은 대지의 자기 회복 능력을 말하고, 보전이란 이 능력을 이해하고 유지하려는 우리의 노력을 말한다. ……

바람직한 대지 이용을 오직 경제적 문제로만 생각하지 말라. 낱알의 물음을 경제적으로 무엇이 유리한가의 관점뿐만 아니라 윤리적·심미적으로 무엇이 옳은가의 관점에서도 검토하라. 생명 공동체의 통합

성과 안정성 그리고 아름다움의 보전에 이바지한다면 그것은 옳다. 그렇지 않다면 그르다. ……

대지에 대한 윤리적 관계는 대지에 대한 사랑과 존중, 그리고 흥미가 없다면, 그리고 대지의 가치에 대한 깊은 이해가 없다면 형성될 수 없다. 이 가치란 단순한 경제적 가치를 넘어선 다른 어떤 가치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철학적 의미에서의 가치이다. ……

대지는 단지 흙이 아니다. 대지는 토양, 식물 및 동물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가 솟아나는 샘이다. 먹이 사슬은 에너지를 상방으로 전달하는 살아 있는 통로이다. 죽음과 부패는 에너지를 토양을 돌려보낸다. 이 회로는 폐쇄되어 있지 않다. 일부 에너지는 부패 과정에서 흩어져 사라지고, 일부는 공기로부터 취해져 더해지며, 일부는 토양과 토탄 그리고 오랜 세월 동안 존속하는 숲 등에 저장된다. 그러나 이것은 천천히 증식하는 생명의 순환 기금과 같은 간단없는 회로이다.

대지 윤리는 단순히 이 공동체의 범위를 토양, 물, 식물과 동물, 곤 포괄하여 대지를 포함하도록 확장하는 것이다. …… 간단히 말해서 대지 윤리는 인류의 역할을 대지 공동체의 정복자에서 그것의 평범한 구성원이자 시민으로 변화시킨다. 대지 윤리는 인류의 동료 구성원에 대한 존중, 그리고 공동체 자체에 대한 존중을 필연적으로 수반한다.

- 레오폴드, 『모래 군의 열두 달』

자료 풀이 레오폴드는 개체주의적 접근을 비판하면서 생태계와 같은 전체론적 관점에서 환경 문제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레오폴드에 따르면, 대지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토양, 식물, 동물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의 근원이다. 그는 무생물을 포함한 생태계 전체로 도덕적 배려의 대상을 확장하였으며, 인간이 생명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을 자원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되, 그 자체의 안정과 질서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네스의 심층 생태주의

네스의 핵심 주장은 ‘생명 평등주의’와 ‘큰 자아실현’이다. ‘생태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자기를 실현할 평등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생명 평등주의의 실천은 큰 자아실현이라는 윤리적 강령을 통해 가능하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이는 ‘모든 생명은 근본적으로 하나이다.’라는 깨달음의 표현이다.

- 박찬구, 『우리들의 응용 윤리학』

자료 풀이 네스는 오늘날의 환경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편

협한 자기 범위를 초월하여 자아의 더 큰 성숙을 위해 인간을 넘어 자연과의 일체화를 추구하는 큰 자아실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네스의 심층 생태주의의 강령**

심층 생태주의자들은 현재의 위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적·사회적 관행을 바꾸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세계관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네스와 세션즈는 다음 8개의 원리로 구성된 강령을 발표하였다.

- ① 인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번성은 본질적 가치를 지닌다. 생명체의 가치는 협의의 인간의 목적에서 나오는 유용성과 무관하다.
- ② 생명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은 그 자체로 가치 있고, 인간과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체의 삶이 번성하는 데 이바지한다.
- ③ 인간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본질적 필요를 충족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생명의 풍요로움과 다양성을 축소할 권리가 없다.
- ④ 인간의 삶과 문화의 번성은 인간의 근본적인 축소가 있어야 가능하다. 자연계의 번영도 인구 축소를 필요로 한다.
- ⑤ 현재 자연계에 대한 인간의 간섭은 과도하며, 상황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 ⑥ 더 나은 삶의 조건의 중요한 변화는 정치적 변혁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정치적 변혁을 통해 기본적인 경제적·기술적 이데올로기의 구조를 변화할 수 있다.
- ⑦ 이데올로기의 변화는 생활 수준의 향상에 집착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질의 의미를 인식하는 것이다. 큰 것과 위대한 것에 대한 심대한 자각이 있어야 한다.
- ⑧ 이 점을 인식하는 사람들은 필요한 변화를 위해 각자에게 요구되는 행동을 할 의무가 있다.

- 데자르뎡, 『환경 윤리』

자료 풀이 네스의 심층 생태주의는 환경 안에 있는 인간이라는 관점을 거부하고 전체주의적이고 탈인간중심적인 접근에 동조하여 '관계적이고 전체 장(場)적'인 관점을 취한다. 심층 생태학은 자연에 대한 지배보다는 자연과의 조화를, 자연의 도구적 가치보다는 고유의 가치를, 증가하는 인구를 위한 물질적·경제적 성장보다는 자아실현이라는 보다 큰 목표에 적합한 육구의 간소화를 추구한다. 그리고 자원이 무한하다는 관점보다는 자원의 유한성에 대한 인식, 기술 진보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보다는 적정 기술의 중시를, 소비주의보다는 적당한 것으로 끝내는 것을 강조한다.

확인 문제

성장, 번식, 발전'이라는 목적을 지향하며, 각자 고유한 방식으로 이러한 선을 추구한다는 점에서 내재적 존엄성을 지닌 존재로 바라보았다. 그렇기에 생명을 지닌 모든 존재를 도덕적 고려의 대상으로 규정하였다.

6. 슈바이처와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가 지닌 장점과 한계점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슈바이처와 테일러는 모두 생명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성품과 태도를 강조하고, 생명을 존중하는 자세를 중시한 생명중심주의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이러한 태도는 생명을 도구적으로 바라봄으로써 발생하는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단초가 된다. 그러나 생명에 대한 불간섭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생명을 지닌 개체에 대한 접근으로 한정되어 생태계 전반으로 확대된 환경 문제를 극복하는 데 있어 한계가 있다.

7. 인간중심주의와 생태중심주의에서 인간을 규정하는 방식을 비교하여 써 보자.

| 예시 답안 | 인간중심주의에서는 인간 이외의 모든 존재를 도구적 가치를 지닌 존재로 보며, 인간이 자연을 규정하고 사용할 수 있다고 본다. 반면에 생태중심주의는 이러한 정복자의 관점에서 벗어나 인간을 생명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과 같은 하나의 구성원으로 규정한다.

8. 레오폴드가 제시한 '대지 피라미드'의 의미와 대지에 관한 관점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레오폴드는 생태계 전체의 유기적 관계와 균형을 중시하는 생태중심주의 사상가이다. 레오폴드에 따르면, 대지는 생명이 없는 단순한 흙이 아니라, 토양, 식물, 동물이라는 회로를 통해 흐르는 에너지의 근원이다. 따라서 레오폴드는 인간이 대지를 죽은 물질로 다루어서는 안 되며, 살아 있는 유기체로 간주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9. 네스가 주장한 심층 생태주의가 무엇인지 써 보자.

| 예시 답안 | 네스는 모든 생명체가 상호 연결된 전체의 구성원으로서 각기 고유한 가치를 평등하게 지닌다고 보는 심층 생태주의를 주장하였다. 그는 심층 생태주의의 근본 강령을 제시하면서 자연에 대한 우리의 인식과 가치, 생활 양식을 근본부터 바꾸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또한 네스는 편협한 자기 범위를 초월하여 자아의 더 큰 성숙을 위해 인간을 넘어 자연과의 일체화를 추구하는 큰 자아실현을 이루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6

과학기술 연구의 학문적 자유와 사회적 책임

원전 자료

● 기술에 대한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입장

기술은 그 자체로 보면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니다. 그러나 기술은 인간에 결속되어 있고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실현되므로, 선으로도 사용될 수 있고 악으로도 사용될 수 있다. 기술이 인간에게 어떻게 봉사하고 어떤 조건하에서 기술을 설정하는가에서 인간이 조명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러나 기술은 그것을 실현하는 것과는 독립해 있는 자립적 존재로서 일종의 공허한 힘이며, 결국은 목적에 대한 수단인 것이다. - 야스퍼스, 『역사의 기원과 목표』

기술의 본질은 기술적인 어떤 것이 아니다. 우리가 기술적인 것만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용하는 데에만 급급하여 그것에 매몰되거나 그것을 회피하는 한, 기술의 본질에 대한 우리의 관계를 결코 경험할 수 없는 것도 그 때문이다. 우리가 기술을 열정적으로 긍정하건 부정하건 관계없이 우리는 어디에서나 부자유스럽게 기술에 붙들려 있는 셈이다. 최악의 경우는 기술을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할 때이며, 이 경우 우리는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 왜냐하면 현대에 와서 특히 사람들이 옳다고 신봉하는 이러한 사고방식은 우리를 전적으로 기술의 본질에 대해 맹목적이게 하기 때문이다.

- 하이데거, 『기술과 전향』

자료 풀이 야스퍼스는 기술 자체는 선도 아니고 악도 아닌 수단일 뿐이라고 보았다. 이와 달리 하이데거는 기술이 단순한 가치 중립적 도구가 아니며, 기술을 가치 중립적 도구로만 보게 될 경우 인간이 기술에 종속당할 것이라고 보았다.

●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

우리에게는 천연의 우물이나 분수를 모방해서 만든 인공 우물이나 분수도 있습니다. 황산이나 황, 강철, 청동, 납, 초석을 비롯한 기타 광물질이 섞인 온천도 있습니다. 많은 물질을 주입해서 실험하기 위한 자그마한 우물도 있습니다. 여기에 물질을 넣으면 그릇에 담긴 것에 비해서 물의 반응 속도가 훨씬 빨라 집니다. 이러한 실험 결과, 우리는 천국의 물이라고 불리는 물을 만들어 냈습니다. 이 물을 마시면 건강이 증진되고 생명이 연장됩니다. 우리는 다양한 생물체를 번식시킬 수도 있습니다. 한 번 먹고 나면 오랫동안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는 음식도 개발하였습니다. - 베이컨, 『뉴 아틀란티스』

자료 풀이 베이컨은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간이 마침내 자유로워지는 이상 사회인 뉴 아틀란티스를 제시하였다.

● 과학자의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 이는 우리의 과학적 연구 행위가 주어지는 보편적인 성격에 부합하는 보편적·윤리적 책임으로 연구자 집단이 과학적 연구를 조직적으로 수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하는 전문 직업 집단의 책임이다. 연구를 시작하고 설계하는 과정에서부터 연구의 진행 과정 그리고 연구 결과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연구 전반에서 정직성과 진실성 그리고 책임이 요구된다. 첫 번째 윤리적 책임은 ‘과연 내가 과학적 연구를 할 자격이 있는가?’이다. 그런 질문은 연구자로서 자신의 자질과 전문 지식에 대한 성찰로 이어진다. 두 번째로는 연구 대상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있다. 연구 대상은 인간, 동물, 물질 등 다양하며 연구 대상에 따라 특별한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다. 세 번째로 연구 절차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다. 실제 연구 절차를 수행함에 있어서 지켜야 할 윤리적 책임이 있다. 네 번째로 연구 결과의 공표 및 출판에 대한 윤리적 책임이 있다.

- 서이종, 『연구 윤리』

과학 연구의 사회적 성격은 과학자 사회에 한정될까? 과학자 사회는 연구자들의 평가를 최대한 반영해서 어떤 주제가 연구할 가치가 있는지 결정한다. 그런데 이 결정 과정에서 어떤 요인이 고려되어야 할까? 얼핏 생각하기에는 순수한 과학적 가치만이 고려 대상이 될 것 같다. 그러나 먼저 우리가 탐구할 수 있는 과학 지식의 영역 자체가 엄청나게 방대하므로 어떤 지식이 사회에 더 의미 있는지 판단해야 한다. 과학자는 과학의 내재적 가치와 보다 넓은 맥락의 사회적 가치를 동시에 고려해 연구 주제를 선정해야 한다. - 이상욱 외, 『과학 윤리 특강』

자료 풀이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 연구 윤리를 따라야 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시에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 요나스의 책임 윤리

현대 과학기술의 권력은 심대하고 근원적이며 위협적이기까지 하다. 그것은 인간의 행위 능력의 양적 확장과 더불어 행위의 본질에 변화를 가져왔다. 첨단 기술을 매개로 한 인간의 행위는 규모와 대상, 그리

고 결과 면에서 전적으로 새로운 권력의 단계에 도달함으로써 기존의 윤리학을 무기력하게 만들어 버린다. 요나스는 “변형된 인간 행위의 본성은 윤리에 있어서의 변화도 필요하게 만든다.”라고 역설한다.

우리는 기존 윤리 이론의 전제와 규범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한계를 넘은 새로운 문제 상황들로 인해 ‘윤리적 진공 상태’에 직면해 있다. 마침내 전혀 예견되지 않았던 전적으로 새로운 차원의 책임의 윤리학이 필요한 시점이다.

요나스는 책임의 윤리를 위해 ‘공포의 발견술’을 요청한다. ‘악의 인식이 선의 인식보다 쉽다.’라는 논의는 기술 유토피아주의를 찬양하는 ‘희망의 원칙’에 대해 단호한 태도를 보인다. 요나스는 구원의 예언보다는 불행의 예언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 우리의 행동 원칙을 정해야 한다고 보았다.

- 김문정, 『H. 요나스의 생명 철학과 생명에의 윤리』

현대 기술 문명의 특징은 미래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이다. 현대 기술은 단순히 세계를 변형시키기 위한 도구나 장치, 수단만이 아니라 권력의 대상, 즉 권력이 지향하는 것과 권력을 창출해 낼 수 있는 것까지도 만들어 내고 있다. 책임은 권력의 크기와 관계가 있으며, 권력을 가지지 않는 자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 기술의 영향력이 인류 전체의 삶을 위협할 정도로 커지면서 인간의 책임 역시 기술적 폭력의 오용 앞에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있는 지구 생명의 미래까지 확대되었다. 기술 문명으로 각인된 인류로서의 우리가 오늘날 던져야 할 윤리적 물음은 높은 이상을 그려 내는 일이 아니라, 무엇을 예방해야 하며 무엇을 유지해야 하는가이다.

- 요나스, 『기술 의학 윤리』

자료 풀이 요나스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주장하였다. 요나스는 과학기술 발전을 윤리적으로 통제할 필요가 있으며, 인간은 지식과 능력을 책임감을 가지고 사용해야 한다고 보았다.

확인 문제

1. 과학기술의 가치 중립성에 관한 야스퍼스와 하이데거의 입장을 비교하여 써 보자.

| 예시 답안 | 야스퍼스는 기술 그 자체는 선도 악도 아닌 가치 중립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이 기술에 대해 갖는 태도가 중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과학기술에 가치 판단이 개입되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이와 달리 하이데거는 과학기술을 가치 중립적인 것으로 고찰하면 오히려 우리가 무방비 상태로 기술에 내맡겨진다고 보았다. 따라서 하이데거는 과학기술이 단순한 가치 중립적 도구가 아니며, 과학기술에 대한 가치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2. 베이컨의 『뉴 아틀란티스』에서 보이는 과학기술 낙관주의가 지닌 문제점은 무엇인지 써 보자.

| 예시 답안 | 과학기술 낙관주의는 인류가 지닌 모든 문제에 대한 해결이 과학을 통해 가능하다고 보며 과학기술에 대한 맹신을 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전과 영향에 대한 비판적 검토와 도덕적 숙고에 무관심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3. 과학기술자가 지녀야 할 개인적 책임과 사회적 책임이 무엇인지 그 예시를 들어 써 보자.

| 예시 답안 | 과학기술자들은 과학기술 연구 윤리를 실천해야 하는 개인적 책임을 지닌다. 연구 부정 행위를 해서는 안 되며, 연구 결과의 신뢰성과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등이 이에 해당한다. 또한 과학기술자들은 자신의 연구 결과가 사회에 미칠 영향에 대해 고려해야 하는 사회적 책임을 지닌다. 과학기술자는 자신들이 연구하는 결과물이 사회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과 잠재적 위험성을 폭넓게 검토해야 한다.

4. 요나스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자가 지녀야 하는 올바른 태도에 대해 써 보자.

| 예시 답안 | 요나스는 과학기술이 인간의 생존과 번영을 위협하는 수준까지 발전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확대된 기술적 영향력으로 인해 인간의 책임 또한 커져야 한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요나스의 입장에서 과학기술자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결과를 예측하여 이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져야 한다.

7

정보윤리와 미디어 문해력의 필요성과 역할

원전 자료

● 정보윤리 문제의 발생 배경

정보사회의 윤리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사회가 기존의 산업 사회와 어떻게 다른지 그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서 정보사회의 특성과 그로 인한 윤리 문제의 발생 배경에 대해 살펴보기로 하자.

첫째, 윤리적 지체와 정책적 진공의 문제이다. 이는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을 일반의 윤리의식과 사회의 법적·제도적 대응이 따라가지 못함으로써 생기는 현상을 가리킨다. …… 둘째, 디지털 정보의 형태와 빠른 유통이라는 특성이다. 오늘날 컴퓨터상에서 모든 정보는 디지털화되어 있고 빠르게 전달될 수 있는데, 이로써 상대방의 허락 없이 일방적으로 개인의 정보를 유폐하거나 타인의 정보를 복제, 활용, 대량 전파하는 일이 가능해졌다. …… 셋째, 광범위한 정보 통신망의 연결이라는 특성이다. 오늘날 컴퓨터를 통한 통신망의 발달은 각 컴퓨터 상호 간은 물론이고 거대 컴퓨터와 연결되어 정보를 동시에 교환하거나 처리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였다. …… 넷째, 기술 및 시스템의 복잡성 증가라는 문제이다. 현대 정보기술의 또 다른 특징은 개별 기술들이 복합 체계에 통합됨으로써 점점 더 다양하고 복잡한 시스템이 등장한다는 것이다. 이제 우리는 다차원적인 멀티미디어 정보 시스템과 인공지능의 등장을 맞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드웨어나 소프트웨어의 눈부신 발달은 정보 격차, 책임의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 다섯째, 익명성과 간접적인 인간관계의 증대라는 요인이다. 과거의 사회가 면 대 면(face to face) 커뮤니케이션을 기반으로 한 사회였다면, 현대 정보사회는 볼특정 다수의 인간이 사이버상에서 간접적으로 접촉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 박찬구, 『우리들의 응용 윤리학』

자료 풀이 정보사회로의 변화에 따라 기존의 산업 사회에서 겪었던 문제와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 사이버 공간의 존재론적 특징

매우 중대한 의미에서 새로운 디지털 공간은 물리학이 탐구해 온 공간 너머에 있다. 왜냐하면 사이버 세계는 물질의 소립자나 힘이 아니라 비트와 바이트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다. 데이터 패킷은 사이버 공간의 존재론적 토대이며, 전 지구적 현상이 출현하

는 근원이 된다. 사이버 공간은 물질의 소립자나 에너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좀 더 명확하게 말해서 그것은 한마디로 혁명적인 공간이다. 사이버 공간은 물리적 현상에 근거를 두지 않기 때문에 물리법칙의 한계에 의해 제한되지도 않는다.

- 박병기 외, 『윤리학과 도덕 교육 1』

자료 풀이 사이버 공간의 존재론적 특성으로는 비트의 공간, 탈구조화된 공간, 탈육체적 공간, 탈중심화, 전 지구화, 자유로운 접근, 익명성 등이 있다.

● 사이버 공간에서의 표현의 자유 문제

흔히 사이버 공간을 자유의 공간, 해방의 공간이라고 한다. 자유란 보통 '자신이 원하는 대로 행위하는데 있어 구속을 받지 않는 상태'를 의미한다. 그러나 완전한 자유를 제한하는 어떠한 법률이나 규범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역설적이게도 자유가 거의 없는 상태가 초래되고 말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행위의 한계에 대한 법적 기준을 알 수 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박찬구, 『우리들의 응용 윤리학』

자료 풀이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는 기본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하며,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 정보사회 문제에 대한 정보윤리 교육

정보윤리 교육에서는 정보사회에서 제기되고 있는 제반 문제들을 윤리적 관점에서 조망하고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능력을 강조해야 한다. 정보사회에서 제기되는 윤리적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주로 정보윤리학 관련 학자들의 논의 속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주제 못지 않게 우리 사회에서 특히 사회 문제가 되고 있는 독특한 문제들에 대한 윤리적 판단력을 길러 주는 것도 중요하게 여겨야 한다. 이러한 능력을 길러 주기 위해서는 먼저 문제들의 윤리적 차원을 인식할 수 있는 도덕적 인식력과 민감성을 길러 주는 교육을 해야 한다. 비대면 상황에서도 타자의 존재를 인정하고, 자율적인 윤리적 판단력의 행사를 통해 사이버 공간에서의 도덕성 약화에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 박병기 외, 『윤리학과 도덕 교육 1』

자료 풀이 정보사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정보윤리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 **잊힐 권리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긴장**

언론은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기둥이고, 언론의 자유는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핵심이다. 잊힐 권리는 개인의 인격권, 프라이버시 등과 관련이 있다. 언론은 공적인 사안을 보도하면서 특정 개인이나 법인, 단체에 비판적 정보를 불가피하게 전달하기 때문에 당사자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 인터넷이라는 공간은 검색하고 공유하면서 관련 정보가 끊임없이 재생산·확산하기 때문에 언론에서 생산한 정보나 기사도 얼마든지 검색할 수 있다. 이때 잊힐 권리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 갈등이 발생할 수 있다. 잊힐 권리와 언론의 자유 사이의 갈등에서 균형을 유지하려면 둘 사이를 조정하는 법을 법제화해야 한다.

- 전이은, 「디지털 시대 잊힐 권리와 언론의 자유의 긴장과 조화」

자료 풀이 잊힐 권리와 언론의 자유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할 여지가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

미디어 문해력은 미디어를 사용하고 해석하기 위해 요구되는 지식, 기술 그리고 능력을 가리키는 용어이다. 미디어 문해력은 단순한 기능적 혹은 도구적 능력 이상의 것으로, 미디어가 생성하는 의미에 대한 분석, 평가, 비판적 성찰을 포함하는 일종의 메타언어 능력이다.

미디어 문해력을 이해하기 위해 가장 핵심적으로 논의되어 온 개념은 바로 비판적 문해력이다. 미디어 읽기는 단순히 그 언어인 글과 소리, 이미지의 표면적인 의미를 해독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이데올로기와 관점, 사회적 가치와 같은 심층적인 의미를 읽어내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해당 미디어 텍스트가 어떤 수용자층을 대상으로 생산된 것이며, 어떤 목적으로 생산했는지 등 의미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해당 미디어 언어가 어떻게 작용하는가를 중심으로 미디어를 읽어야 한다.

- 정현선, 「언어·문화·소통 기술의 관점에서 본 미디어 리터러시의 고찰」

자료 풀이 미디어 문해력은 미디어를 이해하고 비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미디어 문해력이 높을수록 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평가하고 미디어의 영향을 올바르게 파악할 수 있다.

확인 문제

1. 정보사회가 기존 산업 사회와 다른 특징을 세 가지 이상 써 보자.

| 예시 답안 | 정보사회가 기존의 산업 사회와 다른 점은 첫째, 정보가 디지털로 저장되어 빠르게 유통된다는 점이다. 이로 인해 지적 재산권 문제, 개인 정보 침해 문제, 사이버 폭력 문제, 허위 정보 유포 문제 등 다양한 부작용이 야기될 수 있다. 둘째, 광범위한 정보 통신망의 연결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전 세계적인 차원의 정보 공유가 가능해졌고,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가 발달하였다. 셋째, 기술 및 시스템의 복잡성이 증가하였다는 점이다. 이러한 특성은 복잡한 기술을 익힌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 간의 기술의 격차를 낳고, 이는 정보의 격차, 빈부의 격차를 낳을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리고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도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익명성과 간접적인 인간관계가 증대하였다는 점이다. 익명성은 의사소통 참여자들에게 평등한 지위를 부여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익명성 뒤에 숨어 타인을 모욕하고 비방하는 행위가 발생한다는 부작용이 있다.

2. 사이버 공간에서 표현의 자유가 허용되는 한계에 대해 써 보자.

| 예시 답안 | 표현의 자유는 민주주의 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자아실현과 인간의 존엄성을 추구하는 데 바탕이 되지만 무제한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 정보사회에서 표현의 자유는 타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않고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지 않는 범위 내에서 허용되어야 한다.

3. '잊힐 권리'의 의미와 등장 배경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잊힐 권리란 온라인상에서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보에 대한 삭제 및 확산 방지를 요구할 수 있는 정보 주체의 자기 결정권 및 통제의 권리를 의미한다. 이러한 잊힐 권리는 개인 정보를 비롯하여 자신이 원하지 않는 민감한 정보들이 포털 사이트 등을 통해 많은 사람에게 공개되던 안 된다는 생각이 확산되면서 등장하였다.

4. 뉴 미디어 환경에서 미디어 문해력(리터러시)을 함양하기 위해 미디어 이용자에게 요구되는 노력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뉴 미디어 환경에서는 정보를 해석하고 습득하는 능력뿐만 아니라 사용자 간 소통하고 협력할 수 있는 시민의식이 필요하다. 따라서 미디어 이용자들은 미디어가 제공하는 정보의 진위가 진실인지 판단하고, 매체가 공정하고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는지 적극적으로 감시하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8

인공지능의 의미와 윤리적 쟁점

원전 자료

● 인공지능의 도덕적 지위

인공지능의 도덕적 지위에 대한 접근 방식은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하나는 속성론적 접근으로 이러한 접근에 따르면, 어떤 존재자의 도덕적 지위는 그것이 내재적으로 보유하는 비관계적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 인공지능은 이러한 속성을 갖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접근에서 인공지능의 도덕적 지위는 대체로 부정된다. 다른 하나는 관계론적 접근으로 이 입장에 따르면, 어떤 존재자의 도덕적 지위는 ‘우리는 해당 존재자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라는 실천적 물음에 의해서 결정된다. 이러한 접근에서는 인공지능이 도덕적 지위를 얻기 위한 근거로 간주되어 온 의식과 같은 속성 등을 결여하더라도 도덕적 지위를 부여받게 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 정태창, 「자아 없는 자율성」

자료 풀이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인공지능의 도덕적 지위를 인정할 수 있는지, 인공지능과 인간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에 대한 지속적인 성찰이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 인공지능의 자율성

인공지능은 자율성의 증대에 초점을 맞추어 변화하여 약한 인공지능에서 강한 인공지능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자율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기술 자체의 안전성이나 신뢰도뿐만 아니라, 그것의 판단이나 선택으로부터 파생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결국 앞으로는 자율성의 증대에 맞추어 어떻게 기술적 존재들이 도덕적 감수성을 갖도록 할 것인가의 문제가 중요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이는 인공지능과 같은 기술적 존재가 가치 지향이나 윤리 기준에 비추어 자신의 행동이 야기할 수도 있는 결과를 평가하면서 스스로 행동을 감시하고 규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 신상호, 「인공지능 시대의 윤리학」

자료 풀이 인공지능은 인간이 구성하는 도덕 원칙을 스스로 학습하고 추론하여 인간과 협업하는 행위 능력을 발휘하고, 도덕 원칙을 위반했을 때 스스로 규제하는 존재가 되어야 한다.

● 인공지능 챗봇의 의미

챗봇(chatbot)은 채팅(chatting)과 로봇(robot)이 결합한 용어로, 스스로 정보를 처리함으로써 사용자와 대화하는 방식으로 구현되는 프로그램이다. 인공지능 챗봇이 기존 검색 엔진이나 포털 사이트와 다른

점은 사용자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과정에 있다. 기존 검색 엔진의 경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검색어를 입력하면 검색어와 관련도가 높은 순서대로 검색 결과를 보여 주는 방식이라면 인공지능 챗봇은 질의자와 몇 번의 대화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질의자가 유도한 질문에 대한 답을 챗봇이 제공함으로써 결과 값에 도달하는 대화형 방식을 취한다. 챗봇이나 검색 엔진 모두 질의자의 질문이나 입력한 검색어에 일정한 로직을 통해 검색 결과나 준비된 답변을 제공하는 단순한 수준의 알고리즘에서 구현될 수 있지만, 챗봇은 인공지능을 활용한 경우 단순히 준비된 결과를 보여 주는 것이 아니라 실행 과정에서 자연어 처리 기능을 통해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생성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 과정에서 챗봇은 사용자와 자연어 대화를 통해 맥락을 이해하고 실수를 인식해 처리하면서 정교한 알고리즘을 형성해 나간다.

인공지능은 빅데이터와 알고리즘을 처리하면서 가중치를 부여하고 재생산하기 때문에 인간의 편향된 가치를 심화하여 인간이 의도하지 않은 심각한 사회적·구조적 문제를 만들어 낼 수 있다. 챗봇 역시 인공지능 기술이기 때문에 편향성의 논란을 피해 갈 수 없다. 그러므로 챗봇 서비스 개발에서 실질적인 인공지능 윤리 검증 절차가 필요하다.

- 이희옥, 「인공지능 챗봇의 편향 통제를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

자료 풀이 인공지능 챗봇은 인간과 대화할 수 있는 기술이다. 이러한 기술에는 편향의 문제가 있으므로, 인간의 자기 결정과 나아가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해 인공지능 챗봇 윤리 가이드라인의 제정이 필요하다.

●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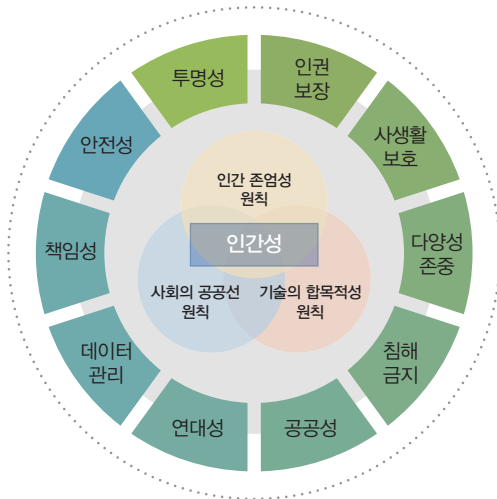
제4차 산업 혁명이 시작되면서 인공지능 윤리라는 새로운 용어가 등장하였다. 인공지능 윤리에는 지금까지의 사회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이슈들도 존재하지만, 많은 윤리적 이슈는 현재의 인터넷 윤리가 심화되고 확산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배우자 로봇 같은 소셜 로봇은 인수인계 과정에서 소유자의 프라이버시에 대한 해킹, 개인 정보 유출 등의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메디컬 로봇이나 케어 로봇은 사회적 약자를 도와주는 로봇이기에, 외부로부터 의도적 공격 및 운영 관리 실수로 대상의 생명을 위협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

한 정보 기술 활용 여부가 새로운 생산 수단이 되면서 정보 격차에 따른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 김명주, 「인공지능 윤리의 필요성과 국내외 동향」

자료 풀이 인공지능의 발달로 발생하는 윤리적 쟁점은 매우 다양하고 복잡하다. 이는 기술적 오류로 인해 발생하기도 하고, 데이터 학습과 그 활용에 따른 사회적 영향까지 많은 문제를 수반하여 발생하기도 한다.

●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2020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은 인공지능 개발과 활용의 전 단계에 참여하는 정부, 공공 기관, 기업, 이용자 등 모든 사회 구성원이 함께 지켜야 할 윤리적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사람 중심의 인공지능을 위해 ‘인간성’을 최고 가치로 설정하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3대 기본 원칙(인간 존엄성 원칙, 사회의 공공선 원칙, 기술의 합목적성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인권 보장, 프라이버시 보호, 다양성 존중, 침해 금지, 공공성, 연대성, 데이터 관리, 책임성, 안전성, 투명성)을 제안하였다.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

자료 풀이 전 세계 여러 기관에서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윤리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우리나라 정부도 국제적 흐름에 따라 2020년 12월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중심으로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공지능 윤리 기준: 3대 기본 원칙과 10대 핵심 요건」을 발표하였다.

확인 문제

1. ‘인공지능 로봇에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는가?’에 대해 속성론적 접근과 관계론적 접근의 입장을 비교하여 써 보자.

| 예시 답안 | 속성론적 접근이란 어떤 존재자의 도덕적 지위는 그것이 내재적으로 보유하는 속성에 의해 결정된다고 보는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는 인공지능이 이성, 감각 등의 내재적 속성을 갖지 못하므로 도덕적 지위가 없다고 본다. 이와 달리 관계론적 접근은 어떤 존재자의 도덕적 지위는 속성을 결여하더라도 인간과 맺고 있는 관계에 의해 부여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 관점에 따르면, 인공지능은 인간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 맺고 있으므로 도덕적 지위를 부여할 수 있다.

2.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개발되어야 한다.’라는 주장의 의미를 써 보자.

| 예시 답안 | 인공지능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증진하기 위해 개발된 도구이므로 인공지능 기술의 개발 및 활용은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을 고려할 때에만 정당화될 수 있다는 뜻이다.

3. 인공지능 시대에 발생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를 세 가지 이상 써 보자.

| 예시 답안 | 첫째, 공정성 문제이다. 인공지능이 내린 판단이나 결정이 사회의 일반적 가치 기준에서 벗어나는 편향이나 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 최근 인공지능 알고리즘에 의한 의사 결정이 인종, 젠더, 나이, 외모 등 여러 측면에서 편향성을 드러내어 문제가 된 바 있다. 둘째, 투명성과 책임성 문제이다.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그 출력값이 어떻게 해서 얻어진 것인지 알기 어렵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책임 소재를 밝히기 어렵다. 인간이 인공지능의 모든 출력값을 예측하거나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 인공지능을 온전히 통제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이는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 예컨대 살상용 드론이나 킬러 로봇의 오작동, 자율 주행 자동차나 의료 로봇의 오작동은 심각한 인명 피해를 낼 수 있다. 셋째, 개인 정보 보호 및 사회 정치적 신뢰의 문제이다. 해킹이나 피싱 또는 딥페이크 등을 통해 프라이버시나 보안상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으며, 나아가 참과 거짓을 식별하기 어려워 사회적·정치적 신뢰가 약해질 수 있다. 최근에는 딥페이크 기법을 통한 가짜 뉴스 생성, 유명 인사들의 발언 영상 생성, 금융 사기 등의 범죄가 발생하기도 하는데, 이처럼 사회에 유통되는 정보가 왜곡될 경우에는 사회의 신뢰 기반 자체가 무너질 수도 있다.

9

동서양의 직업관

원전 자료

● 공자의 직업관

공자가 말하였다. “부유함과 귀한 신분은 사람이면 바라는 것이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얻은 것이라면 받아들이지 말아야 한다. 가난함과 천한 신분은 사람이면 싫어하는 것이지만 부당한 방법으로 그렇게 되었더라도 기어코 버리지 않는다. 군자가 인(仁)을 버리면 어떻게 군자라는 명성을 이루겠는가? 군자는 밥을 먹는 동안에도 인을 떠나지 않아야 한다.”

— 『논어』

자료 풀이 공자는 각자 자신의 신분과 지위에 따라 덕을 갖추고 직분에 충실해야 한다는 정명(正名)을 주장하면서 직업 생활에 있어서 인(仁)의 실천을 강조하였다.

● 맹자의 직업관

진상이 말하였다. “백공들이 하는 일은 원래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할 수가 없습니다.”

맹자가 대답하였다. “그렇다면 천하를 다스리는 일은 유독 농사를 지으면서 동시에 할 수 있다는 것인가? 대인이 할 일이 있고 소인이 할 일이 있다. 또한 사람의 몸에는 백공이 만드는 것들이 다 필요한데, 만일 반드시 모든 것을 손수 만들어서 사용해야 한다면 그것은 천하의 사람들을 이끌어 지쳐 떨어지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은 마음을 수고롭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몸을 수고롭게 한다. 마음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을 다스리고, 몸을 수고롭게 하는 자는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다. 남에게 다스림을 받는 자는 남을 먹여 살리고, 남을 다스리는 자는 남에 의해 먹고사는 것이 천하의 보편적인 원리이다.”

— 맹자, 『맹자』

자료 풀이 맹자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직업을 통해 사회와 조화를 이루고 인간의 본성에 따라 올바르게 행동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으며, 직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의(義)’와 ‘예(禮)’라는 덕목을 중요하게 여겼다.

● 순자의 직업관

어진 사람이나 능력 있는 사람은 서열과 관계없이 등용하고, 능력이 낮거나 없는 사람은 잠시의 기다림도 없이 파면하며, 너무 악한 사람은 가르치기 전에 죽이고, 보통 사람은 형벌을 사용하기 전에 교화시킨다. 신분이 아직 정해지기 이전에도 소목(昭穆, 종묘나 사당에 조상의 신주를 모시는 차례를 말한

다.)의 명확한 구분이 있었다. 비록 왕·공·사·대부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예의에 힘쓰지 않는다면 서인으로 신분을 낮추고, 비록 서인의 자손이라고 할지라도 학문을 쌓아 몸가짐과 행동을 바르게 하고 예의에 힘쓴다면 재상이나 사대부로 신분을 올린다. 그러므로 간사한 말과 간사한 학설을 가진 사람들, 간사한 일과 간사한 능력을 펴는 사람들, 도망가거나 떠돌이 백성들에게 직업을 주어 교화시키고, 잠시 기다렸다가 상을 주어 격려하고, 형벌로 징계하고, 직분을 편안히 수행하면 잘 길러 주고, 편안히 수행하지 못하면 버려야 한다. 다섯 가지 질병이 있는 사람들은 나라에서 수용하여 양육하고 재질에 따라 일을 시키며, 관직에 임용하여 의식을 주고 모두 빠짐없이 덮어 주어야 한다. 재능을 발휘해서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는 자는 용서하지 않고 죽인다. 이것을 천덕(天德)이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왕자의 정치이다.

— 순자, 『순자』

자료 풀이 순자는 성악설을 토대로 직업 수행에 있어서 예(禮)를 통해 본성을 교화하고 사회적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다. 순자는 신분제 사회에서 덕망과 능력을 중시하여 사람을 등용해야 한다는 혁신적인 사상과 병에 걸린 사람들을 국가가 책임지고 부양해야 한다는 복지 정책을 제시하였다.

● 플라톤의 직업관

“자네 생각은 어떠한가? 목수가 제화공 일을 하거나 제화공이 목수 일을 한다면, 그들이 서로 도구나 직업을 바꾼다면, 한 사람이 두 가지 일을 다 하려고 한다면 국가에 큰 손실이 올 것 같지 않은가?” 그는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하지만 타고난 적성에 따라 기술자가 되거나 다른 생업을 가진 사람이 부나 대중의 지지나 힘 등을 믿고 기고만장해져 전사가 되려고 한다거나, 전사가 아무 자격이 없으면서 국가의 일을 결정하고 수호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나? 이렇게 서로 도구나 직업을 바꾸고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동시에 하려는 것이 국가를 파멸로 이끈다고 생각하네. 아마 자네도 그렇게 생각할 걸세.”

— 플라톤, 『국가』

자료 풀이 플라톤은 이상적인 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사회 구성원이 각자 자신의 특성에 맞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는 생업에 종사하는 집단, 보조하는 집단, 수호하는 집단이 ‘자기 할 일을 하는 것’을 정의로 규정하고, 이것이 국가를 정의롭게 만든다고 보았다.

● 칼뱅의 직업관

삶의 모든 행동에서 각자 자신의 소명을 생각하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명령을 짊고 넘어가야 한다. 주님은 인간의 본성이 안정적이지 못해서 이랬다저랬다 얼마나 변덕스러울 수 있는지를 잘 아신다. 주님은 서로 상반된 목표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는 우리의 욕심과 야망을 잘 아신다. 그래서 우리가 어리석음과 성급함으로 큰 혼란에 빠지지 않도록 인생의 각 자리마다 특정한 의무를 정해 주셨다. 그리고 누구도 자신의 경계를 넘지 않도록 삶의 다양한 자리를 소명으로 정해 주셨다.

각 사람의 역할은 우왕좌왕하느라 평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할당해 주신 삶의 자리라고 할 수 있다. 하나님이 구분해 주신 삶의 자리들은 매우 중요해서 우리의 모든 행동을 이 자리와 연결 지어 판단해야 한다.

- 칼뱅, 『그리스도인을 살다』

자료 풀이 칼뱅은 직업을 단순히 세속적인 일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봉사로서 이해하였다. 즉 모든 사람이 하나님에 의해 주어진 소명에 따라 살아가야 한다고 강조하였으며 직업 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고 보았다.

● 마르크스의 노동관

노동은 무엇보다도 먼저 인간과 자연 사이에서 일어나는 하나의 과정이다. 이 과정에서 인간은 자신과 자연 사이의 신진대사를 자기 자신의 행위에 의해 매개하고 규제하고 통제한다. …… 인간은 자연의 소재를 자기 자신의 생활에 적합한 형태로 획득하기 위해 (자기의 신체에 속하는 자연력인) 팔과 다리, 머리와 손을 운동시킨다. 그는 이 운동을 통해 외부의 자연에 영향을 미치고, 그것을 변화시키며, 그렇게 함으로써 동시에 자기 자신의 자연을 변화시킨다. 인간은 노동 과정에서 자신의 본질도 변화시켜, 그 본질에 잠재된 능력을 발전시킨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 자기 본질을 실현할 수 있고 발전해 나간다.

- 마르크스, 『자본론 1』

자료 풀이 마르크스는 인간의 노동이 동물의 노동과 구분된다고 주장하였다. 마르크스에 따르면, 인간의 노동은 인간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합목적적 활동 안에서 자연 등의 노동 대상을 노동 수단을 통해 효율적으로 가공하거나 변형하는 것이다. 마르크스는 이러한 인간의 노동을 인간의 자기실현을 위한 행위로 보았다. 다만 노동 소외가 발생하는 자본주의에서는 노동을 통한 노동자의 자아실현이 불가능하다고 보았다.

1. 공자가 제시한 정명(正名)의 의미를 써 보자.

| 예시 답안 | 공자는 “임금은 임금답고 신하는 신하답고 아버지는 아버지답고 자녀는 자녀다워야 한다.”라고 말하며 정명을 주장하였다. 정명이란 ‘명(名)에 따르는 분(分)을 다하라.’라는 뜻으로 모든 사회적 지위에는 그에 합당한 몫이 따른다는 의미이다.

2. 맹자와 순자의 직업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맹자와 순자의 직업관의 공통점은 사회적 분업과 직업 간 상호 보완을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차이점은 맹자가 인간의 본성에 대한 성선설의 입장을 토대로 직업을 개인의 도덕성 실현과 사회적 조화의 수단으로 바라본 반면에 순자는 성악설의 입장을 토대로 직업을 사회적 질서 유지와 개인의 본성 극복의 수단으로 바라보았다는 점이다.

3. 플라톤이 제시한 직업관의 장점과 한계점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플라톤이 제시한 직업관의 장점은 각자 자신의 특성에 맞는 역할 수행을 중요시하여 직업에 대한 전문성을 강조했다라는 점과 책임의식을 바탕으로 구성원 간의 사회적 조화를 강조했다라는 점이다. 반면, 한계점은 직업 선택시 개인의 특성과 다양성을 제대로 고려하지 못한다는 점과 직업 이동의 유연성 결여 및 계층의 고착화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4. 칼뱅의 직업관이 자본주의 발전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써 보자.

| 예시 답안 | 칼뱅의 직업관은 직업에 대한 소명 의식을 토대로 사람들이 자신의 직업에 대한 책임감을 갖고 성실하게 일하도록 유도하였으며, 근면과 절약을 중요한 미덕으로 강조하여 자본주의의 핵심 요소인 생산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였다. 또한 직업을 통한 사회적 책임의식을 강조함으로써 올바른 기업가 정신과 문화 형성에 영향을 끼쳤다.

5. 마르크스가 바라본 ‘노동’의 의미와 자본주의 체제에서의 노동의 가치에 대해 써 보자.

| 예시 답안 | 마르크스는 노동이란 인간이 자신을 표현하고 실현하는 창조적 활동이자 공동체의 진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자본주의 체제에서는 노동이 진정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이윤 추구를 위해 노동자를 도구화함으로써 인간성을 억압하는 수단으로 전락한다고 비판하였다.

10

국가 권위의 정당성과 시민불복종

원전 자료

● 니부어의 개인 윤리와 사회 윤리

한 집단에 속하는 개인 간의 관계를 순전히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조정과 설득에 의해 확립하는 일은, 비록 쉽지는 않을지라도 전혀 불가능한 일은 아닐 것이다. 그러나 집단과 집단 사이에서는 이런 일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 따라서 집단 간의 관계는 항상 윤리적이기보다는 지극히 정치적이다. 즉 그 관계는 각 집단의 요구와 필요성을 비교·검토하여 도덕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에 의해서 수립되는 것이 아니라 각 집단이 갖고 있는 힘의 비율에 따라 수립된다. …… 인간 역사에서 사회적 각성과 도덕적 선의지의 증가가 사회적 갈등의 야만성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들로는 갈등 자체를 제거할 수 없다. 이러한 갈등은 인종이건 국가건 경제 집단이건 인간 집단들이 어느 정도의 이성과 동정심을 발휘할 수 있고, 또한 도덕적 선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될 때만 제거될 것이다. 그러나 이는 인간 본성의 불가피한 한계 및 인간의 상상력과 지성의 한계를 고려해 볼 때, 개인들은 접근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사회의 능력은 넘어서 있는 이성이다.

- 니부어,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

자료 풀이 니부어는 모든 집단이 개인과 비교했을 때 충동을 올바르게 인도하거나 억제할 수 있는 이성과 자기 극복 능력,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능력이 훨씬 결여되어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갈등을 해결하는 데 개인 윤리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며, 사회적·정치적 강제력을 동원하여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아리스토텔레스의 국가관

폴리스는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들에 속하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폴리스’를 형성하며 살아가기에 적합한 동물이다. 운 때문이 아니라 본성 때문에 폴리스 없이 사는 사람은 좀 모자라는 사람이거나 인간 이상의 사람이다. 또한 그런 사람은 형제도, 법도, 집도 없는 자이다. ……

필요 충족을 위해 자연적으로 형성된 공동체가 가정이고, 여러 가정으로 구성된 최초의 공동체가 마을이다. 여러 마을로 구성되는 완전한 공동체가 국가인데, 국가는 완전한 자급자족이라는 최고 단계에 도달해 있다. 다시 말해 국가는 단순한 생존을 위해 형성되었지만 훌륭한 삶을 위해 존속하는 것이다.

이로 미루어 국가는 자연의 산물이며, 인간은 본성적으로 국가 공동체를 구성하는 동물임이 분명하다.

- 아리스토텔레스, 『정치학』

자료 풀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가 인간의 본성에 따라 발생했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인간은 국가 안에서 최선의 삶을 살 수 있고, 국가는 구성원의 행복한 삶을 위해 존재한다고 보았다.

● 흄스의 국가관

국가의 목적은 모든 사람의 안전이다. 사람을 움직이는 궁극적인 동기나 목적은 자신의 생존과 그로 인한 만족스러운 삶이다. 그런데 자연법은 이러한 생존을 보장하지 못한다. 자연법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어떤 힘의 위협이 없다면, 즉 힘에 대한 공포가 없다면 자연법은 편파성이나 자만심, 복수심 등을 막지 못한다. 칼을 갖지 않은 계약은 말에 지나지 않아서 인간을 보호할 힘이 없다. …… 외부의 침입과 서로의 분쟁을 막을 수 있는 공동의 권력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은 그들 모두의 권력과 힘을 한 명의 인물, 또는 하나의 집단에 양도해 다양한 목소리를 가진 그들의 의지를 하나의 의지로 단순화하는 것이다. 이것은 동의나 합의 이상의 것이며 계약을 통해 하나의 인격으로 탄생한 만인의 통일이다. 그것은 마치 “당신도 나와 마찬가지로 당신의 모든 권리를 그에게 주고, 그가 하는 모든 행동에 권위를 싣는다는 조건으로 나는 내 자신을 지배하는 권리를 이 사람 또는 이 집단에게 양도한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하나의 인격으로 통일된 대중을 국가나 시민이라고 부른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리바이어던’의 탄생, 보다 경건하게 말하자면 우리가 ‘불멸의 신’에게 의지하듯 우리의 평화와 안전을 맡길 ‘죽을 운명을 가진 신’의 탄생이다. - 흄스, 『리바이어던』

자료 풀이 흄스는 자연 상태의 무제한적인 자유가 인간을 폭력과 공포 앞에 놓이게 했고, 이로부터 발생하는 죽음의 공포를 피하기 위해 사람들은 서로 계약을 맺어 국가를 만든다고 보았다.

● 로크의 국가관

만약 자연 상태에 있는 인간이 것처럼 자유롭다면, 즉 그 자신의 인신과 소유물의 절대적인 주인이고 가장 위대한 사람과도 평등하며 아무에게도 종속되지 않는다면, 그는 왜 자신의 자유를 벗어나려고 하는 것일까? 그는 왜 이러한 통치권을 포기하고 다른 권력의 지배와 통제에 스스로 복종하려는 것일까?

이 질문에 대해서는 비록 자연 상태에서 그런 권리를 갖고 있지만 그것을 누리는 것은 매우 불확실하며 끊임없이 다른 사람의 침해에 노출되기 때문이라고 명확하게 답변할 수 있다. 모두가 그와 마찬가지로 왕이며 모든 사람이 그와 평등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정과 정의를 엄격하게 준수하지 않으므로 그가 이 상태에서 갖고 있는 재산은 매우 불안하고 위협하기 때문이다. …… 그가 이미 결합되어 있거나 그럴 생각이 있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생명과 자유, 그리고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사회의 결성을 모색하거나 기꺼이 가입하려는 것은 합당한 일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국가와 결합하고 스스로를 정부의 지배하에 두려는 중요하고 주된 목적은 재산의 보호이다.

— 로크, 『통치론』

자료 풀이 로크는 사람들이 사회 계약을 통해 공동체를 만드는 근본적인 동기가 '재산을 보호하려는 마음'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구성원이 위임한 권력으로 형성된 공동체는 구성원의 자유, 생명 그리고 재산을 반드시 보호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 루소의 국가관

개개인이 자신을 전체에 내어놓기 때문에 스스로는 누구에게도 자신을 내어놓지 않는다. 구성원은 누구나 남에게 자신에 대한 권리를 양보하고 그 사람이 양보하는 동일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누구든 자기가 상실한 모든 것과 동일한 대가, 그리고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것을 보존하기 위한 더욱 큰 힘을 얻는다. 따라서 우리가 사회 계약에서 본질이 아닌 것을 제거해 버린다면 우리는 이 계약이 다음과 같은 말로 요약됨을 알게 된다.

‘우리는 각자 일반 의지의 최고 감독하에 자신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체의 것으로 만든다. 우리는 각 구성원을 전체의 불가분한 한 부분으로 대접한다.’

그 순간 각 계약자의 개인 인격은 사라지고 대신에 이 결합 행위는 정신적이며 집합적인 단체를 만들어 준다. 총회가 가지고 있는 투표권과 동일한 수의 구성원으로 조직된 이 단체는 결합 행위를 통해 각 개인에게 통일성과 공동 자아, 그리고 생명과 의지를 전해 준다.

— 루소, 『사회 계약론』

자료 풀이 루소는 각자가 자신의 모든 힘과 권리를 공동체에 전면적으로 양도하여 공동의 상위자로서 일반 의지를 형성하고, 모든 구성원이 이에 복종함으로써 구성원 모두가 불가분의 관계로 결합하여 단일 정치 공동체, 즉 국가를 형성한다고 보았다.

확인 문제

1. 현대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니부어가 사회 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한 까닭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니부어는 개인의 도덕적 행동은 단순히 개인적인 윤리적 결정이 아니라, 그가 속한 사회의 구조와 관계 속에서 결정된다고 보았다. 따라서 사회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사회의 구조적 모순이나 잘못된 사회 제도 및 정책의 개선을 강조하는 사회 윤리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2.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한 국가 권위의 근원 및 정당성은 무엇인지 써 보자.

| 예시 답안 | 아리스토텔레스는 국가란 인간의 본성을 완성하기 위한 자연적인 공동체로서 그 존재와 권위가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다고 보았다. 그리고 국가의 권위는 인간의 행복하고 선한 삶을 위한 수단으로 정당화된다고 보았다.

3. 홉스가 “힘에 대한 공포가 없다면 자연법은 편파성이나 자만심, 복수심 등을 막지 못한다.”라고 주장한 까닭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홉스는 자연법이 인간의 이성을 통해 도출될 수 있다고 보았지만, 그것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힘에 대한 공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왜냐하면 인간은 본래 이기적이며 자기 보존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존재이므로 만약 강제력이 없다면 자연법을 무시하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할 것이기 때문이다.

4. 국가권력의 측면에서 홉스와 로크의 차이점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홉스는 국가가 절대적인 권력을 가져야 한다고 보았으며 이는 절대 군주의 지배로 나타난다고 보았다. 반면에 로크는 국가가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하며, 만약 정부가 이러한 역할을 다하지 않으면 국민은 정부를 교체할 수 있다고 보았다.

5. 루소가 주장한 일반 의지의 의미를 써 보자.

| 예시 답안 | 루소가 주장한 일반 의지란 단순히 다수결의 원칙이나 개인들의 의지의 총합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이익을 반영하는 의지를 의미하며, 이것은 개인의 사적 이익을 초월하여 공공선을 실현하려는 집단적인 의지라고 할 수 있다.

● 소로의 시민불복종

권력이 한번 국민들 손에 쥐어졌을 때 그들이 다수당의 지배를, 그것도 오랫동안 허용하는 것은 그들이 옳은 것처럼 보여서도 아니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소수당에 공정한 처사로 보여서도 아니다. 실제적인 이유는 그들이 결국 강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사사건건 다수가 다스리는 정부는 사람들이 이해하는 만큼도 정의에 입각한 것일 수 없다. 옳고 그른 것을 다수자가 아니라 양심이 결정하고 다수자는 다만 어떻게 행사하는 것이 편리할지만을 결정하는 정부는 있을 수 없을까?

시민은 잠시 동안 혹은 아주 적은 정도라도 반드시 자기의 양심을 입법자들에게 맡겨야 하는가? 그렇다면 왜 양심이 모든 사람에게 있는가?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우리는 먼저 인간이 되고 그 후에야 다스림을 받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 법률을 정의처럼 존중하는 생각을 길러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내가 마땅히 사유할 권리가 있는 단 하나의 의무, 그것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어느 때이건 행하는 것이다. …… 만일 불의가 정부라는 기계에 있어 불가피한 마찰이라면 돌아가게 내버려두라. 아마도 그것은 미끄럽게 닳을 것이다. 그리고 그 기계는 어차피 닳아 없어질 것이다. 만일 불의가 오직 저 자신만을 위해 용수철, 도르래, 그리고 밧줄과 같은 것들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과연 치료가 병폐보다 더 나쁠 것인지에 대해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만일 그것이 당신으로 하여금 남에게 불의한 자가 되기를 강요하는 성질의 것이라면 나는 말한다. 그 법을 어겨라. 당신의 생명으로 하여금 기계를 멈추는 역마찰이 되게 하라. 내가 해야 할 일은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저주하는 그릇된 일에 나 자신이 휩쓸려 들어가지 않도록 조심하는 것이다.

— 소로, 『시민불복종』

자료 풀이 소로는 시민불복종을 통해 정부의 옳지 않은 결정에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하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 처벌을 감수하고 저항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시민의 '적극적인 불복종'을 통하여 정부와 시민 간에 올바른 기본권이 확립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롤스의 시민불복종

시민불복종은 그것이 정치권력을 쥐고 있는 다수자에게 제시된다는 의미에서뿐만 아니라 그것이 정치적 원칙, 즉 헌법과 사회 제도 일반을 규제하는 정의

의 원칙들에 의해 지도되고 정당화되는 행위라는 의미에서 정치적 행위라는 점을 또한 주목해야 한다.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함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개인적인 도덕 원칙이나 혹은 종교적 교설이 우리의 주장에 일치하고 이를 지지해 준다고 해서 그것에 의거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시민불복종의 근거가 오직 개인이나 집단의 이익에만 기초할 수 없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 대신 우리는 정치적인 질서의 바탕에 깔려 있는, 공유하고 있는 정의관에 의거해야 한다. 어느 정도 정의로운 민주 체제에서는 시민들이 그들의 정치적 문제를 처리하고 헌법을 해석하는 기준이 되는 공공적인 정의관이 있다. 이러한 정의관의 기본 원칙을 오래도록 의도적으로 위반하는 것, 특히 기본적인 평등한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굴종이 아니면 반항을 일으킨다. …… 일단 사회가 동등한 사람들 간의 협동 체제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심각한 부정의로 고통을 받는 사람들은 복종할 필요가 없다. 사실상 시민불복종은 비록 그 정의(定義)로 보았을 때 불법적인 것이긴 하나 입헌 체제를 안정화하는 방도이다. 자유로운 정규 선거 및 헌법을 해석할 권한을 가진 독립적인 사법부와 더불어 적절한 제한 조건과 건실한 판단을 통해서 이용되는 시민불복종은 정의로운 제도를 유지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법에 대한 충실성의 한계 내에서 부정의에 항거함으로써 정의로부터의 이탈을 방지하고,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는 그것을 교정하는 데 도움이 된다. 따라서 정당한 시민불복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일반적인 성향은 질서 정연한 사회나 혹은 거의 정의로운 사회 속에 안정을 가져다준다.

— 롤즈, 『정의론』

자료 풀이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법이나 정부 정책에 변혁을 가져올 목적으로 행해지는 공공적이고 비폭력적이며, 양심적이긴 하지만 법에 반하는 정치적 행위라고 보았다.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통해 공동 사회의 다수자가 갖는 정의감을 드러내고, 자유롭고 평등한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 협동체의 원칙이 존중되지 않고 있음을 선언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싱어의 시민불복종

대체로 민주주의적인 사회에서 불법적인 수단의 사용을 정당화하고자 시도하는 두 가지 다른 방식들이 있음을 우리는 보았다. 첫 번째 방식은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사람이 반대하고 있는 결정이 진실로 다수의 의견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고, 두 번째 방식은 그러한 결정이 다수의 견해의 진

정한 표현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너무도 심각하게 그릇된 일이어서 다수에 반대하는 행위가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시민불복종’이라는 이름이 가장 잘 들어맞는 것은 첫 번째 근거에 의한 불복종이다. 이때 불법적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은 참된 민주주의적 결정을 확보하기 위해 합법적인 수단의 사용을 확장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 시민불복종은 자주 정당화될 수 있다. 이러한 정당화는 민주주의적인 결정에 복종할 책무를 무시할 정도로 강력할 필요도 없다. 왜냐하면 시민불복종은 민주주의적인 의사 결정을 좌절시키거나 보다는 복원하려는 시도이기 때문이다. …… 실제로 심각하게 도덕적으로 그른 어떤 것을 중단시키려고 한다고 확신할 때, 우리에게 는 아직도 자문해 보아야 할 다른 도덕적 문제들이 있다. 우리는 우리가 중단시키려고 하는 악의 크기와 우리의 행위가 가져올 법과 민주주의에 대한 존중심의 감소 정도를 저울질해 보아야 한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행위가 목표 달성에 실패하여 반작용을 불러일으킴으로써 다른 수단으로 성공할 가능성을 감소시킬 가능성도 고려해 보아야 한다. …… 이러한 문제에 대한 결과주의적 접근법의 한 결론은 언뜻 보기에는 이상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민주주의 원칙에 복종하는 습관이 더 깊이 배면 뱀스룩 불복종은 그만큼 더 쉽게 정당화될 수 있다는 것이다.

- 싱어, 『실천윤리학』

자료 풀이 싱어는 시민불복종을 실행하는 사람들이 법의 힘에 저항하지 않음으로써, 비폭력적으로 행위함으로써, 그리고 그들의 행위에 대한 법적인 처벌을 받아들임으로써 항의의 진지성과 법의 통치 및 민주주의 기본 원칙들에 대한 자신들의 존중을 명백히 한다고 보았다.

● **드워킨의 시민불복종**

드워킨은 우리에게 불복종을 일으키는 법이 있다면, 그 법은 대부분 ‘헌법 정신’에 비추어 볼 때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점을 강조한다. 즉 헌법이란 전통적으로 정치 도덕의 근본을 이루는 것인데, 이것을 해치는 법이 있다면 그와 같은 법의 헌법적 지위는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시민불복종은 특정한 법 자체의 타당성이 의심스러울 경우에 발생한다.

- 문종길·김상범, 『생활과 윤리』

자료 풀이 드워킨은 정치 도덕의 근본이 헌법이므로, 이를 어기는 법이 있다면 불복종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확인 문제

6. 소로가 “우리는 먼저 인간이 되어야 하고, 그 후에야 다스림을 받는 국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주장한 까닭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소로가 다스림을 받는 국민보다 인간으로서의 삶을 강조한 까닭은 정부의 법과 권력에 따르는 삶보다 개인의 도덕적 양심에 따른 삶을 강조하였기 때문이다. 즉 소로는 인간이 국가의 법을 무조건 따르기 전에 먼저 인간으로서 도덕적으로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7. 시민불복종의 동기와 목적의 측면에서 소로와 롤스의 차이점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소로는 시민불복종을 개인의 양심에 따라 정부나 법의 불의에 맞서는 도덕적 행동으로 간주한 반면,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공적 정의관을 토대로 불공정한 법이나 제도에 대해 공공적으로 저항해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수단으로 보았다.

8. 롤스가 시민불복종을 ‘불법적인 것이긴 하지만 입헌 체제를 안정화하는 방도’로 본 까닭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롤스는 시민불복종을 단순한 법 위반이 아니라 입헌주의 체제를 유지하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 중요한 요소로 보았다. 왜냐하면 시민불복종은 정의로운 원칙을 유지하는 수단이며, 잘못된 법과 제도를 수정하는 민주적 절차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때 그것을 보완해 주는 역할을 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9. 싱어가 제시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조건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싱어는 다음과 같은 조건에서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보았다. 첫째, 기존의 합법적인 경로가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둘째, 시민불복종의 결과가 사회적 이익을 증가시키고, 부당한 정책을 개혁하는 데 기여하는 경우이다. 셋째, 폭력이 아닌 평화적 방법으로 시민불복종을 실행하는 경우이다.

10. 드워킨이 주장한 시민불복종의 정당화 근거를 써 보자.

| 예시 답안 | 드워킨에 따르면, 정치 도덕의 근본은 헌법이다. 따라서 이러한 헌법 정신에 근거하여 특정한 법이 그 타당성을 의심받을 때 시민불복종을 정당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원전 자료

● 아리스토텔레스의 분배적 정의

불의한 사람은 공평하지 않은 사람이고 불의한 것은 공평하지 않은 것이므로 공평하지 않은 것 사이에 중간이 존재함은 분명하다. 그리고 이 중간이 바로 공평한 것이다. 어떤 행위든 거기에 더 많음과 더 적음이 존재한다면 거기에는 공평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불공평한 것이 불의한 것이라면 공평한 것은 정의로운 것이다. 이것은 굳이 증명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렇게 생각한다. 그리고 공평한 것은 중간이므로 정의로운 것도 어떤 중간일 것이다. 공평한 것은 적어도 둘과 관련해 성립한다. 따라서 정의로운 것은 어떤 중간이고 공평한 것이며, 어떤 것이나 사람에 대한 것이다. 그리고 정의로운 것은 어떤 중간이라는 점에서 무엇과 무엇(각각 더 많은 것과 더 적은 것)의 중간일 수밖에 없고 공평한 것이라는 점에서 적어도 둘이 관련될 수밖에 없으며, 정의로운 것이라는 점에서 어떤 사람에 대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정의로운 것은 적어도 넷과 관련해 성립한다. 정의로운 것과 관련해 필요한 당사자가 적어도 둘이고, 정의로운 것을 드러내는 데 필요한 몫 또한 둘이기 때문이다.

사람 사이에 존재하는 공평함과 각자의 몫 사이에 존재하는 공평함은 서로 동일하다. 몫들 사이에 공평함이 존재한다면, 공평함은 그 몫을 분배받은 사람들 사이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동등하지 않은 사람들은 동등한 몫을 가져선 안 된다. 사람이 동등한데도 동등한 몫을 분배받지 못했거나, 서로 동등하지 않은데도 동등한 몫을 분배받았다면 거기서 다툼과 불평이 생긴다.

- 아리스토텔레스, 『니코마코스 윤리학』

자료 풀이 아리스토텔레스는 각자의 공적이나 능력, 기여도에 따라 재화와 권리를 분배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분배적 정의를 설명하면서 기하학적 비례의 개념을 사용하였다. 기하학적 비례란 한 요소가 증가하면 다른 요소도 일정한 비율로 증가해야 한다는 것으로, 재화와 권리를 분배할 때 각자의 가치에 따라 비례적으로 분배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 롤스의 분배적 정의

우리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를 규정하고 보장하는 사회 체제의 측면과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규정하고 확립하는 사회 체제의 측면을 구분하게 된다. 그

리고 여기에서 주목해야 할 중대한 것은 기본적 자유들이 이런 자유들에 대한 목록으로 주어진다라는 점이다. 그 가운데서도 중요한 것은 정치적 자유(투표의 자유와 공직을 가질 자유)와 언론과 결사의 자유, 양심의 자유와 사상의 자유, 심리적 억압과 신체적 폭행 및 절단을 포함하는 인신의 자유(인신의 온전성), 사유 재산을 소유할 권리와 법의 지배라는 개념이 규정하는 이유 없는 체포와 구금으로부터의 자유이다. 이와 같은 자유들은 제1원칙에 의거해서 평등해야 한다.

제2원칙은 우선 소득 및 재산의 분배와 권한, 책임 및 명령 계통 등에 있어서 차등을 두는 조직들의 기획에 적용된다. 재산 및 소득의 분배가 반드시 균등해야 할 필요는 없으나,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이익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동시에 권한을 갖는 직위와 명령을 내릴 수 있는 직책은 누구에게나 접근 가능한 것이어야 한다. 우리는 직위를 개방함으로써 제2원칙을 적용하게 되며, 이러한 조건 아래서 사회적·경제적 불평등을 모든 사람의 이익이 되도록 편성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제1원칙이 제2원칙보다 우선하는 서열적 순서로 배열해야 한다. 이렇게 순위를 매기는 것은 제1원칙이 요구하는 평등한 기본적 자유에 대한 침해가 보다 큰 사회적·경제적 이득에 의하여 정당화되거나 보상될 수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 자유들은 다른 기본적 자유들과 상충할 때에만 그 내부에서 제한되며 조정될 수 있는 중심적인 적용 범위를 지니고 있다. …… 물론 이 목록에 없는 자유들, 예를 들면 특정한 종류의 재산(가령 생산 수단)에 대한 권리나 자유방임론에 의해 이해되는 계약의 자유는 기본적인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유들은 제1원칙의 우선성에 의해 보호되지 않는다.

- 롤스, 『정의론』

자료 풀이 롤스는 이익의 분배를 결정해 줄 사회 체제를 선정하고 적절한 분배의 몫을 합의하는 데 필요한 어떤 원칙들의 체계, 즉 정의의 원칙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원칙은 사회 정의의 원칙으로서 기본적인 사회 제도 내에서 권리와 의무를 할당하는 방식을 제시하며, 사회 협동체의 이득과 부담의 적절한 분배를 결정해 준다고 보았다.

● 노직의 분배적 정의

자유 세계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다른 물자를

손에 쥐고 있으며 새로운 소유물은 자발적 교환과 행위로부터 발생한다. 사람들이 자신들의 배우자를 선택하는 배우자의 분배란 있을 수 없듯이, 우리의 경우에도 몫의 분배 행위 또는 분배란 있을 수 없다. …… 세계가 전적으로 정의롭다면, 다음의 귀납적 정의가 소유물에서의 문제를 모두 해결하리라.

- ① 취득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소유물을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권리가 있다.
- ② 이전에서의 정의의 원리에 따라, 한 소유물을 이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는 자로부터 취득한 자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있다.
- ③ 어느 누구도 1과 2의 (반복적) 적용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소유물에 대한 소유 권리가 없다.

분배적 정의의 완결된 원리는 오직 다음일 것이다. 한 분배가 정의로울 수 있는 충분 조건은 그 분배하에서 모든 사람이 자신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에 대한 소유 권리를 소유함이다. …… 분배적 정의에 관해 제시된 거의 모든 원리는 정형적이다. 이 모두는 각인에게 그의 도덕적 상점, 필요성, 한계 생산물, 그의 열성, 또는 이상 언급된 바들의 계측된 총합에 따라 분배하라고 요구한다. 우리가 위에서 스케치한 소유 권리에 의거한 원리는 정형적이지 않다.

-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자료 풀이 노직은 지금까지 제시된 대부분의 분배 정의 이론이 정형적이며 비역사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비정형적이며 역사적 특성을 지니는 분배 정의 이론을 제시하였다.

● **왈처의 분배적 정의**

왈처에 따르면, 대부분의 사회에는 분배적 정의의 대상인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가치들이 있으며, 이 상이한 가치들은 각자에게 적합한 분배 영역을 구성한다. 따라서 각각의 분배 영역은 각자 특정한 분배 절차, 주체, 그리고 분배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정의는 상이한 분배 영역 내에서 각 가치가 타 영역에 속하는 가치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분배되어야 실현할 수 있다. 또한 가치의 분배 방식과 기준은 가치가 갖는 특성에서 비롯하며, 이 특성은 문화적·역사적으로 결정된 가치 자체의 사회적 의미이므로 사회적 가치의 분배가 정의로운지 아닌지는 사회 구성원들이 그 가치의 사회적 의미에 대해 공유하고 있는 이해에 따라 달라진다.

- 왈처, 『정의와 복합 평등』

자료 풀이 왈처는 사회적 가치가 특수한 사회적 의미를 담고 있

확인 문제

1. 아리스토텔레스가 “공평한 것은 중간이므로 정의로운 것도 어떤 중간일 것이다.”라고 말한 까닭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아리스토텔레스는 정의를 극단을 지양하고中庸의 원리에 따라 균형과 조화를 이루는 덕목으로 보았다. 그는 정의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과도하게 편중되지 않고, 각자에게 합당한 몫이 공정하게 주어지는 ‘중간’에 자리할 때 비로소 참된 정의가 실현된다고 보았다.

2. 롤스가 정의의 원칙을 단순히 나열하지 않고 축차적 서열로 구성한 까닭이 무엇인지에 대해 써 보자.

| 예시 답안 | 롤스가 정의의 원칙에 축차적 서열을 적용한 이유는 첫째, 기본적 자유는 타협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둘째, 정의의 원칙들 간의 혼란을 막기 위해서이다. 셋째, 공정한 사회 구조를 단계적으로 세우기 위해서이다.

3. 롤스가 생산 수단에 대한 권리나 자유방임론적 계약의 자유를 기본적 자유의 목록에 포함시키지 않은 까닭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롤스는 기본적 자유가 모두에게 평등하게 보장되어야 한다고 보았지만, 생산 수단의 소유권과 자유방임적 계약의 자유는 일부 계층에게만 집중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기본적 자유로 보지 않았다.

4. 노직이 말하는 ‘비정형적이고 역사적인 분배’의 의미가 무엇인지 써 보자.

| 예시 답안 | 노직은 정의로운 분배가 정형적인 방식이 아니라 역사적 과정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분배는 사전에 정해진 패턴, 예를 들면 평등, 최대 행복, 필요 등에 따라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이 재화를 어떻게 획득하고 교환했는지, 그 시간적 과정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5. 왈처가 “정의는 상이한 분배 영역 내에서 각 가치가 타 영역에 속하는 가치에 의해 지배받지 않고 자율적으로 분배되어야 실현할 수 있다.”라고 주장한 까닭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왈처는 정의란 각각의 사회적 가치가 자신의 고유한 영역 안에 머무르며 서로 다른 공정한 기준에 따라 분배되는 것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하나의 가치를 가졌다고 해서 다른 가치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가 주어지는 전제가 존재한다면 정의를 실현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으므로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배가 이루어져야 정의롭다고 주장하였다. 예를 들어 사회적 안전과 의료 혜택은 필요에 의해, 화폐는 자유 교환에 의해, 기본 교육은 엄격한 평등에 의해, 고등 교육은 시장과 공적에 의해, 정치적 권력은 설득력과 민주주의에 의해 분배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 칸트의 교정적 정의

공적인 정의가 원리 및 표준으로 삼는 것은 어떤 종류의 형벌이고 어느 정도의 형벌인가? 그것은 다르지 아니라 다른 한쪽보다 한쪽으로 더 기울지 않는 ‘동등성의 원리’이다. 그러므로 네가 국민 가운데 타인에게 아무런 잘못 없는 해악을 끼치는 것은 그것이 무엇이든 너는 그것을 네 자신에게 가하는 것이다. 네가 그를 욕하면 너는 그로써 너 자신을 욕하는 것이다. 네가 그를 때리면 너는 그로써 너 자신을 때리는 것이다. 네가 그를 살해하면 너는 그로써 너 자신을 살해하는 것이다. 오직 보복법만이 형벌의 질과 양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다. 여타의 모든 것은 이리저리 흔들리고 섞이는 다른 고려할 점들로 인하여 순수하고 엄밀한 평결과의 부합성을 가질 수가 없다. …… 그가 살인을 했다면 그는 죽어야만 한다. 이 경우에 정의의 충족을 위한 대체물은 없다. 제아무리 고통 가득한 생이라고 해도 생과 사 사이에 동등성은 없으며, 그러므로 범인에게 법적으로 집행되는 사형 외에 범죄와 보복의 동등성은 없다. 사형은 고통받는 인격 안의 인간성을 끔찍하게 만들 수도 있는 모든 가혹 행위에서 범죄자를 벗어나게 해 주는 것이기도 하다. 시민 사회가 모든 구성원의 동의로써 해체될 때조차도 감옥에 있는 마지막 살인자는 먼저 처형되어야만 한다. 그것은 누구든 자신의 행실에 값하는 것을 당하고, 살인죄가 이러한 처벌을 촉구하지 않았던 국민에게 씌워지지 않게 하기 위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를 처형하지 않을 경우 국민은 정의를 공적으로 침해하는 데 참여한 자로 간주될 수 있기 때문이다. …… 그러므로 살인을 했거나, 그것을 명했거나, 또는 그에 협력했던 살인자는 누구든 사형에 처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사법권의 이념으로 정의가 보편적이고 선형적으로 정초된 법칙들에 따라 의욕하는 바이다.

- 칸트, 『윤리 형이상학』

자료 풀이 칸트에 따르면, 사법적 형벌은 결코 범죄자 자신이나 시민 사회를 위해서 어떤 다른 선을 촉진하기 위한 한낱 수단으로서 가해질 수 없으며, 오히려 그가 범죄를 저질렀기 때문에, 항상

오직 그 때문에 그에게 가해지지 않으면 안 된다. 왜냐하면 인간은 결코 타인의 의도를 위한 수단으로 취급될 수 없고, 물권의 대상들 중에 섞일 수 없기 때문이다.

● 베카리아의 교정적 정의

사형은 우리를 더 낮게 한 적이 없는 무익한 형벌로, 공정하고 제대로 통치되는 국가에서 실제로 유용한지 묻고 싶다. 사람이 무슨 권리로 자기 이웃의 목을 벨 수 있단 말인가.

사형은 주권과 법의 근간에도 위배된다. 앞서 말했듯이 법은 각 개인의 사적 자유 중 가장 작은 부분의 합산일 뿐이며, 각 개인의 의지를 총합한 일반 의지를 나타낸다. 자신의 생명을 앗아갈 권리를 타인에게 부여할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는가, 공익을 위해 희생된 각 개인의 가장 작은 자유가 모든 선 가운데 가장 큰 생명을 앗아간다는 것이 가능한가, 그렇다면 사람은 스스로 목숨을 끊을 권리가 없다는 말과 어떻게 양립할 수 있겠는가, 내게도 없는 권리를 남에게 양도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앞에서 살펴본 대로 사형이라는 형벌은 어떤 논리로도 허용할 수 없다. 따라서 사형은 공공의 선에 필요하지 않고 유용하지도 않은 파괴 행위이며, 국가가 한 명의 국민을 상대로 벌이는 전쟁이다. 내가 사형이 필요하지 않고 유용하지도 않다는 사실을 제대로 입증한다면 나는 인도주의라는 대의명분을 갖는 것이다.

한 국민의 죽음은 한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필연적일 수가 없다. 그가 자유를 박탈당하더라도 국가의 안전을 위협할 만한 충분한 힘과 조직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이 명백한 경우이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국가가 자유를 회복하려는 때이거나 상실할 위기에 처했을 때만 유효하다. 이 시기는 무질서가 법을 대신하는 절대적 무정부 상태이다. 그러나 평온한 시대에 법의 지배를 받는 정부, 국민의 충분한 지지를 받는 정부, 국가의 통합된 소망으로 승인된 정부, 내부와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지킬 수 있는 정부에서는 어떤 이유로든 국민의 생명을 빼앗을 수 없다.

- 베카리아, 『범죄와 형벌』

자료 풀이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과 효과를 논리적으로 분석하며 사형은 비합리적이고 비인도적이며 범죄 예방에도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어떤 형벌을 정당화하려면 그 형벌이 타인의 불법 행위를 억제하기에 충분한 정도의 가혹성만 갖추면 된다고 보았다.

● 루소의 교정적 정의

군주가 시민에게 “국가를 위해 그대가 죽어야 한다.”라고 명할 때,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가 지금까지 안전하게 살아올 수 있었던 것은 오로지 이 계약 조건 아래에서만 가능했던 일이며, 그의 생명은 자연이 베풀어 준 은혜만이 아니라 국가에 의하여 조건부로 받은 선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범죄인에게 가해지는 사형도 이와 비슷한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다. 살인자가 사형을 받는 것에 동의하는 까닭은 자기 자신이 살인자의 희생물이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이다. 사람들은 사회 계약을 맺어서 자신의 목숨을 남에게 양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자기의 생명을 보장받고 있다고 생각할 뿐이다. 그래서 우리는 계약 당사자 중 어느 누군가가 처형당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을 것이다.

더욱이 모든 범죄자는 사회의 법을 침범했기 때문에 그 행위로 인해 그들은 조국에 대한 반역자이자 배신자가 되어 버린다. 조국의 법률을 위반함으로써 그들은 구성원으로서의 자격을 잃는다. 그뿐만 아니라 그들은 조국을 적대시하기까지 한다.

이렇게 되면 국가의 존립과 개인의 생명 보존이 양립할 수 없으므로 둘 중 하나가 없어져야 한다. 그래서 누군가 죄인이 되어 처형당할 때 그는 시민보다는 차라리 적으로 간주된다. 이 처벌의 심리와 판결은 그가 사회 계약을 깨뜨렸으며, 따라서 이미 국가의 구성원이 아니라는 증명이며 선언이다.

그런데 그는 국내에 거주하는 것만으로 자신이 국가의 구성원임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는 사회 계약의 위반자로서 국가로부터 추방되거나, 아니면 공공의 적으로서 사형에 처해져야 한다. 왜냐하면 그와 같은 적은 정신적 인격체가 아니라 하나의 인간일 뿐이다. 그러므로 전쟁 시 피정복자를 살해하는 경우와 같다.

— 루소, 『사회 계약론』

자료 풀이 루소는 살인자를 단순히 법 위반자가 아니라 사회 계약을 파괴한 ‘공공의 적’으로 간주하면서 공동체의 안전을 위해 사형에 처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러한 루소의 입장에서 형벌은 범죄에 대한 단순한 응보나 보복의 수단으로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사회 계약을 유지하고 공동선을 실현하기 위한 필수적인 장치이다.

확인 문제

6. 칸트가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수단이라고 본 까닭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칸트는 모든 인간을 자유롭고 이성적인 존재로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질 수 있는 도덕적 존재로 규정하였다. 따라서 그는 살인자에 대한 사형이 자신이 저지른 행위에 대한 책임을 부여하는 것으로, 도덕적 존재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7. 칸트의 형벌론을 응보주의로 보는 까닭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칸트는 범죄에 대한 처벌이 사회적 효용이나 예방이 아니라, 범죄 자체에 대한 도덕적 응징으로 정당화된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8. 베카리아가 살인자에 대해 사형보다 종신 노역형을 부과해야 한다고 주장한 까닭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베카리아는 형벌의 목적이 범죄 예방과 사회적 유익성 증진에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사람들이 두려움을 느껴 유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형벌의 강도는 높으나 그 효과가 지속적이지 않은 사형보다 지속적으로 두려움을 주는 종신 노역형이 더욱 효과적이라고 주장하였다.

9. 형벌의 목적에 대한 칸트와 베카리아의 차이점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베카리아는 형벌이 범죄 예방과 사회적 이익을 가져와야 한다고 주장하였지만, 칸트는 형벌이 오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존재해야 하며, 사회적 이익을 위해 형벌을 이용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10. 루소가 살인자를 단순히 법 위반자가 아니라 공공의 적으로 간주한 까닭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루소에 따르면, 사회 계약은 모든 사람이 법을 지킴으로써 보호받는 체제인데, 살인자는 다른 시민의 생명권을 부정하고 사회 계약을 정면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한 자이기 때문이다.

11. 사형 제도에 대한 루소의 입장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루소는 사회 계약이 계약자의 생명 보존을 목적으로 한다고 보았다. 루소는 살인이 사회 계약을 위반하는 행동이라고 보고, 사회 계약론의 관점에서 계약자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사형 제도에 찬성하였다. 그리고 살인자는 스스로 사회의 구성원임을 포기한 것이므로 그 생명권을 박탈하더라도 사회 계약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원전 자료

● 톨스토이의 예술론

예술은 인류를 진보시키는 두 기관 중 하나이다. 인간은 언어를 통해서 사상을 교환하고 예술의 형상을 통해서는 현재뿐만 아니라 과거와 미래의 모든 사람과도 감정을 교환한다. 이 두 교류 기관은 인류에게만 고유한 것이며, 그중 어느 한쪽이라도 고장이 나면 그 고장 난 분야에는 해로운 결과가 초래될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 악영향에는 두 가지가 있을 것이다. 첫째는 그 기관이 사회에서 수행해야 할 활동이 중단되는 것, 둘째는 고장 난 기관이 나쁜 작용을 일으킨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 사회에도 이런 결과가 여실히 나타나 있다. 예술이라는 기관이 고장이 났으므로 상류 계급 사회는 당연히 수행해야 할 기능을 대부분 상실하였다. 현대사회에는 흥미는 있으나 사람을 타락하게 하는 가짜 예술과 훌륭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은 내용이 공허한 독선적인 예술이 범람하고 있다. 그리하여 진정한 예술에 대한 사람들의 감수성을 손상함으로써 인류가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감정, 오직 예술만이 전달해 주는 감정을 느끼지 못하게 되었다.

인류에 의해서 이루어진 예술상의 모든 훌륭한 성과도 예술에 감동하는 능력을 잃은 사람들에게는 상관 없는 것이 되었고 오히려 모조 예술품 혹은 진짜로 받아들여지는 너절한 예술로 바뀌어 가고 있다.

- 톨스토이, 『예술이란 무엇인가』

자료 풀이 톨스토이는 예술을 단순히 미적 쾌락을 위한 엘리트 계층의 전유물이 아니라 인간의 감정을 전달하는 도구로 정의하였다. 나아가 그는 예술의 윤리적 기능 및 도덕적 가치를 강조하면서 예술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아름다움 자체가 아니라 인간에게 끼치는 윤리적 영향이라고 주장하였다.

● 오스카 와일드의 예술론

대중이 그 나라의 고전들을 예술의 진보를 확인하는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실이다. 그들은 고전을 권위로 강등한다. 그들은 새로운 형식으로 아름다움을 자유롭게 표현하는 것을 막기 위한 곤봉으로 고전을 사용한다. 그들은 항상 작가에게 왜 다른 사람처럼 쓰지 않는지 묻고, 화가에게 왜 다른 사람처럼 그리지 않는지 묻는데, 이는 어떤 경우에도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예술가가 아닌 것이 된다는 사실을 잊은 형태이다.

아름다움의 새로운 양식은 대중에게는 절대적으로 불쾌하며, 그런 것이 등장할 때마다 그들은 너무도 화가 나고 당황한 나머지 항상 두 가지의 어리석은 표현을 보인다. 하나는 그 예술 작품이 심히 난해하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작품이 심히 부도덕하다는 것이다. 이런 말을 할 때 그들이 의미하는 것은 다음과 같다고 본다. 그 작품이 심히 난해하다는 말은 작가가 어떤 새로운 아름다움을 말했거나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작품이 심히 부도덕하다는 말은 작가가 어떤 진실된 아름다움을 말했거나 만들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전자는 양식에 관한 것이고 후자는 주제에 관한 것이다.

- 오스카 와일드, 『오스카 와일드 미학 강의』

자료 풀이 오스카 와일드는 '예술을 위한 예술'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예술이 도덕적이거나 실용적인 목적에 종속되어서는 안 되고 미적 가치만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즉 예술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것이지 정치적·도덕적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다.

● 칸트의 '미(美)'에 대한 관점

칸트는 미에 관한 판단이 주관적인 판단이긴 하지만 도덕적인 판단과 흡사하다고 주장하였다. 도덕 판단은 절대적 기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우리 행위의 기준이 되는 도덕은 초감성적 기체에 의존해야만 하는데, 반성적 판단력에 의거하는 미적 판단도 이와 비슷하다는 것이다. 칸트에 따르면, 미를 판정하는 판단력은 '특수'만 주어져 있어서 그 특수를 포섭할 '보편'을 찾아내야 하는 반성적 판단이다. 미적 판단에서의 주관적 원칙에 대한 보편성 요구는 도덕성의 객관적 원칙에 대한 보편성 요구와 유사성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인간학으로서 칸트의 미학은 도덕학으로 연결되고, 그에 따라 미는 이제 도덕성의 상징이 된다. - 노영덕, 『처음 만나는 미학』

자료 풀이 칸트는 미적 체험과 도덕적 실천은 서로 다르지만, 이기적인 욕구에서 벗어나 보편적인 타당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주장하였다.

● 묵자의 예술론

군주와 대신들은 일찍 조화에 나가고 늦게 퇴근하면서 형벌을 다스리고 정사를 처리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다. 관리들은 지체를 다해 안으로는 관청을 다스리고 밖으로는 관문이나 시장, 산

림이나 연못에서 나는 이익을 거두어들여 나라의 창고를 채워야 하는데 이것이 그들에게 주어진 일이다. …… 그런데 군주나 대신들이 음악을 좋아해 음악 듣기만을 일삼는다면 일찍 나가고 늦게 퇴근하면서 형벌을 다스리고 정사를 처리할 수 없게 된다. 관리들이 그러하면 나라의 창고를 채우지 못하고, 농부들이 그러하면 수확을 할 수 없으며, 여자들이 그러하면 천이나 비단을 짜지 못한다. 그렇다면 무엇이 대신들이 정사를 하고 미천한 사람들이 생업에 종사하는 것을 막고 있는가? 그것은 음악이다. 그러므로 음악을 연주하는 것은 그릇된 일이다. - 『목자』

자료 풀이 목자는 유학에서 강조하는 음악과 예술을 비생산적이고 사치스러운 활동이라고 비판하였다. 목자의 실용적 예술관은 이후 법가 사상에 영향을 주었으며, 예술을 개인적인 향유가 아니라 사회적 실용성과 연관시켜야 한다는 관점을 제시하였다.

● **순자의 예술론**

목자가 음악을 비난한 것은 어찌된 일인가? 본래 음악은 종묘에서는 군신 상하가 함께 들으면 화합하고 공경하며, 가정 안에서는 부자와 형제가 함께 들으면 화합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시골 마을의 친척들 가운데서는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 들으면 화합하고 순종한다. 그러므로 음악은 한가지를 잘 살펴서 화합을 정하는 것이요, 사물을 모방하여 음절을 꾸미는 것이며, 모두 모여 연주해서 아름다운 형식을 이루는 것이다. 이것으로 사람의 도리를 통일하여 이끌어 갈 수 있고, 만 가지 변화를 다스릴 수 있게 된다. 이것이 바로 옛 선왕이 음악을 만든 법칙이다. 그런데 목자가 음악을 비난한 것은 어찌된 일인가?

아(雅)와 송(頌)의 음악을 들으면 사람의 마음이 넓어지고, 방패와 도끼를 잡고서 몸을 숙였다 퍼는 동작을 익히면 용모가 엄숙해지고, 무대에서 반주에 맞춰 춤을 추면 행렬이 바르게 되고 진퇴가 가지런하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음악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 밖에서는 죄 있는 사람을 정벌하고 별주는 역할을 하며, 나라 안에서는 서로 읊(揖: 예를 갖추어 인사하는 것을 말한다.)하고 사양하도록 한다.

- 순자, 『순자』

자료 풀이 순자는 예술을 단순히 미적 즐거움을 위한 것이 아니라 도덕과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도구로 보았으며, 특히 음악은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다.

확인 문제

1. 톨스토이가 지향한 예술론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점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톨스토이의 예술론은 예술이 단순한 쾌락을 넘어 사회적·윤리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과 인간 감정의 공유 수단으로 예술을 정의하여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반면에 예술의 기능을 도덕적 측면에 국한하여 미학적 가치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2. 오스카 와일드가 지향한 예술론의 긍정적 측면과 한계점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오스카 와일드의 예술론은 예술이 도덕이나 정치적 목적에 종속되지 않고 독립적인 가치를 지녀야 한다고 봄으로써 예술의 자율성과 독립성을 강조했다. 반면에 예술의 미적 가치만을 중시하여 예술의 사회적·도덕적 영향력을 간과할 수 있다는 한계점이 있다.

3. 칸트가 미에 관한 판단과 도덕 판단이 유사하다고 주장한 까닭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칸트는 미에 관한 판단과 도덕 판단이 각기 고유성과 독자성을 지니고 있지만 모두 보편적인 타당성을 요구한다는 점에서 유사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예술이 주는 심미적 즐거움이 도덕적 가치와 동떨어져 있지 않으며 미가 도덕성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4. 목자가 예술을 부정적으로 바라본 까닭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목자는 실용주의적이고 평등주의적인 사상을 바탕으로 국가와 개인이 실제적인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목자는 예술, 특히 음악과 의례는 백성들의 삶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사치스럽고 비생산적인 활동이라고 보았다.

5. 순자가 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한 까닭을 개인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 써 보자.

| 예시 답안 | 순자는 개인적 측면에서 예술이 인간의 욕망을 조화롭게 다스리고 감정을 정제하는 역할을 수행하여 덕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한다고 보았다. 사회적 측면에서는 예술을 통해 사회 질서를 확립할 수 있으며, 올바른 음악과 예술은 백성들이 같은 감정을 공유하도록 하여 사회적 조화와 단결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보았다.

13

거주함과 소비의 의미

원전 자료

● 볼노브가 말하는 '거주함'의 의미

인간은 집에서 자유롭고 편안하게 움직일 수 있고 평화를 얻을 수 있다. 체험 공간에서는 집의 경계를 이루는 담, 혹은 일반적으로 거주 구역의 경계선으로 인해 불연속의 요인이 발생한다. 이로써 공간은 뚜렷하게 구분되는 두 영역으로 분리된다. 집의 담은 대규모 일반 공간으로부터 특별하고 사적인 공간을 떼어냄으로써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을 구분한다. 지멜이 말했듯이 경계를 정하는 동시에 그것을 넘어서는 능력으로 규정되는 인간은 가장 눈에 띄기 쉬운 담으로 경계를 정한다. 내부 공간과 외부 공간이라는 두 영역은 체험 공간 전체 구조의 기본을 이루고, 나아가 인간 삶의 기본이 된다.

두 공간은 성격이 전혀 다르다. 외부 공간은 인간이 세계에 나가 활동하는 공간이고, 저항을 극복하고 적을 막아내야 하는 곳으로서 보호받지 못하는 공간이자 위협과 희생의 공간이다. 만일 세계에 외부 공간만 존재한다면 실존주의자들의 말대로 인간은 쫓기는 망명자로 머물 것이다. 바로 그래서 인간에게 집이라는 공간이 필요하다. 그곳은 인간이 혹여 닥칠지 모르는 위협에 대한 끝없는 경계심을 내려놓을 수 있는 안정과 평화의 영역이고, 뒤로 물러나 긴장을 풀 수 있는 공간이다. 인간에게 이 평화를 선사하는 것이 집의 최대 과제이다. 이렇게 해서 안도감을 선사하는 공간은 위협을 받는 공간과 분리된다. …… 인간은 거주자일 때만, 집을 소유하고 있을 때만, 공공의 영역과 분리된 사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있을 때만 자신의 본질을 실현할 수 있고 온전한 의미에서 인간이 될 수 있다.

- 볼노브, 『인간과 공간』

볼노브에게 '거주함'이란 어떤 확실한 자리에 속하고, 그 속에 뿌리내리면서 집에 있음을 의미한다. 거주함이란 본래적인 의미로 아늑함의 달혀진 공간, 그 안에서 인간이 위협적인 외부 세계로부터 되돌아갈 수 있는 집의 고유 공간을 가짐을 의미한다. 바슐라르는 집, 방, 창, 지붕 등 일상생활에서 체험하는 공간의 문제를 고찰한 바 있다. 볼노브는 바슐라르를 인용하면서 집이란 아늑함과 안정감을 가져다주는 '기분이 이입된' 거주 공간이어야 한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인간이 안주하고 보호받으며 인간답게

거주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하면서 '공간의 인간화'를 촉구하였다. …… 볼노브는 하이데거의 거주론을 '인간학적 교육학'의 입장에서 재해석한다. 거주자로서의 인간은 스스로 새로운 안주성을 위해 공간을 만들어 가는 일을 돕는 것이 교육의 본질적인 과제라고 본다.

- 강학순, 『존재와 공간』

자료 풀이 볼노브는 '거주'를 단순한 주거가 아니라,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제공하는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집은 인간에게 안락함과 정서적 안정감을 주는 공간이며, 이를 통해 인간은 자신의 존재를 확립할 수 있다고 보았다.

● 바슐라르가 말하는 '거주함'의 의미

사람들이 우리에게 집의 가장 귀중한 혜택이 무엇인지를 묻는다면 우리는 이렇게 대답할 것이다. 집은 몽상을 지켜 주고, 몽상하는 이를 보호해 주고, 우리들로 하여금 평화롭게 꿈꾸게 해 준다. 인간적인 가치를 확정하는 것은 사상과 경험만이 아니다. 몽상에는 인간을 그의 깊은 내면에서 징표하는 가치들이 속해 있다. …… 더할 수 없이 깊은 몽상 속에서 우리들이 태어난 집을 꿈꿀 때, 우리들은 물질적 낙원의 그 원초적인 따뜻함, 그러한 잘 중화된 물질에 참여하게 된다. 보호되는 존재들이 살고 있는 것은 바로 그러한 분위기 속에서인 것이다.

- 바슐라르, 『공간의 시학』

자료 풀이 바슐라르는 집을 단순히 물리적인 구조물이 아니라, 인간의 기억과 상상이 깃든 공간으로 바라보았으며, 집은 개인의 내면과 심리적 안정을 구축하는 가장 중요한 공간이라고 주장하였다.

● 베블런이 바라본 소비의 의미

현대사회에 살고 있는 많은 사람은 신체적 안락에 필요한 것 이상의 소비를 한다. 이러한 행동은 그들의 구체적 소비 행위를 고가의 것으로 하려는 의식적 노력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소비된 제품의 수량과 등급에 있어서 품위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욕망을 갖고 있어 그런 소비 행위가 나오는 것이다. …… 관습적으로 소비되는 많은 물품을 자세히 분석해 보면 거의 낭비하는 것이고 명예를 의식한 것이다. …… 차별적 비교가 우리에게 영향을 주어 우리는 같은 등급으로 분류되는 사람들과의 경쟁에서 한발 앞서 나가려고 노력하게 된다. 각 계급은 상위 계급을 부러워하고 또 모방하려고 한다.

…… 이런 식으로 해서, 계급 구분이 다소 모호한 사회에서는 명성과 품위의 기준, 그리고 소비의 모든 기준이 미묘한 등급 구분에 의하여 가장 높은 사회적·금전적 계급(부유한 유한 계급)의 관례와 사고방식으로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 베블런, 『유한계급론』

자료 풀이 베블런은 『유한계급론』에서 과시적 소비의 개념을 제시하였다. 과시적 소비란 단순히 필요를 넘어서 사회적 지위를 드러내거나 과시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소비 행태를 말하는 것으로 계층적 차별화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소비를 말한다.

● 보드리야르가 바라본 소비의 의미

체계는 개인 간의 실제적인 차이에 근거해서 작용하는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체계가 체계로서 성립하는 것은 바로 그것이 각 개인의 고유의 내용 및 존재를 없애고, 그것을 차이 표시 기호로서 산업화 및 상업화될 수 있는 시차적 형태로 대체하기 때문이다. 체계는 일체의 독특한 성질을 제거하고 차별적 도식과 이 도식의 체계적 생산만을 보유한다. 이 단계에서 차이는 더 이상 배타적이지 아니다. 이렇게 코드화된 차이는 개인들을 분할하기는커녕 교환 용구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기본적인 사실이며, 소비는 이 사실에 의해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 ① 소비는 더 이상 사물의 기능적 사용 및 소유 등이 아니다.
- ② 소비는 더 이상 개인이나 집단의 단순한 위세 과시의 기능이 아니다.
- ③ 소비는 커뮤니케이션 및 교환의 체계로서, 끊임 없이 보내고 받아들이고 재생되는 기호의 코드로서, 즉 언어 활동으로서 정의된다. …… 현대의 사회 정치 체제에서 소비 체계가 지니는 주요한 이데올로기적 기능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이데올로기적 기능은 차이적 가치의 일반화된 코드의 제도화로서의 소비의 정의와 이미 본 바 있는 교환 및 커뮤니케이션 체계의 기능으로부터 추론된다.

– 보드리야르, 『소비의 사회』

자료 풀이 보드리야르는 현대인이 자유롭게 자신이 원하는 대로 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타인과 다른 행위를 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 행위는 차이화의 강제 및 코드에 복종하는 것이라고 말하였다. 현대인은 자신의 욕구에 따라 자유롭게 소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의식적이고 구조적인 사회적 강제, 즉 '사회적 차이화의 강제'에 의해 소비하게 된다는 것이다.

확인 문제

1. 볼노브가 바라본 '거주함'의 의미를 써 보자.

| 예시 답안 | 볼노브는 거주란 단순히 인간이 공간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공간을 경험하고 의미를 부여하면서 인간 존재의 본질을 실현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인간은 거주를 통해 심리적 안정과 보호를 제공받고, 자신만의 의미를 부여하며 정서적 유대감을 형성할 수 있다고 보았다.

2. 볼노브의 입장에서 인간 삶에 있어서 주거 공간의 역할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볼노브는 주거 공간이 인간의 정체성 형성과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았으며 주거 환경의 디자인과 조성이 인간의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보았다.

3. 바슐라르가 말하는 '몽상'의 의미를 써 보자.

| 예시 답안 | 바슐라르가 말하는 몽상은 단순한 공상이 아니라 현실과의 연결 속에서 의미를 찾는 행위이다. 바슐라르는 인간이 이러한 몽상을 통해 새로운 영감을 얻고, 창조적인 사고를 확장할 수 있다고 보았다. 또한 몽상은 인간의 내면적 상처를 치유하고 현실에서 벗어나 심리적 안정을 찾는 과정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4. 과시 소비를 하는 이유에 대한 베블런의 견해를 써 보자.

| 예시 답안 | 베블런은 인간이 과시 소비를 하는 원인으로 사회적 지위, 경쟁, 모방 심리 등을 제시하였다. 즉 사람들은 단순히 생존을 위해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와 지위를 보여 주기 위해 경쟁적으로 소비를 하며, 이러한 과시 소비를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한다고 보았다.

5. 보드리야르가 말하는 '기호 소비'의 의미와 '기호 소비'가 초래하는 문제점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기호 소비란 상품을 구매할 때 그 상품이 가진 기능적 가치보다 그 상품이 의미하는 상징적 가치를 더 중시하는 소비 행태를 말한다. 보드리야르는 이러한 기호 소비가 진짜 욕망을 생성하며 실제와 무관한 허구적인 기호를 소비하게 만들고, 기호의 가치가 소멸되면 곧바로 새로운 소비를 찾아 나서게 만드는 '소비의 무한 반복'을 초래한다고 보았다.

원전 자료

● 문화 상대주의와 윤리의 보편성

다양성에 대한 철학적 논의는 먼저 윤리학이나 정치·사회 철학의 영역에서 상대주의에 대한 논의를 일으킨다. 동일한 상황에서 다양한 반응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가치와 행동의 원칙에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절대적 기준이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는 주장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사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의미에서의 상대주의적 입장이 매너와 에티켓의 근거를 이루기도 한다. 서로 다른 취향에 대해 비판하지 않고 다른 스타일이나 행동 방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것이 매너라고 했을 때, 여기에는 어느 정도 상대주의가 작동하는 것이다.

상대주의가 등장하는 근거는 개인의 심리, 역사, 문화 등 다양하다. 개인의 심리적 성향이 동일한 상황에 대한 판단과 평가를 다르게 할 수 있고, 역사에 따라 달라진 관습은 절대적인 윤리의 기준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의심을 자극하며, 문화에 따라 다른 사회적 관습은 절대적 진리나 기준은 존재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을 부추긴다. …… 도덕과 윤리 영역은 상대주의의 도전을 심각하게 받고 있다. 앞서 보았던 문화 상대주의도 도덕과 윤리 영역에 가하는 심각한 도전이 된다. 보편적 도덕 법칙으로 주장되는 칸트의 정언 명법, 즉 “네 의지의 준칙이 언제나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위하라.”라는 것도 실질적인 내용은 결여한 채 하나의 형식적 기준으로 남아 있는데, 이것이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차원으로 들어간다면 그 구체적 내용은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 김선옥, 「다양성과 관용」

자료 풀이 문화 상대주의는 모든 문화가 고유한 가치와 규범을 가지고 있으며, 한 문화의 윤리 기준을 다른 문화의 기준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문화 상대주의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공통된 도덕적 원칙을 주장하는 보편 윤리와 때때로 충돌하는 현상을 보인다.

● 로크의 종교에 대한 이해

그리스도인 사이의 상호 관용에 대한 제 견해를 물으신 당신의 질문에 저는 관용이야말로 참된 교회를 구별하는 가장 분명한 기준이라고 짧게 대답하겠습니다. 어떤 이들은 자신들이 예배하는 장소와 그곳의 이름이 유서 깊으며, 자신들이 채택하고 있는 의

례가 화려하다고 자랑합니다. 또 다른 이들은 자신들이 개혁한 교리를 자랑합니다. 구교와 신교 양자 모두가 각자에게는 자신의 신앙이 정통일 것이므로 정통 신앙을 제아무리 크게 자랑하더라도 양자가 내세우는 이러저러한 주장들은 그리스도가 세운 교회의 표지가 아니라, 다만 인간이 권력과 지배를 둘러싸고 경쟁함을 보여 주는 것일 수 있습니다. 유서 깊은 장소와 이름, 화려한 의례, 개혁된 교리 이 모든 것을 누군가 소유하고 있어도 만약 자비와 온순과 호의를 세상 모든 사람에게는 커녕 같은 그리스도교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에게조차 결여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아직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 종교적인 사안에 대해 서로 다르게 생각하는 사람들을 관용하는 것은 복음과 이성에 일치하는 것이어서, 사람들이 그토록 분명한 빛 속에서도 잘 보지 못하는 것이 오히려 제게는 기괴한 일처럼 보입니다. 여기에서 저는 다른 사람들의 자만과 야심을, 자비와 온화함에서 벗어난 무절제와 열정을 비난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것들은 어찌면 인간사에서 결코 제거할 수 없는 오류들일 테지만 어느 누구도 자신이 남 앞에서 그 오류를 범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습니다.

— 로크, 『관용에 관한 편지』

자료 풀이 로크는 다양한 종파가 갈등을 빚고 있던 당시 영국 사회에서 강압적 종교 정책보다 종교적 관용이 더 안정된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나아가 참된 교회는 강제나 폭력이 아니라 신앙의 자유와 자발적 신념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엘리아데가 생각한 종교적 인간

인간이 성스러움을 아는 것은 그것이 속된 것과는 다른 어떤 것으로 스스로를 현현(顯現: 명백하게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하고 보여 주기 때문이다. 이 성스러운 것의 현현을 여기서는 성현(聖顯)이라는 말로 불러 본다. 이 말은 성현 이외의 어떤 것을 내포하지 않기 때문에 적절한 용어라고 할 수 있다. 이 말은 어원적인 내용 가운데 있는 말, 즉 어떤 성스러운 것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이외의 다른 것을 표현하고 있지 않다. ……

종교적 인간의 입장에서 관찰한다면 세계는 성스러운 것, 따라서 존재의 다양한 양태를 발견하는 방식으로 드러난다. 무엇보다도 세계는 실존하고, 실제로 거기에 있으며, 그리고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세계는 카오스가 아니라 코스모스이다. 따라서 세계는 신들의 작품인 피조물로 자신을 드러낸다. 이 신의 작품은 항상 어떤 종류의 투명성을 지니고 있는데, 즉 스스로 성스러운 것의 여러 양상을 제시한다. 대지도 마찬가지로 투명한데, 즉 그것은 우주적인 어머니이자 양육자로서 자신을 드러낸다. 여러 가지 우주의 리듬은 질서, 조화, 항상성, 풍요성을 명백히 드러낸다. 우주는 전체로서 실재적이고 살아 있고, 또한 성스러움을 지닌 유기체이다. 즉 그것은 존재와 신성성의 여러 양태를 제시한다. 존재의 현현과 성현이 서로 만나는 것이다. ……

종교적 인간에게 초자연적인 것은 자연적인 것과 불가분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 자연은 항상 특이 그것을 초월하는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있다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우리가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성스러운 돌이 존경받는 이유는 그것이 신성하기 때문이지 돌 그 자체이기 때문이 아니다. 돌의 진정한 본질을 제시하는 것은 돌의 존재 양식 안에 나타난 신성성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 19세기적인 의미의 자연 숭배나 자연 종교를 논하는 것은 잘못이다. 왜냐하면 종교적 인간은 세계의 자연적인 면을 통해서 초자연을 파악하기 때문이다.

— 엘리아데, 『성과 속』

자료 풀이 엘리아데는 '종교적 인간'이라는 개념을 통해 인간을 본질적으로 신성한 것과 관계를 맺으려는 근본적인 성향을 지닌 존재로 설명하였다. 엘리아데가 제시한 종교적 인간은 세상을 단순히 물리적인 공간으로 보지 않고 신성한 영역과 세속적 영역을 구분하려는 성향을 지니며, 성스러운 공간을 중심으로 세계를 이해한다.

● **한스 킹의 세계 윤리 선언**

세계 평화를 위해서는 종교의 평화가 필요하고, 종교의 평화를 위해서는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하여 윤리적 공통분모를 확인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통해 세계 윤리를 정립하고 세계 평화를 이룩하자. …… 종교를 통한 세계 윤리에 대한 합의는 기본적 인간성의 최대 요구 실현을 방향으로 삼는다.

— 한스 킹, 『세계 윤리 구상』

자료 풀이 한스 킹은 대화 역량이 곧 평화 역량임을 강조하며 종교 간의 대화를 통한 평화를 주장하였다. 그는 종교 간의 평화 없는 세계 평화도 이룰 수 없다고 보았다.

확인 문제

1.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 간에 발생하는 충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써 보자.

| 예시 답안 | 문화 상대주의와 보편 윤리의 충돌은 단순한 이분법적 문제가 아니라, 복잡한 사회적·역사적 맥락에서 해결해야 하는 과제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편 윤리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개별 문화의 특수성을 고려하는 균형 잡힌 시각을 지녀야 한다.

2. 로크가 제시한 종교적 관용의 필요성과 한계점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로크에 따르면, 신앙은 본질적으로 자발적인 것이어야 하며 강요에 의해 변화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종교적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해야 한다. 다만 로크는 모든 종교에 대해 무제한적인 관용을 주장한 것은 아니며 다른 사람의 자유와 사회 질서를 위협하는 신념이나 행동은 허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3. 엘리아데가 말하는 '종교적 인간'의 의미와 특징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엘리아데에 따르면, 종교적 인간은 세계를 단순한 물질적 공간이 아니라, 성스러움과 연결된 공간으로 봄으로써 삶의 의미를 신과 성스러움 속에서 찾고자 한다. 나아가 단순한 생존이 아니라 우주적 질서 속에서 인간의 역할을 깨닫고자 하며 종교적 의례(예배, 기도, 성례 등)를 통해 혼란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거룩한 질서를 찾고, 삶의 의미를 부여받겠다고 보는 사람이다.

4. 엘리아데가 말하는 성(聖)과 속(俗)의 의미와 관계를 써 보자.

| 예시 답안 | 성(聖)은 신성한 것, 절대적이고 초월적인 존재와 연결된 영역을 뜻하고, 속(俗)은 일상적이고 세속적인 세계를 뜻한다. 엘리아데는 성과 속이 완전히 분리된 것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조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5. 한스 킹이 제시한 세계 평화를 위한 방법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한스 킹은 종교 간의 평화가 이루어져야 세계 평화를 실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는 종교 간의 평화를 위해서는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다고 보았으며, 이러한 대화를 통해 주요 종교들에서 비폭력과 생명에 대한 존중, 관용과 진실성, 연대와 정의로운 경제 질서, 평등과 남녀 동반 관계 등을 기본으로 하는 세계 윤리를 도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원전 자료

● 포퍼의 소통의 윤리

나의 자기 질타, 그리고 내가 합리주의자이자 계몽주의자라는 고백은 내가 합리주의와 계몽주의를 어떤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지 설명하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내가 합리주의라고 할 때에는 철학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전적으로 이성적인 존재’라는 비이성적인 주장을 하려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내가 이성이나 합리주의를 이야기할 때에는 오직 우리가 자신의 실수와 오류에 대한 비판, 특히 타인의 비판을 통해, 그리고 나아가 자기 비판을 통해 배울 수 있다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합리주의자는 한마디로 자신이 옳음을 증명하는 것보다 배우는 것을 더 중히 여기는 사람, 남에게 기꺼이 배우고자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단,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에 대한 다른 사람의 비판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다른 사람의 생각 또한 신중히 비판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방점은 비판, 더 정확히 말하면 비판적 논의에 있습니다.

진정한 합리주의자는 자신을 포함한 어느 누구도 진실을 온전히 알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판만 가지고 새로운 관념을 발전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인간이 품는 관념에 한해서, 오직 비판적 논의를 통해서 쪽정에서 낱알을 가려낼 수 있다고는 생각합니다. …… 합리주의적 접근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틀리고 당신이 옳을 수 있다. 어느 쪽이든 진리에 접근하는 것이 누가 옳고 그른지 따지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이 논의가 끝났을 때 우리 모두 이 문제를 전보다 더 명료하게 볼 수 있기를 바라자. 이 목표를 염두에 둘 때에만 우리는 토론에서 자신의 주장을 최대한 펼쳐 보일 수 있다.” 바로 이것이 내가 생각하는 합리주의입니다.

- 포퍼, 『삶은 문제 해결의 연속이다』

자료 풀이 포퍼는 삶에 정답이 있다고 믿는 것은 문제를 피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문제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즉 과학을 진정한 과학으로 만드는 결정적 요소가 비판적 접근이듯이, 삶을 진지하게 만드는 것은 삶에 대한 열린 태도라는 점을 강조하였다.

● 밀의 자유론

오직 한 사람 말고는 인류 모두가 똑같은 의견을 갖고 있다고 할 때, 그 한 사람이 인류를 침묵하게 만들 권력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렇게 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것만큼이나 인류가 그 한 사람을 침묵하게 만드는 것도 정당화할 수 없을 것이다. 만약 어떤 의견이 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 말고는 그 누구에게도 아무런 가치가 없는 개인적인 소유물이라면, 그래서 그 의견을 갖는 즐거움을 방해받는 것이 단지 개인의 사적인 피해일 뿐이라면 그 피해가 소수의 개인들에게만 가해졌는가 아니면 다수에게 가해졌는가 다소 중요한 문제가 된다. 그러나 어떤 하나의 의견을 표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초래하는 특별한 해악이 따로 있다. 이렇게 하는 것은 현재의 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의 세대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의견을 갖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더더욱 인간으로서 그들이 누려야 할 권리를 박탈한다. 만약 그 의견이 올바른 것이라면 그들은 오류를 진리로 바꿀 기회를 박탈당한다. 반대로 그 의견이 그릇된 것이라면 그들은 오류를 진리로 바꾸는 것과 거의 같은 정도로 커다란 이익이 되는 것, 즉 진리와 오류의 충돌을 통해 생겨나는 진리에 대한 보다 분명한 인식과 보다 생생한 인상을 얻지 못한다. - 밀, 『자유에 대하여』

자료 풀이 밀은 모든 의견은 자유롭게 표현될 권리가 있으며, 심지어 잘못된 의견조차도 토론을 통해 진실을 더 명확하게 만든다고 보았다. 또한 고정된 절대적인 진리는 없으며 논쟁과 담론을 통해 더 나은 진리로 나아갈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하버마스의 의사소통 윤리

도덕적 판단 능력을 갖춘 주체는 각각 혼자서가 아니라 다른 당사자들 모두와 공동으로만, 현존하는 혹은 권고된 규범이 보편적 이익에 맞는지를, 그리고 사회적 효력을 가져야 할지를 검사할 수 있다. ‘타자 태도 취하기’와 ‘내재화의 메커니즘’은 여기서 결정적 한계에 부딪힌다. 자아는 타자가 논증 참여자의 역할에서 그에 대해 취하는 태도를 예기(豫期: 앞으로 닥쳐올 일에 대하여 미리 생각하고 기다리는 것을 말한다.)할 수는 있을 것이다. 앞서 보았듯이 의사소통 행위자는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해 성찰된 관계를 갖는다. 자아는 심지어 그때그때 당사자들의 범위에서 이루어지는 도덕적 논증의 과정을 상정해

보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의 결과를 예측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상적 의사소통 공동체의 기획은 실제로 실행해야 하고, 독백화된 가상 대화로 대체될 수 없는 토의의 설정을 위한 길잡이 역할을 하는 것이다. …… 의사소통적 윤리의 기본 가정을 전개할 때 미드(G. H. Mead)는 체계적 의도와 진화론적 의도를 동시에 가지고 있다. 체계적 측면에서 그는 보편주의적 도덕이 이런 방식으로 가장 잘 정초될 수 있음을 보여 주고자 한다. 그러나 그는 이런 사실을 또한 진화론적으로 설명하고 싶어한다. 의사소통의 이론적 기본 개념은 보편적 토의, 즉 ‘언어적 상호 이해라는 형식적 이상’이다. 합리적 동기에 따른 상호 이해라는 이념은 언어의 구조 안에 이미 들어 있다. 그래서 그것은 실천 이성의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사회적 삶의 재생산 속에 내장되어 있다. 의사소통 행위가 종교로부터 사회 통합의 부담을 넘겨받는 정도가 커질수록, 제약되지 않고 왜곡되지 않은 의사소통 공동체의 이상 또한 실제의 의사소통 공동체에서 더욱 강하게 경험적 영향력을 획득해야 할 것이다. - 하버마스, 『의사소통 행위 이론』

자료 풀이 하버마스는 생활 세계 내에서 사람들 사이에 합리적인 의사소통 원리를 구축하여 서구 근대 사회의 병리들을 진단하고 치료해야 한다고 보았다. 나아가 미드의 이론을 계승하여 의사소통 윤리는 단순한 개인적 도덕 판단이 아니라, 사회적 진화와 체계적 구조를 바탕으로 형성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하버마스가 제시한 담론의 보편화 원칙

모든 타당한 규범은 다음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모든 개인의 이해를 만족하기 위해서 그 규범을 일반적으로 따를 때 발생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을 모든 당사자가 수락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미 알고 있는 대안적 조절 가능성의 효과보다 결과와 부작용을 고려해야 한다. …… 어떤 준칙이 일반 법칙이 되기를 바란다면 다른 사람들에게 이 준칙의 타당성을 규정적으로 명령하거나 강제하지 말아야 한다. 개인이 모순 없이 일반 법칙으로 원할 수 있는 것부터 모든 사람이 일치하여 보편적 규범으로 승인하기를 원하는 것으로 무게 중심을 이행해야 한다.

- 하버마스, 『도덕의식과 소통적 행위』

자료 풀이 하버마스는 일상생활에서 상대방을 이해하는 가운데 합의를 이루려면 담론 윤리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그는 갈등 상황을 폭력이나 강압이 아닌, 상호성을 바탕으로 실천적 담론 원칙과 보편화 원칙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확인 문제

1. 포퍼가 비판과 토론의 중요성을 강조한 까닭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포퍼는 과학의 발전이 이론에 대한 끊임없는 비판과 반증을 통해 이루어지듯이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유로운 비판과 토론이 필수적이라고 보았다.

2. 포퍼가 말하는 ‘열린 사회’의 특징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포퍼가 말하는 열린 사회란 닫힌 사회와 대립하는 사회로서 비판적 사고를 장려하고, 더 나은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도록 토론이 활성화되어 있는 사회이다. 나아가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기반으로 개인의 자유와 인권을 보장하고, 어떤 정책이나 제도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으므로 지속적으로 평가되고 수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는 사회이다.

3. 밀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한 까닭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밀은 표현의 자유란 단순한 권리가 아니라, 사회 발전과 민주주의의 핵심 요소라고 주장하였다. 표현의 자유를 통해 진리를 탐구할 수 있고, 다양한 의견이 허용됨으로써 사회의 발전을 촉구할 수 있으며, 나아가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정책과 제도를 수립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견제할 수 있기 때문이다.

4. 하버마스가 말하는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발휘되는 사회의 모습에 대해 써 보자.

| 예시 답안 | 의사소통적 합리성이 발휘되는 사회란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대화를 통해 합의가 이루어지는 사회이자 모든 참여자가 평등한 위치에서 자유롭게 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사회이다. 또한 권력과 경제적 이해관계에서 독립된 공론장이 존재하며 이상적 담론 상황이 유지되는 사회이다.

5. 하버마스가 담론 윤리에서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한 담론 원칙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하버마스는 담론 윤리에서 실천적 담론의 참여자로서 모든 당사자의 동의를 얻을 수 있는 규범만이 타당하다는 실천적 담론 원칙과 모든 당사자는 타당한 규범을 따를 때 나타날 수 있는 결과와 부작용을 알고 받아들여야 한다는 보편화 원칙을 강조하였다.

원전 자료

● 통일 국가는 어떤 모습일까?

우리에게 통일이 어떤 모습으로 다가올지 누구도 단정적으로 예측하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통일이 전쟁이라는 폭력적 방식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시장 경제에 기초한 ‘어떠한 민주주의 사회’라는 형태로 올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한반도의 분단과 남북한 대결의 원인은 이념이었다. 남한의 자본주의적 생활 양식과 북한의 사회주의적 생활 양식은 서로 대립하였다. 그러나 사회주의의 몰락이 한반도에서도 이러한 이념적 대립 구도를 무너뜨리고 있다. 사회주의는 자본주의의 반명제로 등장하여 제2차 세계 대전 후에 하나의 진영을 이루면서 자본주의 진영과 대결하였다. 그러나 20세기 말에 발생한 사회주의의 몰락은 인류의 삶을 시장 경제로 상징되는 자본주의적 방식으로 단일화시켰다. …… 이러한 사실은 북한이 사회주의적 경제 방식을 고수하면서 국가를 재건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을 말해 준다. …… 한편 국가 건설의 관점에서 보면 통일은 우리 민족 사상 최초로 근대적 의미의 단일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기도 하다. 우리는 흔히 통일을 ‘민족 공동체의 복원’이라고 표현한다. 그러나 이는 틀린 말이다. 사실 역사적으로 남과 북은 오랫동안 하나의 민족으로 살아왔지만, 근대적 의미의 민족 국가를 형성해 보지는 못했다. …… 따라서 우리 민족에게 주어진 궁극적인 과제는 분단 민족에서 통일한 하나의 민족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즉 단순히 혈연, 언어의 공통성을 넘어서 어떻게 단일한 공통의 내적 삶의 구조와 의식을 만들어 나갈 것인가 하는 점이 과제이다. 이렇게 볼 때 우리는 통일을 단순히 혈족 결합으로 볼 것이 아니라 새로운 민족 국가 건설 프로젝트로서 바라보고 계획할 필요가 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에게 통일 국가는 ‘복원’보다는 ‘창조’의 측면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 이종석, 『통일을 보는 눈』

자료 풀이 통일 국가는 시장 경제를 토대로 한 민주주의 사회일 것이며 국가 건설의 관점에서 보면 통일은 우리 민족 사상 최초로 근대적 의미의 단일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 통일의 필요성

우리에게 통일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적·기회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은 남북으로 갈라진 이산가족의 고통을 해소하고 남북 간에 자유롭게 오가며 살 수 있는 등 다양한 선택의 기회를 부여할 것이다. 또한 통일은 남북 구성원 모두에게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향유할 수 있게 해 주며, 동시에 분단 비용의 해소를 통해 자유와 복지, 인간의 존엄과 가치, 인권 존중이라는 혜택을 더 크게 누릴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둘째, 역사적·문화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은 남북이 공유하고 있는 많은 역사와 문화의 회복과 그것의 미래 지향적 계승을 위해 필요하다.

셋째, 지리적·공간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은 한반도 안에 모든 구성원의 삶의 공간을 확대하고 더 큰 자유와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분단은 지금까지 남북 주민들의 왕래와 소통을 극단적으로 제약함으로써 삶의 공간을 크게 제한했을 뿐만 아니라, 생각과 감정, 행동의 측면에 있어서도 커다란 제약을 가해 왔다. 따라서 한반도에 평화가 정착되고 통일이 이루어지면 우리의 삶의 공간이 남북 모든 곳으로 확대되어 한반도 전체가 자유로운 생활 무대가 될 것이다.

넷째, 사회적·경제적 차원에서 볼 때, 통일은 우리 사회의 성숙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민족 공동체의 발전과 국제적 위상을 제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섯째, 거시적·종합적 차원에서 볼 때 한반도 통일은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필요하다.

- 통일교육원, 『2024 통일 문제 이해』

자료 풀이 남북한 통일은 한반도의 평화, 경제적 번영, 민족 정체성 회복을 위한 중요한 과제이며,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안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살펴볼 수 있다.

● 통일을 위한 과제

① 자유 민주주의 가치 제고

우리가 추구하는 통일 한반도의 미래는 국가 구성원 모두가 주인이 되고 개개인의 자유와 복지, 존엄성이 보장되는 자유 민주주의의 국가이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국민이 자유와 인권, 복지,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 등 보편적 가치와 질서를 폭넓게 이해하도록 해야 한다.

② 국민의 통일 인식 제고

국민의 통일 인식이 낮은 상황에서는 통일 한반도로

나아가기 위한 실천적 동력을 만들어 내기 어렵다. 이를 높이기 위해서는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고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③ 통일을 위한 경제·사회 기반 구축

통일 한반도의 비전을 현실화하여 다양한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통일의 경제·사회·문화적 기반을 튼튼히 쌓아 나가야 한다.

④ 통일 관련 법·제도 정비

통일이 질서 정연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통일과 관련된 법적·제도적 정비에 주력해야 한다.

⑤ 국제 사회의 협력 강화

오늘날 한반도는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같은 강대국의 이해가 얽혀 있는 지역이므로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지지와 협력을 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

⑥ 통일을 주도할 미래 세대 양성

청소년과 2030 세대 등 미래 세대가 통일과 남북 관계에 관심을 가지고 미래 한반도의 비전을 품을 수 있어야 통일을 추진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

- 통일교육원, 『2023 통일 교육 기본 방향』

자료 풀이 남북한 통일을 위해서는 신뢰 구축 및 평화 체제 마련, 경제 격차 해소 및 통일 재원 확보, 이념 갈등 해소 및 사회적 통합 노력, 군사적 긴장 완화 및 안보 체계 정비, 국민적 합의 도출 및 국제적 협력 확보 등 다양한 측면에서 철저한 준비와 단계적 접근이 중요하다.

● 한반도 평화 교육의 기본 방향

그동안 우리 민족의 삶을 전쟁과 극한 대결의 고통 속에 빠뜨리고 우리의 민주주의를 불구화시켜 왔던 가장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였던 분단 체제는 반드시 극복해야 한다. …… 어쩌면 통일을 위해서는 통일이라는 말을 아예 잊어버리는 것이 좋을지도 모른다. ‘하나의 민족, 두 개의 국가’라는 엄연한 현실을 인정하고 정상화하는 데서 출발하는, 독일의 동방 정책의 교훈을 제대로 담아낸 ‘(신)북방 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지금 우리에게 절실하게 필요한 건 비현실적인 통일에 대한 전망이 아니라 한반도에 서로 이질적인 두 국가의 지속적인 평화 공존을 보장할 국제 질서와 그것을 뒷받침할 국내 정치를 확립하는 것이다. - 장은주, 『한반도 평화 교육』

자료 풀이 우리는 독일 통일의 교훈을 성찰해 보고, 남북한이 화합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화해와 평화를 위한 개인적·국가적 차원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확인 문제

1. 통일 국가는 ‘복원’보다는 ‘창조’의 측면이 강하는 말의 의미를 써 보자.

| 예시 답안 | 통일 국가는 복원보다는 창조의 측면이 강하다는 말은 통일이 단순히 과거의 한반도를 되돌리는 일이 아니라 새로운 형태의 국가를 만드는 일이라는 의미이다. 즉 통일 국가는 남북한 주민이 공존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경제·사회 시스템을 창조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2.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통일은 이산가족의 재회를 가능하게 하고, 북한 주민의 인권 상황을 개선할 수 있으며, 전쟁의 위협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한다.

3. 사회적·경제적 측면에서 통일의 필요성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통일은 사회적 측면에서 이념적 갈등 해소 및 복지 향상을 통해 평화로운 공동체를 형성할 수 있게 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는 자원과 노동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창출하여 한반도 경제를 활성화한다.

4. 국민의 통일 인식을 높이기 위한 실천적 방안에 대해 써 보자.

| 예시 답안 |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육을 통해 통일 의식을 제고하고, 대중 매체와 대중문화 활용을 통해 통일 홍보 및 통일 이후의 모습을 가상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나아가 남북 교류 활성화를 통해서 주민 간 교류를 확대하고 북한 이탈 주민과의 다양한 소통 기회를 확대하며 자연스럽게 통일 의식을 함양하도록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국민이 자발적으로 통일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일 기금을 모금하고 통일 캠페인을 함께 전개하여 통일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5. 독일 통일 사례를 바탕으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평화 통일 방향에 대해 써 보자.

| 예시 답안 | 과거 독일은 동서로 분단된 국가였으나, 지속적인 교류와 신뢰 구축을 통해 통일을 실현하였다. 이러한 독일의 통일은 냉전 질서를 해체하는 데에도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이와 같은 사례는 분단 상황에 놓인 우리에게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대화와 협의, 다양한 형태의 교류와 협력이 꾸준히 이루어져야 한다. 아울러, 한반도와 동북아시아 지역에 평화로운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주변 국가들과의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원전 자료

● 마키아벨리의 군주론

군주는 오직 전쟁, 즉 전쟁에 대한 방법과 훈련 외에는 다른 목적을 가져서는 안 되고, 다른 생각을 해서도 안 되며, 다른 기술을 연마해서도 안 된다. 다스리는 사람에게는 이것만이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이다. 이런 탁월함이야말로 군주로 태어난 자에게는 자신의 지위를 유지하게 하고, 일반적인 개인으로 태어난 사람을 군주의 지위에 오를 수 있게 해 준다.

반대로 군대보다 삶의 달콤함을 더 생각하는 군주는 국가를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당신이 국가를 잃게 되는 첫째 이유는 이 기술을 무시하는 것이고, 당신이 국가를 얻게 되는 이유도 이 기술의 전문가가 되는 것에 달려 있다. 프란체스코 스포르차는 무장했기 때문에 평범한 개인에서 밀라노 공작이 될 수 있었다. 반면에 그의 아들들은 군대의 어려움을 피했기 때문에 공작이었다가 평범한 개인으로 전락하였다.

- 마키아벨리, 『군주론』

자료 풀이 마키아벨리는 국제 관계를 권력과 생존의 관점에서 바라보았던 대표적인 현실주의자로서, 지도자는 도덕보다 권력을 유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주장하였고, 국제 정치는 국가의 힘과 군사력이 결정한다고 보았다.

● 국제 관계에 대한 모겐소의 입장

모든 정치가 그러하듯 국제 정치는 권력을 얻기 위한 투쟁이다. 국제 정치의 궁극 목표가 무엇이든 간에 권력이 항상 일차적 목표이다. 정치가나 국민이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것으로는 자유, 안전 보장, 번영 혹은 권력 그 자체 등이 있다. 그들은 종교적·철학적·경제적·사회적 이상으로 각색하여 자신의 목표를 정의할 수 있다. 그들은 이상 자체가 지니는 내부적 힘에 의해서, 신에 의해서, 혹은 인간사의 자연스러운 발전에 의해서 그 이상이 실현되기를 바랄 수도 있다. 그들은 또한 다른 국가나 국제기구들과의 기술적 협력과 같은 비정치적 수단을 통해 이상의 실현을 촉진하려고 할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 정치에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할 때는 언제나 권력을 얻는 것으로 수단을 삼는다. …… 권력 투쟁이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보편적인 현상이며 경험적으로 보더라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사회적·경제적·정치적 조건과는 상관없이 오랜 역사를 통해 국가 간의 관계는 권력을 위한 경쟁의

현상이었다. 원시인들이 권력에 욕구를 느끼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 준 인류학자들도 있었지만, 그들의 마음속과 그들이 살던 상황 조건을 오늘날 세계적인 규모로 재생해 국제 무대에서 권력 투쟁을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 사람은 아직 없다. 지구상의 사람들 중에서 한두 민족을 권력 투쟁에서 해방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방치해 둔다는 것은 무의미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파멸을 초조하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권력에 대한 열망이 세계 모든 곳에서 사라질 수 없다면 권력 투쟁에서 해방된 민족은 그렇지 않은 다른 민족의 권력에 희생물이 될 뿐이다.

- 모겐소, 『국가 간의 정치』

자료 풀이 모겐소는 국제 정치가 도덕이나 이상이 아니라 국가의 힘과 이익을 중심으로 움직인다고 주장하였다. 그는 권력이 국제 정치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국가는 이러한 권력을 확보하기 위해 다른 국가와 동맹을 맺거나 전쟁을 감수한다고 보았다.

● 국제 관계에 대한 칸트의 입장

최고의 도덕적 입법권의 영예를 지닌 이성이 소송 절차로서의 전쟁을 절대적으로 탄핵하고 평화 상태를 직접적인 의무로서 부과한다고 해도, 국가 간의 제약이 없는 어떠한 평화도 정착될 수 없거나 또는 보장받을 수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특별한 종류의 연맹이 있어야만 한다. 그것은 평화 연맹이라고 할 수 있으며, 평화 조약과 구별될 수 있을 것이다. 후자는 단지 그때그때의 전쟁을 종식하는 것인 반면, 전자는 모든 전쟁의 영원한 종식을 추구하기 때문이다. 이 연맹은 국가의 권력에 대한 어떤 지배를 목표로 하지 않는다. 이 연맹은 국가 자체의 자유를 지속하고 보호하며, 그리고 자연 상태에서의 인간처럼 그 연맹에 참가한 다른 국가들로 하여금 시민법에 복종하게 하거나 강제적으로 구속해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한, 다른 국가들의 자유를 보호하고 지속할 뿐이다. 이 연맹의 이념은 서서히 모든 국가로 확산되지 않으면 안 되며, 그럼으로써 영원한 평화로 인도해 갈 이념의 실현 가능성은 분명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강력하게 계몽된 국민이 공화국을 형성할 수 있는 행운을 얻게 된다면 공화국은 그 본성상 반드시 영원한 평화로 갈 수밖에 없다.

- 칸트, 『영구 평화론』

자료 풀이 칸트는 국제 정치에서 협력의 가능성을 강조한 대표적인 이상주의 사상가로서, 국제 사회가 부정적 상태에 있지만

국가들이 규범과 제도를 통해 평화를 구축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폭력의 삼각형**

폭력은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의 삼각형에 있어 어떤 꼭지점에서든 시작될 수 있고 다른 꼭지점으로 쉽게 전달된다. 제도화된 폭력적 구조, 내면화된 폭력적 문화와 더불어 직접적 폭력은 또한 장기 간에 걸친 복수전처럼 제도화되고, 반복되고, 의식화되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다면 폭력에 대한 이러한 삼각형적 증후군은, 마음속에서 문화적 평화가 다양한 상대들 간의 공생적이고 동등한 관계와 더불어 구조적 평화를 낳고, 그리고 협력의 활동과 우정, 그리고 사랑과 더불어 직접적 평화를 낳는 평화의 신드롬과 대비되어야 한다. 그것은 사악한 삼각형이라기보다는 고결한 삼각형이며 또한 자기 강화적이다. 이 고결한 삼각형은 동시에 세 군데의 꼭지점에 대한 작업에 의해 획득될 수 있을 것이며, 어떤 하나에서의 기본적인 변화가 자동적으로 다른 두 군데에서의 변화를 유발할 것이라고는 가정되지 않는다.

- 갈통, 『평화적 수단에 의한 평화』

자료 풀이 갈통은 폭력을 직접적·구조적·문화적 폭력의 삼각형으로 설명하며, 이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강화된다고 보았다.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공생적 관계와 협력을 통해 평화의 삼각형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 **노직의 해외 원조론**

개인들은 권리를 가지고 있다. 어떤 사람이나 집단도 개인들에게 해서는 안 될 것들이 있다. 이를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권리를 침해하게 된다. 이 권리는 너무나도 강력하고 폭넓은 것이어서 만약 국가나 그 관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의문이 들 정도이다. …… 국가에 관한 주된 우리의 결론은 강요, 절도, 사기, 계약의 강제 등으로부터의 보호와 같은 좁은 기능들에 제한된 최소 국가는 정당화된다는 것이다. 그 이상의 포괄적 국가는 특정의 것들을 하도록 강제되지 않을 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것이다. 최소 국가는 옳을 뿐만 아니라 고무적이다. 이 결론들의 두 가지 주목할 만한 함축은 일부 시민들로 하여금 다른 사람들을 돕게 할 목적으로 또는 국가가 시민들 자신의 선과 보호를 위해 특정 행위를 금지할 의도로 강제적인 수단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

그러므로 고려해야 할 경우는 일정한 수입권 안에 드는 자들로서, 타인들이 기부하든 하지 않든 기부

확인 문제

1. 마키아벨리가 강조한 군주의 덕목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도덕성을 갖추는 것보다 통치자로서의 능력, 용기, 결단력 등을 갖추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특히 군주는 도덕이 아니라 국가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있어야 한다고 보았다.

2. 국제 관계에 대한 모겐소와 칸트의 입장을 각각 비교하여 써 보자.

| 예시 답안 |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데 있어서 모겐소는 현실주의, 칸트는 이상주의 입장을 취하였다. 모겐소는 각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며 국가 간 힘의 균형을 통해 평화를 유지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에 칸트는 법, 도덕, 협력 등을 중요시하면서 국제법과 국제기구를 통해 평화를 이룰 수 있다고 보았다.

3. 칸트가 영원한 평화를 위해 국제 연맹의 중요성을 강조한 까닭을 써 보자.

| 예시 답안 | 칸트는 개별 국가들이 서로 전쟁을 벌이는 것은 자연 상태에서 인간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보았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사이에도 법과 제도를 통한 질서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칸트는 국제 사회에서 국제 연맹과 같은 제도적 장치가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다.

4. 갈통이 제시한 평화의 종류를 써 보자.

| 예시 답안 | 갈통은 평화를 소극적 평화와 적극적 평화로 구분하였다. 소극적 평화는 전쟁, 폭력, 테러 같은 직접적 폭력이 없는 상태이고, 적극적 평화는 직접적 폭력은 물론 구조적·문화적 폭력 같은 간접적 폭력도 사라져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상태이다.

5. 갈통이 제시한 폭력의 '삼각형적 증후군'의 의미를 써 보자.

| 예시 답안 | 갈통은 폭력을 단순히 물리적 행위로만 보지 않고, 폭력이 작동하는 방식을 분석하기 위해 '폭력의 삼각형적 구조' 개념을 제시하였다. 그는 폭력을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이들이 서로 연결되면서 지속적인 폭력 체계를 형성한다고 보았는데, 이것을 '폭력의 삼각형' 또는 '삼각형적 증후군'이라고 하였다.

하길 거부하는 사람들의 경우이다. 그들은 공짜꾼이 되길 원하지 않는다. 그들은 도움을 주고받는 것에 대해 전혀 관심이 없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은 기부할 여력이 있는 모든 사람이 기부하는 경우에만 기부할 용의가 있을 수 있다. 기부자들은 모두가 기부하도록 강제되는 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며, 우리의 가설에 반대되는 재분배적 움직임은 파레토 최적에 보다 가까운 위치로의 그것이 아니다. 자신들의 소유물에 대해 소유 권리를 가진 자들을 강제하여 이들의 의사에 반하여 기부하게 하는 것은 도덕적 제약 사항을 위반하는 것이므로 그런 강제적 제도의 주창자는 사람들을 설득하여 자발적 기여의 체제를 따르지 않는 소수를 무시하도록 시도해야 한다.

— 노직, 『아나키에서 유토피아로』

자료 풀이 노직은 최소 국가론과 개인의 소유권을 강조하면서 국가의 역할을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 보호에 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입장을 토대로 자발적인 원조(기부)는 가능하지만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국가 차원의 원조는 정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 롤스의 해외 원조론

나는 비이상적 이론의 두 번째 종류, 즉 불리한 여건들로 고통을 받고 있는 사회들을 다룬다. 고통받는 사회들은 팽창적이지도 공격적이지도 않은 반면에 정치적이며 문화적인 전통들, 즉 인적 자본과 기술 수준, 종종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되는 데 필요한 물질적 및 과학기술적 자원들을 결핍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질서 정연한 사회들의 장기 목표는 무법 국가와 마찬가지로 고통받는 사회들을 질서 정연한 만민들의 사회로 가입시키는 것이어야 한다. 질서 정연한 만민은 고통받는 사회들을 원조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원조의 의무를 실행하게 하는 유일한 혹은 최선의 방법이 사회들 간의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고는 추정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분배 정의의 원칙들은 명확히 규정된 목적, 목표 또는 차단점을 가지지 않는다. 이러한 명확한 목적, 목표 또는 차단점을 넘어서게 되면 원조를 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사회들 간의 부와 복지의 수준들은 다양할 수 있고 그럴 것이라고 추정된다. 그러나 이런 부와 복지 수준을 조정하는 것은 원조 의무의 목표가 아니다. 단지 고통받는 사회들만 도움이 필요하다. 더구나 모

든 질서 정연한 사회가 부유한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회가 가난한 것은 아니다. 열악한 천연자원과 빈약한 부를 가진 사회라고 할지라도, 만약 그들의 종교적 및 도덕적 신념들과 문화가 그 기반이 되는 해당 사회의 정치적 전통, 법, 재산과 계급 구조가 자유적이거나 적정 수준의 사회를 유지하게 할 수 있는 정도라면, 질서 정연해질 수 있다. …… 원조의 목적은 고통받는 사회가 자신의 문제들을 합당하고 합리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 결과적으로 질서 정연한 국제 사회의 구성원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원조의 목표를 규정한다.

— 롤스, 『만민법』

자료 풀이 롤스는 해외 원조의 목표가 단순히 경제적 지원이 아닌 정치·사회적 구조를 개선하여 국가가 자립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보았다. 롤스는 기본적인 인권과 정의를 존중하는 국가들 간의 국제 협력을 강조하면서도 원조의 제공은 온정주의적인 방식으로 해서는 안 되며, 원조의 최종적인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세심히 계획된 방법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 싱어의 해외 원조론

내가 강의하러 가는 길에 얇은 장식용 연못을 지나다가 조그만 어린아이가 그 연못에 빠져서 죽을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부모나 보모가 어디에 있나 하고 주변을 보았지만, 놀랍게도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이가 빠져서 죽지 않도록 도와줄 사람은 바로 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연못으로 들어가서 그 아이를 건져 내는 것이 마땅하다는 것을 그 누가 부정하겠는가? 아이를 구하기 위해 연못으로 들어가면 내 옷은 진흙 투성이가 되고, 내 구두는 물에 젖고, 내 강의를 취소되거나 마른 것들을 찾아 갈아입을 때까지 연기될 것이다. 그러나 그 아이가 죽음을 피할 수 있다는 것과 비교하면 이러한 일들은 어느 것도 중요하지 않다.

내가 아이를 구해 내야만 한다는 판단을 지지하는 그럴듯한 원칙은 다음과 같은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에게 매우 나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지고 있고, 그 나쁜 일을 방지함으로써 그 일에 상당하는 도덕적 의미를 가진 다른 일이 희생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이 원칙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주의자들은 틀림없이 이에 동의할 것이다. 결과주의가 아닌 사람들 역시 받아들인다. 왜냐하면 나쁜 일을 막아야 한다는 명령은 이와 마찬가지로 중요한

어떤 것도 위험에 빠뜨리지 않을 때에만 적용될 것이기 때문이다. …… 돕지 않는 것은 그것이 본질적으로 죽이는 것과 같은 아니든 간에, 나쁜 일일 것이다. 돕는 것은 관습적으로 생각하듯이 하면 칭찬할 만한 가치가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나쁜 것은 아닌 그런 자선적인 행위가 아니다. 그것은 모든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하는 그러한 것이다.

- 싱어, 『실천윤리학』

자료 풀이 싱어는 강력한 윤리적 의무로서의 해외 원조를 강조하며 부유한 개인이 빈곤한 개인을 돕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도덕적 의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싱어의 해외 원조론은 세계시민주의를 토대로 효율적 이타주의 정신과 연결되며 불필요한 소비를 줄이고 빈곤 문제 해결의 당위적 우선성을 촉구한다.

● 세계시민의 도덕적 책임

2000년에 세계은행은 전 세계 빈곤층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기 위해 2015년까지 매년 약 500억 달러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예측하였다. 목표 달성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1인당 얼마나 돈을 내야 하는가? 선진국의 성인 6억 명이 매년 100달러씩 기부한다면 예산을 마련할 수 있다. 100달러는 선진국의 평균 연간 소득의 0.4%도 안 되는 액수이다.

1%는 0.4%보다 더 상징적인 수치가 될 것이다. 기존 정부 차원의 원조 활동에 더하여 경제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 소득의 1%를 기부한다면 우리 사회는 전 세계 빈곤층 인구를 절반으로 줄이는 것을 넘어서 완전히 없애 버리는 단계에까지 도달할 수 있다.

사람들은 흔히 자선을 도덕적으로 선택 가능한 일이라고 여긴다. 하면 좋지만 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사회는 타인을 다치게 하거나 죽이거나 물건을 훔치거나 사기를 치는 등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한 사람을 ‘도덕적인 시민’으로 인정한다. 흥청망청 소비하면서 자선 단체에는 한 푼도 기부하지 않은 사람이라도 말이다. 하지만 사치를 누릴 여유가 있으면서도 소득의 작은 일부조차 가난한 이들과 나누려 하지 않는 부자에게는 기부를 통해 막을 수 있는 죽음에 대한 책임이 있다. 이제 우리는 1%라는 최소한의 기준조차 지키지 않는 부유한 사람을 도덕적으로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바라봐야 한다. - 싱어, 『더 나은 세상』

자료 풀이 싱어는 국적과 상관없이 기부 여력이 있는 모든 부유한 사람은 연 소득의 일부를 기부해야 할 도덕적 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확인 문제

6. 노직이 해외 원조에 있어서 ‘의무론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비판한 까닭을 써 보자.

예시 답안 노직은 개인이 정당하게 획득한 재산은 본인의 자유에 따라 사용해야 하며 국가나 사회가 해외 원조를 강요하는 것은 개인의 소유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나아가 국가는 개인의 자유와 재산권을 보호하는 역할만 해야 하며 복지나 해외 원조를 위한 강제적 재분배를 하는 것은 국가의 역할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규정하였다.

7. 롤스가 제시한 해외 원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써 보자.

예시 답안 롤스에 따르면, 해외 원조의 목적은 단순히 고통 받는 국가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공정한 정치·경제 체제를 확립하여 질서 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8. 롤스가 “해외 원조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분배 정의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라고는 추정하지 않는다.”라고 말한 까닭을 써 보자.

예시 답안 롤스는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을 규제하는 차등의 원칙은 한 국가의 단일한 협력체 내에서만 적용되는 것이며 해외 원조는 이러한 재분배의 문제라기보다는 도덕적 책임과 연대의 문제로서 국제적 정의 또는 인도적 의무의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9. 싱어의 해외 원조론이 ‘세계시민주의’와 연결되는 까닭을 써 보자.

예시 답안 세계시민주의는 사람들이 민족이나 국가 같은 특정 공동체에 속한다는 전통적 관점에서 벗어나 인류가 하나의 보편적 세계에 속한다고 보는 입장이다. 이러한 세계시민주의 관점에서 싱어는 이익 평등 고려의 원칙에 따라 누구나 차별 없이 도움을 받아야 하며, 특히 눈앞에 보이지 않더라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모른 채하는 것은 잘못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싱어는 굶주림과 죽음을 방지하면 인류 전체의 고통이 증가하므로 원조를 통해 인류 전체의 복지를 극대화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0. 싱어의 해외 원조론이 ‘효율적 이타주의 정신’과 연결되는 까닭을 써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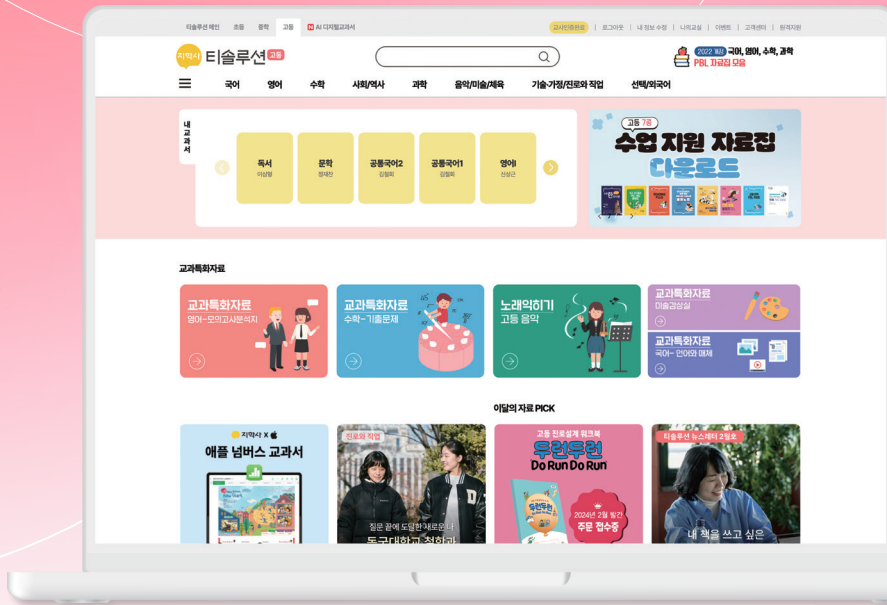
예시 답안 싱어는 해외 원조가 단순한 기부가 아니라 최대한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즉 같은 돈으로 더 많은 생명을 구할 수 있다면 가장 효과적인 곳에 기부하는 것이 도덕적으로도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았다.

수업 준비는 지학사 티솔루션

다양하고 풍부한 콘텐츠로 막힘없이 수업 준비하세요.



고등 티솔루션 바로가기



지학사 티솔루션의 다양한 콘텐츠 한눈에 보기!



단원별 수업 자료

수업 PPT, 활동지, 평가지, 멀티미디어 자료, 전자 저작물, 지도 계획표 등 다양한 수업 자료 제공



교과 특화 자료

보충 학습 및 심화 학습이 가능하도록 교과 특화 자료 제공



진로&직업

전국 학과 정보 및 재학생 인터뷰, 다양한 분야의 직업 정보 제공



이벤트&서비스

소소한 활력을 주는 다양한 이벤트와 선생님 전용 뉴스레터 서비스 제공

티솔루션의 소식을 더 빠르게 확인하세요!

티솔루션의 다양한 채널을 통해 새로운 콘텐츠 및 이벤트 소식을 받을 수 있어요!



카카오톡 채널



블로그



유튜브



고등 현대사회와 윤리 교수·학습 자료집

능력 있는 윤리 선생님의 비밀 노트

이 자료는 (주)지학사에서 만든 것으로,
자료집 파일(PDF)은 지학사 티솔루션 사이트
(<https://tsol.jihak.co.kr>)에서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주)지학사
[우] 04056 서울특별시마포구 신촌로6길5
문의: 02-330-5490

이 책에 대한 저작권은 (주)지학사에 있습니다.
(주)지학사의 서면 동의 없이는 이 책의 체재와 내용 중
일부나 전부를 모방 또는 복사, 전재할 수 없으며,
판매할 수 없습니다.